2009– 정책개발 – 017

서울시 지역(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조 연 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주 섭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 상 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김 지 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contents

Ⅰ. 서 론 ● 0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가. 연구의 배경 ····· 3
   나. 연구목적 ····· 6

2. 연구의 방법과 절차 ····· 7
   가. 연구 및 조사 설계 단계 ····· 7
   나. 권역별 사업체의 인력수요 및 정책추진실태 조사 ····· 10
   다.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안 제시 ····· 11

3. 선행연구의 검토 ····· 12

Ⅱ. 서울시 노동시장의 특성과 권역별 특성화 요소 도출 ● 17

1. 서울시 여성인적자원 및 노동시장 분석 ····· 19
   가. 서울시 여성인적자원의 특성 ····· 19
   나. 서울시 고용현황 및 여성인력수요 분석 ····· 26
   다. 소결 ····· 35

2.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요소 ····· 36
   가. 서울시 산업구조 및 사업체 분포의 특성 ····· 36

나. 서울시 산업정책 및 전략산업의 방향 ····· 45
다. 여성인적자원 활용의 특성 ····· 56
라. 소결 ····· 62

3. 서울시 여성인력개발 관련 정책 현황 ····· 63
가. 서울시 여성능력개발 및 활용 관련 정책 ····· 63
나.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관련 정책추진 실태 ····· 72
다. 소결 ····· 90

Ⅲ. 권역별 사업체의 여성인력수요 조사결과 분석 ● 97

1. 조사설계 및 대상의 일반적 특성 ····· 99
가. 조사 설계 ····· 99
나. 사업체의 인력현황 분석 ····· 105

2. 권역별·업종별 사업체의 인력수급 현황 ····· 116
가. 최근 3년간(2007~2009.5) 신규인력 채용 현황 ····· 116
나. 성별·연령별 채용 현황 ····· 118
다. 신규인력 채용의 주요 방법 ····· 121
라. 신규인력 채용시 고려요인 ····· 123
마. 신규인력 채용시 애로사항 ····· 132

3. 권역별·업종별 향후 사업체 인력수급 계획 ····· 133
가. 향후 3년간(2009. 6~2011) 신규인력 채용 계획 ····· 133
나. 권역별·업종별 향후 신규채용 규모 ····· 135
다. 신규인력 채용의 선호 요소 ····· 142
라. 향후 채용예정 인원의 교육훈련 수요분석 ····· 143
마. 근로형태의 유연화 활용현황 및 계획 ····· 147

4. 권역별·업종별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인력 활용 ····· 158
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인력 활용 의향 ····· 158
나.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인력의 주요 활용업무 ····· 161
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 169

5.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인지도 ····· 171
가.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인지도 ····· 171
나. 권역별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수요 ····· 174
다. 맞춤형 인력양성필요성 인식여부 ····· 182

6. 서울시 여성인력개발 지원정책의 방향 ····· 184
가. 잠재적 여성인력에 대한 연수 및 체험 지원 ····· 185
나. 여성고용에 대한 장려금 지급 ····· 187
다.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훈련시설의 확충 및 지원 ····· 189
라. 채용박람회 등 여성채용정보제공의 활성화 ····· 190
마. 여성재직자의 근로능력향상(재직자 훈련 활성화) ····· 192

Ⅳ.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안 ● 195

1.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향 ····· 197

2.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요소 도출 ····· 198
가. 도심권 ····· 198
나. 동남권 ····· 205
다. 동북권 ····· 213
라. 서남권 ····· 219
마. 서북권 ····· 227

3. 소 결 ····· 235

Ⅴ. 결 론 ● 241

1. 요약과 논의 ····· 243

2.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를 위한 과제 ····· 246

3. 연구의 한계 ····· 249

참고문헌 ● 251

부 록 ● 253

1. 기업체 여성인력수요 조사 질문지 ····· 255
2. 자치구 여성인력개발 관련 정책 현황 조사 질문지 ····· 266

● 표 목차

▌표 Ⅰ-1▐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회의 요약 ····· 10
▌표 Ⅰ-2▐ 지역 특성 및 고용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요약 ····· 15
▌표 Ⅱ-1▐ 연령별 인구 분포 현황 ····· 20
▌표 Ⅱ-2▐ 평균 교육년수 (30세 이상 인구) ····· 21

▌표 II-3▐ 6세 이상 인구의 교육정도별 분포(서울시-전국) ····· 21
▌표 II-4▐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분포 ····· 22
▌표 II-5▐ 서울시 여성인구의 권역별 교육정도별 분포 ····· 23
▌표 II-6▐ 서울시 경제활동 인구 현황(2007년) ····· 25
▌표 II-7▐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 ····· 25
▌표 II-8▐ 구인, 채용 및 미충원 현황 ····· 27
▌표 II-9▐ 규모별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 27
▌표 II-10▐ 산업별 구인인원, 채용인원 및 미충원율 ····· 28
▌표 II-11▐ 직종별 구인인원, 채용인원 및 미충원율 ····· 29
▌표 II-12▐ 규모별 직능수준별 미충원율 ····· 30
▌표 II-13▐ 직종별 직능수준별 미충원인원 ····· 31
▌표 II-14▐ 현원,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 ····· 32
▌표 II-15▐ 기업규모별 현원 부족인원 부족률 및 채용계획인원〉 ····· 32
▌표 II-16▐ 산업별 인력부족률 및 채용계획인원 ····· 33
▌표 II-17▐ 직종별 인력부족률 및 채용계획인원 ····· 34
▌표 II-18▐ 연도별 산업별 생산량 비교 ····· 37
▌표 II-19▐ 권역별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분포현황 ····· 39
▌표 II-20▐ 권역별 산업(중분류)별 사업체 분포현황 ····· 40
▌표 II-21▐ 성별 권역별 종사자분포 현황 ····· 44
▌표 II-22▐ 성별 권역별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현황 ····· 45
▌표 II-23▐ 전략산업 선정기준별 분석결과 요약 ····· 49
▌표 II-24▐ 서울시의 4대 전략산업 ····· 50
▌표 II-25▐ 권역별 특화산업 ····· 51
▌표 II-26▐ 서울시 권역별 산업 뉴타운 프로젝트 대상지 현황 ····· 53
▌표 II-27▐ 권역별 사업체구분별 사업체 현황 및 특성화 산업 ····· 55
▌표 II-28▐ 유망업종 및 직종 관련 선행연구 ····· 59

▌표 II-29▐ 권역별·업종별 산업체의 여성종사자 분포 ····· 61
▌표 II-30▐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교육 실적 ····· 64
▌표 II-31▐ 권역별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 프로그램 유형 분포 ····· 65
▌표 II-32▐ 4개 시립전문학교 운영실적(2003~2007) ····· 67
▌표 II-33▐ 이용자 대상자별 직업훈련실적 추이 ····· 68
▌표 II-34▐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현황 ····· 69
▌표 II-35▐ 권역일꾼 끌어내기 사업 현황(2009년) ····· 71
▌표 II-36▐ 권역별 인력개발 관련 계획 수립 현황 ····· 73
▌표 II-37▐ 권역별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사업 현황 ····· 74
▌표 II-38▐ 권역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 75
▌표 II-39▐ 도심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계획의 내용 ····· 76
▌표 II-40▐ 도심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 현황 ····· 77
▌표 II-41▐ 도심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 78
▌표 II-42▐ 동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계획의 내용 ····· 79
▌표 II-43▐ 동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 현황 ····· 80
▌표 II-44▐ 동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 81
▌표 II-45▐ 동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계획의 내용 ····· 82
▌표 II-46▐ 동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 현황 ····· 83
▌표 II-47▐ 동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 84
▌표 II-48▐ 서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계획의 내용 ····· 85
▌표 II-49▐ 서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 현황 ····· 86
▌표 II-50▐ 서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 87
▌표 II-51▐ 서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계획의 내용 ····· 88
▌표 II-52▐ 서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 현황 ····· 89
▌표 II-53▐ 서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 90
▌표 II-54▐ 여성능력개발 교육훈련 분야의 권역별 특성 요약 ····· 91

▌표 Ⅱ-55▐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적자원개발 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92
▌표 Ⅱ-56▐ 자치구 차원의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추진 현황 요약 ·····93
▌표 Ⅱ-57▐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기관 현황 ·····94
▌표 Ⅲ-1▐ 조사 설계 ·····99
▌표 Ⅲ-2▐ 기업체 모집단 현황 ·····101
▌표 Ⅲ-3▐ 기업체 여성인력수요 조사 항목 ·····102
▌표 Ⅲ-4▐ 기업체 여성인력수요 조사 현황 ·····103
▌표 Ⅲ-5▐ 사업체 여성인력수요 조사의 업종별 모집단 및 표본집단 구성 현황 ···105
▌표 Ⅲ-6▐ 사업체 고용형태별 종사자 인력 현황 ·····106
▌표 Ⅲ-7▐ 고용형태의 권역별 여성구성비 ·····107
▌표 Ⅲ-8▐ 고용형태의 업종별 여성구성비 ·····108
▌표 Ⅲ-9▐ 권역별 사업체의 연령대별 구성비 ·····109
▌표 Ⅲ-10▐ 업종별 사업체의 연령대별 구성비 ·····110
▌표 Ⅲ-11▐ 성별 근로형태별 구성비 ·····112
▌표 Ⅲ-12▐ 근무형태의 권역별 여성구성비 ·····112
▌표 Ⅲ-13▐ 여성근로자의 업종별 근무형태별 구성비 ·····113
▌표 Ⅲ-14▐ 근로자의 성별 지위분포 현황 ·····114
▌표 Ⅲ-15▐ 여성근로자의 권역별·업종별 지위 분포 ·····115
▌표 Ⅲ-16▐ 권역별·업종별 신규인력 채용여부 ·····117
▌표 Ⅲ-17▐ 사업체의 권역별·업종별 평균 여성채용 현황 ·····119
▌표 Ⅲ-18▐ 연령별·연도별 여성 채용 현황 ·····120
▌표 Ⅲ-19▐ 업종별 신규인력 채용 시 주로 이용하는 방법 ·····122
▌표 Ⅲ-20▐ 신규인력 채용시 각 항목 고려정도 및 실제 업무 생산성 기여도 ·····125
▌표 Ⅲ-21▐ 성별 요인의 고려정도와 실제 생산성에의 기여도 ·····126
▌표 Ⅲ-22▐ 연령 요인의 고려정도와 실제 생산성에의 기여도 ·····127

▌표 Ⅲ-23▐ 학력 요인의 고려정도와 실제 생산성에의 기여도 ····· 128
▌표 Ⅲ-24▐ 전공 요인의 고려정도와 실제 생산성에의 기여도 ····· 129
▌표 Ⅲ-25▐ 특정기술 보유여부에 대한 고려정도와 실제 생산성에의 기여도 ····· 130
▌표 Ⅲ-26▐ 자격증 소지여부 요인의 고려정도와 실제 생산성에의 기여도 ···· 131
▌표 Ⅲ-27▐ 직업의식 고려정도와 실제 생산성에의 기여도 ····· 132
▌표 Ⅲ-28▐ 권역별·업종별 신규인력 채용 계획 ····· 134
▌표 Ⅲ-29▐ 권역·업종별 신규인력 채용계획인원 수 ····· 135
▌표 Ⅲ-30▐ 직종별 채용예상 인력 현황 ····· 137
▌표 Ⅲ-31▐ 권역별·업종별 채용 예정 직종 ····· 140
▌표 Ⅲ-32▐ 채용인력의 특성별 선호요인 ····· 142
▌표 Ⅲ-33▐ 채용 전 교육훈련 필요인원 및 훈련수준 ····· 144
▌표 Ⅲ-34▐ 채용 전 교육훈련 수요 ····· 144
▌표 Ⅲ-35▐ 향후 채용예정 인원의 직종별 교육훈련수요 ····· 146
▌표 Ⅲ-36▐ 다양한 근로형태 유연화 제도의 활용현황 ····· 147
▌표 Ⅲ-37▐ 권역별·업종별·기업규모별 근로형태 유연화 활용 현황 ····· 149
▌표 Ⅲ-38▐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및 활용예정 인력의 인적 특성 ····· 150
▌표 Ⅲ-39▐ 근로형태의 유연화 활용 예정 직종 - 탄력적 근로시간제 ····· 151
▌표 Ⅲ-40▐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및 활용예정 인력의 인적 특성 ····· 152
▌표 Ⅲ-41▐ 근로형태의 유연화 활용 예정 직종 - 선택적 근로시간제 ····· 153
▌표 Ⅲ-42▐ 외근 근로시간제 활용 및 활용예정 인력의 인적 특성 ····· 154
▌표 Ⅲ-43▐ 근로형태의 유연화 활용 예정 직종 - 외근 근로시간제 ····· 155
▌표 Ⅲ-44▐ 재량 근로시간제 활용 및 활용예정 인력의 인적 특성 ····· 156
▌표 Ⅲ-45▐ 근로형태의 유연화 활용 예정 직종 - 재량 근로시간제 ····· 157
▌표 Ⅲ-46▐ 권역별·업종별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인력 활용의향 ····· 159
▌표 Ⅲ-47▐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업무 - 도심권 ····· 163
▌표 Ⅲ-48▐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업무 - 동남권 ····· 164

▌표 Ⅲ-49▐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업무 - 동북권 ····· 165
▌표 Ⅲ-50▐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업무 - 서남권 ····· 167
▌표 Ⅲ-51▐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업무 - 서북권 ····· 168
▌표 Ⅲ-52▐ 업종별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 지원방안 ····· 170
▌표 Ⅲ-53▐ 서울시 소재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권역별·업종별 인지도 (5점척도) ····· 172
▌표 Ⅲ-54▐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 필요성 인식정도 ····· 173
▌표 Ⅲ-55▐ 도심권 여성교육훈련기관 수행 희망 교육 ····· 175
▌표 Ⅲ-56▐ 동남권 여성교육훈련기관 수행 희망 교육 ····· 176
▌표 Ⅲ-57▐ 동북권 여성교육훈련기관 수행 희망 교육 ····· 178
▌표 Ⅲ-58▐ 서남권 여성교육훈련기관 수행 희망 교육 ····· 179
▌표 Ⅲ-59▐ 서북권 여성교육훈련기관 수행 희망 교육 ····· 181
▌표 Ⅲ-60▐ 맞춤형 인력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권역별·업종별 인식 ····· 183
▌표 Ⅲ-61▐ 권역별·업종별 잠재적 여성인력에 대한 연수 및 체험 지원의 시급성 ····· 186
▌표 Ⅲ-62▐ 권역·업종별 여성고용에 대한 장려금 지급의 시급성 ····· 187
▌표 Ⅲ-63▐ 권역·업종별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훈련시설의 확충 및 지원의 시급성 ····· 189
▌표 Ⅲ-64▐ 권역·업종별 채용박람회 등 여성채용정보제공 활성화의 시급성 · 191
▌표 Ⅲ-65▐ 권역·업종별 여성재직자 근로능력향상의 시급성 ····· 193
▌표 Ⅳ-1▐ 도심권 여성인적자원의 학력분포 ····· 199
▌표 Ⅳ-2▐ 도심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 199
▌표 Ⅳ-3▐ 도심권 자치구별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 현황 ··· 200
▌표 Ⅳ-4▐ 도심권의 산업체 특성에 따른 특성화 업종선정 결과 ····· 201
▌표 Ⅳ-5▐ 도심권 조사업종별 인력채용 규모 및 추이 ····· 202
▌표 Ⅳ-6▐ 업종별 예상 채용직종 및 교육훈련 과목 ····· 203

▌표 Ⅳ-7▐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주요 활용업무-업종별 순위 ····· 204
▌표 Ⅳ-8▐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요 ····· 205
▌표 Ⅳ-9▐ 서울시 여성인구의 권역별 교육정도별 분포 ····· 206
▌표 Ⅳ-10▐ 동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 206
▌표 Ⅳ-11▐ 동남권 자치구별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 현황 ···· 207
▌표 Ⅳ-12▐ 도심권의 산업체 특성에 따른 특성화 업종 ····· 208
▌표 Ⅳ-13▐ 동남권 조사업종별 인력채용 규모 및 추이 ····· 209
▌표 Ⅳ-14▐ 업종별 예상 채용직종 및 교육훈련 과목 ····· 210
▌표 Ⅳ-15▐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주요 활용업무-업종별 순위 ····· 211
▌표 Ⅳ-16▐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요 ····· 212
▌표 Ⅳ-17▐ 동북권 여성인구의 권역별 교육정도별 분포 ····· 213
▌표 Ⅳ-18▐ 동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 214
▌표 Ⅳ-19▐ 동북권 자치구별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 현황 ··· 214
▌표 Ⅳ-20▐ 동북권의 산업체 특성에 따른 특성화 업종 ····· 215
▌표 Ⅳ-21▐ 동북권 조사업종별 인력채용 규모 및 추이 ····· 216
▌표 Ⅳ-22▐ 업종별 예상 채용직종 및 교육훈련 과목 ····· 217
▌표 Ⅳ-23▐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주요 활용업무-업종별 순위 ····· 218
▌표 Ⅳ-24▐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요 ····· 219
▌표 Ⅳ-25▐ 서남권 여성인구의 권역별 교육정도별 분포 ····· 220
▌표 Ⅳ-26▐ 서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 221
▌표 Ⅳ-27▐ 서남권 자치구별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 현황 ···· 221
▌표 Ⅳ-28▐ 서남권의 산업체 특성에 따른 특성화 업종 ····· 222
▌표 Ⅳ-29▐ 서남권 조사업종별 인력채용 규모 및 추이 ····· 223
▌표 Ⅳ-30▐ 업종별 예상 채용직종 및 교육훈련 과목 ····· 224
▌표 Ⅳ-31▐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주요 활용업무-업종별 순위 ····· 226
▌표 Ⅳ-32▐ 서남권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요 ····· 227

▌표 Ⅳ-33▌ 서울시 여성인구의 권역별 교육정도별 분포 ····· 228
▌표 Ⅳ-34▌ 서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 228
▌표 Ⅳ-35▌ 서북권 자치구별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 현황 ··· 229
▌표 Ⅳ-36▌ 서북권의 산업체 특성에 따른 특성화 업종선정 결과 ····· 230
▌표 Ⅳ-37▌ 서북권 조사업종별 인력채용 규모 및 추이 ····· 231
▌표 Ⅳ-38▌ 업종별 예상 채용직종 및 교육훈련 과목 ····· 232
▌표 Ⅳ-39▌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주요 활용업무-업종별 순위 ····· 233
▌표 Ⅳ-40▌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요 ····· 234
▌표 Ⅳ-41▌ 도심권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교육기관의 훈련 ····· 236
▌표 Ⅳ-42▌ 동남권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교육기관의 훈련의 특성화 방안 ·· 237
▌표 Ⅳ-43▌ 동북권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교육기관의 훈련 ····· 237
▌표 Ⅳ-44▌ 서남권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교육기관의 훈련 ····· 238
▌표 Ⅳ-45▌ 서북권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교육기관의 훈련 ····· 239
▌표 Ⅳ-46▌ 권역별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형태 유연화 활용 직종 ···· 240
▌표 Ⅴ-1▌ 권역별·업종별 정책지원 방안 ····· 248

●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의 방법과 절차 ····· 12
▌그림 Ⅱ-1▌ 연령별 여성 인구구조 ····· 19
▌그림 Ⅱ-2▌ 연령계층별 취업자 분포 ····· 26
▌그림 Ⅲ-1▌ 권역별 업종선정절차 및 결과 ····· 100
▌그림 Ⅲ-2▌ 최근 3년간 성별 채용 현황 ····· 118
▌그림 Ⅲ-3▌ 최근 3년간 연령별 채용 현황 ····· 120

▌그림 Ⅲ-4▐ 신규인력 채용시 주로 이용하는 방법(1순위) ····· 121
▌그림 Ⅲ-5▐ 신규인력 채용시 요인별 고려 정도 ····· 123
▌그림 Ⅲ-6▐ 신규인력 채용시 요인별 기여 정도 ····· 124
▌그림 Ⅲ-7▐ 신규인력 채용시 애로사항 ····· 133
▌그림 Ⅲ-8▐ 향후 3년 신규인력 채용 계획 ····· 133
▌그림 Ⅲ-9▐ 근로형태의 유연화 활용 현황 ····· 148
▌그림 Ⅲ-10▐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활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 ····· 160
▌그림 Ⅲ-11▐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인력 활용 직무 ····· 161
▌그림 Ⅲ-12▐ 서울시 여성교육훈련기관 인지도 ····· 171
▌그림 Ⅲ-13▐ 필요한 이유 ····· 182
▌그림 Ⅲ-14▐ 서울시 정책적 지원과 관련한 시급성 ····· 185

▣ 연구요약

Ⅰ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전략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려는 효율적인 접근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인적자원개발이 일방적이고 종합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개발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이와 같은 인적자원의 개발은 곧 고용과 연계되어 인적자원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은 논의는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함께 중앙정부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 정책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지역 인적자원개발이나 권역별 노동시장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임. 거시 노동시장의 문제가 동일 지역 내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분권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기반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임

○ 서울시는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혁신 역량을 분석하고, 지역혁신발전 방안을 지역산업, 인력, 혁신주체 및 네트워크 강화, 지역혁신기반 등으로 구분하고, 서울지역의 산업정책 및 관련 인적자원개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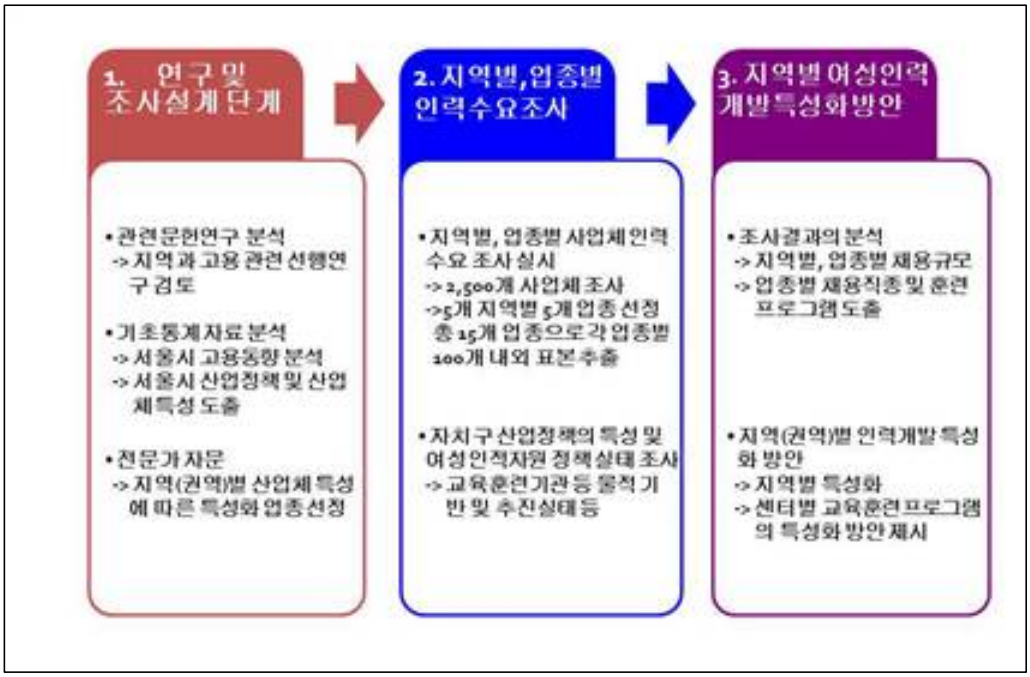
- 여성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2009년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기관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능력개발과 여성인력의 활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취·창업 상담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 이전에 사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과정 이수 후에 취업과 연계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사업을 실시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본 연구는 수도권이 지역내 총생산, 인구, 고용집중도 등에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산업 및 인적자원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서울시 전역의 지역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각 권역별 특성화를 꾀하고자 함. 즉,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의 특성화를 위해 5개 권역별 집중 산업 및 전략산업의 업종을 파악하고 이들의 인력수요 및 가능성에 따른 여성인적자원개발의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방법과 절차

○ 연구는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수행되었음. 각 단계별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연구 및 조사 설계 단계에서는 지역과 고용관련 선행연구 검토, 기초통계자료 분석에서 서울시 지역별 산업체 특성의 초안을 구성함. 이를 토대로 관계자 자문을 통해서 서울시 5개 지역별로 특성화 업종을 선정함
-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별로 선정된 업종의 사업체를 표본추출하여 최근 3년간 인력채용경험 및 향후 채용계획 등 인력수요, 채용예정인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 등을 조사·분석함. 또한 지역별 인적·물적 환경 및 서울시와 자치구 여성인적자원 관련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조사·분석함
- 셋째,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별·업종별 인력채용 규모, 업종별 채용직종 및 훈련프로그램을 도출함. 이와 함께 지역별로 인력개발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연구의 절차와 방법

II 서울시 노동시장의 특성과 지역별 특성화 요소 도출

1. 서울시 여성인적자원 및 노동시장 분석

○ 서울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인구의 비율이 약간 높음. 여성인적자원의 특징을 요약하면,

- 여성인구는 서울시 총 인구의 50.4%를 차지하며, 20대 미만 연령층을 제외하고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40대, 20대 순임.
- 평균 교육년수도 전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서울시 여성은 2005년 기준 평균 11.3년으로 전국평균보다 1.3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높아 서울시는 학력수준에서 고학력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1.7%로 남성(74.7%)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큰 변화는 없음. 이와 같은 현상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여성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인력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먼저, 수요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사업체에서는 어떠한 인력을 선호하는지, 예를 들면, 교육수준이나 전공, 전문기술이나 지식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이고 특별히 고학력 여성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고학력 여성에게 적합한 업무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용자의 요구조사를 통해서 파악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인력의 공급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체 수요조사에 기초한 필요인력의 능력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여성인력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임

❍ 2008년 하반기 서울시 인력수요동향 조사에 대해 분석해보면,

- 첫째,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의 인력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남. 따라서 중소기업에서의 인력수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인력수요가 있는 업종 및 직종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직능수준별 미충원인원에 대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에서의 인력미충원 인원은 주로 1수준의 직능수준 보유 인력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장기간의 고급인력 양성과정보다는 단기 인력양성과정이 오히려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셋째, 직종별 채용계획인원에 따르면, 채용계획인원이 많은 직종은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금융,보험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순으로 조사되었음. 이들 직종은 고학력 여성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직종인 것으로 추측되는 바, 이들 직종에서의 인력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2. 서울시 지역(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요소

❍ 서울시 지역별 산업특성 및 여성인력개발 특성화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서울시의 산업구조 및 산업특성을 서울시의 5개 권역으로 연계하여 파악함

- 먼저, 서울시 산업은 2차 산업인 제조업이 감소하는 반면, 3차 산업인 금융보험업의 증가추세에 있고 전반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산업체 종사자 중 여성비율은 41%로 남성 59%에 비해 약 20% 가까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둘째, 서울시는 첨단 및 지식산업의 집적지로써, 정보서비스나 문화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출판·인쇄, 의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등의 산업이 전문화되고 있음

○ 지역별로 산업체 특성과 서울시 산업정책 전략, 기존의 특화 산업 연구 등을 종합·정리하여 지역별 특화산업의 업종을 도출하였음. 여기에서 도출한 지역별 특화산업 및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사업체 인력수요조사를 위해 최종 선정된 업종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 지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를 위해서 기존 연구를 통해서 여성유망 직종과 취업 권장 직종 등을 조사하여 여성이 진출하기 좋은 업종 및 직종을 선별하였음.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업종을 살펴보면, 보건업,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와 사업·금융 및 사무관련업종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점차 여성진출 업종이 확대되어 과학·공학 및 정보시스템 관련분야,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및 관리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지역별 산업 특성 및 최종 선정업종

구 분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서울시 산업정책	기존 특성화 업종	최종 선정업종
도심권	– 사업체:전체의 20.0%, – 종사자:전체의 19.9%	– 1차뉴타운: 종로귀금속 및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클러스터,중구 금융지역 – 2차 뉴타운: 성북구 IT	패션·문화,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등	–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출판업 – 전문서비스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동남권	– 사업체:전체의 24.9% – 종사자:전체의 33.4%	– 성동구: 성수IT, 양재 R&D – 기존산업클러스터: 성동–패션, 강동–지식정보,송파–바이오 등	출판, IT,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구 분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서울시 산업정책	기존 특성화 업종	최종 선정업종
동북권	- 사업체:전체의 19.3% - 종사자:전체의 13.1%	- 1차: 미지정 - 2차:강북-봉제, 중랑-의류/패션, 도봉,섬유 등	패션,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서남권	- 사업체:전체의 18.7% - 종사자:전체의19.3%	- 1차:영등포구-금융, - 2차:구로-IT, 첨단제조	금융·바이오, 제조업 등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서북권	- 사업체:전체의 17.0% - 종사자:전체의14.3%	- 1차:마포-출판,문화예술인프라 - 2차:은평-식품제조, 강서-IT	교육, 영상문화, 음식점 및 주점업 등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출판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전문서비스업 - 보건업

3. 서울시 여성인력개발 관련 정책 현황

○ 서울시 여성의 인력개발과 관련한 정책은 시와 자치구의 두 가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서울시는 여성능력개발원, 4개 발전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통해서 경제활동참여를 돕도록 지원하고 있음. 또한 15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과 함께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취·창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지역일꾼 끌어내기 프로그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각 프로그램별 특성을 지역별로 도출·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한 두 개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통적으로 컴퓨터, 회계 및 사무 관련, 요리 및 서비스직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지역여성인력개발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음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교육서비스직, 사무관련직,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직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남권은 IT 관련직, 사업서비스직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서북권은 금융 및 보험 관련직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셋째, 지역일꾼 끌어내기 프로그램에서는 지역별로 다소 차별화 되는 특징이 발견됨. 도심권은 회계 및 사무관리와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동남권은 사무관련직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동북권은 음식 및 숙박 관련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복 및 패션 디자인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서남권은 출판디자인, 의복 및 패션, IT, 교육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차별화하고 있음. 서북권은 출판 및 편집 관련, 영상 및 오디오, 교육서비스, 사업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타 지역과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여성능력개발 교육훈련 분야의 지역별 공통적 특성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도심권과 동남권은 회계 및 사무관련직 교육훈련이 세 개 교육훈련 분야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음. 이는 도심권과 동남권이 주로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밀집지역으로써 사무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은 도심권과 동남권과 대조적으로 주거공간의 비중이 높은 특성이 반영되어 교육서비스 관련 교육훈련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이 발견되었음. 그러나 도출된 교육훈련 분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III 지역별 사업체의 여성인력수요 조사 결과 분석

❍ 서울시 지역별 산업체 특성 도출을 위해 서울시 산업정책 및 전략, 지역별 산업체 및 종사자 분포 분석, 기존 여성유망 직종에 대한 문헌 분석, 관계자 및 지역전문가를 통한 정성회의를 거쳐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로 5개 업종을 선정하였음. 선정된 5개 업종의 사업체를 표본 추출하여 각 사업체의 여성인력수요 및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 업무 방안,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서울시 2,500개 사업체, 15개 업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지난 3년간 지역별 ·업종별 사업체의 인력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규채용 경험이 '있다'가 86.2%, '없다'가 13.8%로 나타났으며, 주요 채용업종은 사회복지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4%, 교육서비스 93.3%로 서비스 분야 및 컴퓨터 관련 분야의 신규채용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섬유제품 제조업(조사업체의 78.4%) 등 제조업 분야의 신규채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시 전체 산업체의 생산량 증감현상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서울시 산업은 전체적으로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 신규채용이 가장 많은 곳은 도심권으로 조사업체의 33.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동남권으로 19.6%, 서남 16%의 순으로 나타났음. 서북권과 동북권은 각 14.4%, 11%로 낮은 비중을 나타냈음
- 성별로 주로 여성친화적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교육 및 사회복지서비스나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여성비율은 80%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업종에서 여성은 20%미만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외에 IT분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2.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여성채용 비율은 40% 내외로 향후 이와 같은 업종에서 여성의 진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향후 인력수급 계획에 대한 조사에서는 다소 비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채용계획이 '있다'는 37%, '없다'는 30%, '모르겠다'는 약 33%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답변은 최근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기불황에 따른 것으로 실제 그렇다기 보다는 불확실성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됨

- 지역별로 도심권에서 5개의 조사업종 가운데 출판업과 전문서비스업의 채용계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동남권에서는 전문서비스업(55.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43.7%)이, 동북권은 교육서비스업(40.9%), 사회복지서비스업(39.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40%) 등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채용계획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특히 동북권은 사

업체 및 종사자 규모가 5개 지역 중 작은데 이는 주거지역의 비중이 높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서남권은 교육서비스가 44%, 서북권은 전문서비스 44%,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41.6%로 채용계획이 있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예정인원의 교육훈련 수요는 전체 조사업체의 약 20% 이내로 높지 않음. 3개월 미만의 단기교육 수요는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직, 자동차 운전 관련직,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과 학교교사나 간호사 등 전문직도 포함되어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자격증 소지를 전제로 한 훈련수요로 판단됨.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의 교육훈련 수요를 갖는 직종은 직물·모피·가죽 등 의복 가공 관련직이 4.8개월, 전기·전자 공학,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도 4.3개월 정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교육훈련 기간이 비교적 긴 직종으로는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치료사, 환경장치 조작원, 보건의료, 디자인, 기자 등으로 조사되었음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유연화가 필요함. 선정된 업종의 사업체에 대한 근로형태 유연화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10% 내외의 사업체에서 활용 혹은 활용계획이 있음을 나타냄. 특히 유연화된 근로형태의 활용이 높은 업종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 이들 업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전통적으로 여성친화적 업종에서 근로형태 유연화의 활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의향에 대해 조사업체의 약 1/3인 33%는 활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2/3는 활용의향이 없는 것으로 응답되었음

- 지역별로 활용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서남권, 동북권이며, 낮은 곳은 도심권과 서북권임
- 업종별로는 역시 교육서비스업이나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여성친화적 업종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출판업 43.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5%, 창작·예술, 여가 관련 서비스업 34.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 의향이 높게 나타남
- 주요 활용 업무에는 보육교사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서류관리 등 사무

직, 회계 및 세무회계, 간호사, 어린이집 교사, 영업, 소프트웨어 개발, 보육도우미, 취재기자, 의류디자인 업무 등이 제시되어 이와 같은 직종에 대한 활용 방안 수립이 필요함

IV 지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안

❍ 지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 특성화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학력수준, 연령대, 전문분야나 전문성 수준 등이 포함된 사업체의 구인수요 및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물적 기반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었음. 조사업종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안을 각 권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심권은 출판,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분야 여성인력수요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도심권의 경우 출판이나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인력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서울시의 산업정책의 전략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과목의 개발과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연계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여성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출판, 창작 및 예술 관련 여가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협회와 연계하면 효율적인 교육훈련 및 취·창업과 연계될 수 있을 것임
- 동남권은 의류·패션,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및 통신장비 제조, 전문서비스업 분야의 여성인력수요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동남권은 현재 서울시 산업정책의 방향에 따라 1, 2차 산업뉴타운 계획에 패션, IT, 지식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업종의 사업체 인력수요조사에서도 전자부품·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 제조, 전문서비스업 분야의 인력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훈련 과목의 개발 및 여성인력활용 연계방안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훈련 및 취·창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동북권은 교육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인력수요의 증가가 예상됨. 동북권은 주거지역의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사업체 및 종사자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지역 특성은 사업체의 특성에서도 도출되고 있음. 교육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 등 주거지역과 연계된 업종이 발달하고 활성화되는데,

인력수요도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인력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서남권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서남권은 IT, 첨단제조업, 금융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계획을 갖는 지역으로 여성인력 개발의 방향도 이와 같은 산업전략 정책의 방향을 반영하여 파생되는 업종 및 직종에서 인력수요를 예측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업종가운데 인력수요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과 관련한 직종개발과 이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서북권은 출판업 및 보건업 중심의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서북권 역시 주거지역 중심의 산업이 발달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또한 병·의원이 집중되어 있어 보건업 관련한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관련 직종에 대한 개발과 교육훈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 방안으로서는 먼저 여성친화적 업종에 대한 활용업무 개발이 필요함.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보육교사, 방과후교사, 보육 도우미, 보조교사 등 교육서비스 등, 보건업 분야에서는 간호사, 치위생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경력단절로 인해 취업활동이 중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고령사회,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해야 함

○ 도전직종의 개발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출판업은 근로형태의 유연화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높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음. 주요 활용 업무 분야 역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필요로 하기 보다는 일정한 관련 지식과 생활 경험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하다고 판단됨. 이를 활용한 업무로는 편집 및 출판디자인, 회계 서무 등 사무직, 판매 영업이나 마케팅 분야를 들 수 있음. 이 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앞으로 더욱 고도화될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의 여가활동의 증가를 가져오고 더욱 개인화되어 가는 사회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 예상되므로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경우는 향후 더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 예측되고 있음

지역별 여성인력개발의 특성화 방안 요약

구 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안	비고(여성인력개발기관)
도심권	– 출판,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관련 직종 – 사업지원 서비스 및 전문서비스업 관련 직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관련직종	종로·용산 여성인력개발센터
동남권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관련 직종 – 유아교육, 아동·안전교육, 유아심리, 보육교사 등 교육서비스업 관련직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관련 직종	서초·송파 여성인력개발센터
동북권	– 친절 및 서비스교육, 병원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 고객상담 및 병원서비스 매니저 등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관련 직종 – 보육교사, 유아교육, 고객상담 및 직업교육의 교육서비스업 관련 직종 – 패션디자인, 해외영업, 현장실무 전문교육 등 섬유제품 제조업	여성능력개발원 북부여성발전센터 강북·노원·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
서남권	– 영업 및 영업실무, 마케팅 전략, 금융자산관리 등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관련 직종 – 제도사, 시각 및 멀티미디어 디자인 등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관련 직종 – 고객상담 및 직업교육, 아동상담교육, 아동취미생활 교육 등 교육서비스업 관련 직종	남부여성발전센터 구로·남부·동작·관악 여성인력개발센터
서북권	– 보육교사, 병원코디네이터, 사회복지사 등 보건업 관련 직종 – 출판편집 교정, 편집 및 디지털 디자인, 출판기획 등 출판업 관련 직종 – 영상편집, 방송카메라, 촬영, 연출 및 방송컴퓨터 교육 등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관련직종	중부·서부 여성발전센터 은평·서대문·강서 여성인력개발센터

V 결 론

1.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를 위한 과제

○ 본 연구는 서울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성인력개발의 특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특성화가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고착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현재 공공훈련기관의 훈련프로그램들은 고정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져 있어 빠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특성화와 동시에 유연화를 전제로 할 때 특성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임. 여기에서는 서울시 지역별 여성인력개발의 특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제를 남기는지를 제시하고자 함

❍ 여성 직업훈련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위한 통계적 인프라 구축 필요

- 현재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함. 그러나 비슷한 교육내용과 수준을 담고 있어 상당부분 중첩되고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교육훈련 프로그램명으로는 교육의 내용이나 전문성 수준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훈련과목을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직종코드와 훈련코드의 연계가 필요함. 전 직종에 대한 훈련코드를 마련할 수 없지만, 교육서비스나 사회서비스, 보건업 등과 같이 여성친화적인 직종을 중심으로 직종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훈련코드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 핵심 업종에 대한 교육훈련과 고용 연계 패키지 개발 및 적용

- 본 연구는 서울시의 산업특성을 5개 지역별로 나누어 구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특성화 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분야를 도출함.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정책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 개발이 필요함. 예를 들면, 해당 권역의 특성화 업종의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훈련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 취·창업 연계방안을 함께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임

❍ 지역별·업종에 따른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

- 각 권역별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은 업종별로 차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청은 역시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업종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이나 출판업, 전문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등에서 정책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훈련된 여성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각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연수 및 체험에 대한 지원에 대한 시급성 정도가 비교적 높은 업종은 출판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제조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현장실습을 통한 교육훈련의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여성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업종에 대한 연수 및 체험지원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장려금 지급의 시급성 정도가 높은 업종은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가운데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장려금

지급을 통한 고용활성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음

- 훈련시설 확충 및 지원, 여성채용정보 제공, 재직자 훈련 활성화의 정책지원에 대한 시급성 정도가 비교적 높은 업종은 중복되고 있는데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과 보건업 등으로 여성친화적 업종으로 알려진 업종임. 사업체에서 이와 같은 훈련시설이나 채용정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되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지역별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 필요

- 5개 지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다양한 업종의 사업체에서 여성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교육훈련이후 고용과 연계가 어려운 이유가 되고 있음. 특히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은 취업실적이 낮은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사업체에 발전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지역별로 특성화되는 업종은 해당지역의 여성인력개발기관과 연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교육훈련 이후 취·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역별로 교육훈련 및 고용과 연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추진체계의 정비

- 지역별 특성화의 체계적 접근을 위해서는 지역별 구심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기능과 역할의 협력적 분담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특히 고용의 수요처를 발굴하여 훈련된 인력과 연계를 위해서는 사업체 DB의 확충과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하기 때문임.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모으고 배분하는 역할의 담당자가 있어야 하며, 기존의 여성인력개발 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2. 연구의 한계

○ 각 권역별로 제시된 여성인력개발의 특성화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마련의 후속조치가 필요함

- 본 연구가 조사·분석한 사업체 단위는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인력수요 파악, 업종내 필요인력에 대한 직종 도출임. 인력개발의 방향은 이와 같은 직종과 연계되어야 하나 실제 교육훈련의 코드는 직종과 잘 연계되어 있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업체에서 요구되는 인력수요를 통해서 필요직종, 교육훈련

코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직종과 훈련코드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권역별 특성화를 위해서는 인력개발의 측면에서 교육훈련 뿐 아니라, 인력개발과 활용의 연계라는 고용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력개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다른 추진체계를 면밀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각 권역별 교육훈련 및 취·창업 지원 기관, 권역의 특성화 업종의 협회 및 기관 등을 포함하여 권역별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구심체가 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 측면에서 인력수요에 기반한 인력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의 공급자 측면의 수요파악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여성, 특히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직업의식 수준, 참여욕구, 직업에 대한 선호, 근로조건에 대한 욕구 등 다양한 수요파악이 필요함

I

서 론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오늘날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꼽고 있다. 이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와 인구 구성의 특성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즉, 정보사회나 지식기반사회에서 자본요소는 신체적·물리적 힘이 아니라, 지식이나 정보와 같은 새로운 요소가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변화된 시대에 여성인적자원의 그 잠재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학의 발전에 따른 고령사회의 출현과 함께 저출산 현상의 심화는 국가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위기는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할 때 많은 이슈와 과제를 제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이미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교육인적자원부, 2000)에 따라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복지증진의 정책영역'에 포함되어 논의되었으며, 2006년 여성가족부가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2006~2010)을 수립하여 교육부, 노동부, 여성부 등 다양한 부처에 혼재되어 있는 여성인적자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여성인적자원개발'의 개념에 대해서는 모든 사회과학의 용어가 그렇듯이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더구나 여성인적자원개발은 '여성'과 '인적자원개발'(HRD)의 합성어로써 더욱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평생교육이 강조되면서 '인적자원개발'이란 개념의 외연과 내연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적자원개발'이란 "개인과 조직의 성과향상을 목적으로 이에 적합한 효율적, 효과적인 해결책의 통합적 설계, 개발, 활용, 평가를 통해 개인, 그룹 그리고 조직의 요구에 부응하고 제반 고려사항들과의 조화를 통해 조직내외에서 긍정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공식적·비공식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Rothwell et al., 1999). 여기에 인적자원개발의 대상으로서 여성인적자원개발은 '여성에 대한 이해와 성 평등의식을 토대로 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활동 및 시스템이라고 정의한다(숙명여자대학교 여성HRD 연구센터, 2008). 실제 이와 관련한 정책에는 여성인적자원의 능력개발 및 활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지식기반 분야로의 여성진출 유도를 위한 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교육기간의 연장과 특히 평생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활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의 효율적인 접근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인적자원의 개발이 일방적이고 종합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개발이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이와 같은 인적자원의 개발은 곧 고용과 연계되어 인적자원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함께 중앙정부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 정책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이나 지역별 노동시장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김주섭외, 2007; 정인수, 2006; 김주섭외, 2008 등). 즉, 그동안 노동시장의 오랜 과제로 남아있는 노동시장 미스매칭(구직자와 구인자의 수요 불일치)의 문제는 정부주도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한계로 여겨짐에 따라 지역산업의 특성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력수요는 무엇인가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거시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한계로써 수도권 총생산 비중의 집중을 초래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내 총생산의 비중의 상승,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고용집중도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김주섭, 2008). 이러한 거시 노동시장의 문제가 동일 권역 내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분권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기반한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정인수 외, 2006; 김주섭 외, 2007; 2008 등). '지역'과 '고용'을 핵심 단어로 한 관련 연구는 이와 같은 노동시장 접근전략이 세분화, 구체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노동시장 차별화 방안 관련 연구(오민홍외, 2008; 정인수, 2008; 김주섭외, 2007 등), 이에 따른 지역별 인력수요에 따른 직업훈련 체계 정비 관련 연구(김주섭·이병희·임상훈·신현구, 2003; 윤형호외, 2005; 고혜원외, 2006 등), 지역고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관련 연구(김주섭·전명숙·임상훈·오민홍·전윤구, 2008) 등의 연구는 모두 이와 같은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지역의 특성상 일찍부터 지역별로 기업체 인력수요 실태와 함께 여성의 취업욕구를 파악하여 인적자원개발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활용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김태홍·양인숙, 2002; 박재규·임경희·공선영·노성향·장예지, 2008).

서울시는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혁신 역량을 분석하고, 지역혁신발전 방안을 지역산업, 인력, 혁신주체 및 네트워크 강화, 지역혁신기반 등으로 구분

하고, 서울지역의 산업정책 및 관련 인적자원개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이를 기초로 하여 서울시 산업의 특성을 도출하여 이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종을 선정하고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윤형호, 2005), 역시 이와 같은 지역과 고용을 연계하기 위한 일환으로 파악된다.

한편, 여성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는 2009년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기관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능력개발과 여성인력의 활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취·창업 상담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 이전에 사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과정 이수 후에 취업과 연계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사업을 실시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6년 맞춤형 교육실적은 84개 과정에 4,870명이 직업훈련 교육 이수 후 취업하였으나, 2007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120개 과정에 6,53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1%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은 향후에도 계속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교육은 인력의 수요를 (교육훈련)이전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훈련)이후의 고용을 고민하는 전통적인 여성인력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각 개별기관이 파악할 수 있는 수요처·업종·직종 등의 파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으며, 특히 지역의 산업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고용과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산업특성이나 자원(구인업체, 정보센터, 인적자원)에 대한 파악과 각 요소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등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시 여성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의 구인수요 파악을 시도하였는데, 2008년도 '여성능력개발원'이 위탁하여 수행한 "서울시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구인수요조사"가 있다. 이는 6개 업종(음식점업, 전문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총 600개의 표본을 조사하여 인력수요를 파악한 것이다. 이 연구는 여성친화업종으로 서비스업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조사의 현실 적용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조사업종의 한계로 다양한 업종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여성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25개 자치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권역별 여성인력개발의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 연구목적

본 연구는 수도권이 지역내 총생산, 인구, 고용집중도 등에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산업 및 인적자원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서울시 지역[1](권역)별 특화 산업체의 인력수요와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전략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서울시 권역별 특성에 기초하여 요구되는 권역 노동시장의 전략업종을 도출하고 도출된 업종에 대해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여성인력개발 특성화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즉, 권역별 선정된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와 필요직종, 훈련수요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권역별로 여성능력개발의 특성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향후 권역 고용과 연계하고자 한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업종별 사업체에서 선호하는 인력의 특성이 무엇이고, 특히 그동안 여성진출이 많지 않은 업종에서 선호하는 인력의 특성을 파악하여 여성인력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또한 서울시 여성의 인적특성을 반영하여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적극적 활용을 위해 사업체에서 이들 여성에 대한 인력수요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특히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도출된 여성인력수요와 권역별 센터의 직업교육 훈련기관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서울시 권역별 산업체의 수요에 맞춘 여성인력개발 교육기관 프로그램의 방향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권역별로 조사한 업종의 인력수요는 얼마나 되며, 사업체의 채용예정 인력에 대한 선호요소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선호요소가 여성인력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요청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업체의 수요는 얼마나 되는가?, 업종별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적합한 직무분야는 무엇인가?, 권역별·업종별로 고학력 여성을 활용할 경우, 필요한 직무분야는 무엇인가?, 특히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활용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지역'이란 사회과학에서 동질적인 특징을 가진 지구(地區)를 가리키는 말이고, '권역'이란 어떤 특정한 범위안의 지역(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으로 본 연구에서 서울시 지역의 5개 권역의 특성에 따른 인력개발의 특성화 방안이라는 점에서 '권역'(어떤 특정한 범위안의 지역)'으로 사용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과 절차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절차에 따라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및 조사설계, 실태조사, 정책방안 도출 등의 절차에 따라 선행연구의 검토, 기초통계자료 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 사업체 인력수요실태 조사, 서울시 및 자치구 여성인력개발 관련 정책현황 조사, 정책토론회 개최 등의 과정을 거쳤다.

가. 연구 및 조사 설계 단계

1) 관련 문헌연구의 검토 및 분석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권역별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관련 연구, 권역별 특성화 산업, 특히 서울지역의 산업 특성이나 정책 방향과 관련한 보고서 등을 통해서 각 권역별 산업체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여성인적자원개발과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그동안 논의되었던 여성 유망직종에 대한 선행연구 및 취업직종과 관련한 문헌 검토를 통해서 여성인력개발의 방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기초통계자료 분석

서울지역의 산업 특성과 인적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으로써 2차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서울시 여성인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권역별로 서울통계연보(2008),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서울서베이조사(2008)를 분석하였고, 서울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분석을 위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08)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력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써 노동부 사업체 고용동향 특성조사(2008) 분석을 통해서 산업군별, 기업규모별로 인력충족률을 분석하였고, 서울시 업종별 인력수요 및 충족률, 미충족률 분석을 통해서 산업체 인력개발이 필요한 업종 및 직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서울시의 각 권역별 산업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2007)자료를 분석하여 권역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규모, 업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규모를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2차 자료의 분석은 서울시 각 권역별 산업 특성과 특히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방향성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였다.

3)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회의

본 연구의 방향설정 및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방향의 설정과 연구범위와 방법에 대한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결과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권역별 특성화 방안'이라고 할 때, '권역'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권역구분은 접근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 특성으로 재조정이 가능하므로 행정전문가나 해당 권역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통해 도출해야 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권역별 특성화 산업의 선정을 위해서 특히 '여성친화적' 산업의 업종 선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치구별·권역별 차별화와 이를 토대로 도출된 조사결과는 해당 권역에 바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기업규모에 대한 구분, 최소 샘플수의 고려, 5인 이상사업체 대상 조사, 너무 단기적인 수요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미래 발전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사업체 인력수요 조사에 대한 고려사항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사 및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조사에 활용된 업종과 직종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업종과 직종에 대한 연계작업이 필요하므로 조사결과에 대한 충분한 해석을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할 것이다.

또한 권역별 특성화 업종 선정을 위한 논의에서 서울시의 '권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다뤄졌다. 즉 서울시의 권역 구분은 연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르게 사용되어 왔는데, 서울시는 5대 생활권역에 근거하여 서울을 5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이와 같은 권역구분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여성인력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지역의 권역구분은 서울시 여성취업지원 협의체 운영을 위한 구분을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권역별 특성화를 위한 구분에 있어 일정한 기준과 정의가 필요하였다. 권역구분에 대한 논의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역구분에 대한 논의내용〉

○ 서울시 권역 구분 시 숫자와 상관없이 산업군으로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음
○ 노동부에서 관할권역을 구분하고 조정할 때에는 생활권, 경찰청, 각종 행정기관의 중첩성을 고려하여 선정함. 이러한 노동부의 구분을 참조하는 것이 좋음
- 노동부는 중부권에 성북구, 종로구, 중구가 모여 있어 성북구를 중부권에 포함시키고 있음. 따라서 도심권에 성북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음(종로구 센터 교육생들은 대부분 성북구 주민임)
-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부의 구분 외에도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과 관련해서 독자적 특성에 맞게 차별화해서 구분한다면 보다 일할 때 폭이 넓어질 수 있음.
- 또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궁극적으로 권역의 특화에 맞는 것으로 재설정 하는 것이 보다 유효한 자료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서남권에 포함된 양천구와 강서구는 동선이 너무 길어서 조정이 필요함
 – 서남권에서 양천구과 강서구는 보건복지 쪽이고 나머지 구들은 개인서비스업 등 산업분포의 차이가 많이 남
  → 양천구, 강서구를 서북권으로 변경함
○ 북부권이라는 용어는 강북과 강남을 이분하는 대립적인 느낌을 갖게 하므로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음. 따라서 5대 생활권 구분처럼 동북, 서북 등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임
○ 서울시 5대 생활권역의 구분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서울시 취업지원협의체와 논의한 구분이 명칭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앞서 논의한 대로 서울시 5대 생활권역 구분의 5대 권역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역구분 및 해당 자치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함

▸ **도심권(4개구)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4개**
▸ **동남권(5개구)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 **동북권(6개구) :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 **서남권(5개구)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서북권(5개구)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다음 권역별 특성화 업종 선정을 위하여 서울시 여성인력개발 권역별 취업지원협의체 대표 및 권역의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에서 그동안의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각 권역별 특성화 업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위해 업종선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관계자 및 해당권역 센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업종선정의 기본 방향〉
○ 본 실태조사를 위한 업종선정을 위해서 서울시 산업정책의 방향, 서울시 권역별 산업체 수 및 여성종사자 비율, 여성유망직종에 대한 기존문헌 분석 등을 고려하여 반영함
 – 따라서 이미 여성 진출이 현저하게 높은 서비스업(교육,개인,사회복지 등) 관련 업종은 모든 권역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므로 일부 권역에서 제외함. 단, 권역특성에 따라 업종이 다양하지 않거나 주거지역의 비중이 높은 권역에는 한 경우 일부 포함하였음
○ 권역별 후보업종들의 사업체수와 여성종사자 비율을 고려하여 향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포함하도록 함

〈권역별 업종선정 결과〉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출판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금융및보험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의복, 의복액세서리및 모피제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컴퓨터프로그램,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전문서비스업

※ 권역별 대표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선정('09.5.26)

이와 같은 자문회의의 추진과정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Ⅰ-1▐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회의 요약

구분	1차 자문회의	2차 자문회의	3차 자문회의
일시	2009. 3. 27(금) 10:00~12:00	2009. 5. 19(목) 16:00~18:00	2009. 8. 27(목) 10:00~12:00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서울여성플라자	서울여성플라자
참석자 특성	권역 및 고용 관련 전문가, 서울시 담당자	5개 권역별 취업지원협의체 대표, 권역전문가, 서울시 담당자 등	- 민간부문 여성취창업 관련 전문가, 공공취업훈련기관 전문가, 서울시 담당자 등
안건	- 연구의 방향과 범위설정 - 권역별 여성인력개발의 특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 산업체 여성인력수요 조사 설계 관련 논의 등	-서울권역의 권역구분 -5개 권역의 특성화 업종 선정	- 권역별 여성인력개발의 특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의 방향 - 권역별 물적기반과 여성인력의 효율적 연계 방안 - 사업체 여성인력수요 조사 결과의 활용방안 등

나. 권역별 사업체의 인력수요 및 정책추진실태 조사

1) 권역별·업종별 사업체 인력수요조사

기초통계자료에 대한 분석, 선행연구 검토,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된 업종에 대한 여성인력수요 조사를 위해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체에 대한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업체 대표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규모는 총2,500개로 하였으며, 5개 권역에 약 500개 내외의 표본수를 할당하였다. 표집방법은 각 권역별로 선정된 업종에 따라 무작위표본추출 하였으며, 각 업종별로 약100개 내외로 비비례 표본 추출하였다.

조사내용은 사업체 일반현황(고용규모, 고용형태, 연령, 성별, 근로형태, 직위에 따른 인력현황 등), 인력관리 현황(최근 3년간 신규인력 채용 현황, 성별·연령대별 채용현황, 신규인력 채용방법, 신규인력 채용시 고려요인에 대한 고려 정도와 업무 생산성 기여정도, 신규인력 채용시 애로사항), 인력수급계획(향후3년이내 신규인력 채용계획, 채용예정인원, 근로형태의 유연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 등), 채용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 및 향후 교육수요, 서울시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6월5일부터 6월24일까지 약20일간 진행하였으며, 조사주관기관은 사업체 전문조사기관인 주)메트릭스 코퍼레이션이 수행하였다.

2) 자치구별 산업정책 및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관련 정책추진 실태 조사

권역별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정책현황 및 물적기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각 자치구 여성정책 및 산업정책 담당자 1인씩 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이메일 및 팩스를 통한 질문지 조사이며 2009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약 10일간 실시하였다.

먼저, 자치구의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계획 수립, 관련 정책 현황, 해당권역 여성인력개발 기관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자치구 산업체 현황 및 산업정책의 방향으로 자치구의 산업경제 관련 정책, 산업체 지원 정책이나 사업 등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여성인력개발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자치구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지원 정책 현황으로 권역별 인적자원 개발 사업, 취·창업 박람회 등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연계사업 등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자치구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물적 자원 및 시설 현황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적자원개발 기관으로 대학교, 사설학원, 서울시 및 자치구 직업훈련기관 등의 기반현황을 파악하였고, 취업 및 고용정보 제공 및 알선기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사업체의 특성과 관련하여 인적자원, 특히 여성인적자원의 연계를 위해 서울시가 지원해야 할 정책이나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의 정책방향을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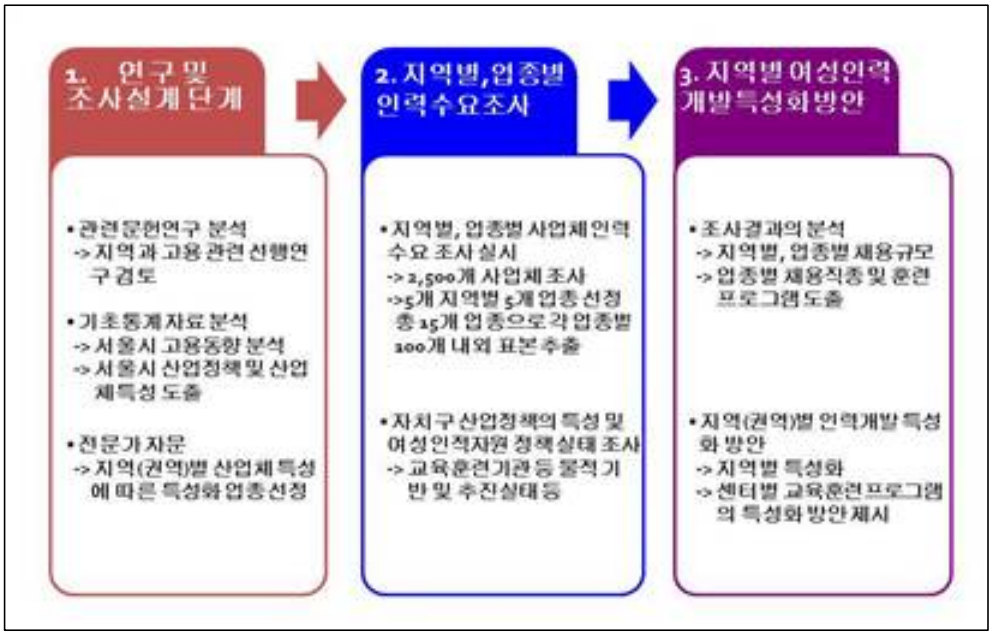
다.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안 제시

1) 전문가 최종 자문회의 실시

그동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권역별 사업체의 인력수요에 대한 특성과 여성인력개발의 특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갖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논의하여 향후 어떻게 연구를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2) 정책 토론회 개최

마지막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업 수립과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 여성인력개발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본 연구의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림 Ⅰ-1▐ 연구의 방법과 절차

3.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는 지역 특성과 고용을 연계하기 위해 권역별 산업체의 특성에 따른 여성인력 수요를 조사하여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권역의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기존 문헌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먼저, 기업체 인력수요나 실태조사, 그리고 이와 관련한 직업훈련 수요조사 연구를 조사·정리하였다. 둘째, 실태조사는 아니지만 그동안 인적자원과 고용이 중앙정부 차원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자치제가 발전함에 따라 권역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권역별, 권역별 인적자원개발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정책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사례연구 및 문헌연구가 있다. 이를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 한다. 셋째, 권역별 산업특성과 고용을 연계하여 그와 같은 특성에 기반하여 인력수요나 취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를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체 인력수요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유사한 연구로는 전국단위 연구로써 '권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2006),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된 유사연구로는 '서울시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구인수요 실태조사'(2008), '경기도 여성인력 고용실태 조사 및 취업활성화 방안 연구'(2008)가 있는데 이 가운데 후자의 두 개 연구는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이다. 고혜원 외(2006)가 수행한 '지역별 인력 및 훈련 수요 조사'연구는 전국단위의 조사 연구라는 점이 특징이며, 박재규 외(2008)가 수행한 '경기도 여성인력 고용실태 조사 및 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는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기반환경이 미흡한 점에 착안하여 다각적인 측면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 경기도 기업체의 여성고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고용관리 및 운영,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 및 수요, 능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제도도입과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② 기업체 종사하는 여성근로자 대상의 고용환경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수혜여부, 직무 능력향상 교육훈련, 배치 및 승진과정에서의 차별여부 등을 조사문항으로 조사, ③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대상의 직업수요에 대한 조사가 있음. 경제활동참여의사, 취·창업 욕구, 교육훈련 참여여부 및 향후 참여 욕구 등을 내용으로 한다. ④ 여성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교육, 취업욕구와 정책적 지원욕구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차원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여성고용 수요와 취업 희망여성의 취업욕구를 비교·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력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의 문제를 분석하고,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둘째, 지역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연구가 있다. 먼저 김주섭외(2003)의 연구 '권역별 공공직업훈련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는 공공직업훈련의 분권화 및 권역별 직업훈련체제로 개편의 당위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미국은 직업교육훈련 운영체계가 지방분권과 민간-공공협조체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지역전문대학을 운영하며, 지역특성과 지역의 산업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영국은 직업훈련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십 구축하여 기업대표, 경제단체 대표와 노조가 참여하는 민간 훈련기업위원회가 조직되어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직업훈련에 있어서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조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평생학습사회로의 구조로 변화, 기업이 전담하여왔던 직업능력개발을 공공부문과 역할분담하여 대학과 지역의 학습센터와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김주섭·전명숙·임상훈·오민홍·전윤구(2008)의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권역고용 거버넌스'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권역고용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히 지역별 인적자원개발과 고용성과에 대한 분석, 고용거버넌스에 대한 분석과 주요국의 지역고용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과제로써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내 이해당사자 간 경쟁과 협력 환경 조성, 지역간 교류의 활성화하는 등을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인수(2008)의 '지역노동시장연구-모범적 지역협의체 안착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는 노동시장의 탈중앙화의 추세를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아일랜드는 지역노사정 협의체, 덴마크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중심의 지역노동시장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지역의 산업특성과 고용을 연계하는 연구로 그와 같은 특성에 기반하여 인력수요나 취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써는 '지역별 기업체 인력수요 실태 및 전망과 여성의 취업 욕구 파악'(2002), '서울시 산업특성화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 연구'(2005),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차별성 연구'(2008)의 연구가 있다.

먼저, 김태홍·양인숙(2002)의 '권역별 기업체 인력수요 및 전망과 여성의 취업욕구 파악' 연구는 경기도의 권역별 산업체 및 인구학적 특성의 반영, 구인-구직 수요의 불일치, 직업훈련이 실제 취·창업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에 입각하여 경기여성인력에 대한 수급현황과 구조, 여성인적자원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수급 현황 및 구조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윤형호(2005)의 '서울시 산업특성화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연구'는 고용과 관련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체계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주요산업의 지역별 특화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특성과 노동수요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즉, 권역별 산업의 특성과 이에 기초하여 전략산업을 도출하는 등 특성화 가능성이 높은 업종 및 직종 등을 제시하여 권역별 특성화 방안 설정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오민홍·남기성·홍현균·황기돈(2008)의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차별성 연구'는 지역별 노동수요와 공급의 현황과 특성,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노동시장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역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통계청), 인력수요동향(노동부) 등 조사통계 자료와 함께 고용보험, 워크넷 DB(한국고용정보원) 등 행정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및 권역의 노동시장 현황과 구조, 인력수급현황, 이들의 지역별 격차를 개관하고, 노동수요의 근간이 되는 산업구조 분석에 있어서 산업집중도를 분석할 때 흔히 활용하는 입지계수인 LQ(Location Quotient)의 단점(집중도 분석에서 권역 내의 고용량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아 산업의 집중도가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완한 새로운 상대집중지수 NOHI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해 7대 광역시의 지역 내 상대집중

도와 지역 간 상대집중도를 함께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실업자 직업훈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거시경제모형을 활용해 지역별로 직업훈련이 취업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지역간 효율성 을 확인하여 동일한 정책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인력의 직업훈련 수요가 단지 유망직종이나 인력수요를 예측하여 교육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의 산업체 집중도에 따른 특성화 업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훈련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데 있다.

이와 같은 기존 문헌 연구의 결과나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가 연구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차별화하고 하였다.

먼저, 연구의 활용대상에 있어서 '여성인력개발'의 방향설정을 '서울시의 권역별' 산업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2008년도 여성능력개발원이 위탁하여 수행한 연구가 이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있음에도 지역특성에 대해 고려하기 보다는 여성친화적 업종으로 제한함으로써 한계가 있다.

둘째, 권역별 산업체 특성에 따른 인력수요 조사를 토대로 여성인력개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특성화·차별화 할 수 있도록 연계할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범위가 산업체 인력수요 실태조사에 한정된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셋째, 연구방법의 차별성을 위해서 서울시 권역별 산업체 수요 선정에 있어 각 권역별 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기존 통계수치에서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여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권역별 인력수요'에 관한 조사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

▌표 Ⅰ-2▐ 지역 특성 및 고용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요약

구 분	김태홍외(2002)	윤형호(2005)	고혜원 외(2006)
연구 제목	권역별 기업체 인력수요 실태 및 전망과 여성의 취업욕구 파악 – 경기도 –	서울시 산업특성화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 연구	지역별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 서울지방노동청
연구 목적	• 경기도 권역별 기업체의 인력수요와 개별여성들의 특성 및 취업 욕구를 감안한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확대에 따라 고용을 권역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함 • 권역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체계를 구축	• 노동부의 인력 및 훈련 수요 파악에 따른 직업 훈련계획을 세우기 위함

2) 본 연구의 설계를 위해 지역 고용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포괄적으로 검토 후, 이들 중 실제 본 연구에 유사한 '권역별 인력수요'에 관한 연구들을 선정하였음.

구 분	김태홍외(2002)	윤형호(2005)	고혜원 외(2006)
연구 대상	• 경기도 소재 지역별, 권역별로 추출한 총600개 사업체(노동부의 노동력수요조사 원자료에서 추출)	• 기초통계분석 통해 권역 별 산업특성화 도출 • 서울시소재 274개 업체 대상 설문조사	• 사업체규모별로 5인 이상 사업체 800개(서울) • 실업자 훈련기관 조사 • 서울청 소속 154개소 (강원포함)
연구 방법	• 기존통계분석	• 기초통계분석 • 설문조사	• 기존통계분석 • 설문조사
연구결과 및 시사점	• 경기도의 여성HRD 방향은 크게 정규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여성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것과 사회 및 문화교육을 통한 여성 사회 및 문화자본을 축적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 특화사업 – 도심권 : 도소매,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출판·인쇄 – 동북 : 운수, 교육서비스, 봉제·의복 – 동남 : 사업서비스, 제조, 건설업 – 서남 : 도소매, 제조, 운수, 교육서비스 – 서북 : 출판·인쇄, 사업 서비스업	• 사업체의 고용부족인원은 산업별로 사업서비스업, 운수업임 • 대규모보다 소규모 사업체의 부족인원이 많음 • 권역의 훈련수요가 높은 직종은 정보통신응용, 인사노무, 판매사무 분야 • 실업자 희망직종은 음식 서비스업

구분	오민홍 외(2008)	박재규 외(2008)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2008)
연구 제목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차별성 연구	경기도 여성인력 고용실태조사 및 취업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구인수요실태조사
연구 목적	• 지역별 노동수요와 공급의 현황과 특성 및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노동시장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함	• 여성HRD개발 및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실태조사가 필요	• 사업체의 인력수요와 여성 교육훈련의 연계강화를 도모 • 교육훈련과 취/창업 연계를 높이기 위함
연구 대상	• 전국 및 지역의 고용현황 및 구조의 차별성 도출을 위한 기존 통계자료에 나타난 사업체	• 기업체의 여성고용실태조사 • 여성근로자의 근로실태 • 취업희망여성에대한욕구조사 • 여성졸업예정자의 취업욕구 조사	• 조사업종: 음식점, 전문서비스, 사업지원, 교육, 사회복지 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100인 소규모 사업체의 각 업종별 100명
연구 방법	• 기존통계분석	• 기초통계분석 • 설문조사	• 설문조사 • 개별면접, e–mail 등
연구결과 및 시사점	• 대도시를 중심으로 제조업 관련 취업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취업자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구직난이 노동력 수요 부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상대집중지수 분석 결과 서울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의 집중도와 생산성이 타 권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별 결과에 대한 시사점 제시 • 경기도 기업체의 여성관리자 비중은 22.1%로서, 신규고용 인력 채용에는 남성이 더 많았음(여성 3.3명, 남성 5.0명) • 향후 여성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체들은 그 이유로 '현 여성인력이 충분해서(51.9%), 업무성격상 여성이 적합하지 않아서(25.8%),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6.2%) 를 들었음 • 기업체에서 여성 채용 시 '장기근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 여성채용규모는 600개 업체의 1,660명으로 나타났음 • 채용전 교육훈련 수요는 전체 응답자의 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본 조사로 직업교육수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Ⅱ

서울시 노동시장의 특성과 권역별 특성화 요소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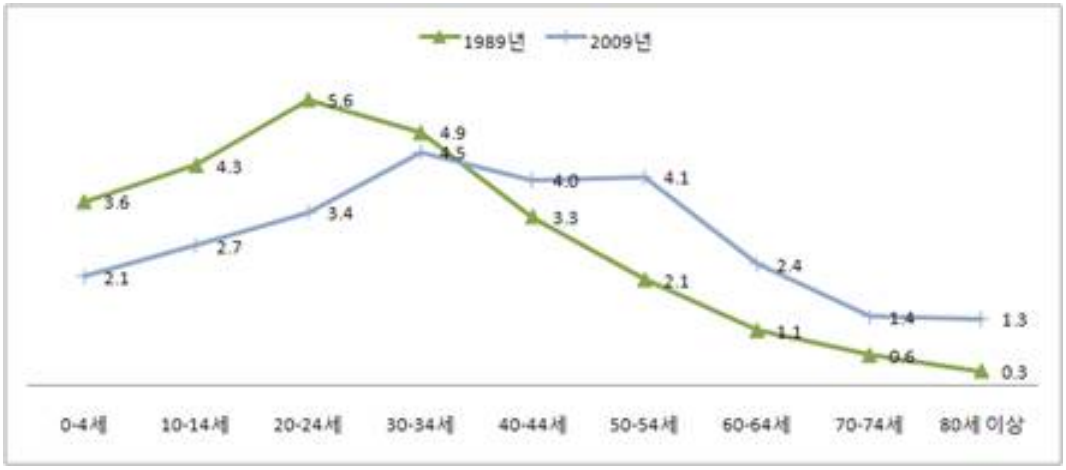
II 서울시 노동시장의 특성과 권역별 특성화 요소 도출

1. 서울시 여성인적자원 및 노동시장 분석

가. 서울시 여성인적자원의 특성

1) 서울시 여성인구의 분포

2009년 서울시 여성인구는 5,056천명으로 총인구의 50.4%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9년 7월 1일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0~14세 유소년 여성 연령층 분포는 1989년 24.4%에서 2009년 14.1%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15~49세 가임여성 연령층 분포 역시 1989년 62.0%에서 2009년 57.2%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50세 이상 여성 연령층 분포는 1989년 13.6%에서 2009년 28.7%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20년 전에는 저 연령층이 많았고, 현재는 중간 연령층이 많은 구조로 서울시 여성의 인구구조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e-서울통계웹진 25호).



자료 : 통계청(2009) 장래인구 추계

▌그림 II-1▐ 연령별 여성 인구구조

서울시 연령별 인구분포는 〈표 II-1〉와 같다. 총 인구 중 20세 미만 인구는 21.7%, 20대 16.9%, 30대 18.9%, 40대 17.0%, 50대 12.9%, 60대 이상은 18%의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 인구분포를 전체성별로 살펴보면 20세 미만을 제외하고, 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그 다음으로 40대, 20대 순이었다. 반면 남성은 30대, 40대와 20대, 50대의 순으로 분포되고 있다.

연령대별 남녀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20대 미만의 경우 남성(52.3%)이 여성(47.7%)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고, 20대는 여성이(50.4%) 남성(49.6%)보다 약간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30대는 남성(51.1%)이 여성(48.9%)보다 높은 분포를,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40대 50.7%, 50대 51.5%, 60대 이상, 55.4%). 즉, 20대 미만과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II-1▐ 연령별 인구 분포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 구		
	전체	여	남
총 인구	10,421,782(100.0)	5,247,127(100.0)	5,174,655(100.0)
20세 미만	2,264,609(21.73)	1,080,927(21.0))	1,183,682(23.0)
20대	1,763,250(16.92)	888,708(17.0)	874,542(17.0)
30대	1,977,568(18.97)	967,191(18.0)	1,010,377(20.0)
40대	1,774,995(17.03)	899,487(17.0)	875,508(17.0)
50대	1,343,060(12.89)	691,962(13.0)	651,098(13.0)
60대 이상	1,298,300(17.90)	718,852(14.0)	579,448(11.0)

자료 : 서울통계연보, 2008.

서울시의 여성인적자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교육년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2〉과 같다. 여성의 경우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11.3년, 남성의 경우 13.1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8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00년 조사에서 보다 여성 0.8년, 남성 0.5년씩 평균 교육연수가 증가된 것이다. 전국 평균 교육 연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서울시 여성의 경우 1.3년, 남성의 경우 1.0년 더 오래 교육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남성에 비해 여성인적자원의 고학력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2▐ 평균 교육년수 (30세 이상 인구)

(단위 : 년)

구 분		2000	2005
서울시	여성	10.5	11.3
	남성	12.6	13.1
전국	여성	9.1	10.0
	남성	11.5	12.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교육정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급 단계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6세 이상 여성인구 4,660,085명 중 초등학교 졸업 15.4%, 중학교 12.2%, 고등학교 32.3%, 4년대 미만의 대학 22.9%,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22.9%, 대학원 석사과정 2.7%, 박사과정 0.5%로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급 단계별 분포는 전국과 비교하여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 비율은 서울시 보다 전국 비율이 높게 나타난데 비해 대학이상의 분포에서는 서울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국에 비해 고학력 여성으로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3▐ 6세 이상 인구의 교육정도별 분포(서울시-전국)

(단위: 명)

구 분	서 울			전 국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 체	9,214,172 (100.0)	4,660,085 (50.6)	4,554,087 (49.4)	44,041,973 (100.0)	22,135,864 (50.3)	21,906,109 (49.7)
초등학교	1,252,384 (13.6)	716,681 (15.4)	535,703 (11.8)	7,936,683 (18.0)	4,450,290 (20.1)	3,486,393 (15.9)
중학교	1,033,718 (11.2)	569,318 (12.2)	464,400 (10.2)	5,520,830 (12.5)	2,910,660 (13.1)	2,610,170 (11.9)
고등학교	2,887,186 (31.3)	1,503,914 (32.3)	1,383,272 (30.4)	14,195,267 (32.2)	7,151,897 (32.3)	7,043,370 (32.2)
대학(4년제 미만)	940,581 (10.2)	466,841 (10.0)	473,740 (10.4)	4,307,616 (9.8)	2,022,717 (9.1)	2,284,899 (10.4)
대학교(4년제 이상)	2,430,658 (26.4)	1,069,263 (22.9)	1,361,395 (28.9)	8,623,172 (19.6)	3,539,716 (16.0)	5,083,456 (23.2)
대학원(석사과정)	324,523 (3.5)	124,003 (2.7)	200,520 (4.4)	917,875 (2.1)	315,697 (1.4)	602,178 (2.7)
대학원(박사과정)	78,646 (0.9)	21,374 (0.5)	57,272 (1.3)	215,321 (0.5)	48,490 (0.2)	166,831 (0.8)
불취학	266,476 (2.9)	188,691 (4.0)	77,785 (1.7)	2,325,209 (5.3)	1,696,397 (7.7)	628,812 (2.9)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2)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구 특성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분포는 〈표 II-4〉와 같다.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중 송파구가 630,69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노원구가 621,192명, 강남구 569,176명, 강서구 566,495명, 관악구 550,766명 순이었으며 중구가 137,435명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자치구 중 종로구, 성동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를 제외한 전 자치구에서 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4▐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분포

단위 : 명

구 분	합계	여	남
전 체	10 421 782	5,247,127	5,174,655
종 로	173,843	86,842	87,001
중 구	137,435	68,919	68,516
용 산	248,362	125,908	122,454
성 동	341,620	170,216	171,404
광 진	386,367	194,846	191,521
동대문	385,825	191,876	193,949
중 랑	431,406	216,050	215,356
성 북	477,358	240,591	236,767
강 북	348,702	175,760	172,942
도 봉	378,559	191,105	187,454
노 원	621,192	316,460	304,732
은 평	463,473	234,419	229,054
서대문	357,174	182,630	174,544
마 포	400,392	204,196	196,196
양 천	508,566	254,950	253,616
강 서	566,495	286,521	279,974
구 로	445,095	219,681	225,414
금 천	264,323	129,188	135,135
영등포	439,151	216,910	222,241
동 작	414,839	209,724	205,115
관 악	550,766	270,819	279,947
서 초	411,951	211,573	200,378
강 남	569,176	294,166	275,010
송 파	630,691	319,882	310,809

자료: 서울서베이 2008

계속해서, 서울시 여성인적자원의 특성을 권역별 교육정도별로 살펴봄으로써 권역적 여성인적자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라 6세이상 서울여성 중 초졸이하는 19.4%, 중졸 11.2%, 고졸 32.3%, 대학이상 36.1%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권역별 분포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심권은 초졸이하, 중졸, 고졸이 서울시 평균보다 약간 높은 반면, 대학이상은 34.6%로 서울시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남권은 초졸이하, 중졸, 고졸 학력 분포에서는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데 비해 대학이상(44.7%)은 서울시 평균을 훨씬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남권 여성의 학력정도가 특히 고학력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북권은 초졸이하, 중졸 학력 분포는 서울시 평균을 웃돌고 있는 반면, 고졸 학력에서는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34.7%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고졸 학력 분포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학이상 학력 분포는 30.1%로 서울시 평균 36.1%보다 약 6%p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서남권은 초졸이하, 중졸, 고졸 학력 분포에서 서울시 전체 평균을 넘고 있는 반면, 대학이상 학력정도에서는 34%로 서울시 평균에 약간 못 미치고 있다.

서북권은 초졸이하, 중졸, 고졸 학력에서는 서울시 전체 평균을 약간 웃돌고 있는 반면, 대학이상 학력에서는 서남권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평균에 약간 못 미치고 있다.

▌표 Ⅱ-5▐ 서울시 여성인구의 권역별 교육정도별 분포

구 분		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이상
전 체		4,660,085 (100.0)	19.4	11.2	32.3	36.1
도심권	종로구	74,198	20.9	12.7	29.0	37.3
	중구	60,181	22.4	14.2	32.5	31.0
	용산구	103,080	19.8	12.0	30.2	38.1
	성북구	209,826	21.7	13.9	32.4	32.0
	소 계	444,285	21.2	13.2	31.0	34.6
동남권	서초구	181,095	12.4	7.3	22.8	57.5
	강남구	253,035	12.1	7.3	24.5	56.1
	송파구	277,755	16.4	10.1	31.1	42.5
	강동구	210,484	18.3	12.4	35.3	33.9
	성동구	152,684	21.6	13.4	31.7	33.3
	소 계	1,075,053	16.2	10.1	29.1	44.7

동북권	강북구	162,746	23.9	21.5	36.2	24.6
	광진구	174,513	18.2	12.2	33.4	36.2
	노원구	287,770	21.2	12.2	32.3	34.3
	도봉구	175,686	20.4	13.1	35.3	31.2
	동대문구	175,756	22.4	14.2	33.2	30.2
	중랑구	197,039	22.4	15.7	37.6	24.2
	소 계	1,173,510	21.4	14.8	34.7	30.1
서남권	구로구	187,178	20.6	13.6	34.4	31.3
	금천구	116,532	22.2	15.7	38.3	23.8
	영등포구	184,077	19.4	12.3	31.2	37.0
	동작구	193,470	18.3	11.2	29.9	40.5
	관악구	244,646	19.0	12.0	30.9	38.0
	소 계	925,903	19.9	13.0	32.9	34.1
서북권	은평구	213,381	21.1	12.9	36.6	29.4
	서대문구	165,016	20.7	11.9	31.3	36.0
	마포구	179,631	19.2	11.1	30.2	39.5
	강서구	256,371	19.2	12.2	36.2	32.8
	양천구	223,935	19.6	12.3	31.7	36.4
	소 계	1,038,334	20.1	12.1	33.2	34.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3) 서울시 여성경제활동 현황

서울시의 주요 노동현황을 인구,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등의 지표를 통해 알아본 결과는 〈표 II-6〉과 같다.

2007년 기준 서울시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62.9%, 실업률은 4.0%를 기록하였는데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4.7%인 반면, 여성은 51.7%에 그치고 있다. 실업률은 남성이 4.6%인데 비해 여성은 3.3%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낮다. 이는 다른 권역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성별 분포를 살펴 보면, 남성 57.4%, 남성이 42.6%로 남성이 약 15%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여성 67.1%, 남성 32.9%로 여성이 34.2% 높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가사 및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남성은 1.3%인데 비하여 여성은 98.7%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있어서 육아와 가사의 부분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Ⅱ-6▐ 서울시 경제활동 인구 현황(2007년)[3)]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5세 이상 인구	8,187	100.0	4,215	51.5	3,972	48.5
경제활동 인구	5,148	100.0	2,179	42.6	2,969	57.4
취업자	4,940	100.0	2,107	42.7	2,834	57.3
실업자	207	100.0	72	34.8	135	65.2
비경제활동인구	3,040	100.0	2,036	67.1	1,003	32.9
가사육아	1,377	100.0	1,359	98.7	18	1.3
경제활동참가율(%)	–	62.9	–	51.7	–	74.7
실업률(%)	–	4.0	–	3.3	–	4.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8.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를 2002년부터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2002년 기준 49.7%에서 2007년 기준 50.2%로 0.5%p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이나(〈표 Ⅱ-7〉 참조), 증감의 폭이 매우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7▐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

(단위 : 천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15세 이상 인구	4,126	19,042	4,119	19,220	4,129	19,405	4,170	19,683	4,199	19,899	4,215	20,086
경제활동 인구	2,052	9,466	2,060	9,397	2,131	9,690	2,167	9,860	2,180	10,001	2,179	10,092
비경제활동인구	2,052	9,576	2,060	9,823	1,998	9,716	2,004	9,823	2,020	9,898	2,036	9,994
경제활동참가율 (%)	49.7	49.7	50.0	49.7	51.6	49.9	52.0	50.1	51.9	50.3	51.7	50.2
실업율(%)	3.6	2.5	4.3	2.5	4.3	3.4	4.6	3.4	4.1	2.9	3.3	2.6

자료 :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연보.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기준 2,166천명으로 1991년 보다 14.4%가 증가하여 동일기간 2.4% 증가한 남성의 경우보다 약 6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

3) 서울시기업체구인수요실태조사(2008).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p97. 부표 재인용

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계층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 [그림 II-2]와 같다. 여성의 취업자 분포는 25~29세 연령집단의 여성이 16.0%로 가장 높다가, 출산과 육아 등의 영향으로 30~34세 11.6%까지 낮아 졌으며, 이후 다시 취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35-39세 12.4%, 40-44세 12.9%, 45-49세 13.5%까지 점차 높아지다가 50세 이후 다시 10%이하로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1991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없고 단지 여성의 출산과 육아의 시기가 25~29세에서 30~34세로 옮겨져서 취업을 포기하는 여성의 연령층이 25~29세에서 30~34세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e-서울통계웹진(2009)

▌그림 II-2▌ 연령계층별 취업자 분포

나. 서울시 고용현황 및 여성인력수요 분석

1) 서울시 구인, 채용 및 미충원 현황

서울시 인적자원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고용 및 인력수요 현황을 분석하였다. 아래 〈표 II-8〉은 서울시의 구인, 채용 및 미충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 의하면 2008년 하반기 구인인원은 14만 6천여 명으로 상반기에 비해 5만 2천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하반기 들어 경제위기가 본격화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채용인원 역시 12만여 명으로 상반기에 비해 4만 5천여 명이 줄어들었으나, 미충원률은 16.66%에서 17.89%로 소폭 확대되었다.

▌표 Ⅱ-8▐ 구인, 채용 및 미충원 현황

단위: 명, %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08년 후반기	146,323(-0.26)	120,148(-0.27)	26,175(-0.21)	17.89(1.23)
08년 전반기	198,617	165,532	33,085	16.66

자료: 노동부,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

주: ( ) 08년 전반기 대비 증감률

2008년 하반기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의 감소는 주로 30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아래 표로부터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구인인원 감소가 전반기 대비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용 인원 역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의 구인인원 감소는 전반기 대비 2.44%에 불과하여 경제위기의 여파가 주로 300인 미만 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고용축소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9▐ 규모별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단위: 명, %, %p

규모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5인이상	146,323(-26.33)	120,148(-27.42)	26,175(-20.89)	17.89[1.23]
300인 미만	105,245(-32.76)	83,572(-34.22)	21,672(-26.44)	20.59[1.77]
5-9인	19,781(-47.47)	14,053(-51.02)	5,728(-36.13)	28.96[5.15]
10-29인	25,243(-44.06)	19,731(-47.34)	5,512(-28.03)	21.84[4.87]
20-99인	31,533(-8.94)	26,549(-9.02)	4,984(-8.5)	15.81[0.08]
100-299인	28,687(-26.62)	23,239(-26.71)	5,448(-26.25)	18.99[0.1]
300인 이상	41,078(-2.44)	36,576(-4.95)	4,502(24.23)	10.96[2.35]

자료: 노동부,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

주: ( ) 는 전반기대비 증감율, [ ]는 전반기대비 %p 증감

2) 서울시 산업별·직종별 인력수요 및 충족률

아래 표는 2008년 하반기 산업별 구인인원과 채용인원 및 미충원 인원과 미충원률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전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산업 등에서의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외에도 통신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의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감소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위기의 여파가 내수침체로 이어지면서 내수산업에서의 고용을 위축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제조업에서의 고용기반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10▐ 산업별 구인인원, 채용인원 및 미충원율

단위: 명, %, %p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전산업	146,323(-26.33)	120,148(-27.42)	26,175(-20.89)	17.89[1.23]
광 업	16(33.33)	15(25)	-	0[0]
제 조 업	19,613(5.43)	1,5081(7.77)	4,532(-1.67)	23.11[-1.67]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301(6.36)	259(-8.48)	-	13.95[13.95]
건설업	7,487(-44.78)	6,680(-43.92)	807(-51)	10.78[-1.37]
도매 및 소매업	13,401(-34.23)	10,466(-40.79)	2,935(8.62)	21.9[8.64]
숙박 및 음식점업	8,198(-43.52)	5,460(-43.79)	2,739(-42.95)	33.41[0.33]
운수업	9,598(-44.79)	6,820(-45.23)	2,778(-43.67)	28.94[0.57]
통신업	735(-47.08)	753(-43.85)	-18(-137.5)	-2.45[-5.91]
금융 및 보험업	5,388(-38.97)	5,001(-37.24)	387(-55)	7.18[-2.56]
부동산 및 임대업	6,892(85.22)	6,443(81.24)	450(171.08)	6.53[2.07]
사업 서비스업	58,779(-10.92)	48,452(-11.53)	10,326(-7.97)	17.57[0.57]
교육 서비스업	6,181(-61.06)	5,944(-61.6)	237(-39.85)	3.83[1.35]
보건 및 사회복지산업	5,453(-50.89)	5,179(-51.57)	274(-33.17)	5.02[1.3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720(-44.82)	1,590(-44.27)	129(-51.14)	7.5[-0.97]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561(-33.88)	2,006(-29.42)	555(-46.17)	21.67[-4.95]

자료: 노동부,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

※ ( ) 는 전반기대비 증감율, [ ]는 전반기대비 %p 증감

서울시의 2008년 하반기 직종별 구인인원, 채용인원 및 미충원인원에 대한 현황은 아래 표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직에서의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 관련직과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서의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감소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금융, 보험 관련직과 방송 관련직 등 전문직에서의 미충원률은 20%를 상회하고 있어 이들 직종에서는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종이 비교적 고소득 직종으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미충원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인력양성에 필요한 기간이 길고,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종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

라서 이들 직종과 관련하여 관련 학과를 졸업한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운전및운송관련직과 음식서비스관련직 등 전통적으로 저숙련 저소득 직종으로 분류되는 직종에서의 미충원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직종에서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11▐ 직종별 구인인원, 채용인원 및 미충원율

단위: 명, %, %p

직종별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전직종	146,323(-26.33)	120,148(-27.42)	26,175(-20.89)	17.89[1.23]
관리직	432(-66.51)	403(-66.94)	29(-59.15)	6.71[1.21]
경영,회계,사무관련직	26,925(-30.56)	22,733(-31.66)	4,191(-23.92)	15.57[1.36]
금융,보험관련직	5,246(-14.66)	4,148(-16.25)	1,098(-8.04)	20.93[1.51]
교육및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	5,284(-59.29)	4,986(-60.75)	298(6.81)	5.64[3.49]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363(-44.66)	349(-46.14)	14(75)	3.86[2.64]
보건,의료관련직	5,413(-37.78)	5,069(-38.38)	344(-27.43)	6.36[0.91]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1,166(-62.85)	1,159(-63.02)	7(40)	0.6[0.44]
문화,예술,디자인 방송관련직	7,239(-39.68)	5,117(-40.34)	2,122(-38.01)	29.31[0.78]
운전및운송관련직	8,702(-43.41)	5,796(-45.58)	2,907(-38.49)	33.41[2.68]
영업및판매관련직	32,596(9.44)	27,127(7.83)	5,469(18.27)	16.78[1.25]
경비및청소관련직	13,984(6.25)	13,104(4.9)	880(31.74)	6.29[1.21]
미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관련직	1,503(-45.25)	1,220(-45.58)	283(-43.74)	18.83[0.51]
음식서비스관련직	8,041(-44.35)	5,546(-48.07)	2,495(-33.82)	31.03[4.94]
건설관련직	8,272(-14.53)	7,126(-15.61)	1,146(-7.13)	13.85[1.1]
기계관련직	2,861(-21.66)	1,976(-22.33)	886(-20.04)	30.97[0.63]
재료관련직	117(-54.3)	71(-55.63)	45(-53.13)	38.46[0.96]
화학관련직	1,111(391.59)	943(388.6)	167(421.88)	15.03[0.87]
섬유및의복관련직	655(-44.02)	273(-45.18)	382(-43.15)	58.32[0.88]
전기전자관련직	3,869(-37.49)	3,160(-38.75)	709(-31.17)	18.33[1.69]
정보통신관련직	10,842(-30.35)	8,559(-31.25)	2,284(-26.7)	21.07[1.05]
식품가공관련직	502(-32.62)	372(-32.97)	130(-31.22)	25.9[0.53]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및생산 단순직	1,200(-20.63)	910(-21.62)	290(-17.38)	24.17[0.96]
농림어업관련직	0(-100)	0(-100)	0(-100)	

자료: 노동부,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

주: ( ) 는 전반기대비 증감율, [ ]는 전반기대비 %p 증감

3) 서울시 규모별·직능수준[4]별 인력 부족률 분석

아래 〈표 II-12〉은 2008년 하반기 규모별·직능수준별 인력 부족률을 분석한 표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력부족은 주로 1수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수준의 직능수준은 비교적 단순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도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대상 단기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미충원 인원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12▐ 규모별 직능수준별 미충원율

단위: 명, %

규 모	1수준_미충원인원	2수준_미충원인원	3수준_미충원인원	전체
5인이상	21,727(-4.17) [82.96]	4,314(-50.8) [16.47]	150(-87.33) [0.57]	26,191(-19.72) [100]
300인 미만	17,819(-12.3) [82.28]	3,728(-52.44) [17.21]	109(-87.34) [0.5]	21,656(-25.37) [100]
5-9인	5,481(-15.69) [95.7]	246(-88.47) [4.3]	0(-100) [0]	5,727(-34.37) [100]
10-29인	3,579(-28.55) [64.5]	1,899(-18.43) [34.22]	71(-46.62) [1.28]	5,549(-25.72) [100]
20-99인	4,363(59.76) [88.45]	542(-75.17) [10.99]	28(-94.64) [0.57]	4,933(-9.25) [100]
100-299인	4,396(-27.67) [80.68]	1,042(-12.66) [19.12]	11(-90.43) [0.2]	5,449(-26.23) [100]
300인 이상	3,908(66.02) [86.17]	587(-36.88) [12.94]	40(-87.62) [0.88]	4,535(25.73) [100]

자료: 노동부,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

※ ( ) 는 전반기대비 증감율, [ ]는 규모별 구성비율

아래 〈표 II-13〉는 직종별 직능수준별 미충원인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000명 이상의 미충원인원을 나타내고 있는 직종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경영,회계,사무관련직, 금융보험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 방송관련직, 운전및운송관련직, 영업및 판매관련직, 음식서비스관련직, 건설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 중에서 건설관련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1수준 직능수준의 미충원인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1수준 : 무경험자의 경우 2년 미만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능사, 산업기사 수준 또는 전문대 및 초대졸이하
2수준 : 무경험자의 경우 2년~10년 미만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사 수준 또는 대졸/석사 수준
3수준 : 무경험자의 경우 10년 이상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수준 또는 박사 수준

▌표 Ⅱ-13▐ 직종별 직능수준별 미충원인원

단위: 명, %

직종별	총원	1수준_미충원인원	2수준_미충원인원	3수준_미충원인원
전직종	26,191(100)	21,727(82.96)	4,314(16.47)	150(0.57)
관리직	29(100)	5(17.24)	13(44.83)	11(37.93)
경영,회계,사무관련직	4,166(100)	3,312(79.5)	842(20.21)	12(0.29)
금융,보험관련직	1,098(100)	968(88.16)	130(11.84)	0(0)
교육및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	308(100)	324(105.19)	-22(-7.14)	6(1.95)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13(100)	3(23.08)	10(76.92)	0(0)
보건,의료관련직	344(100)	213(61.92)	131(38.08)	0(0)
사회복지및 종교관련직	7(100)	32(457.14)	-25(-357.14)	0(0)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2,145(100)	1,669(77.81)	478(22.28)	-2(-0.09)
운전및운송관련직	2907(100)	2965(102)	-58(-2)	0(0)
영업및판매관련직	5,468(100)	4,335(79.28)	1112(20.34)	21(0.38)
경비및청소관련직	877(100)	869(99.09)	8(0.91)	0(0)
미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관련직	283(100)	247(87.28)	36(12.72)	0(0)
음식서비스관련직	2,481(100)	2,448(98.67)	32(1.29)	1(0.04)
건설관련직	1,145(100)	534(46.64)	579(50.57)	32(2.79)
기계관련직	878(100)	675(76.88)	199(22.67)	4(0.46)
재료관련직	46(100)	56(121.74)	-10(-21.74)	0(0)
화학관련직	168(100)	117(69.64)	51(30.36)	0(0)
섬유및의복관련직	382(100)	379(99.21)	3(0.79)	0(0)
전기전자관련직	708(100)	491(69.35)	159(22.46)	58(8.19)
정보통신관련직	2,283(100)	1,735(76)	542(23.74)	6(0.26)
식품가공관련직	130(100)	101(77.69)	29(22.31)	0(0)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및생산 단순직	322(100)	250(77.64)	72(22.36)	0(0)
농림어업관련직	0(-)	-(-)	-(-)	-(-)

자료: 노동부,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

※ ( ) 는 직종별 구성비율

다음 〈표 II-14〉은 2008년 하반기 현원, 부족인원 및 인력 부족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서울시의 인력부족률은 2.0%에 이르고 있으며, 부족인원은 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표 II-14▐ 현원,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

단위: 명, %, %p

	현원	부족인원	부족률
08년 후반기	2,384,271(7.01)	49,269(-6.55)	2[-0.3]
08년 전반기	2,228,134	52,722	2.3

자료: 노동부,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
주: ( ) 는 전반기대비 증감율, [ ]는 전반기대비 %p 증감

인력부족은 상대적으로 30인 미만 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5인 이상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인력부족률이 3.0%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5▐ 기업규모별 현원 부족인원 부족률 및 채용계획인원〉

단위: 명, %, %p

규 모	현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부족률
5인이상	2,384,271(7.01)	49,269(-6.55)	44,716(-16.39)	2[-0.3]
300인 미만	1,770,303(4.98)	41,345(-8.2)	36,747(-17.46)	2.3[-0.3]
5-9인	374,558(0.75)	11,757(-2.2)	12,164(-7.44)	3[-0.1]
10-29인	488,513(-8.51)	11,845(-19.62)	9,317(-32.26)	2.4[-0.3]
20-99인	482,423(9.86)	8,268(13.95)	5,606(-11.45)	1.7[0.1]
100-299인	424,809(24.4)	9,475(-14.07)	9,660(-14.44)	2.2[-0.9]
300인 이상	613,968(13.32)	7,924(3.14)	7,969(-11.09)	1.3[-0.1]

자료: 노동부,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
※ ( ) 는 전반기대비 증감율, [ ]는 전반기대비 %p 증감

산업별로 살펴보면 인력부족률이 높은 산업은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도매및소매업, 사업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산업 중에서 사업서비스업은 비교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산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금 및 근로조건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산업에서 2008년 하반기에 1만 5천여 명의 채용이 계획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분야에서의 인력양성이 매우 유망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II-16〉참조).

▌표 Ⅱ-16▐ 산업별 인력부족률 및 채용계획인원

단위: 명, %

	현원	부족인원	부족률(%)	채용계획인원
전 산업	2,384,271	49,269	2	44,716
광 업	331	0	0	0
제 조 업	351,996	7,067	2	6,17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0,756	43	0.4	51
건설업	184,064	3,659	1.9	3,364
도매 및 소매업	296,134	8,127	2.7	4,471
숙박 및 음식점업	69,196	2,033	2.9	2,225
운수업	144,244	4,773	3.2	4,639
통신업	26,949	178	0.7	218
금융 및 보험업	198,342	2,161	1.1	2,432
부동산 및 임대업	89,341	324	0.4	549
사업 서비스업	628,444	15,863	2.5	15,818
교육 서비스업	139,869	1,416	1	945
보건 및 사회복지산업	126,092	2,257	1.8	2,19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44,212	503	1.1	607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74,301	865	1.2	1,030

자료: 노동부,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

주: 현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의 단위는 명, 부족률의 단위는 %

다음 〈표 Ⅱ-17〉은 2008년 하반기 직종별 인력부족률과 채용계획인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인력부족률이 높은 직종은 재료관련직, 운전및운송관련직, 음식서비스관련직, 섬유및의복관련직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채용계획인원이 많은 직종은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금융, 보험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Ⅱ-17▐ 직종별 인력부족률 및 채용계획인원

단위: 명, %

직종별	부족인원	부족률	채용계획인원
전직종	49,269	2	44,716
관리직	61	0.1	63
경영,회계,사무관련직	11,768	1.9	11,486
금융,보험관련직	2,061	1.4	3,567
교육및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관련직	1,259	1.1	688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91	0.7	76
보건,의료관련직	1,866	2	2,107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320	1	209
문화,예술,디자인 방송관련직	2,700	2.9	3,301
운전및운송관련직	4,611	4.4	3,905
영업및판매관련직	6,618	1.9	4,651
경비및청소관련직	1,582	0.9	1,810
미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관련직	653	2.1	653
음식서비스관련직	2,252	3.4	2,434
건설관련직	2,153	1.6	1,866
기계관련직	1,695	2.3	1,415
재료관련직	363	5.3	293
화학관련직	214	1.8	141
섬유및의복관련직	465	2.7	460
전기전자관련직	1,547	1.9	1,498
정보통신관련직	6,479	4	3,524
식품가공관련직	179	1.7	174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및생산 단순직	329	1	396
농림어업관련직	0	0	0

자료: 노동부,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

※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의 단위는 명, 부족률의 단위는 %

다. 소결

서울시 여성인구는 총 인구의 50.4%를 차지하며, 20대 미만 연령층을 제외하고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40대, 20대 순이었다. 평균 교육년수도 전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서울시 여성은 2005년 기준 평균 11.3년으로 전국평균보다 1.3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서울시는 학력수준에서 고학력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1.7%로 남성(74.7%)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큰 변화는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인력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높이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인력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수요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사업체에서는 어떠한 인력을 선호하는지, 예를 들면, 교육수준이나 전공, 전문기술이나 지식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이고 특별히 고학력 여성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고학력 여성에게 적합한 직무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용자의 요구조사를 통해서 파악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력개발 특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함에 있어서 인력수요동향 조사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사업체 인력수요의 동향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업종과 직종의 인력수요를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즉 보다 심층적인 정보로써 산업별, 직종별로 보다 세부적인 인력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는 본 연구의 사업체에 대한 여성인력수요 조사 자료를 통해서 기초통계 분석이 제시할 수 없는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설명한 2008년 하반기 서울시 인력수요동향 조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이 시사점으로 도출될 수는 있을 것이다.

첫째,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의 인력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의 인력수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력수요가 있는 업종 및 직종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직능수준별 미충원인원에 대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에서의 인력미충원 인원은 주로 1수준의 직능수준 보유 인력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장기간의 고급인력 양성과정보다는 단기 인력양성과정이 오히려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셋째, 직종별 채용계획인원에 대한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채용계획인원이 많은 직종은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금융,보험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직종은 고학력 여성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직종인 것으로 추측되는 바, 이들 직종에서의 인력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요소

가. 서울시 산업구조 및 사업체 분포의 특성

본 절에서는 서울시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2007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원시자료 및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주요 보고서를 활용하여, 서울시 권역별 산업체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국 사업체조사 원시자료는 1994년부터 조사되었으며 전국 사업체의 산업 및 소재지, 조직형태와 종사자 유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될 연도는 '07년도의 서울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지역을 구분하여 각 권역별 통계량을 추출하였다.[5)]

1) 서울시 산업구조의 특성

① 지역총생산 규모

각 권역별 산업의 분포를 보기에 앞서 서울의 산업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II-18〉는 각 산업별 생산량의 변화를 나타내며, 해당 연도의 국내총생산량에서 각 산업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2차 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03년 25%에서 '07년 29%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서울의 경우 '03년 6%에서 '07년 4%로 감소추세에 있다. 반면 금융보험업의 경우 전국은 6~7%대를 유지하나 서울은 14%에서 15%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서울의 산업이 제조업인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인 금융보험업으로 산업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서울로 금융보험업이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도·소매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그 수가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의 경우도 동일하다. 금융보험의 경우, 전국의 경우,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서울권역의 경우,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의 경우,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5) 여기서 활용될 권역별 통계량은 앞서 본 연구를 위해서 구분한 권역구분으로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의 5개 권역임

에 있으나, 서울의 경우, 그 감소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서울의 경우, 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각 산업별 생산량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Ⅱ-18▐ 연도별 산업별 생산량 비교

단위: 백만원, (%)

년	2003	2005	2007	2003	2005	2007
분류	서울			전국		
권역내총생산(시장가격)	154,943,893	158,304,122	170,867,307	668,502,258	730,121,176	806,396,639
농림어업	337,732 (0.218)	316,560 (0.200)	310,619 (0.182)	22,245,548 (3.328)	23,703,790 (3.247)	23,758,794 (2.946)
광업	6,123 (0.004)	6,154 (0.004)	15,750 (0.009)	1,267,989 (0.190)	1,266,527 (0.173)	1,385,286 (0.172)
제조업	9,390,622 (6.061)	8,740,903 (5.522)	8,379,549 (4.904)	171,724,725 (25.688)	202,550,689 (27.742)	235,603,072 (29.217)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619,571 (1.045)	1,677,375 (1.060)	1,758,670 (1.029)	16,353,886 (2.446)	18,503,466 (2.534)	19,682,318 (2.441)
건설업	9,830,940 (6.345)	9,589,067 (6.057)	8,834,583 (5.170)	51,158,876 (7.653)	53,506,627 (7.328)	55,419,034 (6.872)
도소매업	19,731,927 (12.735)	19,603,058 (12.383)	21,037,581 (12.312)	44,373,746 (6.638)	44,667,685 (6.118)	48,435,642 (6.006)
숙박 및 음식점업	5,020,373 (3.240)	4,518,609 (2.854)	4,742,339 (2.775)	16,939,040 (2.534)	16,742,123 (2.293)	17,454,494 (2.165)
운수업	6,403,506 (4.133)	7,163,330 (4.525)	7,779,698 (4.553)	26,315,500 (3.936)	29,014,986 (3.974)	32,115,179 (3.983)
통신업	6,329,851 (4.085)	7,284,784 (4.602)	7,703,431 (4.508)	19,670,652 (2.942)	22,464,770 (3.077)	24,269,566 (3.010)
금융보험업	22,814,893 (14.725)	23,002,924 (14.531)	27,334,372 (15.997)	47,204,772 (7.061)	47,492,135 (6.505)	54,674,758 (6.78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35,136,549 (22.677)	35,584,770 (22.479)	38,243,738 (22.382)	78,462,253 (11.737)	81,248,171 (11.128)	87,590,652 (10.86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5,354,831 (3.456)	5,784,393 (3.654)	6,029,122 (3.529)	32,569,764 (4.872)	35,255,314 (4.829)	37,298,361 (4.625)
교육서비스업	7,159,835 (4.621)	7,422,073 (4.688)	7,762,896 (4.543)	30,803,951 (4.608)	32,515,150 (4.453)	34,441,330 (4.27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271,295 (2.111)	3,593,338 (2.270)	4,000,453 (2.341)	12,082,203 (1.807)	13,425,570 (1.839)	15,520,633 (1.925)
기타서비스업	6,701,672 (4.325)	7,335,015 (4.633)	7,876,147 (4.610)	22,170,621 (3.316)	23,708,648 (3.247)	25,640,472 (3.180)

주 : ()의 숫자는 국내총생산에서 해당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2000년 기준임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② 서울시 권역별 산업체(사업체) 분포

서울의 산업별 사업체 수를 보기위해 우선 산업을 분류하였다. 산업의 분류는 대분류와 중분류로 구분하였는데 대분류는 통계청에서 발행한 『2007 전국사업체조사』의 산업코드에 따라 농업, 어업 및 임업(A)부터 국제 및 외국기관(U)까지 총 21개의 목록으로 나누었다. 중분류는 대분류의 하부목록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분류의 알파벳코드에 이어 두 자리의 자릿수 01부터 99까지를 가지며 대분류 19개의 목록 중 73의 중분류 코드를 가지고 있다.[6)]

서울의 경우 전반적으로 도매 및 소매업(29.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숙박 및 음식점업(15.5%)과 운수업(12.7%)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협회 및 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9.09%), 제조업(8.65%)의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전국단위로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26.7%), 숙박 및 음식점업(18.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1.1%)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도심권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이(44.1%) 다른 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숙박 및 음식점업(13.6%), 제조업(12.4%)의 순으로 나타난다.

동남권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26.4%), 숙박 및 음식점업(15.1%), 숙협회 및 단체, 운수업(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북권은, 도매 및 소매업(24.7%), 운수업(18.9%), 숙박 및 음식점업(16.7%)의 순으로 나타난다.

서남권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27%), 숙박 및 음식점업(16.2%). 운수업(12.1%)의 순으로, 서북권은 도매 및 소매업(23.2%), 운수업(18.7%), 숙박 및 음식점업(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북권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23%), 운수업(18.8%), 숙박 및 음식점업(1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6) 자료의 분석결과, 서울의 경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까지 조사가 되어 분석표에는 (S)까지만 반영을 한다.

▌표 Ⅱ-19▐ 권역별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분포현황

단위: 개, (%)

산업대분류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서울	전국
A. 농업, 임업 및 어업	3 (0.002)	13 (0.007)	0 (0)	1 (0.001)	4 (0.003)	21 (0.003)	2,264 (0.071)
B. 광업	8 (0.006)	21 (0.012)	4 (0.003)	6 (0.004)	5 (0.004)	44 (0.006)	1,786 (0.056)
C. 제조업	17,817 (12.467)	11,712 (6.603)	10,816 (7.847)	15,281 (11.451)	6,075 (5.008)	61,701 (8.655)	331,150 (10.384)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5 (0.01)	66 (0.037)	26 (0.019)	30 (0.022)	32 (0.026)	169 (0.024)	1,562 (0.049)
E.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3 (0.016)	106 (0.06)	58 (0.042)	78 (0.058)	93 (0.077)	358 (0.05)	4,928 (0.155)
F. 건설업	1,666 (1.166)	7,711 (4.348)	3,082 (2.236)	3,967 (2.973)	3,287 (2.71)	19,713 (2.765)	92,531 (2.901)
G. 도매 및 소매업	63,768 (44.62)	47,328 (26.684)	34,074 (24.72)	36,161 (27.098)	28,146 (23.201)	209,477 (29.385)	850,195 (26.659)
H. 운수업	8,151 (5.703)	17,898 (10.091)	26,053 (18.901)	16,152 (12.104)	22,769 (18.769)	91,023 (12.768)	337,947 (10.597)
I. 숙박 및 음식점업	18,665 (13.06)	26,838 (15.132)	23,139 (16.787)	21,562 (16.158)	20,242 (16.686)	110,446 (15.493)	595,852 (18.684)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917 (1.341)	4,387 (2.473)	710 (0.515)	3,339 (2.502)	1,933 (1.593)	12,286 (1.723)	24,057 (0.754)
K. 금융 및 보험업	2,182 (1.527)	3,036 (1.712)	1,125 (0.816)	1,448 (1.085)	1,260 (1.039)	9,051 (1.27)	36,727 (1.152)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4,650 (3.254)	11,148 (6.285)	6,281 (4.557)	5,978 (4.48)	6,320 (5.21)	34,377 (4.822)	119,070 (3.734)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215 (2.949)	10,720 (6.044)	1,844 (1.338)	3,233 (2.423)	2,626 (2.165)	22,638 (3.176)	61,456 (1.927)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640 (1.847)	2,561 (1.444)	913 (0.662)	1,468 (1.1)	1,227 (1.011)	8,809 (1.236)	29,598 (0.928)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65 (0.185)	274 (0.154)	273 (0.198)	237 (0.178)	264 (0.218)	1,313 (0.184)	12,269 (0.385)
P. 교육 서비스업	2,863 (2.003)	7,726 (4.356)	6,218 (4.511)	5,016 (3.759)	6,582 (5.426)	28,405 (3.985)	157,094 (4.926)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04 (1.542)	5,340 (3.011)	4,028 (2.922)	3,056 (2.29)	3,388 (2.793)	18,016 (2.527)	81,013 (2.54)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38 (1.846)	5,067 (2.857)	4,628 (3.357)	4,034 (3.023)	3,813 (3.143)	20,180 (2.831)	96,335 (3.02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225 (6.455)	15,412 (8.689)	14,570 (10.57)	12,396 (9.289)	13,246 (10.919)	64,849 (9.097)	353,347 (11.08)
합계	142,915 (100)	177,364 (100)	137,842 (100)	133,443 (100)	121,312 (100)	712,876 (100)	3,189,181 (100)

주 : ()의 숫자는 비율을 나타낸다.

중분류 기준에 의해 권역별로 사업체 수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도심권의 경우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기타 제품 제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남권의 경우, 종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출판업,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의 사업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동북권의 경우,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서남권의 경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숙박업, 출판업 등의 사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타 권역에 비해 우세한 사업체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서북권의 경우,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교육서비스업, 수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의 사업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Ⅱ-20▐ 권역별 산업(중분류)별 사업체 분포현황

단위: 개, (%)

산업중분류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서울	전국
A01. 농업	2 (0.001)	3 (0.002)	0 (0)	0 (0)	2 (0.002)	7 (0.001)	1,629 (0.051)
A02. 임업	0 (0)	3 (0.002)	0 (0)	1 (0.001)	1 (0.001)	5 (0.001)	257 (0.008)
A03. 어업	1 (0.001)	7 (0.004)	0 (0)	0 (0)	1 (0.001)	9 (0.001)	378 (0.012)
B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2 (0.001)	0 (0)	0 (0)	0 (0)	0 (0)	2 (0)	19 (0.001)
B06. 금속 광업	0 (0)	3 (0.002)	0 (0)	0 (0)	0 (0)	3 (0)	14 (0.000)
B0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4 (0.003)	18 (0.01)	3 (0.002)	5 (0.004)	4 (0.003)	34 (0.005)	1,746 (0.055)
B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2 (0.001)	0 (0)	1 (0.001)	1 (0.001)	1 (0.001)	5 (0.001)	7 (0.000)
C10. 식료품 제조업	757 (0.53)	1,304 (0.735)	1,803 (1.308)	1,339 (1.003)	1,241 (1.023)	6,444 (0.904)	56,175 (1.761)
C11. 음료 제조업	2 (0.001)	19 (0.011)	7 (0.005)	8 (0.006)	5 (0.004)	41 (0.006)	1,216 (0.038)

산업중분류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서울	전국
C12. 담배 제조업	1 (0.001)	1 (0.001)	0 (0)	0 (0)	0 (0)	2 (0)	15 (0.000)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903 (1.332)	1,083 (0.611)	1,338 (0.971)	516 (0.387)	370 (0.305)	5,210 (0.731)	20,486 (0.642)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911 (2.737)	2,107 (1.188)	3,666 (2.66)	1,824 (1.367)	1,171 (0.965)	12,679 (1.779)	23,903 (0.750)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9 (0.146)	506 (0.285)	401 (0.291)	129 (0.097)	246 (0.203)	1,491 (0.209)	4,078 (0.128)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74 (0.122)	98 (0.055)	81 (0.059)	105 (0.079)	104 (0.086)	562 (0.079)	6,872 (0.215)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41 (0.239)	186 (0.105)	87 (0.063)	133 (0.1)	105 (0.087)	852 (0.12)	5,459 (0.171)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710 (3.995)	853 (0.481)	230 (0.167)	725 (0.543)	371 (0.306)	7,889 (1.107)	17,633 (0.553)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 (0.002)	4 (0.002)	2 (0.001)	4 (0.003)	1 (0.001)	14 (0.002)	271 (0.008)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07 (0.075)	191 (0.108)	52 (0.038)	160 (0.12)	80 (0.066)	590 (0.083)	6,890 (0.216)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6 (0.011)	71 (0.04)	23 (0.017)	38 (0.028)	19 (0.016)	167 (0.023)	918 (0.029)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30 (0.231)	284 (0.16)	178 (0.129)	478 (0.358)	121 (0.1)	1,391 (0.195)	15,897 (0.498)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33 (0.093)	136 (0.077)	94 (0.068)	104 (0.078)	71 (0.059)	538 (0.075)	9,804 (0.307)
C24. 1차 금속 제조업	77 (0.054)	112 (0.063)	39 (0.028)	254 (0.19)	26 (0.021)	508 (0.071)	5,725 (0.180)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68 (0.887)	1,070 (0.603)	879 (0.638)	3,066 (2.298)	525 (0.433)	6,808 (0.955)	53,313 (1.672)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2 (0.099)	443 (0.25)	131 (0.095)	1,030 (0.772)	215 (0.177)	1,961 (0.275)	9,997 (0.313)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9 (0.118)	347 (0.196)	237 (0.172)	692 (0.519)	163 (0.134)	1,608 (0.226)	7,243 (0.227)
C28. 전기장비 제조업	448 (0.313)	529 (0.298)	383 (0.278)	1,182 (0.886)	313 (0.258)	2,855 (0.4)	16,985 (0.533)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5 (0.234)	949 (0.535)	272 (0.197)	2,515 (1.885)	190 (0.157)	4,261 (0.598)	33,276 (1.043)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 (0.008)	74 (0.042)	32 (0.023)	131 (0.098)	20 (0.016)	268 (0.038)	6,625 (0.208)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0 (0.014)	17 (0.01)	6 (0.004)	35 (0.026)	3 (0.002)	81 (0.011)	2,244 (0.070)
C32. 가구 제조업	88 (0.062)	147 (0.083)	143 (0.104)	129 (0.097)	157 (0.129)	664 (0.093)	9,593 (0.301)
C33. 기타 제품 제조업	1,662 (1.163)	1,181 (0.666)	732 (0.531)	684 (0.513)	558 (0.46)	4,817 (0.676)	16,532 (0.518)

산업중분류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서울	전국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3 (0.009)	59 (0.033)	22 (0.016)	26 (0.019)	28 (0.023)	148 (0.021)	1,027 (0.032)
D36. 수도사업	2 (0.001)	7 (0.004)	4 (0.003)	4 (0.003)	4 (0.003)	21 (0.003)	535 (0.017)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8 (0.006)	38 (0.021)	23 (0.017)	20 (0.015)	36 (0.03)	125 (0.018)	1,175 (0.037)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13 (0.009)	64 (0.036)	35 (0.025)	55 (0.041)	57 (0.047)	224 (0.031)	3,708 (0.116)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 (0.001)	4 (0.002)	0 (0)	3 (0.002)	0 (0)	9 (0.001)	45 (0.001)
F41. 종합 건설업	288 (0.202)	121 (1.027)	367 (0.266)	532 (0.399)	484 (0.399)	3,492 (0.49)	17,815 (0.559)
F42. 전문직별 공사업	1,378 (0.964)	5,890 (3.321)	2,715 (1.97)	3,435 (2.574)	2,803 (2.311)	16,221 (2.275)	74,716 (2.343)
G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387 (0.271)	1,221 (0.688)	1,402 (1.017)	625 (0.468)	653 (0.538)	4,288 (0.602)	22,595 (0.708)
G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38,282 (26.787)	20,205 (11.392)	6,385 (4.632)	14,225 (10.66)	5,968 (4.92)	85,065 (11.933)	219,005 (6.867)
G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25,099 (17.562)	25,902 (14.604)	26,287 (19.07)	21,311 (15.97)	21,525 (17.744)	120,124 (16.851)	608,595 (19.083)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617 (4.63)	16,908 (9.533)	25,706 (18.649)	15,573 (11.67)	21,285 (17.546)	86,089 (12.076)	314,575 (9.864)
H50. 수상 운송업	88 (0.062)	46 (0.026)	1 (0.001)	19 (0.014)	19 (0.016)	173 (0.024)	1,137 (0.036)
H51. 항공 운송업	9 (0.02)	12 (0.007)	0 (0)	3 (0.002)	26 (0.021)	70 (0.01)	154 (0.005)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417 (0.991)	932 (0.525)	346 (0.251)	557 (0.417)	1,439 (1.186)	4,691 (0.658)	22,081 (0.692)
I55. 숙박업	1,151 (0.805)	1,279 (0.721)	1,378 (1)	1,941 (1.455)	1,081 (0.891)	6,830 (0.958)	45,029 (1.412)
I56. 음식점 및 주점업	17,514 (12.255)	25,559 (14.41)	21,761 (15.787)	19,621 (14.704)	19,161 (15.795)	103,616 (14.535)	550,823 (17.272)
J58. 출판업	1,186 (0.83)	2,541 (1.433)	354 (0.257)	2,110 (1.581)	1,123 (0.926)	7,314 (1.026)	10,925 (0.343)
J59.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51 (0.176)	781 (0.44)	133 (0.096)	447 (0.335)	334 (0.275)	1,946 (0.273)	3,545 (0.111)
J60. 방송업	23 (0.016)	36 (0.02)	14 (0.01)	33 (0.025)	32 (0.026)	138 (0.019)	777 (0.024)
J61. 통신업	167 (0.117)	308 (0.174)	123 (0.089)	205 (0.154)	140 (0.115)	943 (0.132)	5,122 (0.161)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0 (0.105)	409 (0.231)	65 (0.047)	353 (0.265)	182 (0.15)	1,159 (0.163)	2,380 (0.075)
J63. 정보서비스업	140 (0.098)	312 (0.176)	21 (0.015)	191 (0.143)	122 (0.101)	786 (0.11)	1,308 (0.041)

산업중분류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서울	전국
K64. 금융업	1,009 (0.706)	1,610 (0.908)	651 (0.472)	796 (0.597)	665 (0.548)	4,731 (0.664)	20,314 (0.637)
K65. 보험 및 연금업	450 (0.315)	555 (0.313)	232 (0.168)	217 (0.163)	256 (0.211)	1,710 (0.24)	8,332 (0.261)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723 (0.506)	871 (0.491)	242 (0.176)	435 (0.326)	339 (0.279)	2,610 (0.366)	8,081 (0.253)
L68. 부동산업	4,355 (3.047)	10,296 (5.805)	5,698 (4.134)	5,393 (4.041)	5,701 (4.699)	31,443 (4.411)	104,672 (3.282)
L69. 임대업;부동산 제외	295 (0.206)	852 (0.48)	583 (0.423)	585 (0.438)	619 (0.51)	2,934 (0.412)	14,398 (0.451)
M70. 연구개발업	186 (0.13)	313 (0.176)	51 (0.037)	247 (0.185)	118 (0.097)	915 (0.128)	2,996 (0.094)
M71. 전문서비스업	2,684 (1.878)	5,789 (3.264)	831 (0.603)	1,508 (1.13)	1,250 (1.03)	12,062 (1.692)	27,450 (0.861)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91 (0.204)	2,597 (1.464)	347 (0.252)	838 (0.628)	400 (0.33)	4,473 (0.627)	15,443 (0.484)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54 (0.738)	2,021 (1.139)	615 (0.446)	640 (0.48)	858 (0.707)	5,188 (0.728)	15,567 (0.488)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24 (0.087)	331 (0.187)	120 (0.087)	176 (0.132)	116 (0.096)	867 (0.122)	3,843 (0.121)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2,516 (1.76)	2,230 (1.257)	793 (0.575)	1,292 (0.968)	1,111 (0.916)	7,942 (1.114)	25,755 (0.808)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65 (0.185)	274 (0.154)	273 (0.198)	237 (0.178)	264 (0.218)	1,313 (0.184)	12,269 (0.385)
P85. 교육 서비스업	2,863 (2.003)	7,726 (4.356)	6,218 (4.511)	5,016 (3.759)	6,582 (5.426)	28,405 (3.985)	157,094 (4.926)
Q86. 보건업	1,768 (1.237)	4,622 (2.606)	2,773 (2.012)	2,407 (1.804)	2,590 (2.135)	14,160 (1.986)	56,100 (1.759)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436 (0.305)	718 (0.405)	1,255 (0.91)	649 (0.486)	798 (0.658)	3,856 (0.541)	24,913 (0.78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67 (0.327)	581 (0.328)	331 (0.24)	449 (0.336)	404 (0.333)	2,232 (0.313)	8,178 (0.256)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2,171 (1.519)	4,486 (2.529)	4,297 (3.117)	3,585 (2.687)	3,409 (2.81)	17,948 (2.518)	88,157 (2.764)
S94. 협회 및 단체	2,353 (1.646)	3,143 (1.772)	2,975 (2.158)	2,683 (2.011)	2,864 (2.361)	14,018 (1.966)	84,333 (2.644)
S95. 수리업	2,605 (1.823)	3,808 (2.147)	3,482 (2.526)	3,017 (2.261)	3,013 (2.484)	15,925 (2.234)	91,278 (2.862)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4,267 (2.986)	8,461 (4.77)	8,113 (5.886)	6,696 (5.018)	7,369 (6.074)	34,906 (4.897)	177,736 (5.573)
합계	142,915 (100)	177,364 (100)	137,842 (100)	133,443 (100)	121,312 (100)	712,876 (100)	3,189,181 (100)

③ 서울시 권역별·성별·종사상지위별 종사자분포

서울시의 권역별·성별 종사자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근로자 1,625,581명(41.1%), 남성근로자 2,330,965명(58.9%)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동남권, 도심권,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의 순으로 종사자수가 많았고, 남성의 경우 동남권, 서남권, 도심권, 서북권, 동북권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사자수는 동남권이 1,322,2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심권 (783,733명), 서남권(763,484명)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 뒤를 서북권(566,257명), 동북권(520,83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동북권(44.5%), 서북권(43.9%), 도심권(42.3%)의 순으로 나타났고 서남권(39.03%)과 동남권(38.96%)은 40%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단위로 살펴보면 여성근로자가 6,402,857명, 남성근로자가 9,325,171명으로 나타났고 여성비율은 서울 평균보다 낮은 40.71%로 나타났다.

▌표 Ⅱ-21▐ 성별 권역별 종사자분포 현황

(단위: 명, %)

구분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서울	전국
여성	331,965	515,219	231,616	298,044	248,737	1,625,581	6,402,857
남성	451,768	807,020	289,217	465,440	317,520	2,330,965	9,325,171
전체	783,733 (42.35)	1,322,239 (38.96)	520,833 (44.47)	763,484 (39.03)	566,257 (43.92)	3,956,546 (41.08)	1,572,8028 (40.71)

주 : ()는 여성비율을 나타낸다.

자료: 통계청. 2007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여성비율을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권역별로 34%~36%의 비율을 보였고 이는 전국기준의 40.16%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여성비율이 모든 권역에서 60% 이상의 수치를 보였고 전국의 비율도 62%로 나타났다. 상용종사자의 경우 동북권과 서북권이 약 41%의 여성비율을 보였고 서남권이 36.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평균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38.6%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일종사자는 도심권이 55%로 가장 큰 수치로 나타났고 동남권이 39%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평균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48.7%로 나타났다. 무급종사자의 경우도 여성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동북권의 경우 무려 73%의 수치를 보였고 서울평균 64.1%, 전국평균 64.8%로 나타났다.

전체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종사자, 무급종사자는 동남권에서 가장 많았고 무급가족종사자는 도심권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또한 대체로 모든 권역에서 자영업자와 상용종사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2▐ 성별 권역별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서울	전국
자영업자	여성	43,229	47,707	42,924	37,300	38,075	209,235	1,086,098
	남성	78,256	84,472	81,067	72,049	65,565	381,409	1,617,697
	전체	121,485 (35.584)	132,179 (36.093)	123,991 (34.619)	109,349 (34.111)	103,640 (36.738)	590,644 (35.425)	2,703,795 (40.169)
무급가족종사자	여성	23,062	17,855	20,313	16,387	15,597	93,214	482,199
	남성	10,959	10,183	11,217	9,466	9,159	50,984	292,632
	전체	34,021 (67.788)	28,038 (63.681)	31,530 (64.424)	25,853 (63.385)	24,756 (63.003)	144,198 (64.643)	774,831 (62.233)
상용종사자	여성	204,944	373,197	114,502	189,813	142,214	1,024,670	3,481,573
	남성	317,273	608,498	161,927	335,465	201,587	1,624,750	6,293,066
	전체	522,217 (39.245)	981,695 (38.016)	276,429 (41.422)	525,278 (36.136)	343,801 (41.365)	2,649,420 (38.675)	9,774,639 (35.618)
임시 및 일일종사자	여성	45,473	59,115	36,529	39,857	36,027	217,001	890,846
	남성	36,087	90,409	28,770	40,703	32,306	228,275	870,904
	전체	81,560 (55.754)	149,524 (39.535)	65,299 (55.941)	80,560 (49.475)	68,333 (52.723)	445,276 (48.734)	1,761,750 (50.566)
무급종사자	여성	15,257	17,345	17,348	14,687	16,824	81,461	462,141
	남성	9,193	13,458	6,236	7,757	8,903	45,547	250,872
	전체	24,450 (62.401)	30,803 (56.309)	23,584 (73.558)	22,444 (65.438)	25,727 (65.394)	127,008 (64.138)	713,013 (64.815)

주 : ()는 여성비율을 나타낸다.

자료: 통계청. 2007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나. 서울시 산업정책 및 전략산업의 방향

1) 산업특성[7]의 SWOT 분석

서울시의 산업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기업의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써 사용되는 SWOT 분석은 현상에 대한 강점과 약점, 위협

7) 서울권역 산업특성에 대한 SWOT 분석 내용은 신창호외(2004)의 '서울특별시 제1차 권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요인과 기회요인 등 현상의 내·외부적 요인을 모두 담고 있어 서울시의 특성을 다각도로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① 강점요인

서울시 산업특성의 강점요인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수도로써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의 집적지며, 특히 과학기술 등 첨단산업의 발전 동력이 되는 각종 지식산업의 중심지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는 인구 뿐 아니라 각종 첨단 및 지식산업의 집적지로써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의 집적을 이루고 있다. 서울시의 인구는 천만명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1/4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의 집중은 각종 생산과 소비를 집중시키고 있다.

둘째, 산업구조의 특성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부분의 권역내 총생산 규모는 2007년 현재 서울시 전체의 약 20%에 이르고 있으며,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 사업지원 서비스 부문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 외에 정보서비스나 문화산업과 같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출판·인쇄(판매, 기획), 의류(판매·디자인),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문화(영화·방송·애니메이션) 등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도심권, 동남권 등 권역을 중심으로 한 업무기능이 특화되고 있다.

② 약점요인

서울시 산업의 약점요인은 강점요인의 다른 측면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각종 산업의 집적지로써 팽창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속적인 성장의 한계는 산업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제조업의 쇠퇴와 지식기반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정보화와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따라 제조업의 감소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나 서울시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이와 같은 감소추세는 제조업 종사인력의 실업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전통 제조업의 입지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서울의 전통 제조업이 빠른 속도로 서울 이외의 타 권역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미약하여 기존의 생산기능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던 서울의 준공업권역은 아파트 단지 위주의 주거기능 중심

지로 재편되고 있다. 서울의 권역혁신 차원에서 기획관리 및 지식기반서비스 기능 외에 생산기능과의 공간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 권역 내 지식기반 제조기능의 입지기반 개선이 필요하며 수도권 차원에서의 권역혁신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③ 기회요인

서울시는 각종 첨단산업 및 지식의 집적지로써 세계화의 흐름과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인 산업전략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도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서울시는 금융, 정보, 첨단 산업 뿐 아니라 광범위한 제품 수요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산업발전의 잠재적 역량이 풍부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요시장은 혁신 실험과 사업화에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서울시 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관련 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함으로써 정보 및 지식집약 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둘째, 대도시의 활발한 대중문화의 발전과 역사적 자산이 존재한다. 디지털 콘텐츠, 애니메이션, 의류패션 등 정보·문화 관련 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서울이 600년 전통을 갖는 역사도시로서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천만의 거대도시로 유행을 창출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서울시는 권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강남북 균형발전 및 도심권역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상암권역에 디지털·미디어 중심단지를 형성하였고, 도심권역내 도심환경 개선과 노후시설의 재정비를 통한 업무권역 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전략의 추진과 서울시 동아시아 국제금융 중심지 육성계획에 따라 산업중심지, 연구개발 중심지로서 다양한 산업정책의 메카를 이루고 있다.

④ 위협요인

서울시 산업정책에 있어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역시 물리적 공간의 한계로 인한 것이다. 또한 점차 상승하는 인건비는 중국이나 동아시아 권역의 경쟁력에서 밀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첫째, 권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수용할 수 있는 가용공간의 부족은 서울시 산업 활성화의 중요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은 성장단계를 지나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도시계획

구역 내 개발공간이 포화상태에 있다. 금융기관, 각종 공공행정 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이나 강남, 여의도 등 업무중심권역의 경우에도 개발가능 공간이 부족하여 오피스 공간의 추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경쟁의 글로벌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은 동아시아 권역의 경쟁도시는 물론 세계 대도시와의 다차원적인 경쟁에 처해 있다. 동남아 권역의 후발 경제 국가는 저임금과 기술모방의 신속성으로 전통 제조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의 선진경제 국가는 고부가가치 고도기술 산업부문에서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2) 서울시 산업정책의 특성과 전략

서울시 산업정책 방향의 기반은 전체 산업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토대로 한 연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산업정책 관련 연구 및 서울시의 전략산업을 도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울시의 권역기반 산업특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권역별로 어떠한 전략산업 등을 도출하고 있는가를 기존의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2005 등)와 서울시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가 미래의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의 수도로써 서울시의 핵심가치 및 역량을 정의하고 이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그 하나의 접근방법은 서울시의 전략산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전략산업은 산업의 입지요인 측면에서 최적입지를 보이고 있거나 과학기술의 혁신역량 및 미래지향적 산업의 잠재역량적인 측면에서 발전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권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 역량을 최대로 발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며 기술융합적인 산업으로 정의(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산업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은 산업기술 및 지식집약성, 입지우위성, 성장잠재력, 서울시의 정책의지이며, 산업유형은 기존 주력산업,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산업기술 및 지식집약성에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성장유망산업이 포함되었다. 입지우위성에는 입지상(LQ)지수를 반영하였고, 성장잠재력을 위해서 부가가치 성장률을, 서울시 정책의지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과 정책 우선지원대상 산업을 고려하고 있다.

▌표 Ⅱ-23▐ 전략산업 선정기준별 분석결과 요약

선정기준/산업유형		기존주력산업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기술 및 지식집약성	성장유망산업	섬유,의류, 신발, 석유화학, 철강, 기계, 가전,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 정밀기기, 신소재, 환경·항공·우주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문화, 관광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 바이오신약/장기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컨텐츠/sw 솔루션
입지우위성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바이오신약/장기	항공운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영화·방송 및 공연산업, 전문직별 공사업, 도소매업, 운송관련업, 금융보험 관련업 등
성장잠재력		섬유제품 출판·인쇄및기록매체 복제,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가구 및 기타 제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 관련업
서울시 정책의지	서울형 산업	패션, 디자인	바이오 산업	애니메이션/게임 소프트웨어업 우수전통공예
	도시기본계획	-	IT산업 디지털컨텐츠	금융산업 문화산업
중앙정부정책 방향(서울시 전략산업 부문)	산업자원부	섬유·패션산업	생물산업	
	전경련	의류·모피산업, 음식료품	전자정보 영상미디어 생물산업	금융산업,컨벤션 산업, 유통물류
	산업연구원	의류(패션디자인)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 문화산업(영상·음반·출판)

자료: 신창호외(2004), 서울특별시 제1차 권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계속해서, 기존의 문헌을 종합·정리한 후, 다시 서울시의 전략산업을 4대 산업으로 축약하고 있다. 서울시의 4대 전략산업에는 디지털컨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바이오 산업,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디지털컨텐츠 산업은 풍부한 자본 및 멀티미디어컨텐츠 산업수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암 DMC가 건설되었고, 디자인컨텐츠 산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기초로 세부산업에는 영상/애니메이션 산업 및 게임산업이 포함된다. 여기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디지털 컨텐츠/sw 솔루션 산업이 연동되어 있다. 둘째, 정보통신산업은 경쟁력을 갖춘 클러스터가 존재하며, 사업관련 지식의 풍부한 집적이 이루어진 곳이고, 풍부한 기반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이 선정의 근거가

된다. 여기에 포함된 세부산업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업과 정보통신제조업이 포함되고 있으며 관련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는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지능형 로봇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바이오 산업은 다수의 바이오벤처 입지와 산업관련 지적 인프라 및 다양한 기반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이 선정근거가 되었으며, 생물산업, 바이오신약/장기, 바이오-나노산업이 세부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에는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경제성장의 핵심분야로 부상하였으며, 고도의 지식집약적 산업, 도심·여의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선정의 근거가 되었다. 여기에는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이 세부산업으로 연관되어 있다.

▌표 Ⅱ-24▐ 서울시의 4대 전략산업

서울시 전략산업	세부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선정근거	비고 (해당권역)
디지털 컨텐츠 산업 (제1전략산업)	○ 영상/애니메이션 산업 ○ 게임산업	– 디지털컨텐츠/ SW솔루션	• 풍부한 자본 및 멀티미디어컨텐츠 산업수요 존재 • DMC 건설중 • 디자인컨텐츠 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제조 서남권(31.7%) 동남권(28.7%) ○도소매 판매 – 도심권
정보통신 산업 (제2전략산업)	○ 정보통신서비스업 ○ 정보통신제조업	– 차세대이동통신 – 지능형홈네트워크 – 지능형 로봇	• 경쟁력을 갖춘 클러스터 존재 • 사업관련 지식의 풍부한 집적 • 풍부한 기반시설의 존재	– 동남권 – 서남권
바이오 산업 (제3전략산업)	○ 생물산업 ○ 바이오신약/장기 ○ 바이오–나노산업		• 다수의 아이오벤처 입지 • 산업관련 지적 인프라 및 다양한 기반시설 존재	– 동남권(강남, 서초) – 서남권(관악)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제4전략산업)	○ 금융 및 보험업 ○ 사업서비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디자인산업 제외)		•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경제성장의 핵심분야로 부상 • 고도의 지식집약적 산업 • 도심, 여의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형성	– 동남권(39.8), 도심권(21.8%) 등

자료: 신창호외(2004), 서울특별시 제1차 권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재구성.
주 1) 비고는 본 연구에서 구분한 권역구분에 따른 것임

한편, 실제 서울시 산업구조의 특성을 EG(Ellison-Glaeser)의 산업집중지수[8]를 통해 도출한 연구(윤형호외, 2005)에서는 이 EG 계수에 의한 권역별[9] 특화산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8) EG지수란, 특정산업의 권역종사자 분포가 인구분포 이상으로 집중되었을 때, 그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권역 및 산업체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9) 윤형호외(2005)에서 활용하고 있는 권역구분은 서울시 생활권역에 따른 분류로 본 연구의 권역구분과는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 구분하고 있는 5대 생활권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심권에 집중된 산업으로 출판·인쇄(2.77), 화합물·화학제품(1.51), 금융·보험업(1.84), 공공행정(1.33), 도·소매업(1.27)이 포함된다. 둘째, 동북권의 경우 가죽·가방·신발(2.84), 섬유제품(1.97), 봉제의복(1.91),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1.55), 교육서비스업(1.39), 보건·사회복지(1.37)등이 집중된 산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셋째, 서북권의 경우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낙후되어 있지만 마포구는 종이 및 인쇄업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고, 펄프·종이(1.33), 출판·인쇄(1.27), 교육서비스업(1.65), 개인서비스업(1.3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1.34) 등이 집중되었다. 넷째, 서남권에는 기계·장비(2.39), 조립금속제품(2.00), 전자부품(1.82), 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1.81), 고무·플라스틱제품(1.79), 컴퓨터·사무용기기(1.74) 등 제조업과 오락·문화(1.31), 운수업(1.22) 등과 같은 서비스업이 집중되었다. 다섯째, 동남권의 경우 정보처리·컴퓨터 운영 관련업(1.8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77), 건설업(1.51), 사업지원서비스업(1.41), 연구·개발업(1.36) 등 사업서비스업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되었다.

다른 한편, 서울시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권역 내 고유의 입지특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으로 '지연산업'이 있다. 지연산업은 5대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3~4개의 행정자치구로 구성되며, 중생활권 범위로 특화되어 있어 고용 및 소득창출, 정주체계 안정 등 생활경제기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연산업으로는 도심권역의 특수인쇄, 출판, 홍보물제작 및 문화, 관광산업이 있고, 이를 생활권역별 전략산업과 지연산업을 묶어서 특화산업으로 재구성(윤형호외, 2005)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산업정책의 전략과 동시에 권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표 Ⅱ-25▐ 권역별 특화산업

권역구분	특화산업
도심권	특수인쇄, 출판, 홍보물제작, 금융 및 보험업
동북권	의류·패션
동남권	사업서비스업, 게임과 디지털 콘텐츠
서북권	
서남권	전자정보기기

자료: 윤형호외(2005), 서울시 산업특성화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권역	해당 자치구	비고(본연구의 구분)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종로,중,용산,성북
동북권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중랑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강남,송파,강동,성동
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서대문,마포,강서,양천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또한 서울시는 최근('09.4)에 서울시 산업 뉴타운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주거정책인 뉴타운의 개념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전략에 도입·적용하고 권역별로 산업환경을 정비하여 서울의 핵심산업을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에 있다. 제1차로 6개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총 3차에 걸쳐 25개 자치구를 모두 포함할 계획이다.

1차 대상지는 성동 IT지구(동남권), 마포디자인 지구(서북권), 종로 귀금속 보석지구(도심권), 여의도 금융지구(서남권), 중구 금융지구(도심권), 양재 R&D 지구(동남권)로 특성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남권에 포함된 성수 IT지구는 대규모 준공업 권역으로 아파트형 공장 등 IT 관련 선도시설이 다수 입지해 있으며, 컴퓨터 및 전자부품, 반도체 등 전자관련 산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학과 지하철·간선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다. 양재 R&D 특정개발지구 역시 동남권에 속하며 현대자동차연구센터, LG 전자연구센터, KT, 모토롤라연구소 등 대규모 연구시설을 비롯한 서울시 R&D 관련 기업의 13.5%가 주변에 입지한 특성이 있다.

서북권에 포함된 마포디자인 지구는 소규모 디자인업체와 출판사 등 디자인 관련 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며 시에서 마포 디자인 클러스트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지하철 역 등 교통접근성이 우수하며 홍대 등 미술관련 학교와 연계되어 디자인 발전가능성이 풍부한 것을 특성으로 한다.

도심권에 포함된 종로 귀금속·보석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귀금속 상가 및 제조업 밀집권역으로 대중교통의 접근성 및 산업 인프라 여건이 우수하고, 권역내 산업간 연계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종로3가 주변 등 오래전부터 형성된 귀금속 관련 산업은 이미 서울을 넘어선 귀금속 및 보석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구 금융 특정개발진흥지구도 도심권에 속해 있는데 국내 주요은행의 본점이 입지해 있어 전통적인 금융중심권역이며 서울 도심의 입지특성으로 인해 산업인프라와 교통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서울시의 도심재창조프로젝트인 역사 및 관광문화축 조성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금융산업의 허브로 조성 가능한 권역이다.

서남권에 포함되어 있는 여의도 금융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금융감독원, 증권예탁원 등 증권유관기관과 보험개발원 등 보험관련 기관들이 밀집·분포해 있어 한국의 '월스트리트'로 불린다. 각종 산업인프라와 교통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며 정부에서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고 있다.

▌표 Ⅱ-26▐ 서울시 권역별 산업 뉴타운 프로젝트 대상지 현황

연번	지구명	권장업종		용도권역	비고
		주업종	보조업종		
1	성수 IT	IT	BT, R&D	준공업권역	영세공장 밀집
2	마포디자인	디자인	출판	근린상업, 준주거, 2·3종 일반주거	디자인산업 권역내 산재
3	종로 귀금속보석	귀금속 제조	귀금속 및 도소매	일반상업	귀금속 밀집권역
4	여의도 금융	금융 및 보험	-	일반상업	금융중심지 지정
5	중구 금융	금융 및 보험	-	일반상업	금융업 밀집권역
6	양재 R&D	R & D	-	준주거, 2종일반주거	우면2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내

자료: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기업지원담당관 내부자료

이와 같은 기존연구 연구와 서울시 산업정책 및 전략, 권역의 집중된 산업 및 기존 특화 산업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특화 산업을 도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도심권은 사업체 수 및 종사자 규모로 그 비중을 보면, 모두 5개 권역의 약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집중되어온 산업으로 주로 제조업으로 섬유나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이 있다. 최근 서울시 발전계획상 특화산업 권역으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종로구는 귀금속과 관광자원 개발로 특화할 계획에 있으며, 중구는 금융 중심지로 특화하고 있다. 2차 산업뉴타운 계획에는 성동구가 IT업종으로 특화할 예정에 있다. 본 절에서 기존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도출하고 있는 특화산업으로는 패션·문화,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 제시되었다.

동남권은 사업체 수 및 종사자 규모로 볼 때, 사업체 수는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종사자 수는 전체의 33.4%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체 규모가 종사자 수가 많은 중·대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집중된 특화산업으로는 다양한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데, 종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금융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다. 1차 산업뉴타운 권역으로 지정된 성동구는 IT산업으로 인근대학과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정보기술 및 바이오 기술 등 첨단산업 단지로 육성할 계획에 있다. 또한 서초구는 양재 R&D에는 자동차와 전자분야의 세계적인 R&D의 메카로 육성될 계획이다. 본 절에서 기존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도출하고 있는 특화산업으로는 출판, IT, 서비스업이 제시되었다.

동북권은 사업체 수 및 종사자 규모로 보면 사업체 수는 전체의 약 19.3%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종사자 수는 13.1%를 차지하고 있어 주로 소규모 사업체가 밀집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권역의 집중산업 및 기존의 특화산업으로는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다.

서남권은 사업체 수 및 종사자 규모별로 약 19%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중된 산업 및 기존 특화산업으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등 주로 기계, 전자 관련 제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1차산업 뉴타운계획에 따라 영등포구가 여의도 금융 육성계획에 따라 '금융관련 동북아 거점도시'로 성장할 예정에 있다. 2차산업 뉴타운권역으로는 구로구가 IT나 첨단제조업으로 특성화할 계획에 있다. 기존/예정산업 클러스터로써 동작구 및 관악구가 바이오로 특화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 특성화 할 수 있는 산업으로 금융, 바이오, 제조업 등을 제시할 수 있겠다.

서북권은 사업체 수 및 종사자 규모별로 사업체는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종사자 규모는 전체의 14.3%에 불과하고 있어 한 사업체 내에 주로 소규모 종사자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중된 산업 및 기존 특화산업으로는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외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1차 산업뉴타운 계획에 따라 마포구를 마포 다자인 육성계획에 따라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에 있다. 2차 산업 뉴타운 권역으로 은평구는 식품재료, 강서구를 IT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에 있다. 기존/예정산업 클러스터 산업으로는 마포의 DMC(Digital Media City), 서대문구의 영화, 양천구는 방송, 강서구는 R&D로 되어 있으며, 본 절에서 도출한 특화산업으로는 교육, 영상문화, 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도출되고 있다.

▌표 Ⅱ-27▌ 권역별 사업체구분별 사업체 현황 및 특성화 산업

단위: 명, %

구분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사업체 및 산업체 일반 특성	사업체 수: 142,915(20.0) 종사자 수 : 787,733(19.9)	사업체 수: 177,346(24.9) 종사자 수: 1,322,239(33.4)	사업체 수: 137,842(19.3) 여성종사자 수: 520,833(13.1)	사업체 수: 133,433(18.7) 종사자 수: 763,484(19.3)	사업체 수: 121,312(17.0) 종사자 수: 566,257(14.3)
집중된 산업 및 기존 특화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종합 건설업 · 전문직별 공사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출판업 · 금융업 · 부동산업 ·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리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식료품 제조업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숙박업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서울시 발전계획상 특화산업	**1차 산업뉴타운*** 종로구: 종로 귀금속 육성계획: 인사동, 청계천, 종묘공원 등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마케팅**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귀금속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 계획 중구: 중구 금융 육성계획: 국내 주요 은행본점 등 267개의 금융관련 업이 밀집된 전통적인 금융 중심권역으로, 금융 산업의 허브로 조성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금융·문화 관광 핵심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	**1차 산업뉴타운*** 성동구: 성수 IT 육성계획: 18개의 아파트형 공장과 150여개의 전자관련 산업이 입지한 권역임. 인근대학과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 '**IT/BT 첨단산업 단지**'로 육성할 계획임 서초구:양재 R&D 육성계획: 주변의 우수한 인력과 연구시설을 연계하고 세계유수 R&D 연구소 유치하여 교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자동차전자분야의 '**세계적인 R&D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	**1차 산업뉴타운*** : 미지정	**1차 산업뉴타운***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 육성계획: 증권사, 은행 등 다수의 금융업 선도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산업인프라와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음.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관련 동북아 거점도시**'로 성장시킬 예정	**1차 산업뉴타운*** 마포구: 마포 디자인 육성계획: 인근 대학 우수 인재와 주변의 **출판·문화예술인프라**를 접목시켜 **시각디자인 배양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 계획

구분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2차 산업뉴타운* 성북구: IT	**2차 산업뉴타운***	**2차 산업뉴타운*** 강북구: 봉제·섬유 중랑구: 의류패션 도봉구: 섬유, 식·음료	**2차 산업뉴타운*** 구로구: IT, 첨단제조	**2차 산업뉴타운*** 은평구: 식품재료 강서구: IT
	기존/예정 산업클러스터* 용산구: 국제업무 성북구: R&D	**기존/예정 산업클러스터*** 성동구: 패션 강동구: 지식정보 송파구: IT, 바이오 강남구: R&D	**기존/예정 산업클러스터*** 동대문구: 디자인·패션 광진구: 패션 노원구: NIT (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기존/예정 산업클러스터*** 동작구: 바이오 관악구: 바이오	**기존/예정 산업클러스터*** 마포구: DMC (Digital Media City) –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이 모여 있는 정보미디어 단지 서대문구: 영화 양천구: 방송 강서구: R&D
비고(기존문헌)	특수인쇄, 출판, 홍보물제작,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게임과 디지털 콘텐츠	의류·패션	전자 정보 기기	교육서비스
특화산업 (안)	패션, 문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출판, IT, 서비스업	패션 교육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 바이오 제조	교육, 영상문화 음식점 및 주점업

주 : ()는 서울대비 해당권역의 비율임

*는 '09년 4월 6일 '산업뉴타운' 서울시 보도자료 및 1차 자구 육성계획 참조.

※ 산업중분류 중 상대권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을 나타냄.

다. 여성인적자원 활용의 특성

1) 여성인적자원의 유망직종 분석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감추세는 더디고 완만하여 정부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과 비교하여 그 성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황수경, 2003). 이는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정책적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고학력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에 누수를 겪고 있고(황수경, 2003).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공부문의 여성채용목표제 도입확대, 모성보호 및 기초보육의 사회적 분담률 제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기혼여성에 다양한 고용형태를 개발하고 일시적인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기혼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분야와 같이 여성인력이 과소 대표되고 있는 분야에서의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여성 유망직종으로 분류되어 온 업종 및 직종에 대한 논의와 실제 활용의 특성을 통해서 여성인력개발의 다양화와 개선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받고자 한다.

① 여성 유망직종[10]에 대한 선행 연구

여성을 위한 유망직종은 대체로 여성의 비중이 높은 직종들 중에서 유망 직종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직종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Farr & Ludden(1999)은 70% 이상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직업들을 정렬하고 나서 이를 다시 유망직종의 기준에 따라 성장률, 소득수준, 고용 창출 능력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정렬하여 여성유망직종을 도출한 결과 보건 의료 서비스나 교육 관련직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1997)은 여성들에게 권장되는 직업으로 건축공학, 의료보건, 회계, 창작예술 등 전문기술직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공무원과 여행사, 호텔사무원, 판매직, 서비스직도 유망직종 분야로 적극 추천되고 있다.

나영선(1997)은 장기적인 노동력 수요가 예상되며, 여성의 상대적 우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직종으로 사무, 상담, 정보 및 컴퓨터, 환경, 관광·레저, 건강·보건, 대행서비스 및 소규모 창업 분야 등 여성취업 유망분야를 7개 분야 41개 직종으로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노동부(1999)가 발간한 여성유망직종 70선에는 크게 정보 및 통신직, 산업지원 서비스직, 보건 및 복지 서비스직, 전문기능직, 일반 사무직이 포함되고 있다. 이정표(1999)는 대졸여성을 대상집단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성유망직종을 선정한 결과, 산업지원 서비스직, 복지관련 서비스직, 문화예술 관련 전문직, 관광관련 전문직, 정보관련 전문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김영옥외(2002)는 고학력 여성을 대상층으로 하여 산업별 직종 선정을 위해 3단계의 선정절차를 거쳐 5대 산업분야, 24개 직종(세분류)를 선정하였

10) 유망직종의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고성장, 고임금, 총수요가 많은 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김영옥외, 2002). 직업의 성장률은 그 직업의 성장 속도로서 성장률이 높을수록 그 직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임. 둘째는 고임금으로 개인의 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것으로 해당 직업의 모든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반영한 것을 의미함. 셋째, 주어진 기간 내 각 직종 내에서 새로 채용된 일자리 수를 의미함

다. 사업, 금융 및 사무관련 분야에는 행사 및 회의 기획자, 광고 및 홍보 전문가, 보험사무원, 마케팅/광고·홍보 및 조사 관련사무언, 무역사무원, 비서를 포함하고 있다. 과학, 공학 및 정보 시스템 관련 분야에는 조경설계가, 환경 및 보건위생 검사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컴퓨터 보안 전문가, 웹개발자, 시스템 운영·관리자가 포함되었으며, 보건의료/사회 서비스 및 종교관련 분야에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련직에는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작가, 번역가, 제품디자이너, 시각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멀티미디어 기획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판매 및 서비스 관련직에는 여행상품 개발원을 제안하고, 주요업무, 자격요건, 직업예시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를 발굴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취·창업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황수경 외(2005)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연구'에서 서울시 여성인적자원의 특성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를 고려한 특화업종으로 체험학습 지도사, 직업컨설턴트, 재무컨설턴트의 세 개 업종을 제시하였다. 오은진 외(2006)는 최근 산업경제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식기반사회가 급성장함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유망산업 분야로 문화서비스 산업을 꼽았다. 특히 고학력 여성은 차세대 문화서비스 산업의 주요 인적 자원으로써 많은 장점 및 성장잠재력을 지닌다고 전제하고 문화서비스 산업분야의 여성유망 직종을 발굴하였다. 산업체 기초조사의 분류에 따라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유망직종으로는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자, 작가/학예사 및 문화재 보호원, 지휘/작곡/연주가/가수/무용가/안무가, 웹 및 멀티디자이너, 아나운서 및 리포터, 멀티미디어 기획자, 촬영·음향·녹음·영상·녹화·편집 등, 기타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기타 문화 및 예술 관련직을 유망업종으로 꼽았다.

정윤경외(2008)는 노동시장의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여성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전제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차이를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노동시장의 진입이전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단계에서부터 비전통적 분야의 여성진출을 높일 수 있도록 유망직종 발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발굴을 시도하였다. 먼저 남성이 집중된 직종 9개 분야 21개 직종분야를 도출하고 이 가운데서 180시간의 교육훈련이 가능하고 교육 이수 후 입직이 가능하면서 직업현장의 근로여건이 열악하지 않은 5개 직종분야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직종으로는 CNC 프로그래머, 쥬얼리 CAD, OCB 설계 및 가공, Auto CAD, 네트워크 설치 운영사이다.

▌표 Ⅱ-28▐ 유망업종 및 직종 관련 선행연구

구분	유망 직종	비고(산업 업종)	비고(도출방법)
Farr & Ludden (1999)	- 보건의료서비스 - 교육관련직 등	- 보건업 - 교육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등	성장률,소득수준, 고용창출능력을 고려하여 유망직종 도출
한국여성개발원 (1999)	- 전문직으로 건축공학, 의료보건, 창작예술 등 기술직 - 공무원 및 여행사, 호텔사무원, 판매직이나 서비스직	-	여성에게 권장하는 직종으로 제시
나영선 (1999)	- 사무, 상담, 정보 및 컴퓨터, 환경, 관광·레져, 건강·보건, 대행서비스 및 소규모 창업 분야 등	-	여성의 상대적 우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직종으로 제시
김영옥외 (2002)	- 행사 및 회의 기획자, 광고 및 홍보 전문가, 보험사무원 등 - 조경설계가, 환경 및 보건위생 검사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등 -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 포함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련직	-> 사업·금융 및 사무관련업종 -> 과학·공학 및 정보시스템 관련분야 -> 보건의료/사회서비스 및 종교 관련 업종 ->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작가, 번역가, 제품디자이너 관련 업	고학력 여성대상을 산업별로 선정(5대산업)
황수경외 (2005)	- 체험학습 지도사 - 직업컨설턴트 - 재무컨설턴트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서울시 인적자원의 특성과 노동시장에서 수요를 고려한 특화 업종도출
오은진외 (2006)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자 - 작가, 학예사 및 문화재보호원 -지휘·작곡·연주가·가수·무용가·안무가 - 웹 및 멀티디자이너 - 감독·연출자 및 연기자 - 아나운서 및 리포터 - 멀티미디어 기획자 - 촬영·음향·녹음·영상·녹화·편집 등 - 기타 영화·연극 및 방송관련 기술직 - 기타 문화 및 예술 관련직	-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문화 및 예술, 여가 서비스 관련 업종으로 한정함
정윤경외 (2008)	- CNC프로그래머 - 쥬얼리 CAD - PCB 설계 및 가공 - Auto CAD - 네트워크 설치운영사	- 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비전통적 업종으로 컴퓨터 및 IT분야

2) 여성의 주요 취업 직종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은 여성의 주요 취업 직종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성별 직종분리의 현상이 심화되어 왔고, 점차 여성의 취업직종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특정 업종에 여성 취업자들이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박성정외,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통계정보 분석에 따르면, 여성의 취업직종이 높은 분

야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 여성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제조업이나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에 여성들이 다수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저학력 저숙련 여성근로자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근로자인 경우는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편 괜찮은 일자리로 알려진 금융, 통신, 사업서비스업이나 문화 분야 등 고학력 여성들이 취업을 원하는 분야의 여성취업자 수는 매우 제한적이고, 결과적으로 40대 이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업종분야는 실제로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여성취업의 특성을 직종에 따라 분석해 보면, 여성이 다수인 직종은 서비스직종이고, 이외에도 판매직, 단순노무직, 사무직 등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인력수급 전망(2006~2016)에 따르면, 업종면에서 향후 10년간 제조업의 인력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 산업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한국고용정보원, 2007). 제조업분야에서 봉제나 모피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에서 인력수요의 감소가 클 것으로 예측한 반면, 전자부품이나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 IT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동차, 트레일러제조업, 출판인쇄나 기록매체 복제업에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들 업종의 여성 비중은 약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여성고용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업종으로 분류할 것 있다.

전반적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은 서비스업 분야로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과 사회복지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가장 인력수요 증가가 많아지는 업종으로 신규 고용창출의 여력이 있는 업종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교육서비스업도 상대적으로 많은 고용창출이 가능한 업종으로 전망되었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업 역시 큰 인력수요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박성정외(2008)은 이와 같은 산업구조 및 종사자 수요에 대한 인력수요 전망을 기초로 하여 여성인력수요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해석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7년 사업체기초통계자료에 의거하여 산업체의 종사자 여성비율을 분석해 보면,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보험 및 연금업, 음식점 및 주점업,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에서 종사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여성종사자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29〉와 같다. 여성종사자 비율이 70% 이상인 업종은 주로 서비스업종으로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등이며, 이외에도 보건업, 보험 및 연금업(동북권) 등이 포함되고 있다. 도심권에서 업종별로 여성종사자의 비율이 비교적 적은 30%미만 업종은 전문직별 공사업, 부동산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고, 여성종사자의 비율이 50%를 넘는 업종은 음식점 및 주점업 외에

교육·기타개인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이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은 출판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에서 여성종사자 비율이 30%미만인 반면 교육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는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의 종사자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북권은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여성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여성종사자 비율이 30~40%인 업종은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었고 50~60%인 업종으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서비스업종 분야와 제조업으로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 포함되고 있다.

서남권은 여성종사자 비율이 30%미만인 업종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업, 출판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났다. 30%이상 49%의 종사자 비율에 있는 업종은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섬유제품 조제업 등으로 나타났다. 50~69%의 여성종사자 비율을 갖는 업종은 음식점 및 주점업 외에 기타 개인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이 포함되었고 제조업으로는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 70%이상인 업종은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었다. 서북권의 경우 여성종사자 비율이 30% 미만인 업종은 부동산업, 전문직별 공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종합건설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이고, 여성종사자 비율 30~49%인 업종은 전문서비스업, 출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창고 및 운송관련과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고 있다. 여성종사자 비율이 50~69%인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이 포함되었고 70%이상인 업종은 역시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표 Ⅱ-29▐ 권역별·업종별 산업체의 여성종사자 분포

구 분	30%미만	30~49%	50~69%	70% 이상
도심권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전문직별 공사업 - 부동산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종합기술업 등	- 소매업: 자동차제외 - 전문서비스업 - 출판업 -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교육서비스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 보험 및 연금업 -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동남권	- 부동산업 - 전문직별 공사업 - 출판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전문서비스업 - 금융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교육서비스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 보건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구 분	30%미만	30~49%	50~69%	70% 이상
동북권	– 부동산업 – 출판업 –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기타 개인서비스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소매업;자동차 제외 – 전문서비스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험 및 연금업
서남권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부동산업 – 출판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소매업;자동차제외 – 전문서비스업 – 금융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음식점 및 주점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 보험 및 연금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서북권	– 부동산업 – 전문직별 공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종합건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소매업;자동차제외 – 전문서비스업 – 출판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창고 및 운송관련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교육서비스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 보험 및 연금업	– 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자료: 서울시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7)

라. 소결

본 절에서는 서울시 권역별 산업특성 및 여성인력개발 특성화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서울시의 산업구조 및 산업특성을 서울시의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하였다.

서울시는 세계 도시로서 기술과 인력, 문화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각종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된 곳으로 첨단기술 발전과 함께 점차 중시되는 서비스 관련 산업을 전략적 성장업종으로 파악하고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인적자원개발의 방향을 서울시 산업의 특성과 연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산업체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서울시 산업은 2차 산업인 제조업이 감소하는 반면, 3차 산업인 금융보험업의 증가추세에 있고 전반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산업체 종사자 중 여성비율은 41%로 남성 59%에 비해 약 20% 가까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사상 지위별로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은 여성이 65%로 남성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용직 종사자는 전체의 약 38.7%가 여성이며,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약 3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서울시는 첨단 및 지식산업의 집적지로써, 정보서비스나 문화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출판·인쇄, 의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등의 산업이 전문화되고 있다. 특히 권역별로 산업체 특성과 서울시 산업 정책 전략, 기존의 특화 산업 연구 등을 종합·정리하여 권역별 특화산업의 업종을 도출하였다. 본 절에서 도출한 권역별 특화산업으로 도심권은 패션·문화,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 동남권은 출판, IT, 서비스업이, 동북권은 패션,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서남권은 금융·바이오, 제조업이 제시되었다. 서북권은 교육, 영상문화, 음식점 및 주점업이 제시되었다.

셋째,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를 위해서 기존 연구를 통해서 여성유망 직종과 취업 권장 직종 등을 조사하여 여성이 진출하기 좋은 업종 및 직종을 선별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업종을 살펴보면, 보건업,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와 사업·금융 및 사무 관련업종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점차 여성진출 업종이 확대되어 과학·공학 및 정보시스템 관련분야,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및 관리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 권역별 전략산업에서 도출한 업종이나 여성인적자원의 능력개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주장되어온 '여성친화적'인 업종, 예를 들면 교육서비스업이나 사회서비스업, 보건업 외에 지식·정보산업 및 기술 산업의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종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여성유망업종이나 직종에 있어서도 비전통적인 분야의 진출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의 방향 설정에서 전통적·비전통적인 업종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여성인력개발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주 기초 수준의 단계에서부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능력개발의 수준을 포함하고 있어 대상과 수준에 따른 특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서울시 여성인력개발 관련 정책 현황

가. 서울시 여성능력개발 및 활용 관련 정책

1) 직업교육 훈련

여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직업훈련 교육, 평생교육을 모두 포함)과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한 정책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을 평생학습사회로 정의하고 국가적으로도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일생동안 개인의 능

력과 인성을 개발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여성평생교육활성화를 통해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참여 확대, 건강한 여성문화 창조 등 여성들이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을 포함하여 4개 여성발전센터,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총 19개의 여성인력개발 관련 기관이 여성능력개발 및 취·창업 알선 등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주요 이용자 층은 3, 40대 여성이 주를 이루며 20대 여성과 50대 이상 여성이 약 15% 내외로 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직업교육 등 능력개발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특히 여성발전센터는 여성복지 시설로써 그동안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교육 및 권역복지시설로 활용되다가 2003년부터 여성 직업교육 훈련기능이 강화됨으로써 단순 교양교육이 아닌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능력개발로 초점이 변화되고 있다. 여성발전센터 직업교육실적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은 여성능력개발원을 포함하여 약 13,600명의 훈련실적을 보였으나, 2005년이후부터는 2003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약 32,000명의 훈련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3년 6,000명에 못 미치는 직업훈련 실적을 나타내었으나 2005년에는 5배 이상 실적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훈련실적에 비해 취업실적은 여성발전센터는 약 15%, 여성인력개발센터 40% 내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취업실적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성인력의 활용체계가 미흡한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여성들 스스로 경제활동참여를 하지 않으려는 자발적인 의지의 미흡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실적은 여성발전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력개발센터 이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Ⅱ-30▐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교육 실적

구분	여성발전센터(여성능력개발원 포함)			여성인력개발센터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2003	13,591	2,019	14.9	5,916	1,796	30.0
2005	32,130	4,645	14.5	27,924	13,086	46.9
2007	33,094	6,624	20.0	30,017	15,159	50.5
2008	33,515	4,616	13.8	29,156	10,045	34.5

자료: 서울시 여성백서, 각년도;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2008

이들 센터의 직업훈련 프로그램분야를 살펴보면, 컴퓨터 관련 분야가 전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1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요리 15.0%, 아동지도 관련

프로그램이 13.4%, 미용·건강관련 프로그램이 12.2%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이 서비스직 관련 프로그램(8.6%), 의상 관련 프로그램(8.0%), 아동지도 관련 프로그램(5.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언어 관련 프로그램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권역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 II-31〉와 같다. 도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는 종로·용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으나 본 현황에서는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실적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도심권역은 전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5.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이 도심권역 프로그램의 2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회계·사무관련 프로그램 19.4%, 요리 관련 프로그램 11.2%, 의상 관련 프로그램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31▐ 권역별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 프로그램 유형 분포

단위: 개, %

구 분	전체	도심1)	동남2)	동북3)	서남4)	서북5)
전 체	2,440 (100.0)	134 (5.5)	75 (3.1)	772 (31.6)	750 (30.7)	709 (29.1)
컴퓨터 관련	416 (17.0)	28 20.9	10 13.3	141 18.3	97 12.9	140 19.7
회계, 사무관련	140 (5.7)	26 19.4	9 12.0	29 3.8	40 5.3	36 5.1
아동지도 관련	328 (13.4)	6 4.5	7 9.3	127 16.4	109 14.5	79 11.1
요리	367 (15.0)	15 11.2	12 16.0	127 16.4	115 15.3	98 13.8
미용, 건강 관련	397 (12.2)	–	–	89 11.5	92 12.3	116 16.4
서비스직 관련	209 (8.6)	14 10.4	15 20.0	54 7.0	63 8.4	63 8.9
의상 관련	195 (8.0)	12 9.0	–	64 8.3	75 10.0	44 6.2
공예, 자수 관련	297 (12.2)	8 6.0	8 10.7	95 12.3	118 15.7	68 9.6
꽃꽂이, 원예관련	84 (3.4)	7 5.2	4 5.3	25 3.2	25 3.3	23 3.2
언어 관련	23 (0.9)	7 5.2	–	2 0.3	–	2 0.3
기 타	84 (3.4)	11 8.2	10 13.3	19 2.5	16 2.1	28 3.9

자료: 조연숙외(2008),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pp.26~27 재구성

1) 도심권(2): 종로, 용산센터(*본 표에서는 용산 실적 포함되지 않음)
2) 동남권(1): 서초센터
3) 동북권(6): 능력개발원, 북부발전, 강북광산노원동대문 센터
4) 서남권(5): 남부발전, 구로·금천·동작·관악 센터
5) 서북권(5): 중부·서부 발전, 은평·마포/신촌·강서 센터

동남권역은 전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3.1%를 차지하여 권역 중 가장 낮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본 연구에서 구분한 권역구분에 의하면, 동남권역에는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단독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남권역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서비스직 관련 프로그램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20%), 다음이 요리(16%), 컴퓨터 관련(13.3%), 회계 및 사무관련(12%), 아동지도 관련 프로그램(9.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동북권역은 전체 여성인력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31.6%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중임을 알 수 있다. 동북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는 능력개발원, 북부여성발전센터, 강북·광진·노원·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다. 프로그램별로 이 권역에는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이 1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지도 관련이나 요리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각각 16.4%를 차지하고 있다. 공예나 자수 관련 프로그램의 비중이 12.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회계·사무관련 3.8%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남권역은 전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남부발전센터를 포함하여, 동작·관악·구로·금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훈련별로 살펴보면, 공예나 자수 관련 프로그램의 비중이 15.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요리 15.3%, 아동지도 관련 14.5%, 컴퓨터 관련 12.9%, 미용 및 건강 관련 프로그램 12.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북권역에는 중부 및 서부 여성발전센터가 소재하고 있으며, 은평·마포/신촌·강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재하고 있어 전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29.1%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북권역은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의 비중이 19.7%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미용·건강 관련 프로그램 16.4%, 요리 관련 13.8%, 아동지도 관련 11.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가 지원하는 직업전문학교로 한남, 엘림, 서울종합, 상계 등 4개가 있다. 엘림을 제외하고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어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6개월 과정 혹은 1년 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어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비해 교육기간이 보다 길다. 한남직업전문학교는 귀금속공예, 멀티미디어, 미용, 실내디자인, 조리, 컴퓨터애니메이션, 패션디자인, 한국의상디자인의 총 24개 직종 관련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직업교육 훈련의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한 해 동안 약 1,000명 내외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남직업전문학교는 당초 '여성' 직업전문학교이었으나 성별구분 없이 이용되고 있으나, 여성이 70%이상을 차지한다(조연숙외, 2006) 엘림직업전문학교는 가구디자인, 미용1·2, 실내디자인, 웹마스터, 자동차정비1·2, 조리, 주얼리 디자인의 9개 직종 관련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네 개 직업훈련 기관중 이용 규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 약 270명 정도였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어 2007년는 약 370명으로 2003년도에 비해 약 100명 이상 이용증가를 보이고 있다. 서울종합 직업전문학교는 건축인테리어, 건축 환경설비, 공예디자인, 실내디자인, 자동차정비, 전산응용가공, 전자출판, 컴퓨터광고 디자인, 의상디자인, 조리과, 특수용접 등 약 30개 내외 직종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네 개 기관 중 이용규모가 가장 많아 한 해 동안 약 1,200명 정도가 교육훈련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계 직업전문학교는 가스안전관리, 공조냉동기계자동화, 사인아트디자인, 웹프로그래밍, 자동차차체수리 및 컬러디자인, 전기시스템제어, 전자출판·통신, 타일렉트로닉스, 품질비파괴검사 등 약 30개 내외의 직종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890명이었으나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현재 1,10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4개 시립전문학교는 한 해 이용자 수가 많지 않으나 교육훈련 시간이 약 1,440시간으로 심화 교육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격은 15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주요 이용대상자는 고교졸업 후 기능적으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젊은 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Ⅱ-32▐ 4개 시립전문학교 운영실적(2003~2007)

구분	직종수	2003	2005	2006	2007
한남	24	1,018	957	894	926
엘림	9	268	330	341	374
서울종합	30	1,135	1,210	1,178	1,196
상계	31	891	1,001	1,069	1,100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2008 재구성

서울시민의 전체 직업훈련 실적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전체 약 35천명이었으나, 2005년 57천명으로 2년 전 실적에 비해 약63%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여성발전센터가 그동안 여성의 생활·문화·교양 교육을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지던 것이 직업교육훈련으로 기능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2006년 64천명, 2007년 67천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대상자별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해당기간 동안 이용자의 약 1.6%, 저소득시민 약 4.8%, 일반시민 약 93.6%로 일반시민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Ⅱ-33▐ 이용자 대상자별 직업훈련실적 추이

구 분	2003	2005	2006	2007
총 계	35,251	57,305	64,119	67,04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25	848	1,152	1,315
저 소 득 시 민	837	2,674	3,522	3,654
일 반 시 민	34,089	53,783	59,445	62,073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2008

2) 맞춤형 직업훈련의 확대

맞춤형 교육훈련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취업률 제고를 위해 사전에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에 따른 교육훈련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 후 취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들을 구인·구직 수요에 맞도록 기획하여 취업률을 높이고자 2006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2007년부터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06년 84개 과정에서 '07년 120개 과정, '08년 214개 과정으로 매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교육훈련의 개설에 있어서 사전에 기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취업처를 발굴하여 교육훈련 이후 취업과 연계함으로써 여성능력의 개발과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2007년과 2008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파악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구분하고 있는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센터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도심권에 소재하는 종로와 용산센터는 2007년 교사나 사업 서비스직 수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08년 사무관련직, 사회복지 및 보건직, 교육사업과 관련된 직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남권에 소재하는 센터는 서초센터로 2007년과 2008년 모두 주로 교육 사업이나 사무 관련직으로 전문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북권에 소재하는 인력개발기관은 능력개발원 1개, 발전센터 1개, 인력개발센터 4개로 타 권역보다 많다.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으로 취업 연계가 가능한 보건직을 위한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서남권에는 발전센터 1개, 인력개발센터 4개로 사업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사무 관련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북권에는 2개 발전센터, 3개 인력개발센터가 있으며, 주로 교육서비스,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직, 사무관련직 등의 수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있다.

▌표 Ⅱ-34▐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현황

구 분		2007		2008		비고
		개수	프로그램명	개수	프로그램명	
전 체		120	-	214	-	
도심	종로여성인력	5	- 방과후과학특기강사 - 컴퓨터지도교사 - 웨딩컨설턴트	9	- 경리실무 - 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육아돌보는이 - 문화체험지도사 등	교육서비스직 사무관련직, 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직
	용산여성인력	1	- 동화연구과정	5	- 아동인지능력강사양성 - 아파트경리실무 - 간병,베이비시터등	
동남	서초여성인력	12	- 초등영어강사 - CS 강사 - 전산·경리,사무관리등	12	- 전산세무회계,PC경리실무, 무역실무 - 서비스전문강사 - 어린이영어지도사등	교육서비스직 사무관련직
동북	여성능력개발원	10	- 약국전산관리자양성 - 유아영어전문지도자	13	- 약국전산관리자양성 - 전문출장케터링 - 어린이집푸드매니저등	교육서비스직, 사무관련직,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직
	북부발전센터	7	- 간병인 - 방과후아동지도, 영어강사 - 보육전문가 등	11	- 간병인, 홈매니저, 요양보호사, 보육도우미 - 과학캠프지도사양성, 독서논술, CA강사 등	
	강북여성인력	4	- 데이터입력요원양성 - 지문평가사양성 - 초중등수학지도사등	15	- 요양보호사, - 초등수학, 영어강사 - 전문간병인, 산후도우미, 베이비시터등	
	중랑(광진)여성	4	- 방과후지도교사	12	- 호텔룸어텐던트, 케어매니저 - 영유아시터 - 방과후 지도사 등	
	노원여성인력	3	- 디지털영상실기교사 - 캐릭터마케팅전문가 - 룸어텐던트	11	- 쇼핑몰디자이너 - 전산세무회계 - 방과후지도사, 영어강사 등	
	동대문여성인력	11	- CA강사, 과학특기적성, 문화체험지도사, 영어마술강사 등	11	- 베이비시터, 산후조리모 - 문화체험지도사 등	
서남	남부발전센터	8	- 실버케어 - 산후관리사 - 결혼이민자지원Pro.	17	- 출장요리, 유아조리보육전문가 - 헤어연구반, 피부관리 - 가정관리사, 산후관리사 등	사업서비스직,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직, 사무관련직, 교육서비스직, IT 관련직 등
	구로여성인력	7	- 문화체험전문강사 - 투어플랜매니저 - 산모도우미 - CA강사양성	13	- 문화체험강사, 학습매니저 - 베이비시터, 산모아신생아 돌보는이 - 투어플랜매니저 - 와이어 공예 등	

구 분		2007		2008		비고
		개수	프로그램명	개수	프로그램명	
전 체		120	–	214	–	
	금천여성인력	2	– 호텔룸어텐던트 – 간병사	4	– 프리젠테이션디자인 기획실무 – 데이터자료입력요원 – 호텔룸어텐던트, 요양보호사	
	동작여성인력	7	– FC매니저, 외식창업, 출장요리 – 놀이시터, 영어시터등	15	– 출장요리전문가 – CA강사 – 베이비시터, 놀이이야기 시터 – 드레스제작실무 등	
	관악여성인력	6	– 방과후아동영어독서지도사 – 아파트 경비사무원 – 리서치요원등	11	– 전문회계사무원, 전산세무회계, 회계관리원 – 웹디자인 – 초등수학전문지도사, 실버인형극 지도사 등	
서북	중부발전센터	8	– 홈매니저 – 정보화경영관리 – 이주여성급식조리 – CA강사 등	20	– 노인컴퓨터지도사, CA강사, 노인도우미 – 메이크업아티스트양성 – 피부관리, 피부미용전문가, 헤어업스타일 등	사업서비스직, 교육서비스직,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직, 금융 및 보험관련직 등
	서부발전센터	5	– 제과제빵CA강사 – 개호복지사 – 여성발명지도사 – CA강사 등	14	– 케이넥스창의교실 – 제과제빵강사양성 – 실버시터간병사양성 – 산후도우미양성, 베이비시터등	
	은평여성인력	10	– 키즈파티플래너 – 병원서비스코디 – 호텔객실관리사 등	9	– 방과후마인드맵지도사, 문화체험전문지도사 – 중고등학교 CA강사 – 간병인, 산모돌보는이 등	
	마포신촌인력	5	– 개인재무상담사양성 – 체험학습강사, CA강사 – 웨딩플래너 등	6	– 역사문화체험학습지도사 – 초등방과후컴퓨터지도자 – 재무컨설턴트, 웨딩플래너 등	
	강서여성인력	5	– 텔레마케팅관리사 – 방과후아동지도사 – 독서논술지도사 등	6	– 특기적성강사, 방과후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산후조리사 등	

자료: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실 내부자료, 재구성함

3) 지역일꾼 끌어내기 사업

2009년에는 맞춤형 직업훈련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권역별로 집중된 산업이나 직종을 개발·운영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거주지에서 가까운 기업에 취업을 연계하고 권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는 권역일꾼 끌어내기 사업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특히 권역 산업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인력수요를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와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권역일꾼 끌어내기 사업'이 맞춤형 직업훈련 사업과 차별화되는 점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가 권역별로 차별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권역의 특성화 산업에 근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도심권은 회계 및 사무관리,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직 관련 교육훈련이, 동남권은 경영회계 등의 사무관련직 업무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안되어 추진되고 있다. 동북권은 음식·숙박 관련직, 교육서비스직, 패션디자이너 관련직, 전문서비스직 업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서남권은 출판디자인, 의복 및 패션디자인 관련직, IT 관련직, 교육서비스직 업무를 위한 교육훈련이, 서북권은 웹디자인 및 IT, 출판 및 편집 관련직, 교육서비스, 사업서비스업 관련직 업무를 위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35▐ 권역일꾼 끌어내기 사업 현황(2009년)

구 분		사 업 명	교육인원	교육 (시간)	비고
전 체		40개 과정	887명		
도심	종로여성인력	회계 및 ERP 정보관리사(2)	20 20	332	회계 및 사무관리
	용산여성인력	유물복원 및 우리문화재 지키미 강사 양성과정(2)	20 20	111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동남	서초여성인력	중소기업 경영회계 관리사	30	280	회계 등 사무관련
동북	여성능력개발원	푸드매니저 양성과정 파티기획전문가 양성과정	25 25	160 160	음식, 숙박
	북부발전센터	학습코칭전문가 양성과정 어린이경제지도사	20 20	132 137	교육서비스
	강북여성인력	패션샵마스터 팜전산사무원 아동적성지도사	20 20 20	190 137 142	의복,의복등 전문서비스 교육서비스
	중랑(광진)여성	체험학습강사(2) 한자지도사	20 20 20	136 136 112	교육서비스

구 분		사 업 명	교육인원	교육 (시간)	비고
	노원여성인력	청소년진로설계사 공공주택경리실무 및 기업회계실무양성	20 20	142 312	교육서비스 기업회계
	동대문여성인력	패션샵마스터 패션쇼핑몰 전문가 패션무역전문가	24 24 24	200 180 192	의복,패션
서남	남부발전센터	출판디자인 전문가 패션샵마스터양성과정	20 30	186 103	출판디자인 의복,패션
	구로여성인력	웹 컨텐츠 전문가 오픈마켓 쇼핑몰 관리자	20 20	330 270	컴퓨터전문
	금천여성인력	웹디자인 및 홈페이지 관리(2) 패션매장 관리자	20 20 20	280 280 144	컴퓨터 전문가 의복,패션
	동작여성인력	웹쇼핑몰 운영마스터 실무 아동학습지도사	20 24	328 240	교육서비스
	관악여성인력	3D Industrial Design 디지털 전산 사무원	20 24	352 240	웹디자인 디지털전산
서북	중부발전센터	편집디자인전문가 취업과정(2)	25 25	318 318	출판,편집
	서부발전센터	시민비디오저널리스트양성과정(2)	25 20	160 128	영상,오디오
	은평여성인력	청소년커리어컨설턴트	25	170	교육서비스
	마포신촌인력	출판기획인 웨딩플래너	22 25	289 126	출판업 사업서비스
	강서여성인력	마을학교지도사 양성과정 학습클리닉 상담지도사 양성과정	25 25	136 136	교육서비스

나.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관련 정책추진 실태

1) 현황분석 개요

서울시의 권역별 여성인적자원 관련 정책 현황이나 실태,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현황 등을 파악하여 권역의 산업정책과 여성인적자원 연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고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자와 권역경제 혹은 산업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권역 인력개발과 관련한 정책 및 추진사업 현황, 인적자원개발과 활용 관련 사업의 물적 기반 등을 내용으로 한 현황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① 권역별 인력개발 관련 정책 현황

서울시 권역의 인력개발관련 정책 현황을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권역 산업정책의 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자치구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II-36〉과 같다. 전체 25개 자치구 중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자치구는 13개 자치구로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 였고, 산업정책의 방향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자치구는 7개 자치구에 불과하였다.

▌표 II-36▐ 권역별 인력개발 관련 계획 수립 현황

단위: 개

구 분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관련 계획수립		산업정책의 방향과 계획수립 여부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3	12	7	17
도심	1	3	1	3
동남	3	2	1	4
동북	2	3	3	3
서남	4	2	1	4
서북	3	2	1	3

자료: 25개 자치구 여성정책 및 산업정책 담당자 설문조사결과

계획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계획은 주로 연간 사업계획에 포함되고 있는 단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치구에 따라서는 3개년 까지 계획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치구별 권역경제나 산업정책과 관련한 계획은 서울시 산업정책의 방향에 따라 3년, 5년, 길게는 7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권역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사업이 권역별로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37〉와 같다. 서울시 전체에서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대한 사업은 현재 167개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세부사업내용은 직업훈련지원사업이(71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인재발굴(61개), 인적자원활용관련사업(35개)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대한 사업은 전체 79개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인적자원활용 관련 사업이(35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직업훈련지원사업(30개), 인재발굴사업(14개) 순이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사업의 개수는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대해서는 동북권(44개)이 가장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서남권(34개), 서북권(33개), 동남권(32개), 도심권(24개) 순이었다. 권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해서는 서남권(29개)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서북권(23개), 동북권(11개), 동남권(10개), 도심권(6개) 순이었다. 세부주제별로 살펴보면 같은 권역에서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사업과, 권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사업간의 연계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권역별로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관련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Ⅱ-37▐ 권역별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사업 현황

단위: 개

구 분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비고
	소계	인재 발굴	직업훈련 지원	활용관련 사업	소계	인재 발굴	직업훈련 지원	활용관련 사업	
전체	167	61	71	35	79	14	30	35	
도심	24	4	12	8	6	0	3	3	
동남	32	17	12	3	10	1	4	5	
동북	44	15	17	12	11	0	3	8	
서남	34	12	16	6	29	1	15	13	
서북	33	13	14	6	23	12	5	6	

자료: 25개 자치구 여성정책 및 산업정책 담당자 설문조사결과

③ 권역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안을 위해 연계할 수 있는 권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은 〈표 II-38〉와 같다. 권역의 특성에 따라 물적 기반이 권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데, 여성관련 시설 수는 서남권이(15개)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동남권(12개)과 동북권(12개), 서북권(11개), 도심권(8개) 순이었다. 대학교의 경우 도심권(15개)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서북권(11개), 서남권(7개), 동북권(1개) 순이었고, 동남권의 경우 대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은 서남권이(32개) 다른 권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로 디지털 단지로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시설이 크게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서북권(6개), 동북권(4개)과 도심권(4개), 동남권(3개) 순으로 나타났다. 취창업알선기관은 동북권(41개) 다른 권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북권에 직업소개소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서남권(11개), 도심권(7개), 동남권(6개)과 서북권(6개) 순으로 나타났다. 취창업알선은 대부분의 권역에서 구청내 취업정보센터 및 권역사회복지관, 취업정보은행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교육기관의 물적 기반을 잘 활용한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계획 수립이 권역의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Ⅱ-38▐ 권역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단위: 개

구 분	총 계	여성관련 시설수	대학교	공공직업 훈련기관	취창업 알선기관
전체	212	63	34	49	71
도심	34	8	15	4	7
동남	21	12	0	3	6
동북	62	12	1	4	41
서남	65	15	7	32	11
서북	34	11	11	6	6

자료: 25개 자치구 여성정책 및 산업정책 담당자 설문조사결과

2) 도심권

① 여성인적자원 및 산업정책 개발과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도심권의 여성인적자원 및 산업정책 개발과 활용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Ⅱ-39〉와 같다.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관련 계획의 내용은 용산구에서 제시한 것으로 그 목표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있었고 연간단위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추진대상 사업은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운영, 여성평생교육 아카데미 운영, 여성을 위한 취·창업 설명회, 여성인력뱅크 등록사업 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권역 산업정책 관련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구에서는 서울시 '산업뉴타운프로젝트'사업에 따른 금융·관광·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고부가 산업전진기지로 육성·발전 하고자 하는 계획의 목표하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를 기간으로 수립되어 있었으며 총 소요예산도 2000억원에 이르렀다. 추진대상 사업으로는 금융산업발전 인프라 구축, 금융산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산업 유치, 소상공인 창업강좌 등이 있었다. 서울시 전체를 살펴볼 때 도심권의 경우 다른 권역보다 권역산업정책과 관련해 권역의 특성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계획은 도심권의 4개 자치구 중 일부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주변 자치구에 연관된 계획으로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인력개발 및 활용에 대한 계획임에도 여성인적자원개발부분과 권역산업정책관련 인적자원개발 부분에 연계성이 나타나 있지 않아 보다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해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체화하는 일이 요구된다.

▌표 Ⅱ-39▐ 도심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계획의 내용

구 분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계획의 내용	권역 산업정책 관련 계획의 내용
계획의 목표	· 여성의 역량강화 및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 서울시 '산업뉴타운프로젝트' 사업에 따라 금융·관광·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고부가 산업전진기지로 육성·발전
계획기간	연간단위	2009-2014
총소요예산	150,000천원	200,000,000천원
추진대상 사업	·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운영 · 여성 평생교육아카데미 운영 · 여성을 위한 취·창업 설명회 추진 · 여성인력뱅크 등록사업(여성홈페이지)추진	· 금융산업발전 인프라 구축 · 금융·문화 복합 랜드타워 건립 · 금융산업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산업 유치 ·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개발권역 및 입주기업 인센티브 제공 · 소상공인 창업강좌

② 권역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

도심권의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사업은 총 24개 사업이 진행중이며, 직업훈련지원(12개), 인적자원활용관련(8개), 권역인재발굴(4개)순 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사업으로는 직업훈련지원(3개), 인적자원활용관련(3개) 사업이 진행중이었다.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사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Ⅱ-40〉과 같다. 인재발굴사업으로는 여성인적자원 관련한 부분에서만 4개 사업이 진행중이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합창단 및 축구교실 운영과 백일장 개최, 인력뱅크 등록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훈련지원사업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인적자원과 관련해서 여성회관 운영을 통해 자격증 대비반 운영, 방과후 교실교사 양성, 취·창업 토탈 솔루션, 한과교육과 창업 요리반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자원활용과 관련한 사업으로는 '여행'포럼단 운영, 취·창업 설명회, 아이돌보미 및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인적자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강좌로 사업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게 보인다.

▌표 Ⅱ-40▐ 도심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 현황

구 분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사업의 내용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사업의 내용
인재발굴사업	· 구립여성가요합창단 운영 · 여성축구교실 운영 · 여성인력뱅크등록사업 · 여성백일장	사업없음
직업훈련지원	· 다시 한 번 더 일하기 위한 리케어 시리즈 · 여성 취창업 토탈 솔루션 · 여성회관 운영 · 여성교실 자격증 대비반 (한식조리사, 헤어디자인) · 방과후 교실 교사 양성 · 전통떡 연구가의 떡과 한과교육 · 한부모 가정 창업 요리반	· 권역실업자 직업훈련
활용관련사업	· 여행포럼운영 · 여성 취창업 설명회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강좌	·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 · 예비창업자 소자본 창업강좌

③ 권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도심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은 〈표 II-41〉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관련 시설수는 8개(봉제 여성지원센터, 동부여성문화센터,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중구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성북여성회관, 성북여성교실), 대학교는 11개(동국대, 숭의여대, 경화예술대, 숙명여대, 고려대, 한성대, 성신여대, 국민대, 서경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동방), 공공직업훈련기관은 3개(우성예술직업전문학교, 예원미용학원, 노동부지정 대양직업전문학교)로 나타났다. 여성관련시설수는 전체 권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학교 수는 서울 전권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41▐ 도심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단위: 개

구 분	총 계	종로	중구	용산구	성북구
여성관련시설	8	· 봉제여성지원센터 · 동부여성문화센터 ·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 중구여성회관	· 여성문화회관 ·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 성북여성회관 · 성북여성교실
대 학	15	· 성균관대, · 상명대 · 방통대 · 배화여자대학	· 동국대학교 · 숭의여자대학 · 경화예술대학	· 숙명여자대학교	· 고려대학교 · 한성대학교 · 성신여자대학교 · 국민대학교 · 서경대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 동방
공공직업훈련기관	4	(재)서울직업전문학교	–	–	· 우성예술직업학교 · 예원미용학원 · 대양직업전문학교
취창업알선기관	7	–	·중구취업정보센터 ·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노동부)	구청내 취업정보은행	·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 장위종합사회복지관 · 월곡종합사회복지관

3) 동남권

① 산업정책 및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동남권의 여성인적자원 및 산업정책 개발과 활용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42〉와 같다.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관련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목표는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통한 권역사회의 경제활성화, 잠재된 여성인력의 능력개발을 통한 유휴인력의 활용활성화, 양성평등, 신빈곤층 가정의 주부 및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참여기회제공 및 자아성취감 증진이 있었으며,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로 수립되어 있었다. 추진 대상 사업으로는 여성교육 및 운영지원, 여성네트워킹 강화사업, 여성 행복지수 연구지원, 여행프로젝트 추진, 가정폭력 상담 및 지원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권역의 산업정책과 관련한 계획으로는 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수립된 상업용지 개발 및 정비사업,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업이 있었다. 산업정책의 경우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정책의 경우는 보다 보편적인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그 차이점을 볼 수 있었고, 권역의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안을 위하여 산업정책에서 나타난 특성과 연계한 여성인력개발 정책 및 수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Ⅱ-42▐ 동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계획의 내용

구 분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계획의 내용	권역 산업정책 관련 계획의 내용	비고
계획의 목표	·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통한 권역사회 경제활성화 · 잠재된 여성인력의 능력개발을 통한 유휴인력 활용 활성화 · 여성의 발전과 능력개발을 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 신빈곤층 가정의 주부 및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게 공공 일자리 참여 기회제공 및 자아성취감 증진	· 성동구 성수동 신도시 개발	
계획기간	2009.1.1–2010.12.30	2008–2015	
총소요예산	4,611,038 천원	–	서울시 추진 사업
추진대상 사업	· 여성 교육 및 운영지원 · 여성네트워킹 강화사업 · 여성 행복지수 연구지원 · 여행프로젝트 추진 · 가정폭력 상담 및 지원 · 사이버 홍보단 활동 지원	· 뚝섬 상업용지개발 · 준공업지영 재정비 · 성수지구 전량정비사업 · 뚝섬 주변권역 지구단위계획 ·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	

② 권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

동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으로는 여성인적자원관련해서 총 32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권역인재발굴(17개), 직업훈련지원(12개), 인적자원활용관련(3개)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적자원과 관련해서는 총10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적자원활용관련 사업(5개), 직업훈련지원(4개), 권역인재개발(1개) 순이었다.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관련한 사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Ⅱ-43〉과 같다. 인재발굴 사업으로는 여성인적자원에서 여성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일하는 여성들 네트워킹 지원사업, 경력개발상담, 여성문화회관운영,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제공사업, 방과후 공부방 도우미 파견, 주부취업을 위한 웨딩헬퍼 양성교육, 맞춤형일자리 및 소자본 창업을 위한 강좌, 초등학교 명예사서 봉사단 활동지원 등으로 학습이나 포럼활동, 각종 교양교실 등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인재를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권역인재개발로는 여성맞춤취업프로그램이 있었다.

직업훈련지원 사업으로는 여성인적자원에서 문화센터운영, 권역친화직업훈련과정(영어문화해설사 양성, VJ , 방송구성작가 양성과정), 여성능력개발센터 교육운영비 지원, 여성취업교실, 여성대학(자격증 취득) 등이 있었고, 지역인적자원에서는 권역실업자 직업훈련, PC정비사, 맞춤형 일자리 및 소자본 창업을 위한 교육이 있었다. 인적자원 활용 관련사업으로는 여성인적자원에서 여성취업알선창구운영, 취·창업 협의체 운영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인적자원에서 소상공인 창업강좌, 무역인력 채용박람회, 박람회 참가지원 등이 있었다.

▌표 Ⅱ-43▐ 동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 현황

구분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사업의 내용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사업의 내용
인재발굴 사업	· 여성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여행포럼 운영(각 분과별 여성인재 발굴) · 일하는 여성들 네트워킹 지원사업 · 경력개발상담실 운영 · 여성문화회관 운영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제공사업 · 자치회관 방과후 공부방도우미파견 ·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 · 주부취업을 위한 웨딩헬퍼 양성교육 · 이웃아이 사랑봉사단 운영 · 맞춤형 일자리 및 소자본 창업을 위한 천연비누 제조과정 강좌 운영 · 초등학교 명예사서 봉사단 활동지원 · 주부 UCC 홍보단 양성 및 강사 취업지원 · 사이버 홍보단 운영 · 여행실현 디카 리포터 운영	· 여성맞춤취업프로그램
직업훈련 지원	· 문화센터 운영 · 권역친화직업훈련과정(영어문화해설사, VJ, 방송구성작가 양성과정) · 여성능력개발센터 교육운영비 지원 ·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 여성교실 운영 · 구민회관 여성취업교실 위탁운영 · 여성대학운영(자격취득반) · 성인여성대상 교육프로그램	· 권역실업자 직업훈련 · PC정비사 · 맞춤형 일자리 및 소자본 창업을 위한 교육(천연비누 및 자연화장품 제조)
활용관련 사업	· 여성취업알선 창구운영 · 여성 취창업 협의체 운영 · 여성 취창업 박람회	· 구청과함께하는 소상공인 창업강좌 · 인력 채용박람회 ·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③ 권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동남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위한 물적 기반 현황은 〈표 II-44〉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관련 시설수는 12개(서초여성회관, 서초문화센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송파여성문화회관, 여성교실,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구민회관,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성동종합사회복지관)로 권역별로 비교해 볼 때 서남권(15개)과 서북권(14개)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대학은 전 권역 중 유일하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은 3개(정우직업전문학교, 국제비즈니스교육원, 서울시립종합직업전문학교), 취창업알선기관은 6개(송

파 행복 나눔 일자리센터, 성동구청 사회복지과 취업정보은행, 성동구청 권역경제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나타났다.

▌표 Ⅱ-44▐ 동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단위: 개

구분	총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여성관련 시설	12	·여성회관 ·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문화회관 ·여성교실 ·여성능력개발센터	·구민회관	·구민회관(여성대학) ·청소년수련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대 학	0	–	–	–	–	–
공공직업 훈련기관	3	–	–	·정우직업전문학교 ·국제비즈니스교육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
취창업알선기관	6	–	·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노)	·송파행복나눔일자리센터 ·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노)	–	·구청사회복지과(취업정보은행) ·구청권역경제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동북권

① 산업정책 및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동북권의 산업정책의 방향 및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Ⅱ-45〉와 같다.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관련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목표는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여성대학 고위정책과정운영,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 역량 지속성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취업강화교육 등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2008년부터 2009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추진대상 사업을 살펴보면 여성교양대학 운영, 권역대학과 연계한 고위정책과정, 주요사업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 문화확산행사, 여성위원회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결혼이민여성 멘토링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경제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역산업정책 관련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권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을 목표로 2009년 한해 기간 동안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며 추진대상 사업으로는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물가안정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소자본 창업강좌, 해외자매도

시 경제교류 등이 있다. 권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원과 관련한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45▐ 동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계획의 내용

구 분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관련 계획의 내용	권역 산업정책 관련 계획의 내용
계획의 목표	·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여성대학 고위정책과정 운영 ·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비전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정책 추진 역량 지속성 강화 ·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및 취업강화교육을 통한 우수여성인력 배출	· 권역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
계획기간	2008-2009.12	2009.1-2009.12
총소요예산	1,297,734 천원	25,453,000천원
추진대상 사업	· 여성교양대학운영 · 권역대학과 연계한 고위정책과정,도시,주택 최고과정 운영 · 주요사업성별영향평가 · 여성위원회 운영 ·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교육 · 여성친화적 직업훈련 및 전문능력 개발 · 양성평등문화확산행사 · 공무원 성인지력향상 및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 결혼이민여성 멘토링제 실시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 일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 · 여성지도자 육성 · 여성CEO포럼 운영 · 결혼이민자 여성지원 · 여성경제활성화	·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 물가안정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 미아8동 큰마을길 특화거리 조성 · 재래시장 인근 주차장 건립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중소기업 인터넷무역지원 · 역세권 활성화 사업 · 창업지원센터 운영 · 중소기업 전시회 지원 · 소자본 창업강좌 · 해외자매도시 경제교류

② 권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

동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관련 사업으로는 여성인적자원과 관련한 사업은 총 44개 사업으로 5개 권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업훈련지원(17개), 권역인재발굴(15개), 인적자원활용관련사업(12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적자원과 관련한 사업은 총 1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적자원활용관련사업(8개), 직업훈련지원(3개) 순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사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46〉과 같다. 인재발굴 사업으로는 여성인적자원의 경우 여성교양대학, 평생교육프로그램, 여성지도자리

더십향상교육,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전자상거래교육, 소자본 창업교육 등으로 조사되었다.

직업훈련지원사업으로는 여성인적자원훈련으로 생태체험 학습지도사 양성교육, 모자가정 자립지원프로젝트, 해설사 양성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한글교육, 여성교실,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 실업자 훈련, 결혼이민자여성지도사양성 등이 있었고, 지역인적자원훈련으로는 권역실업자직업훈련, 여성인력개발 사업이 있다.

인적자원활용 관련사업으로는 여성인적자원활용으로 여성유망직종 취업설명회, 주부 재취업설계프로그램, 여성소자본 창업강좌, 여성CEO 포럼멘토링,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이 있었고, 지역인적자원활용으로 소자본창업강좌, 취업박람회 개최, 여성소상공인창업강좌 등이 있다.

▌표 Ⅱ-46▐ 동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 현황

단위: 개

구 분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사업의 내용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사업의 내용
인재발굴사업	· 여성교양대학 · 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한글교육 ·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교육 · 권역대학 연계 여성 아카데미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 we green manager · 전자상거래 교육 · 여성디카교실 · 소자본 창업교육	-
직업훈련지원	· 생태체험 학습지도자 양성교육 · 모자가정 자립지원프로젝트 '워킹맘' · 해설사 양성교육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한글교육 · 여성교실운영 ·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 · 실업자 훈련	· 권역실업자 직업훈련 · 여성인력개발
활용관련사업	· 여성유망직종 취업설명회 · 주부 재취업설계프로그램 · 여성소자본 창업강좌 · 학생 1일 직장체험활동 · 알짜배기 여성직업정보 제공 · 소자본 창업강좌 · 취창업 박람회 · 여행포럼 운영 · 여성CEO 포럼 멘토링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 소자본 창업강좌 · 취업박람회 개최 · 관내 우수기업 박람회 참가지원 · 여성 소상공인 창업강좌 · 여성기업 간담회 · 세계한상대회

③ 권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동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은 〈표 II-47〉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관련 시설수는 12개(강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문화예술회관, 광진문화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원구민회관, 노원문화예술회관, 도봉여성센터, 여성복지관,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일하기센터), 대학교는 도봉구에 덕성여대 1개, 공공직업훈련기관은 4개(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동서울제과제빵직업전문학교, 한국소아마비협회,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취창업알선기관은 41개(강북구청, 광진구 취업정보센터, 새마을 직업소개소외 37개, 중랑구청)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권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취업알선기관 분포는 도봉구에 직업소개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7▐ 동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단위: 개

구 분	총 계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여성관련 시설	12	여성인력개발 센터(서)	·여성능력개발원(서)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여성센터	·여성복지관 ·여성인력 개발센터(서)	·여성인력개발 센터(서)
대학	1	–	–	서울산업대학	덕성여자대학	–	–
공공직업 훈련기관	2	–	·동서울제과제빵직업전문학교 ·한국소아마비협회	–	–	–	–
취창업 알선기관	41	강북구청	·취업정보센터	북부종합고용(노)	직업소개소 38개	–	중랑구청

5) 서남권

① 산업정책 및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서남권의 여성인적자원 및 산업정책 개발과 활용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48〉와 같다. 서남권은 전체 권역 중 가장 많은 자치구에서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관련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목표는 여성경제활동지원을 위한 취·창업 관련 무료 여성능력교실의 운영 및 경력단절 여성인력의 활용에 있었고 계획의 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수립되어 있었다. 추진대상 사업으로는 취창업관련 무료여성교실, 2050 맞춤형 직업전문교육, 전문교육이수여성을 권역아동센터 선생님으로 연계, 경력단절 여성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연계, 영어뮤지컬 & 인형극지도사과정이 있었다.

권역 산업정책에 관련한 계획의 내용으로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경제 교육을 통해 경제기본원리를 습득토록 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경제놀이 지도사 과정 교육 및 소규모 여성창업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표 Ⅱ-48▐ 서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계획의 내용

구분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계획의 내용	권역 산업정책 관련 계획의 내용
계획의 목표	· 여성경제활동지원을 위한 취창업관련 무료 여성능력교실 운영 · 경력단절 여성인력 활용	· 여성에 대한 다양한 경제교육을 통해 경제기본원리를 습득 토록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역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함
계획기간	2008.1–2009.12	2008.11–2009.3.10
총소요예산	308,472천원	10,002천원
추진대상 사업	· 취창업관련 무료여성교실 · 2050맞춤형 직업전문교육 · 전문교육 이수여성을 권역아동센터 선생님으로 연계 · 경력단절 여성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연계 · 영어뮤지컬 & 인형극지도사과정	· 경제놀이지도사 과정 교육 · 소규모여성창업교육

② 권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

서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으로는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분야에서 총 34개가 수행되고 있었고 이 중 직업훈련지원(16개), 권역인재발굴(12개), 인적자원활용관련(6)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사업으로는 총 29개 사업으로 권역중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직업훈련지원(15개), 인적자원활용관련사업(13개), 권역인재발굴(1개) 사업 순으로 많이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인재발굴사업으로는 여성교실운영, 여성지도자연수, 전문교육 이수 여성일자리창출, 고위정책자과정,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여성뮤지컬 & 인형극 지도사 과정 등이 있었고, 권역인재발굴사업으로는 경제놀이 지도사 과정 교육이 있었다.

여성직업훈련지원 사업으로는 여성취업교실, 장애아동 통합교육 지도사양성, 워킹맘 육아 헬퍼 양성, 여성경제활동지원 교육사업, 여성교실 운영, 창업강좌, 여성취업대비교실, 노인건강관리사, 다문화가정산모도우미 등이 있었으며, 권역 직업 훈련 지원 사업으로는 권역실업자 직업훈련, 취업정보은행 운영, 창업지원정보센터, 간병산모도우미양성과정, 초등 수학지도사 양성, 영어뮤지컬지도사양성, 베이비시터 양성, 성폭력예방강사 양성과정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주로 교육서비스나 사회복지 및 보건 서비스직 교육훈련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인적자원 활용 관련 사업으로는 여성취창업박람회, 권역아동센터 특화 프로그램 교사 지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이 있었으며 지역인적자원 활용 관련 사업으로는 취업박람회, 창업지원설명회, 여성특화 창업강좌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49▐ 서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 현황

구분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사업의 내용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사업의 내용
인재발굴사업	· 여성지도자 연수 · 여성교실 운영 · 2050맞춤형 여성경제활동 지원사업 · 전문교육이수여성일자리창출 · 고위정책자 과정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 여행포럼단원 역량강화 · 베이비시터 양성과정 · 여성뮤지컬 & 인형극지도사 과정	· 경제놀이지도사 과정 교육
직업훈련지원	· 여성취업교실 · 장애아동통합교육지도사 양성 · 워킹맘 육아헬퍼 양성과정 · 여성경제활동 지원교육사업 · 여성교실 운영 · 창업강좌 · 여성취업대비교실 (이미지 메이킹, 이력서 작성법 등)	· 권역실업자 직업훈련 · 취업정보은행 운영 · 창업지원정보센터 · 권역실업자 직업훈련 · 전문양성과정(간병산모도우미, 초등수학지도사, 영어뮤지컬지도사, 베이비시터, 성폭력예방강사)
활용관련사업	· 여성취업설명회 · 여성CEO 포럼 멘토링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 권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교사지원 · 권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사업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 취 창업 박람회	· 취업박람회 · 창업지원설명회 · 구인구직 만남의 날 · 장애인 취업박람회 · 구인구직을 위한 job-sharing ·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여성특화 창업강좌 · 소자본 창업강좌 · 도전 나도 사장님 - 여성특화 창업강좌 · 여성박람회

③ 권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서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은 〈표 II-50〉와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관련 시설수는 총 12개(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구로문화원, 금천구 여성교실, 금천문화원, 살구여성회,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영등포문화원, 취업정보센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교실)로 서울시 전 권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시설의 경우 7개(동양공업전문대학, 성공회대, 한영신학대,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 서울대)가 있었으며, 공공직업훈련기관은 27개(경영기술개발원, 제이에듀테인먼트, 서울호산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고려아카데미컨설팅, 국제정보교육학원, 한국기업가치

혁신학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경영기술개발원, 서울디지털디자인학교, 요업개발원창업지원센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직업전문학원, 한국인력개발원, 숭실전자계산학원 등)로 여성관련 시설 수와 같이 서울시 전 권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21개는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었고, 금천구와 영등포구에는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권역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취창업알선기관은 11개(구로구청, 구로여성인력개발원, 구로여성고용지원센터, 서울관악고용지원센터, 구로고령자취업알선센터,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 취업정보은행, 금천 창업지원정보센터, 취업개발센터 등)가 분포하고 있었다.

▌표 Ⅱ-50▐ 서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단위: 개

구분	총계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여성관련 시설	12	·인력개발센터(서) ·문화원	·여성교실 ·문화원 ·살구여성회 ·인력개발센터(서) ·남부발전센터	·문화원	·인력개발센터(서)	·인력개발센터(서) ·관악여성교실 ·신림여성교실
대학	7	·성공회대 ·한영신학대 ·동양공업대	–	–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	·서울대
공공직업 훈련기관	27	·(재)경영기술개발원외20개	·서울디지털디자인학교 ·요업개발원	–	·한국직업전문학원 ·한빛요리학원 ·한국인력개발원 ·삼성금형기계기술학원 ·숭실전자계산학원	–
취·창업 알선기관	11	·구로구청 ·여성고용지원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취업정보은행 ·창업지원정보센터 ·취업개발센터	–	·취업정보센터(3개)	·취업정보은행 ·고용지원센터

6) 서북권

① 산업정책 및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서북권의 여성인적자원 및 산업정책 개발과 활용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Ⅱ-51〉과 같다.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프라구축,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의 제공 및 방안 연구, 여성의 소양 및 리더십 제고를 그 목표로 세우고 있다. 계획기간은 주로 단년도 계획으로 한 해 동안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대상 사업으로는 지식정보화 사회 및 고령화 대비, 여성인력개발 지원시스템을 갖춘 전문기관 인프라 구축,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여성직업교실 및 실직가정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권역의 여성최고지도자 과정이 있다.

권역산업정책과 관련한 계획으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연중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진대상사업으로는 경제놀이교육 지도사 과정교육, 소규모 여성창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표 Ⅱ-51▐ 서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계획의 내용

구분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계획의 내용	권역 산업정책 관련 계획의 내용
계획의 목표	·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인프라 구축 ·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의 제공 및 방안 연구 · 여성의 소양 및 리더십 제고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계획기간	2009.1-12	연중
총소요예산	1,426,000천원	약 5,000,000천원
추진대상 사업	· 지식정보화 사회 및 고령화 대비, 여성인력개발 지원시스템을 갖춘 전문기관 인프라 구축 ·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 여성직업교실 운영 · 실직가정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 강서-이화 아카데미 (자치구 여성 최고지도자 과정)	· 경제놀이교육지도사 과정 교육 · 소규모 여성창업교육 실시

② 권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

서북권의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사업은 총 33개이며 직업훈련지원(14개), 권역인재발굴(13개), 인적자원활용관련사업(6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사업으로는 총 2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서울 전 권역에서 서남권(29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으로는 권역인재발굴(12개), 인적자원활용관련사업(6개), 직업훈련지원(5개) 순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인재발굴과 관련해서는 여성지도자 워크숍, 사이버문화교육센터 운영, 양성평등확산을 위한 교육, 성인지 확산을 위한 교육, 실질가정여성 일자리 창출(자격증이용),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었고, 권역인재발굴 사업으로는 취약계층아동행복플러스 서비스, 구민교양대학운영 등이 있었다.

여성직업훈련지원사업으로는 PC사무경리 실무과정, 고령자 치매 뇌졸증전담 요양강사, 여성복지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여성일자리 교육훈련, 여성직업교실, 위기가정 여성일자리창출사업 등이 있었으며, 권역직업 훈련지원사업으로는 권역실업자 직업훈련, 여성직업교육, 평생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인적자원 활용 관련사업으로는 여성유망일자리설명회, 찾아가는 여성취업서비스, 여성창업모델 박람회개최 등이 있었으며, 지역인적자원활용 관련 사업으로는 소자본 창업강좌, 장애인 취업박람회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52▐ 서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 현황

구분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사업의 내용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사업의 내용
인재발굴 사업	· 권역대학 연계 여성아카데미 운영 · 여성지도자 워크숍 · 사이버 문화교육센터 운영 · 신맹모포럼 · 권역사회협의체 워크숍 개최 · 양성 평등 확산을 위한 교육 · 성인지 향상을 위한 교육 · 여행나눔터 개설 및 정보장 · 실직가정여성 일자리 창출 (자격 갖춘 여성의 자격증 이용한 일자리 창출)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아동행복플러스서비스 · 문제행동아동꿈바라기치료교실 · 청소년교실(한문예절,중국문화체험, 독서실 운영) · 경시대회(수학, 영어) · 영어캠프 운영 · 초등학교 사이버 스쿨 운영 · 구민교양대학 운영 · 초등학교 예체능 종합 발표회
직업훈련 지원	· PC사무경리 실무과정 · 고령자 치매 뇌졸중 전담요양사 · 여성복지센터 운영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 특색 여성일자리 교육훈련 · 여성경제활성화를 위한 권역여성 워크숍 · 삶을 가꾸는 여성케어엔젤 양성 · 여성직업교실 운영 · 위기가정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 실직가정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 권역실업자 직업훈련 · 여성직업교육 · 평생교육지도사 양성과정
활용관련 사업	· 일을 잡아라!! 여성유망일자리 설명회 · 찾아가는 여성취업 서비스 · 워킹맘-내일을 잡아라(여성일자리 미니박람회) · 유망직업세미나 및 소호창업모델발표회 · 여성창업모델박람회 · 여성취업박람회	· 소자본 창업강좌 · 청장년 일자리사업 · 장애인 취업박람회

③ 권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서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은 〈표 II-53〉와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관련 시설수는 10개(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서대문여성복지센터, 서대

문여성인력개발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신촌인력개발센터, 마포여성자원금고, 마포고용지원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양천구 상공회의소 등)로 나타났다. 권역에 분포하는 대학은 총 11개(서울기독대,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대, 명지전문대, 추계예대, 경기대, 서울여자간호대, 감리교신학대 서강대, 홍익대), 공공직업훈련기관은 6개(중부여성발전센터,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 동양제과직업훈련원, 한성직업전문학교,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로 서울 전 권역 중 도심권(15개) 다음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창업알선기관은 6개(은평구청,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서대문구청 취업정보은행, 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마포구취업정보은행)가 위치해 있었다.

▌표 Ⅱ-53▐ 서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단위: 개

구분	총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여성관련 시설	10	· 인력개발센터(서)	· 여성복지센터 · 여성인력개발센터 · 중부발전센터(서)	· 마포/신촌인력센터(서) · 여성자원금고	· 여성교실	· 서부발전센터(서)
대학	11	· 서울기독교대학교	· 연세대 · 이화여대 · 명지대 · 명지전문대 · 추계예대 · 경기대 · 서울여자간호대 · 감리교신학대	· 서강대학교 · 홍익대학교	–	–
공공직업훈련기관	6	–	· 동양제과직업훈련원 · 한성직업전문학교	· 고용복지지원센터	· 한국폴리텍대학	–
취창업알선기관	6	· 은평구청	· 서대문구청 취업정보은행	· 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노) · 취업정보은행	· 강서구청 취업상담센터	–

다. 소결

서울시 여성의 인력개발과 관련한 정책은 시와 자치구의 두 가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여성능력개발원, 4개 발전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통해서 경제활동참여를 돕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15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과 함께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취·창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권역일꾼 끌어내기 프로그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각 프로그램별 특성을 권역별로 도출·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은 권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권역에 따라 특성화 프로그램이 발견되고 있다. 공통적으로 컴퓨터, 회계 및 사무 관련, 요리 및 서비스직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권역여성인력개발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맞춤형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교육서비스직, 사무관련직,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직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남권은 IT 관련직, 사업서비스직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서북권은 금융 및 보험 관련직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권역일꾼 끌어내기 프로그램에서는 권역별로 다소 차별화 되는 특징이 발견된다. 도심권은 회계 및 사무관리와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동남권은 사무관련직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동북권은 음식 및 숙박 관련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복 및 패션 디자인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서남권은 출판디자인, 의복 및 패션, IT, 교육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서북권은 출판 및 편집 관련, 영상 및 오디오, 교육서비스, 사업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권역별 산업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능력개발 교육훈련 분야의 권역별 공통적 특성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심권과 동남권은 회계 및 사무관련직 교육훈련이 세 개 교육훈련 분야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심권과 동남권이 주로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밀집권역으로써 사무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은 도심권과 동남권과 대조적으로 주거공간의 비중이 높은 특성이 반영되어 교육서비스 관련 교육훈련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이 발견되었다.

▌표 Ⅱ-54▐ 여성능력개발 교육훈련 분야의 권역별 특성 요약

구 분	직업훈련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권역일꾼 끌어내기 프로그램
도심권	–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 – **회계·사무관련** – 요리 관련 프로그램 – 서비스직 관련 프로그램	– 교육서비스직 – **사무관련직,**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직	– **회계 및 사무관리** –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동남권	– 서비스직 관련 – 요리 관련 프로그램 –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 – **회계·사무 관련 프로그램**	– 교육서비스직 – **사무관련직**	– **사무관련직(경영 및 회계)**

구 분	직업훈련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권역일꾼 끌어내기 프로그램
동북권	–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 – **아동지도**,요리관련 프로그램 – 공예·자수 관련 프로그램 – 미용· 건강 관련 프로그램	– **교육서비스직,** – 사무관련직,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직	– 음식· 숙박 관련서비스 – **교육서비스** – 의복 및 패션 디자인 관련
서남권	– 공예· 자수 관련 프로그램 – 요리 관련 프로그램 – **아동지도 관련 프로그램** –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 – 미용· 건강 관련 프로그램	– 사업서비스직,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직, – 사무관련직, – **교육서비스직,** – IT 관련직 등	– 출판디자인 관련 – 의복 및 패션 관련 – IT 관련 – **교육서비스 관련**
서북권	–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 – 미용· 건강 관련 프로그램 – 요리 관련 프로그램 – **아동지도 관련 프로그램**	– 사업서비스직, – **교육서비스직,**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직, – 금융 및 보험관련직 등	– 출판 및 편집 관련 – 영상 및 오디오 관련 – **교육서비스 관련** – 사업서비스 관련

한편, 자치구 차원에서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여성인적자원의 권역별 계획 및 소요예산, 권역별 인력개발 관련 프로그램의 특성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인적자원 개발 계획의 목표 수립과 관련해서 주로 여성 능력개발, 역량강화, 경제활동 활성화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중점 대상층에 있어서는 전업주부와 같이 경력단절여성, 장애여성이나 빈곤여성 등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적자원개발계획에 포함된 목표의 특징은 '사업명'과 같이 너무 구체적인가 하면 반대로 추상적이고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권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한 이유로 해석된다.

▌표 Ⅱ-55▐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적자원개발 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비 고	여성인적자원개발 계획의 목표[1]	소요예산[2]
도심권	– 여성의 역량강화 및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15,000천원
동남권	–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통한 권역사회 경제 활성화 – 잠재된 여성인력의 능력개발을 통한 유휴인력 활용 활성화 – 여성의 발전과 능력개발을 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 신빈곤층 가정의 주부 및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게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제공	4,611,038천원
동북권	–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비전과 방안제시 –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영역의 확대를 통한 우수여성인력 배출	1,297,734천원
서남권	– 여성경제활동지원을 위한 취창업 관련 무료 여성능력교실 운영 – 경력단절 여성인력 활용	308,472천원
서북권	–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인프라 구축 –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의 제공 및 방안연구 – 여성의 소양 및 리더십 제고	1,426,000천원

주 1) 계획 목표: 각 권역에 포함된 자치구의 개별 계획을 정리한 내용임
2) 소요예산: 각 권역에 포함된 자치구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의 총소요예산을 합산하여 기입한 것임. 따라서 개별 자치구 예산이 아님

다음은 자치구 차원에서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을 크게 인재발굴사업, 여성능력개발 사업, 여성인력활용과 관련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묶어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권역별로 어떠한 특성이 드러나는지, 또한 각 분야별 사업에는 권역별 차이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에서와 같이 인재발굴사업의 권역별 공통 사업으로 '여행'과 같이 포럼단 지원, 동아리 지원사업, 지도자 역량 강화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도심권의 경우, 인력뱅크 등록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남권은 네트워킹 지원사업, 서북권은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치구 차원에서 추진되는 능력개발사업은 전 권역별로 공통적으로 여성교실이나 여성회관, 여성아카데미 운영 사업이 제시되고 있어 자치구별로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인다. 인력활용 사업으로 공통적인 사업으로 여성 취·창업 박람회 개최지원을 꼽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소자본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 취업설명회나 취업알선 창구 운영 등의 사업이 제시되고 있다.

▌표 Ⅱ-56▐ 자치구 차원의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관련 사업추진 현황 요약

비 고	인재발굴 사업	능력개발 사업	인력활용 사업
도심권	- 여성가요합창단 운영 - 여성축구교실 - 여성인력뱅크등록사업 - 여행포럼단 운영·지원	- 여성회관운영 및 지원	- 여성취·창업설명회 -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강좌
동남권	- 여성학습동아리 지원 - 여행포럼단 운영·지원 - 일하는여성들네트워킹 지원사업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제공 - 방과후 공부방도우미파견 - 주부취업을 위한 웨딩헬퍼 양성 - 이웃아이 사랑봉사단 운영 - 초등학교 명예사서 봉사단 활동지원	- 여성(문화)회관 운영 -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 -권역친화적직업훈련 -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 여성취업알선 창구 운영 - 여성 취창업 협의체 운영 - 여성 취창업 박람회 개최
동북권	- 외국인 한글교육 - 지도자 리더십 향상교육	- 생태체험 학습지도자 양성 - 모자가정 자립지원프로젝트 '워킹맘' - 해설사 양성교육 - 여성교양대학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고용촉진 단기적응 훈련	- 여성유망직종 취업설명회 - 주부 재취업설계프로그램 운영 - 여성소자본 창업강좌 - 여성 취창업 박람회
서남권	- 여성교실 운영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 고위정책과정 운영 - 여행포럼단 역량강화	- 장애아동통합교육지도사 양성 - 워킹맘 육아헬퍼 양성 - 여성경제활동 지원교육사업 - 창업강좌 - 여성취업대비교실 운영	- 여성취업 설명회 - 여성CEO 포럼 멘토링 - 권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교사지원 - 취창업 박람회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비 고	인재발굴 사업	능력개발 사업	인력활용 사업
서북권	– 권역대학 연계 여성아카데미 운영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 사이버 문화교육센터 운영 – 신맹모포럼 – 권역사회협의체 워크숍 – 양성평등 및 성인지향상교육 – 여성장애인역량강화	– 여성복지센터 운영(PC사무경리 실무과정,전담요양사 등) – 여성직업교실 – 위기가정여성 일자리 창출 – 실직가정여성 일자리 창출	– 여성유망일자리 설명회 –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 워킹맘, 내일을 잡아라 – 유망직업세미나 및 소호창업모델발표회 – 여성창업 모델 박람회 – 여성취업박람회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57〉과 같다. 도심권은 인력개발센터 2개소와 자치구 여성회관이나 여성교실 외에 문화회관에서도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남권 역시 발전센터는 없으며, 인력센터 1개, 기타 여성화관, 문화센터, 여성교실, 구민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11개가 있어 총 12개가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북권은 광진구에 여성능력개발원과 4개 인력개발센터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기관이 5개로 많은 편이며, 이 외에도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구민회관, 여성센터 등으로 7개가 있다. 서남권에는 남부발전센터 1개, 4개 인력개발센터와 7개의 기타 관련 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북권에는 중부와 서부발전센터가 있고, 3개 인력개발센터 외에 3개 기타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7▐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기관 현황

비 고	해당구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기 타
총 계		5	15	34
도심권	종로구	–	– 종로센터	– 봉제여성지원센터 – 동부여성문화센터
	중 구	–	–	– 중구여성회관
	용산구	–	– 용산센터	– 용산문화회관
	성북구	–	–	– 성북여성회관 – 성북여성교실
	소 계	–	2	6
동남권	서초구	–	– 서초센터	– 여성회관 – 문화센터
	강남구	–	–	– 여성능력개발센터
	송파구	–	– 송파센터	– 문화회관 – 여성교실 – 여성능력개발센터
	강동구	–	–	– 구민회관
	성동구	–	–	– 구민회관

비 고	해당구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기 타
				– 청소년수련관 – 옥수종합사회복지관 –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소 계	–	2	11
동북권	강북구	–	– 강북센터	–
	광진구	여성능력개발원	–	– 문화예술회관 – 문화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원구	북부발전센터	– 노원센터	– 구민회관 – 문화예술회관
	도봉구	–	–	– 여성센터
	동대문구	–	– 동대문센터	– 여성복지관
	중랑구	–	– 중랑센터	–
	소 계	2	4	7
서남권	구로구	–	– 구로센터	– 구로문화원
	금천구	남부발전센터	– 금천센터	– 금천문화원 – 여성교실 – 살구여성회
	영등포구	–	–	– 영등포문화원
	동작구	–	– 동작센터	–
	관악구	–	– 관악센터	– 관악여성교실 – 신림여성교실
	소 계	1	4	7
서북권	은평구	–	– 은평센터	–
	서대문구	–	–	– 여성복지센터
	마포구	중부발전센터	– 마포/신촌센터	– 여성자원금고
	강서구	–	– 강서센터	– 여성교실
	양천구	서부발전센터	–	–
	소 계	2	3	3

주 1)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가 2009년 5월에 새로이 개소하여 서울시에 총 15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음

이와 같은 서울시 및 자치구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정책의 특성을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서울시 차원의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추진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과정을 강화하여 맞춤형 직업훈련, 권역일꾼 끌어내기 사업 등을 통하여 여성인력개발과 활용을 연계시키고자 한 점이다. 이를 위한 교육훈련의 수준은 1수준의 직능수준으로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 교육훈련을 통해

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의 대상을 구체화하면 경력단절로 인한 일반여성에 대한 능력개발이며, 이를 위한 교육훈련의 수준은 1수준에 있다. 특히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개발·시도되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고 특성화의 초기단계에 있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정교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

한편, 자치구 차원에서 여성인력개발 관련 추진 사업은 매우 미흡한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여성능력개발과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부족하다. 사업예산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자치구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 욕구를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권역별 사업체의 여성인력수요 조사결과 분석

Ⅲ 권역별 사업체의 여성인력수요 조사결과 분석

1. 조사설계 및 대상의 일반적 특성

가. 조사 설계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를 위해 기업체 여성인력수요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 설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은 선정 사업체의 대표 혹은 인사담당자로 하였고, 자료 수집은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이메일 및 팩스를 통한 자료수집 방법을 병행하였다. 총표본의 규모는 2,500개로 5개 권역에 대해 각 권역별 500개의 표본추출을 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권역별·업종별 할당표본추출 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시점은 2009년 6월 5일부터 24일까지 약20일 동안 시행되었고, 조사기관은 사업체 전문 조사기관으로 주식회사 메트릭스코퍼레이션이 수행하였다.

▌표 Ⅲ-1▌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각 사업체 인사담당자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E-mail 또는 Fax 조사 병행)
유효표본	2,500개 업체
표본추출	권역별 · 업종별 할당표본추출
조사시점	2009년 6월 5일 ~ 2009년 6월 24일
조사기관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1) 조사범위 및 대상

조사범위는 서울시 소재 5인 이상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모집단은 2007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통계청) 사업체 중 서울시에 소재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체이다.

권역별·업종별 표본추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산업정책의 방향, 서울시 권역별 사업체 수 및 여성종사자 비율,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여성유망 직종 도출, 권역별 전문가 및 관계자에 대한 정성적 판단 등을 참고하였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상의 산업분류 중 중분류를 기준으로 각 권역의 특성 및 여성친화직종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개 업종을 선정, 비비례 할당 표본추출을 활용하였다. 업종선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1▐ 권역별 업종선정절차 및 결과

이와 같이 선정된 권역별 조사업종의 모집단은 다음 표와 같다. 총15개 업종의 모집단 규모는 22,758개로 5인 이상 사업체로 제한하였다. 이 가운데 종사자 수 5~29인의 소기업이 19,478개로 대상사업체의 85.6%를 차지하고 있고, 30~99인의 중기업은 2,565개로 대상사업체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100인 이상 대기업은 715개로 대상사업체의 3.1%에 불과하다.

권역별 조사업종의 모집단 규모를 살펴보면, 동남권이 전체 대상 사업체의 36.3%를 차

지하고 있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동북권으로 대상 사업체의 22.6%, 도심권 17.9%, 서남권 12.7%, 서북권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교육서비스업 25.2%(5,727), 전문서비스 19.2%(4,313),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062개로 대상사업체의 17.8%를 차지하였고,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1%(2,288) 순의 분포를 나타냈다. 이외에 보건업 6.8%(1,555), 출판업 5.3%(1,216), 사업지원서비스 4.3%(975), 사회복지 서비스업 2.2%(508),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7%(391), 섬유제품제조업 1.6%(36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6%(36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309),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3%(294),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1%(254),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6%(131)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Ⅲ-2▐ 기업체 모집단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전체	소기업 (5~29인)	중기업 (30~99인)	대기업 (100인이상)
전 체		22,758 (100.0)	19,478 (85.6)	2,565 (11.3)	715 (3.1)
도심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370	1,337	26	7
	출판업	596	479	78	39
	전문서비스업	1,001	912	56	33
	사업지원 서비스업	975	784	116	75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1	107	17	7
	소 계	4,073 (17.9)	3,619	293	161
동남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956	796	114	4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09	220	74	15
	전문서비스업	2,823	2,578	201	4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730	1,449	209	72
	교육 서비스업	2,445	1,943	439	63
	소 계	8,263 (36.3)	6,986	1,037	240
동북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369	364	5	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736	1,670	60	6
	교육 서비스업	1,726	1,286	388	52
	보건업	799	727	46	26
	사회복지 서비스업	508	474	32	2
	소 계	5,138 (22.6)	4,521	531	86

구 분		전체	소기업 (5~29인)	중기업 (30~99인)	대기업 (100인이상)
서남권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22	191	30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54	189	52	1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94	215	39	4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58	429	100	29
	교육 서비스업	1,556	1,222	309	25
	소 계	2,884 (12.7)	2,246	530	108
서북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91	277	34	80
	출판업	620	540	64	16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44	124	20	0
	전문서비스업	489	469	17	3
	보건업	756	696	39	21
	소 계	2,400 (10.5)	2,106	174	120

자료: 통계청, 2007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업체 중 서울시 소재 종사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2)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사업체방문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및 응답자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조사와 팩스조사를 병행하였다. 기간은 2009년 6월5일부터 6월24일까지 약20일 동안 수행하였다.

조사내용은 사업체의 기본현황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연령, 성별, 근로형태 및 직위 등에 따른 인력현황을 묻는 질문을 포함하였다. 특히 사업체의 여성인력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써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과 성별·연령대별 채용현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향후 인력수급계획을 파악하기 위해 3년 이내 신규인력 채용 예정인원과 채용예정 인원의 직업훈련 수요를 파악하는 질문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권역 사업체의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인지도와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표 Ⅲ-3▐ 기업체 여성인력수요 조사 항목

구 분	조 사 항 목
일반 현황	• 고용형태에 따른 사업체 인력 현황
	• 연령에 따른 사업체 인력 현황
	• 성별 · 근로형태에 따른 사업체 인력 현황
	• 직위에 따른 사업체 인력 현황

구 분	조 사 항 목
인력관리 현황	• 최근 3년간(2007년~2009년 5월) 신규인력 채용 현황
	• 성별 · 연령대별 채용 현황
	• 신규인력 채용 시 주로 사용하는 방법
	• 신규인력 채용 시 고려 정도와 업무의 생산성 기여 정도
	• 신규인력 채용 시 애로사항
인력수급 계획	• 향후 3년(2009년 6월~2011년)이내 신규 인력 채용 계획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인원
	• 근로형태의 유연화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
인력 교육훈련 실태 및 향후 인력수요 파악	• 향후 채용예정 인원의 교육훈련 수요 – 교육프로그램명, 교육기간 등
서울시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성화 정책지원방안	• 서울시 여성교육훈련기관 인지도
	• 맞춤형 인력양성 필요성

3) 사업체 조사결과

사업체 여성인력수요 조사를 위해 사업체의 권역내 업종별·규모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5개 업종에 100개 내외의 표본을 추출하여 총 2,500개 사업체가 본 조사에 활용되었다. 규모별로 5인이상 29인까지를 소기업, 30인부터 99인까지 중기업, 100인 이상을 대기업으로 분류한 결과 소기업이 전체 조사 대상 업체의 83.5%(모집단 85.6%)를 차지하였으며, 중기업이 12.1%(모집단 11.3%), 대기업이 4.4%(3.1%)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업종의 모집단 비율에 근접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표 Ⅲ-4▐ 기업체 여성인력수요 조사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전체	소기업 (5~29)	중기업 (30~99)	대기업 (100이상)
전 체		2,500 (100.0)	2,088 (83.5)	303 (12.1)	109 (4.4)
도심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95	5	0
	출판업	100	84	10	6
	전문서비스업	103	82	14	7
	사업지원 서비스업	102	69	18	15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67	19	9
	소 계	500	397	66	37

구 분		전체	소기업 (5~29)	중기업 (30~99)	대기업 (100이상)
		(100.0)	(79.4)	(13.2)	(7.4)
동남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4	80	17	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4	58	34	12
	전문서비스업	103	84	16	3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99	91	8	0
	교육 서비스업	103	100	2	1
	소 계	513 (100.0)	413 (82.6)	77 (15.0)	23 (4.5)
동북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80	8	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97	3	0
	교육 서비스업	107	93	12	2
	보건업	99	91	8	0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100	1	0
	소 계	495 (100.0)	461 (93.1)	32 (6.5)	2 (0.4)
서남권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98	77	15	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62	32	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72	19	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0	80	17	3
	교육 서비스업	102	98	2	2
	소 계	500 (100.0)	389 (77.8)	85 (17.0)	20 (4.0)
서북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116	3	11
	출판업	113	97	12	4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6	33	3	0
	전문서비스업	112	99	12	1
	보건업	101	83	13	5
	소 계	492 (100.0)	428 (87.0)	43 (8.7)	21 (4.3)

대상사업체 업종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서비스업(도심권, 동남권, 서북권),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교육서비스업(동남권, 동북권, 서남권)은 각 세 개 권역의 조사업종으로 선정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 개 업종은 모집단의 규모도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크며, 권역별로 특성화 업종이 중첩된 데 따른 것이다. 표본추출 방법에서 언급되었듯이, 업종

별 표본의 크기는 권역별 선정된 업종에 대한 비비례 할당 추출방법으로 모집단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5▐ 사업체 여성인력수요 조사의 업종별 모집단 및 표본집단 구성 현황

단위: 개, %

구 분	모집단		표본집단	
	사례수	구성비율	사례수	구성비율
전 체	22,758	100.0	2500	100.0
출판업	1,216	5.3	213	8.5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062	17.8	304	12.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1	0.6	95	3.8
사업지원서비스업	975	4.3	102	4.1
전문서비스업	4,313	19.2	318	12.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9	1.4	104	4.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278	10.1	199	8.0
교육 서비스업	5,727	25.2	312	12.5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369	1.6	88	3.5
보건업	1,555	6.8	200	8.0
사회복지 서비스업	508	2.2	101	4.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94	1.3	100	4.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54	1.1	100	4.0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66	1.6	134	5.4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91	1.7	130	5.2

나. 사업체의 인력현황 분석

1) 사업체의 인력규모

2,500개 업체의 총 인력규모는 72,385명이며 이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87.6%로 나타났으며, 외주나 아웃소싱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6.2%를 차지하였고, 임시근로자 3.9%, 일용근로자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구성비는 여성이 45.1%, 남성 54.9%로 여성근로자가 남성에 비해 약 10% 적게 나타났다.

(1) 사업체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인력규모

조사업체 종사자의 인력규모를 고용형태별로 상용, 임시, 일용, 무급가족종사자 및 외주나 아웃소싱근로자 등 기타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성별 고용형태별 분포는 여성의 경우 상용근로자 비율이 84.0%이며 이외에 기타 외주나 아웃소싱 근로자 7.4%, 임시근로자 5.0%, 일용근로자 3.3%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남성은 상용근로자 비율이 90.5%로 90%를 넘고 있는 반면, 기타 외주 및 아웃소싱근로자(5.3%) 비율이나 임시근로자(3.0%) 비율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6▐ 사업체 고용형태별 종사자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 분	총 인원	여성	남성
총 계	72,385 (100.0)	32,681 (45.1)	39,704 (54.9)
상용근로자	63,402 (87.6)	84.0	90.5
임시근로자	2,822 (3.9)	5.0	3.0
일용근로자	1,548 (2.1)	3.3	1.2
무급가족종사자	103 (0.1)	0.2	0.1
기타(외주,아웃소싱근로자 등)	4,510 (6.2)	7.4	5.3

(2) 고용형태의 권역별 여성구성비

여성근로자 가운데 고용형태를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상용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권역은 서북권으로 서북권 여성전체 근로자의 93.7%가 상용직 근로자이며, 다음이 동남권 91.8%로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권역은 서남권으로 73.2%로 나타나고 있다. 임시근로자 비율은 도심권이 6.5%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서남권 6.2%, 동북권 5.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용근로자 비율은 동북권이 7.1%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도심권이 1.7%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높은 도심권, 동북권, 서남권 권역이 고용형태의 유연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권역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외주 등 아웃소싱 비율이 높은 권역은 상용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서남권이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도

심권으로 10.3%가 외주 등 아웃소싱 근로자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고용형태의 차이는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7▐ 고용형태의 권역별 여성구성비

단위: 명, %

구 분	전체	상용	임시	일용	무급	기타
총 계	32,681 (100.0)	27,464 (84.0)	1,642 (5.0)	1,087 (3.3)	58 (0.2)	2,430 (7.4)
도심권	12,425 (100.0)	81.4	6.5	1.7	0.1	10.3
동남권	6,038 (100.0)	91.8	1.8	5.8	0.1	0.5
동북권	4,384 (100.0)	85.2	5.9	7.1	0.6	1.2
서남권	5,546 (100.0)	73.2	6.2	2.3	0.2	18.0
서북권	4,288 (100.0)	93.7	2.9	1.8	0.1	1.4

(3) 고용형태의 업종별 여성 구성비

여성근로자의 업종별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은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99.3%로 거의 10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출판업 96.7%, 전문서비스업 96.5%, 보건업 95.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95.1%로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임시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종으로 여성전체 근로자의 28.5%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13.0%, 섬유제품 제조업이나 교육서비스업의 임시근로자 비율은 각 8.9%, 8.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 18.6%, 섬유제품 제조업이 10.3%로 의류 관련 업종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의복 관련 업종 등이 고용형태의 유연화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외주 등 아웃소싱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2.3%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음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 23.5%, 사업지원서비스업 19.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8▐ 고용형태의 업종별 여성구성비

단위: 명, %

구 분	전체	상용	임시	일용	무급	기타
총 계	32,681 (100.0)	27,464 (84.0)	1,642 (5.0)	1,087 (3.3)	58 (0.2)	2,430 (7.4)
출판업	3,087 (100.0)	96.7	2.1	0.6	0.0	0.6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542 (100.0)	77.3	2.5	18.6	0.6	1.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07 (100.0)	66.6	28.5	1.2	0.1	3.6
사업지원서비스업	6,024 (100.0)	75.3	4.0	1.2	0.0	19.6
전문서비스업	4,355 (100.0)	96.5	1.9	1.1	0.0	0.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49 (100.0)	95.1	1.5	0.8	0.1	2.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891 (100.0)	99.3	0.3	0.3	0.0	0.0
교육 서비스업	3,527 (100.0)	89.3	8.6	1.0	0.0	1.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493 (100.0)	80.3	8.9	10.3	0.2	0.2
보건업	3,181 (100.0)	95.3	2.7	0.6	0.1	1.4
사회복지 서비스업	885 (100.0)	89.7	5.3	2.6	1.4	1.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639 (100.0)	80.8	5.6	1.5	0.0	12.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195 (100.0)	70.5	4.9	0.9	0.1	23.5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252 (100.0)	45.7	4.7	6.3	1.0	42.3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54 (100.0)	76.8	13.0	8.3	2.0	0.0

2) 사업체의 연령대별 인력규모

(1) 권역별 사업체의 연령대별 구성비

사업체 인력의 연령대별 구성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Ⅲ-9〉와 같다. 도심권은 사업체 인력의 연령 구성비에서 무응답 비율이 22%나 차지하고 있어 응답의 손실률이 크다. 이를 감안하여 살펴보면,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24%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40대(20%), 20대(17.6%), 50대 이상(16.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심권이 특히 다른 권역과 차이가 나는 것은 20대 종사자로 20%에 못 미치는 17.6%에 불과한 반면, 이외의 권역에서는 20대 비율이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동남권의 경우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30대의 구성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있고 20대는 27.5%로 5개 권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북권 인력의 연령대별 특징은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8.5%로 타 권역(25%미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고, 서남권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3.2%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9▐ 권역별 사업체의 연령대별 구성비

단위: 명, %

구 분	총계	20대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대 이상	무응답
전 체	72,385 (100.0)	60 (0.1)	16,117 (22.3)	23,712 (32.8)	16,027 (22.1)	10,286 (14.2)	6183 (8.5)
도심권	27,299 (100.0)	0.1	17.6	24.3	19.9	16.1	22.0
동남권	13,854 (100.0)	0.1	27.5	39.6	22.1	9.3	1.3
동북권	6,063 (100.0)	0.0	25.7	29.6	28.5	16.2	0.0
서남권	13,808 (100.0)	0.1	26.0	43.2	22.7	8.0	0.0
서북권	11,361 (100.0)	0.1	20.7	33.6	23.5	22.1	0.0

(2) 업종별 사업체의 연령대별 구성비

업종별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업종은 보건업 41.4%이며, 다음이 사회복지 서비스업 35.6%, 교육서비스업 30.0%,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0.9% 등으로 여성친화적 업종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0대의 상대적 구성비율이 높은 업종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0.6%로 동일업종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7.9%,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4.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0대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금융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31.6%,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6%,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의 구성비율이 30%내외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50대 이상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47.9%로 거의 절반이 50대 이상으로 인력구성의 고령화현상을 볼 수 있으며, 사업지원서비스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의 50대 이상 구성비가 20%를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Ⅲ-10▐ 업종별 사업체의 연령대별 구성비

단위: 명, %

구 분	총계	20대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대 이상	무응답
전 체	72,385 (100.0)	60 (0.1)	16,117 (22.3)	23,712 (32.8)	16,027 (22.1)	10,286 (14.2)	6183 (8.5)
출판업	6,278 (100.0)	0.3	19.4	40.5	29.4	10.4	0.0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606 (100.0)	0.1	24.4	27.7	30.0	17.8	0.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777 (100.0)	0.0	16.2	30.6	30.6	22.6	0.0
사업지원서비스업	9,683 (100.0)	0.0	26.5	26.9	20.3	26.4	0.0
전문서비스업	13,531 (100.0)	0.1	13.3	23.8	13.0	5.4	44.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813 (100.0)	0.0	20.1	44.7	23.6	7.8	3.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415 (100.0)	0.0	29.7	40.9	18.6	10.9	0.0

구 분	총계	20대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대 이상	무응답
교육 서비스업	4,473 (100.0)	0.0	30.0	31.6	24.8	13.5	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962 (100.0)	0.0	15.9	34.6	28.7	20.8	0.0
보건업	4,482 (100.0)	0.2	41.4	31.3	17.0	10.0	0.0
사회복지 서비스업	958 (100.0)	0.0	35.6	31.2	22.1	11.1	0.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058 (100.0)	0.0	19.6	37.9	31.6	11.0	0.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908 (100.0)	0.3	30.9	50.6	15.9	2.3	0.0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907 (100.0)	0.0	26.4	47.9	20.1	5.5	0.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534 (100.0)	0.0	3.2	20.7	28.2	47.9	0.0

3) 사업체의 근로형태별 현황

사업체 인력의 근로형태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일제 근로자 92.5%, 프리랜서 2.4%, 시간제 근로자 1.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성별 근로형태 현황

성별로 여성근로자의 90.7%가 전일제 근로자인데 비해 남성의 경우는 93.9%로 나타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 비중에서는 여성 2.6%, 남성 1.2%로 여성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프리랜서의 비중은 여성과 남성이 각 2.3%, 2.4%로 비슷하다.

▌표 Ⅲ-11▐ 성별 근로형태별 구성비

단위: 명, %

구 분	전체	여성	남성
총 계	72,385 (100.0)	32,681 (100.0)	39,704 (100.0)
전일제 근로자	66,929 (92.5)	90.7	93.9
시간제 근로자	1,354 (1.9)	2.6	1.2
프리랜서	1,713 (2.4)	2.3	2.4
기타	2,392 (3.3)	4.4	2.4

(2) 여성근로자의 권역별·근무형태별 현황

근무형태의 권역별 여성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전일제 근무비율이 높은 권역은 동남권과 서북권으로 각 98.5%, 97.6%로 나타나 근로형태가 거의 전일제임을 알 수 있다. 여성근로자의 시간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권역은 동북권으로 6.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프리랜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권역은 서남권으로 10.2%로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권역별 차이라기 보다는 각 권역의 조사업종으로 선정된 업종별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12▐ 근무형태의 권역별 여성구성비

단위: 명, %

구 분	전체	전일제	시간제	프리랜서	기타
총 계	32,681 (100.0)	29,639 (90.7)	862 (2.6)	749 (2.3)	1,431 (4.4)
도심권	12,425 (100.0)	89.2	3.0	0.4	7.4
동남권	6,038 (100.0)	98.5	1.0	0.5	0.0
동북권	4,384 (100.0)	90.9	6.7	1.6	0.8
서남권	5,546 (100.0)	80.1	1.4	10.2	8.3
서북권	4,288 (100.0)	97.6	1.3	0.9	0.2

(3) 여성근로자의 업종별·근무형태별 현황

여성근로자의 업종별 근무형태를 분석한 결과, 출판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전문서비스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전일제 근로자 비율이 95%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의 전일제 근로자 비율은 절반이 채 안 돼는 46.5%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업종은 프리랜서의 비율이 동일업종 42.7%로 근로형태의 유연화 업종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13▐ 여성근로자의 업종별 근무형태별 구성비

단위: 명, %

구 분	전체	전일제	시간제	프리랜서	기타
총 계	32,681 (100.0)	29,639 (90.7)	862 (2.6)	749 (2.3)	1,431 (4.4)
출판업	3,087 (100.0)	98.9	0.6	0.6	0.0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542 (100.0)	98.6	0.9	0.5	0.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07 (100.0)	90.7	9.3	0.0	0.0
사업지원서비스업	6,024 (100.0)	80.7	3.6	0.3	15.4
전문서비스업	4,355 (100.0)	98.8	0.2	1.0	0.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49 (100.0)	99.2	0.8	0.0	0.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891 (100.0)	99.7	0.3	0.0	0.0
교육 서비스업	3,527 (100.0)	90.8	6.2	2.2	0.9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493 (100.0)	83.4	16.2	0.2	0.2
보건업	3,181 (100.0)	97.7	2.1	0.1	0.1
사회복지 서비스업	885 (100.0)	92.7	6.0	0.8	0.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639 (100.0)	94.5	0.4	1.8	3.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195 (100.0)	76.3	0.0	0.3	23.4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252 (100.0)	46.5	1.2	42.7	9.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54 (100.0)	96.1	0.8	0.0	3.1

3) 근로자의 지위 현황

근로자의 지위분포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장급이하 73.1%, 과장·부장급이 19.6%, 임원급 이상이 6.9%의 분포를 나타냈다.

(1) 성별 지위분포 현황

성별로 과장급 이하 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근로자의 62%인 반면 여성근로자의 경우 86.5%로 여성근로자의 과장급 이하 직원 비율이 24p%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과장급이상의 중간관리자 및 임직원 비중에 있어서는 반대 현상을 보이는데 과장급은 여성근로자의 10.2%가, 남성근로자의 27.4%로 나타났으며, 임원급이상은 남성근로자의 10.1%인데 반해 여성근로자의 2.9%만이 임원급으로 여성근로자가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남성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조사업종 가운데는 여성친화적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전 업종 사업체의 지위분포를 분석하면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4▐ 근로자의 성별 지위분포 현황

단위: 명, %

구 분	전체	여성	남성
총 계	72,385 (100.0)	32,681 (100.0)	39,704 (100.0)
과장급이하(사원, 대리, 주임등)	52,886 (73.1)	86.5	62.0
과장-부장급(과장,차장,부장,팀장등)	14,215 (19.6)	10.2	27.4
임원급이상(이사,전무,상무 이상)	4,984 (6.9)	2.9	10.1
무응답	300 (0.4)	0.3	0.5

(2) 여성근로자의 업종별 지위 현황

여성근로자의 권역별, 업종별 지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특히 업종별로 과장·부장급 및 임원급 이상 여성비율이 높은 업종은 전문서비스업 29.8%로 30%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이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2.2%, 출판업 17%, 컴퓨터프로그램·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6%,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4.9% 등으로 상위직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여성근로자의 권역별·업종별 지위 분포

단위: 명, %

구 분	전체	과장급이하	과장-부장급	임원급이상	무응답
총 계	32,681 (100.0)	28,283 (86.5)	3,345 (10.2)	963 (2.9)	90 (0.3)
출판업	3,087 (100.0)	81.5	16.8	0.2	00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542 (100.0)	88.7	6.4	4.8	0.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07 (100.0)	92.0	6.2	1.9	0.0
사업지원서비스업	6,024 (100.0)	96.9	2.6	0.4	0.0
전문서비스업	4,355 (100.0)	68.1	26.9	2.9	2.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49 (100.0)	89.3	9.3	1.4	0.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891 (100.0))	77.8	18.5	3.7	0.0
교육 서비스업	3,527 (100.0)	89.0	3.8	7.2	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493 (100.0)	83.8	9.9	6.3	0.0
보건업	3,181 (100.0)	90.9	7.4	1.7	0.0
사회복지 서비스업	885 (100.0)	86.1	2.9	11.0	0.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639 (100.0)	87.8	11.3	0.9	0.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195 (100.0)	84.4	14.6	1.0	0.0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252 (100.0)	88.9	7.7	3.4	0.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54 (100.0)	85.0	11.8	3.1	0.0

2. 권역별·업종별 사업체의 인력수급 현황

가. 최근 3년간(2007~2009.5) 신규인력 채용 현황

최근 3년간(2007년~2009년 5월)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중 86.2%(2,155개 업체), 채용한 적이 없는 사업체는 13.8%(345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업종별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도심권 업종 평균 80%가 신규채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으로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응답업체의 약 90%가 신규채용이 있다고 응답하여 도심권의 5개 업종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신규채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24%나 되고 있어 이 업종에서 인력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동남권의 신규채용 경험이 있는 사업체 평균비율은 89%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업종별로 교육서비스업은 98.1%가 신규채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전문서비스업의 신규채용 경험이 93.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신규채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북권의 신규채용 경험이 있는 사업체 평균비율은 84.2%인 반면 최근 3년간 신규채용 경험이 없는 비율이 약15%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95.0%가 신규채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서비스업의 신규채용 경험은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의 신규채용 비율은 78%에 그치고 있어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서남권의 신규채용 경험이 있는 사업체 평균비율은 88.6%인 반면 최근 3년간 신규채용 경험이 없는 사업체는 약 11.4%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종의 신규채용 경험 비율이 약 95%내외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은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북권의 신규채용 경험이 있는 사업체 평균비율은 89.3%로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보건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전문서비스업의 신규채용 비율 90%를 넘어 상대적으로 높은 채용비율을 보인 반면, 출판업이나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각 86.7%, 83.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채용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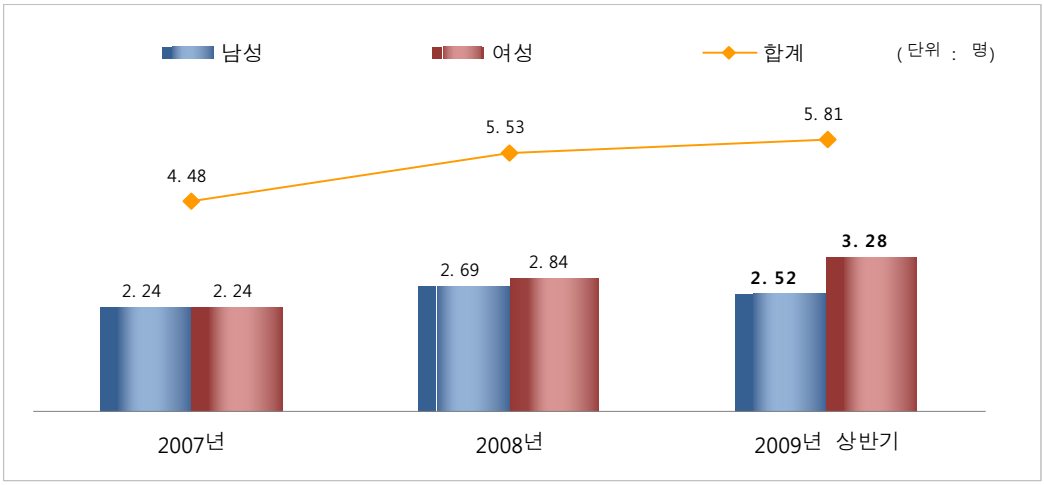
▌표 Ⅲ-16▐ 권역별·업종별 신규인력 채용여부

단위: 개, %

구 분		응답 업체수	있다	없다
전 체		2,500 (100.0)	2,155 (86.2)	345 (13.8)
도심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76.0	24.0
	출판업	100	80.0	20.0
	전문서비스업	103	83.5	16.5
	사업지원 서비스업	102	72.5	27.5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89.5	10.5
	소 계	500 (100.0)	80.3	19.7
동남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4	85.6	14.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4	87.5	12.5
	전문서비스업	103	93.2	6.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99	80.8	19.2
	교육 서비스업	103	98.1	1.9
	소 계	513 (100.0)	89.0	11.0
동북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78.4	21.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80.0	20.0
	교육 서비스업	107	85.0	15.0
	보건업	99	82.8	17.2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95.0	5.0
	소 계	495 (100.0)	84.2	15.8
서남권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98	87.8	1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94.0	6.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83.0	1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0	81.0	19.0
	교육 서비스업	102	97.1	2.9
	소 계	500 (100.0)	88.6	11.4
서북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83.1	16.9
	출판업	113	86.7	13.3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6	91.7	8.3
	전문서비스업	112	91.1	8.9
	보건업	101	94.1	5.9
	소 계	492 (100.0)	89.3	10.7

나. 성별·연령별 채용 현황

최근 3년간 채용한 신규 인력은 평균적으로 2007년 4.5명, 2008년 5.5명, 2009년 상반기 5.8명으로 채용인원수가 점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2007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게 채용되었으나, 점차 여성의 채용비중이 높아져 2009년 상반기의 여성 채용인원이 남성에 비해 0.74명 더 많게 채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2▐ 최근 3년간 성별 채용 현황

1) 권역별·업종별 여성 채용 추이분석

최근 3년간 조사대상업체의 채용인력 규모는 3만명이 조금 못되는 29,94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2.6%로 남성보다 여성의 채용규모가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업종선정에 있어 여성친화적 업종이 고려된 결과로 해석된다. 최근 3년간의 권역별 여성인력 채용 규모를 분석한 결과, 도심권이 33.1%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다음이 동남권 19.6%, 서남권 16.0%, 서북권 14.4%, 동북권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채용인력의 여성비율에 있어서는 동북권이 평균 80.3%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어 여성종사자가 비교적 많은 업종을 포함하고 이유로 해석된다. 반면, 서북권의 채용인력의 여성비율은 45.9%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의 업종을 포함한 이유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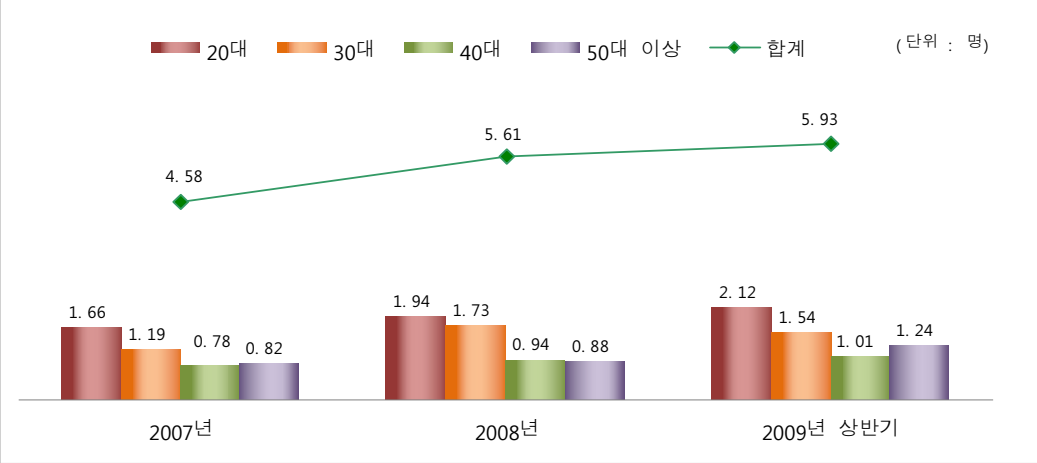
▌표 Ⅲ-17▐ 사업체의 권역별·업종별 평균 여성채용 현황

단위: 개, %

구 분		총 계		2007		2008		2009상반기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 체		29,945 (100.0)	52.6	7,182	50.0	10,573	51.3	12,190	56.5
도심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71	70.7	133	72.9	136	72.1	302	67.2
	출판업	767	63.6	208	66.3	295	57.6	264	67.0
	전문서비스업	610	62.8	37	83.8	134	54.5	439	50.1
	사업지원 서비스업	5644	61.1	1,023	61.6	1,439	55.3	3,182	66.4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318	51.6	501	53.3	781	52.0	1,036	49.5
	소 계	9,910 (33.1)	62.0	1,902	25.6	2,785	58.3	5223	61.8
동남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680	60.9	349	61.6	849	58.4	482	62.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41	15.1	354	15.0	699	16.9	388	13.4
	전문서비스업	1558	61.5	252	51.6	452	61.3	854	71.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464	39.5	135	40.0	207	39.1	122	39.3
	교육 서비스업	720	92.7	172	91.3	235	94.5	313	92.3
	소 계	5,863 (19.6)	53.9	1262	51.9	2442	54.0	2159	55.9
동북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75	57.2	66	53.0	102	60.8	107	57.9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65	88.4	66	92.4	119	91.6	180	81.1
	교육 서비스업	1278	74.0	338	85.7	513	71.3	427	64.9
	보건업	737	84.2	172	89.0	330	79.0	235	84.7
	사회복지 서비스업	614	93.3	195	93.8	185	93.5	234	92.7
	소 계	3,269 (10.9)	79.4	837	82.8	1249	79.2	1183	76.3
서남권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143	48.9	255	45.5	324	48.8	564	52.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55	32.3	551	33.4	658	32.2	346	31.2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942	57.9	189	61.9	392	62.8	361	49.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474	39.7	119	37.0	232	40.5	123	41.5
	교육 서비스업	673	90.4	168	90.5	229	88.6	276	92.0
	소 계	4,787 (16.0)	53.8	1282	53.7	1835	54.6	1670	53.2
서북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495	8.6	1117	3.4	1303	18.3	1075	4.0
	출판업	873	49.8	240	47.9	357	47.6	276	54.0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31	39.3	69	37.7	82	40.2	80	40.0
	전문서비스업	377	64.3	77	61.0	135	68.9	165	63.0
	보건업	1140	67.7	396	65.9	385	68.1	359	69.1
	소 계	6116 (14.4)	45.9	1899	43.2	2262	48.6	1955	46.0

2) 연령별 여성 채용 추이

연령별로 2007년에는 2,500개 사업체의 평균 채용규모는 20대 1.7명, 30대 1.2명, 50대 이상과 40대가 약 0.8명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에는 20대 1.9명, 30대 1.7명, 40대와 50대 이상이 약 0.9명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이전 연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50대 이상 평균 채용인원이 40대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Ⅲ-3▐ 최근 3년간 연령별 채용 현황

연령대별 최근 3년간 채용규모는 역시 20대가 약 3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0대 28.7%, 50대 이상18.2%, 40대 17.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채용인력의 여성규모를 살펴보면, 20대의 평균 여성비율이 68.5%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30대 50.4%, 40대 46.2%, 50대 이상 30.7%로 연령별로 젊은 층에서 여성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고연령일수록 여성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Ⅲ-18▐ 연령별·연도별 여성 채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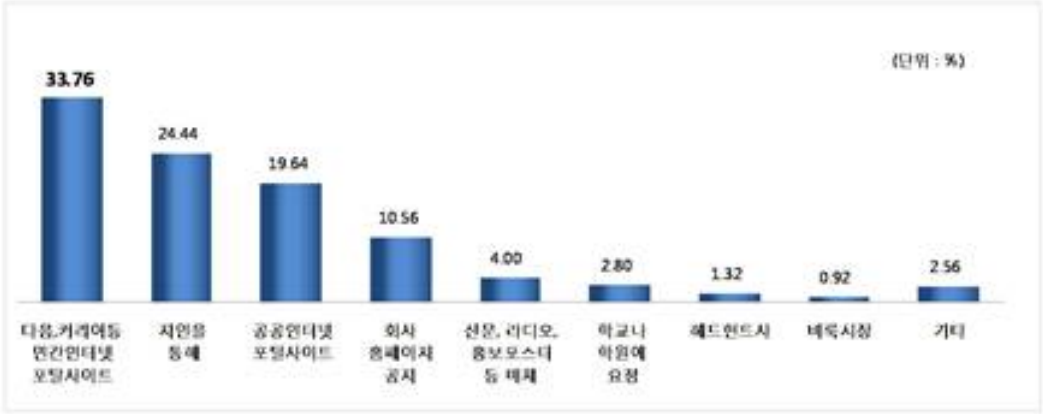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총 계		2007		2008		2009상반기	
	전체	여성비율	전체	여성비율	전체	여성비율	전체	여성비율
전 체	29,851 (100.0)	47.4	7,174	49.9	10,500	48.7	12,177	43.5
20대	10,718 (35.9)	68.5	2,666	65.1	3,708	65.2	4,344	75.1
30대	8,577 (28.7)	50.4	1,949	46.5	3,384	49.0	3,244	55.8

구 분	총 계		2007		2008		2009상반기	
	전체	여성비율	전체	여성비율	전체	여성비율	전체	여성비율
40대	5,136 (17.2)	46.2	1,252	41.5	1,778	47.5	2,106	49.5
50대이상	5,420 (18.2)	30.7	1,307	32.2	1,630	28.8	2,483	31.0

다. 신규인력 채용의 주요 방법

신규 인력 채용 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의 1순위로는 '다음, 커리어 등 민간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전체 중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인을 통해(24.4%), 서울시, 노동부 등 공공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19.6%) 등의 순이었다.



▌그림 Ⅲ-4▐ 신규인력 채용시 주로 이용하는 방법(1순위)

권역별 신규 인력채용 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도심권에서는 '지인을 통한다'가 전체 조사업체의 27.6%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커리어등 민간 포털싸이트'가 26.6%, 회사홈페이지가 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은 '다음커리어등 민간포털싸이트'를 사용한다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노동부, 서울시 등 공공인터넷 싸이트'가 26.7%, '지인을 통한다'가 2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북권은 '다음커리어 등 민간 포털싸이트'가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지인을 통한다'가 24.4%, '노동부, 서울시 등 공공싸이트'가 2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신규인력 채용방법의 특징은, 출판업은 다음커리어등 민간인터넷 포털싸이트의 비중이 42.3%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지인을 통해서'가 24.4%로 나타나고 있다.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인을 통해'(49.7%)서로 나타나고 있고 다음이 '신문, 라디오, 홍보매체 등을 통해서'가 12.5%로 나타나고 있다.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회사홈페이지 공지'가 4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노동부, 서울시 등 공공인터넷 포털싸이트를 통해서'(14.7%)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지원서비스업은 '노동부, 서울시 등 공공인터넷 포털싸이트'가 3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외에 민간포털싸이트(20.6%), 지인을 통해(20.6%), 회사홈페이지(19.6%) 등 다양한 채용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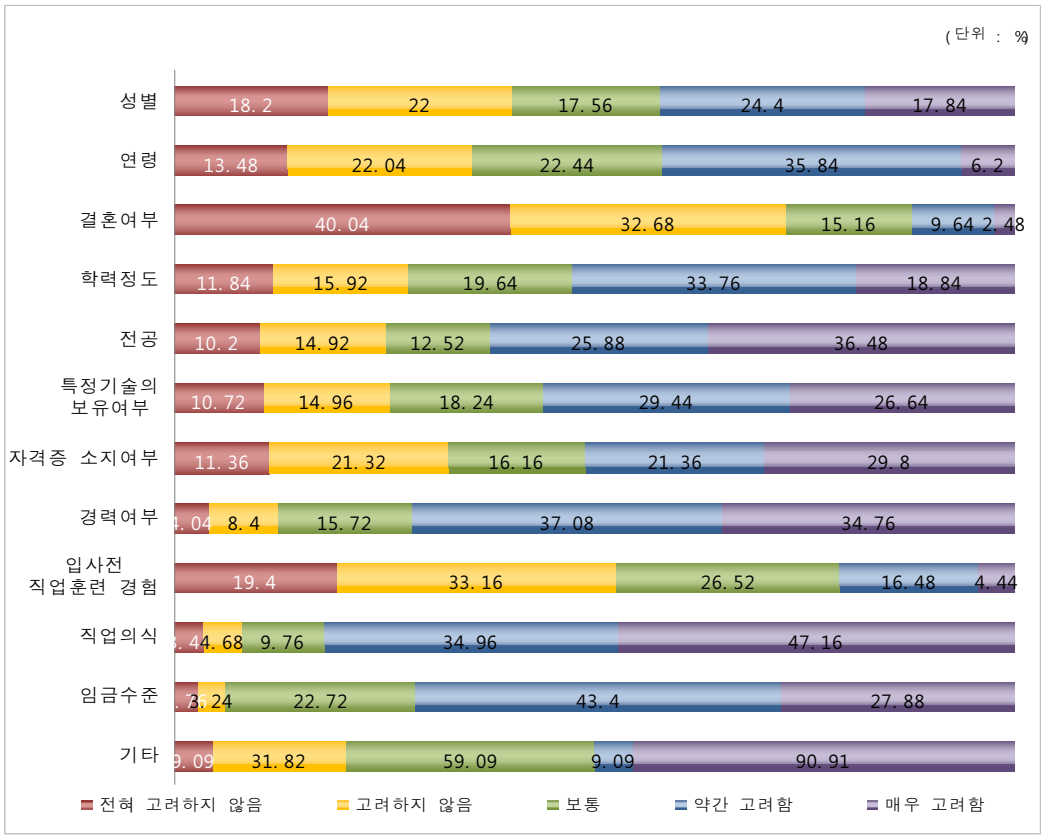
▌표 Ⅲ-19▐ 업종별 신규인력 채용시 주로 이용하는 방법

구 분		응답 업체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2500)	10.6	19.6	33.8	4	24.4	2.8	1.3	0.1	0.2	3.2
권역별	도심권	(500)	20.4	16.4	26.6	1.8	27.6	2.8	1.6	0	0	2.8
	동남권	(513)	4.9	26.7	37.2	0.8	20.7	4.3	1	0	0	4.4
	동북권	(495)	4.4	23.8	29.5	10.1	24.4	1.4	1	0.2	0.2	5.0
	서남권	(500)	14.6	20.8	38.2	3.8	15.8	3.4	1	0.2	0.6	1.6
	서북권	(492)	8.5	10.2	37.2	3.7	33.9	2	2	0	0.4	2.1
업종별	출판업	(213)	14.6	9.9	42.3	1.9	27.2	2.3	1.4	0	0	0.4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04)	0.3	4.3	26	12.5	49.7	1.3	0	0	0	5.9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48.4	14.7	20	0	9.5	4.2	0	0	0	3.2
	사업지원서비스업	(102)	19.6	31.4	20.6	2	20.6	2	3.9	0	0	0
	전문서비스업	(318)	13.2	21.4	38.1	0.6	19.2	2.2	3.1	0	0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제조업	(104)	8.7	24	47.1	1	13.5	3.8	1	0	0	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99)	6.5	14.6	46.7	0.5	21.6	3.5	1.5	0	0	5.1
	교육 서비스업	(312)	6.7	43.6	27.2	1	11.9	4.5	0.3	0	0.3	4.5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0	12.5	36.4	6.8	44.3	0	0	0	0	0
	보건업	(200)	5.5	15	53	6.5	6	4.5	2	0.5	0.5	6.5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4	66.3	10.9	4	4	3	0	0	0	7.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35	3	25	15	18	2	0	0	0	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13	11	58	0	10	4	2	0	2	0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34)	10.4	14.9	36.6	2.2	29.1	3.7	0.7	0.7	1.5	0.2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3.1	8.5	4.6	6.2	73.1	0	3.1	0	0	1.4
규모별	소기업	(2088)	8	20.4	32.6	4.4	26.9	2.8	1.1	0.1	0.2	3.5
	중기업	(303)	20.1	14.9	42.2	1.7	13.2	3	2.6	0	0.7	1.6
	대기업	(109)	33	18.3	32.1	2.8	8.3	2.8	0.9	0	0	1.8

〈보기〉
① 회사 홈페이지 공지 ② 노동부, 서울시 등 공공인터넷 포털싸이트 ③ 다음커리어 등 민간인터넷포털싸이트
④ 신문, 라이오, 홍보포스터 등 매체 ⑤ 지인을 통해 ⑥ 학교나 학원에 요청 ⑦ 헤드헌트사
⑧ 채용박람회 ⑨ 공공직업훈련 기관 ⑩ 기타

라. 신규인력 채용시 고려요인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정도, 전공, 특정기술의 보유여부 등의 항목에 대해 신규 인력 채용 시 고려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직업의식과 임금수준, 경력여부, 전공 등에 대해 고려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결혼여부, 입사 전 직업훈련 경험, 성별 등은 비교적 고려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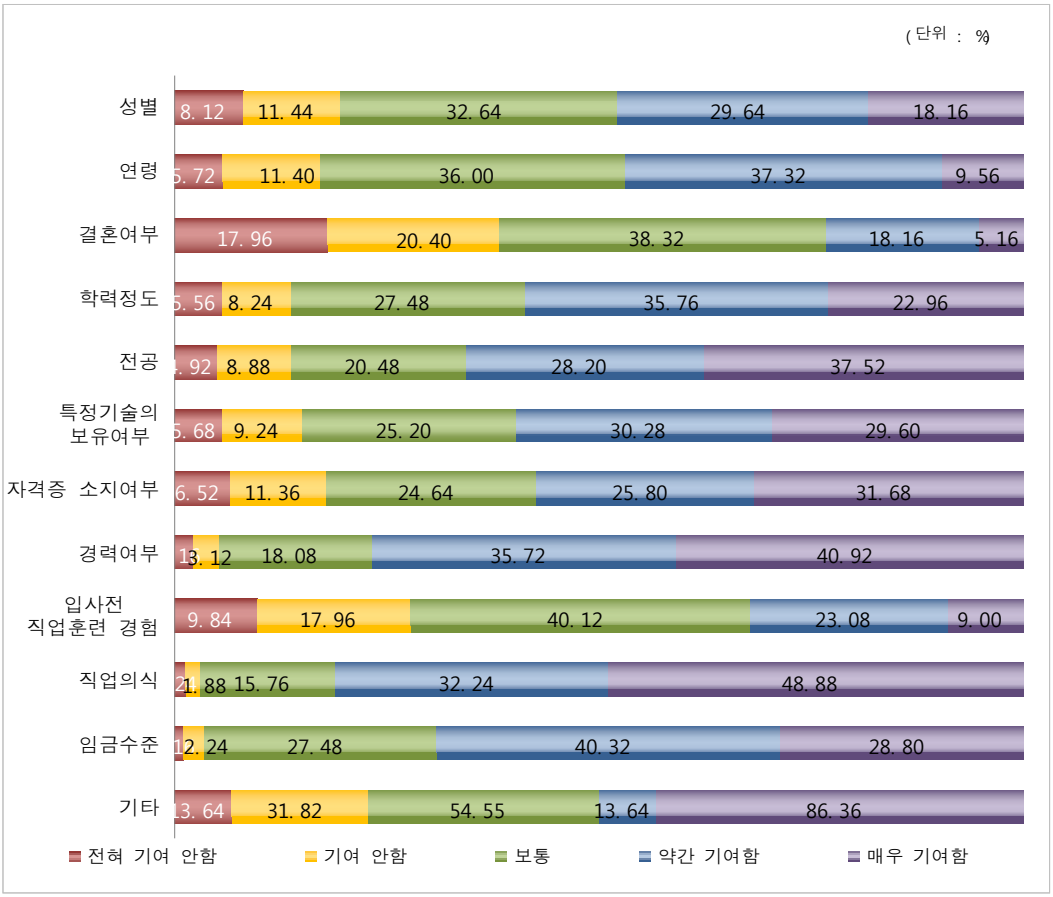


▌그림 Ⅲ-5▐ 신규인력 채용시 요인별 고려 정도

이외에 기타 고려요인으로 응답된 것으로는 성실성(성격, 성품), 영어회화, 매너, 출퇴근 거리 등이 있었다.

한편, 신규채용시 각 요인의 고려 정도와 실제 업무 생산성 기여도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규 채용시 중요한 고려 사항은 아니지만 실제 업무 생산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요인도 있었는데, 특히 직업의식이나 경력여부 등은 고려하는 비중은 낮았지만 실제 생산성에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신규채용 시 주요

한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된다. 성별은 신규 채용시 고려하지 않은 비율은 약40% 정도로 나타난 반면, 매우 고려한다는 응답비율도 42.2%로 나타났다. 실제 업무 생산성 기여도와 관련하여 '기여하지 않음'(전혀+기여않음)이 19.6%로 20%가 채 안돼고 있다. 입사전 직업훈련 경험과 관련하여 신규채용시 고려 하지 않는다는 사업체 비율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실제 기여한다는 응답은 32.1%로 어느 실제 생산성에 기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업의식과 관련하여 신규채용시 고려하는 수준은 낮지만, 생산성에 기여한다는 응답비율은 80% 이상 나타나고 있어 신규채용시 주요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6▐ 신규인력 채용시 요인별 기여 정도

▌표 Ⅲ-20▐ 신규인력 채용시 각 항목 고려정도 및 실제 업무 생산성 기여도

단위: 개, %

구 분	사업체수	신규채용시 고려정도			실제업무 생산성 기여도		
		고려하지 않음	보통	고려함	기여하지 않음	보통	기여함
1) 성별	2,500	40.2	17.6	42.2	19.6	32.6	47.8
2) 연령	2,500	35.5	22.4	42	17.1	36	46.9
3) 결혼여부	2,500	72.7	15.2	12.1	38.4	38.3	23.3
4) 학력정도	2,500	27.8	19.6	52.6	13.8	27.5	58.7
5) 전공	2,500	25.1	12.5	62.4	13.8	20.5	65.7
6) 특정기술 보유여부	2,500	25.7	18.2	56.1	14.9	25.2	59.9
7) 자격증소지여부	2,500	32.7	16.2	51.2	17.9	24.6	57.5
8) 경력여부	2,500	12.4	15.7	71.8	5.3	18.1	76.6
9) 입사전 직업훈련경험	2,500	52.6	26.5	20.9	27.8	40.1	32.1
10) 직업의식	2,500	8.1	9.8	82.1	3.1	15.8	81.1
11) 임금수준	2,500	6	22.7	71.3	3.4	27.5	69.1

한편, 각 고려요인에 대해 업종별로 신규채용시 고려정도와 실제 업무의 생산성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1) 성별

신규채용시 성별요인에 대한 고려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종으로 응답업체의 70%이상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보건업(58%), 사업지원서비스업(49%)로 응답업체의 절반이상이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여성친화적 업종으로 분류되어온 업종의 성별 고려 정도가 높게 나타나 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업종의 성별요인은 실제 업무 생산성에 기여하는 정도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응답업체의 61.8%가, 교육서비스업은 74.7%, 사회복지서비스업은 80.2%가 성별요인이 생산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성별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영상·오디오 제작 및 배급업 61.9%, 출판업 53.5%,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50.3%,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5.3%, 전문서비스업 47.2%,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5.8%, 섬유제품 제조업 43.2%, 등으로 응답업체의 40%이상은 성별요인이 주요 고려요인이 아니라고 나타나고 있다.

▌표 Ⅲ-21▌ 성별 요인의 고려정도와 실제 생산성에의 기여도

단위: 개, %

구 분	사업체수	신규채용시 고려정도			실제업무 생산성 기여도		
		고려하지 않음	보통	고려함	기여하지 않음	보통	기여함
전 체	2500 (100.0)	18.2	22.0	17.6	19.6	32.6	47.8
출판업	213	53.5	23	23.5	28.2	35.7	36.2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04	50.3	10.2	39.5	16.4	40.5	43.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45.3	25.3	29.5	36.8	24.2	38.9
사업지원서비스업	102	37.3	13.7	49	7.8	30.4	61.8
전문서비스업	318	47.2	15.7	37.1	33.6	23	43.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제조업	104	49	24	26.9	26	50	2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99	55.8	16.1	28.1	29.6	38.2	32.2
교육 서비스업	312	12.5	15.1	72.4	5.4	19.9	74.7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43.2	21.6	35.2	44.3	26.1	29.5
보건업	200	18	24	58	2.5	30.5	67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5.9	6.9	87.1	2	17.8	80.2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38	17	45	5	38	5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54	24	22	17	50	33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34	61.9	16.4	21.6	32.8	44	23.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39.2	23.1	37.7	10.8	39.2	50

2) 연령

연령이 신규채용의 주요요인으로 고려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사회복지서비스업 72.3%, 교육서비스업 59%,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53%, 사업지원서비스업 52.9%, 보건업 49%,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9%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7.2%,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6.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5.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단순 숙련기술을 요하는 업종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연령이 업무 생산성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응답한 업종은 사업지원서비스업 약 70%,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으로 응답업체의 60%이상이 기여한다고 응답하였고,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도 응답업체의 56%가 기여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연령이 높은 것이 생산성에 기여하는지 혹은 그

반대인지의 방향성을 알 수 없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교육서비스업 등 전통적으로 여성친화업종으로 알려진 업종에 있어서 연령을 고려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이와 같은 연령이 생산성에 기여한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설문과 분석이 요청된다 하겠다.

▌표 Ⅲ-22▐ 연령 요인의 고려정도와 실제 생산성에의 기여도

단위: 개, %

구 분	사업체수	신규채용시 고려정도			실제업무 생산성 기여도		
		고려하지 않음	보통	고려함	기여하지 않음	보통	기여함
전 체	2500 (100.0)	40.2	17.6	42.2	17.1	36.0	46.9
출판업	213	39.9	24.9	35.2	22.1	34.7	43.2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04	57.2	12.5	30.3	20.4	36.2	43.4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38.9	20	41.1	31.6	25.3	43.2
사업지원서비스업	102	17.6	29.4	52.9	3.9	26.5	69.6
전문서비스업	318	44	18.9	37.1	25.5	30.5	4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제조업	104	40.4	32.7	26.9	26	47.1	26.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99	36.7	20.6	42.7	21.1	41.2	37.7
교육 서비스업	312	16	25	59	2.9	34.6	62.5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50	25	25	44.3	33	22.7
보건업	200	20.5	30.5	49	3	40	57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6.9	20.8	72.3	3	34.7	62.4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30	17	53	5	39	5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26	25	49	11	40	4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34	45.5	15.7	38.8	36.6	32.1	31.3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46.2	31.5	22.3	10	48.5	41.5

3) 학력정도

학력정도에 대한 고려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과 같이 단순 숙련 업종에서 고려하지 않음(전혀고려 않음+고려않음)이 각 71%, 66%로 나타난 반면 교육 서비스업 8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5%, 보건업 64.5%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종의 학력정도에 대해 고려한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업종에서는 학력 정도가 실제 업무 생산성에의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려요소와 생산성이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23▐ 학력 요인의 고려정도와 실제 생산성에의 기여도

단위: 개, %

구 분	사업체수	신규채용시 고려정도			실제업무 생산성 기여도		
		고려하지 않음	보통	고려함	기여하지 않음	보통	기여함
전 체	2500 (100.0)	27.8	19.6	52.6	13.8	27.5	58.7
출판업	213	26.8	23	50.2	11.7	29.6	58.7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04	71.1	10.5	18.4	32.9	29.3	37.8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42.1	16.8	41.1	30.5	24.2	45.3
사업지원서비스업	102	16.7	23.5	59.8	2.9	21.6	75.5
전문서비스업	318	19.5	21.1	59.4	8.8	23.3	67.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제조업	104	32.7	23.1	44.2	22.1	38.5	39.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99	9.5	13.6	76.9	2	13.1	84.9
교육 서비스업	312	2.6	13.5	84	0.6	22.8	76.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65.9	27.3	6.8	67	21.6	11.4
보건업	200	10.5	25	64.5	2	29	69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6.9	32.7	60.4	1	27.7	71.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17	18	65	5	25	7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8	26	66	2	30	6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34	44	17.2	38.8	32.1	29.9	38.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54.6	27.7	17.7	13.1	60.8	26.2

4) 전공

전공요인에 대한 고려 정도를 분석한 결과, 고려한다(매우고려함+고려함)의 응답비율이 높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90.4%, 사회복지서비스업 88.1%, 보건업 87%,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86.4% 등으로 조사업체의 80%이상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은 비교적 전문성 수준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성친화적 업종외에도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전공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전문서비스업 71.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4% 등도 비교적 전공요인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4%, 섬유제품 제조업 14.8%로 전공을 고려한다는 응답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주로 단순 숙련직종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전공요인에 대한 고려 정도가 실제 업무 생산성에의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려요소와 생산성이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24▐ 전공 요인의 고려정도와 실제 생산성에의 기여도

단위: 개, %

구 분	사업체수	신규채용시 고려정도			실제업무 생산성 기여도		
		고려하지 않음	보통	고려함	기여하지 않음	보통	기여함
전 체	2500 (100.0)	25.1	12.5	62.4	13.8	20.5	65.7
출판업	213	21.6	16.9	61.5	10.3	21.1	68.5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04	52	11.2	36.8	25.3	31.9	42.8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35.8	8.4	55.8	29.5	6.3	64.2
사업지원서비스업	102	40.2	18.6	41.2	20.6	31.4	48
전문서비스업	318	15.4	13.2	71.4	6.3	18.6	75.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제조업	104	22.1	15.4	62.5	14.4	24	6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99	8	5.5	86.4	4	8	87.9
교육 서비스업	312	3.2	6.4	90.4	1.9	9.6	88.5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69.3	15.9	14.8	73.9	14.8	11.4
보건업	200	6.5	6.5	87	1	10.5	88.5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1	10.9	88.1	0	9.9	90.1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30	26	44	9	34	5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9	17	74	1	21	7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34	30.6	14.2	55.2	21.6	26.9	51.5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73.8	20.8	5.4	32.3	51.5	16.2

5) 특정기술의 보유여부

특정기술의 보유여부를 채용시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는 가를 분석한 결과는 보건업 8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응답업체의 72.4%가 고려하고 있음(전혀고려 않음+고려않음)으로 응답하여 특정기술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고, 그 외에도 사회복지 서비스업 69.3%,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 68%,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64.8%도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기술의 보유여부에 대한 고려정도는 낮지만 실제 업무 생산성에의 기여도가 높은 업종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업 90.1%, 보건업 88.5%, 교육서비스업 88.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87.9%로 나타나고 있어 특정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향후 신규 채용시 주요 고려요인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25▐ 특정기술 보유여부에 대한 고려정도와 실제 생산성에의 기여도

단위: 개, %

구 분	사업체수	신규채용시 고려정도			실제업무 생산성 기여도		
		고려하지 않음	보통	고려함	기여하지 않음	보통	기여함
전 체	2500 (100.0)	25.7	18.2	56.1	14.9	25.2	59.9
출판업	213	26.3	22.5	51.2	10.3	21.1	68.5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04	25	10.2	64.8	25.3	31.9	42.8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35.8	10.5	53.7	29.5	6.3	64.2
사업지원서비스업	102	33.3	26.5	40.2	20.6	31.4	48
전문서비스업	318	25.2	17.9	56.9	6.3	18.6	75.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제조업	104	22.1	21.2	56.7	14.4	24	6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99	15.6	12.1	72.4	4	8	87.9
교육 서비스업	312	26.6	20.8	52.6	1.9	9.6	88.5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61.4	17	21.6	73.9	14.8	11.4
보건업	200	4	12	84	1	10.5	88.5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3	27.7	69.3	0	9.9	90.1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35	34	31	9	34	5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13	19	68	1	21	7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34	32.1	17.2	50.7	21.6	26.9	51.5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53.1	22.3	24.6	32.3	51.5	16.2

6) 자격증소지 여부

자격증소지 여부에 대한 고려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보건업이 각 94.1%, 91.5%로 이들 업종은 자격증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업종에서는 자격증 소지가 실제 업무 생산성에의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려요소와 생산성이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26▐ 자격증 소지여부 요인의 고려정도와 실제 생산성에의 기여도

단위: 개, %

구 분	사업체수	신규채용시 고려정도			실제업무 생산성 기여도		
		고려하지 않음	보통	고려함	기여하지 않음	보통	기여함
전 체	2500 (100.0)	32.7	16.2	51.2	17.9	24.6	57.5
출판업	213	51.6	24.4	23.9	26.3	42.3	31.5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04	74.7	10.9	14.5	31.3	32.2	36.5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34.7	10.5	54.7	25.3	13.7	61.1
사업지원서비스업	102	36.3	20.6	43.1	14.7	38.2	47.1
전문서비스업	318	27.4	18.6	54.1	16.4	22.6	6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제조업	104	37.5	17.3	45.2	23.1	41.3	35.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99	14.1	16.6	69.3	8	14.1	77.9
교육 서비스업	312	9.9	8.7	81.4	8.3	13.1	78.5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75	15.9	9.1	75	11.4	13.6
보건업	200	1.5	7	91.5	0.5	9	90.5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0	5.9	94.1	1	11.9	87.1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31	31	38	10	35	5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21	30	49	3	44	53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34	62.7	22.4	14.9	39.6	32.8	27.6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15.4	20	64.6	3.8	22.3	73.8

7) 직업의식

신규채용시 직업의식에 대한 고려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전체 사업체의 82.1%가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중요한 인력채용 요소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직업의식 여부가 실제 업무 생산성에도 기여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81.1%를 차지해 직업의식 여부가 신규 인력 채용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7▐ 직업의식 고려정도와 실제 생산성에의 기여도

단위: 개, %

구 분	사업체수	신규채용시 고려정도			실제업무 생산성 기여도		
		고려하지 않음	보통	고려함	기여하지 않음	보통	기여함
전 체	2500 (100.0)	8.1	9.8	82.1	3.1	15.8	81.1
출판업	213	2.3	9.4	88.3	1.4	16.4	82.2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04	32.2	11.5	56.3	12.2	30.6	57.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7.4	9.5	83.2	5.3	7.4	87.4
사업지원서비스업	102	0	2.9	97.1	0	2	98
전문서비스업	318	0.9	4.7	94.3	0	8.2	91.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제조업	104	13.5	26	60.6	11.5	36.5	51.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99	0.5	0.5	99	0	4	96
교육 서비스업	312	1.3	4.8	93.9	0	7.4	92.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3.4	14.8	81.8	1.1	10.2	88.6
보건업	200	2	10.5	87.5	0.5	14	85.5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1	5	94.1	0	7.9	92.1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3	10	87	0	15	8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6	22	72	2	23	75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34	8.2	20.9	70.9	4.5	26.9	68.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33.1	15.4	51.5	8.5	33.1	58.5

마. 신규인력 채용시 애로사항

'귀사는 신규인력 채용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대해 '인성을 알 수 없음'이 3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직종 전문 인력발굴의 어려움' 29.68%, '장기근무 할 인력 부족' 26.08%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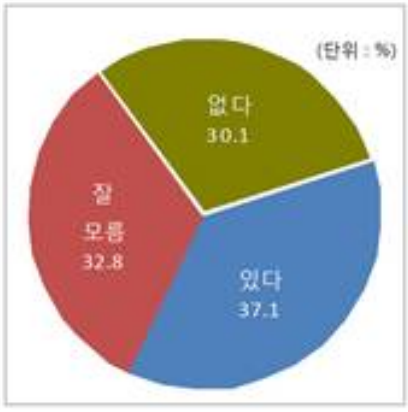
▌그림 Ⅲ-7▐ 신규인력 채용시 애로사항

3. 권역별·업종별 향후 사업체 인력수급 계획

가. 향후 3년간(2009. 6~2011) 신규인력 채용 계획

1) 전체 신규인력 채용계획

'귀사는 향후 3년 이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37.1%(928개 사업체)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잘 모르겠다'가 32.8%(819개 사업체), '채용계획이 없다'가 30.1%(753개 사업체)로 나타나 향후 경기 상황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림 Ⅲ-8▐ 향후 3년 신규인력 채용 계획

2) 권역별·업종별 신규인력 채용계획

권역별 업종별 신규인력 채용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권에서는 출판업과 전문서비스업이 향후 3년간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이 각 4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채용계획) '있다'가 각 21%, 25.5%이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각 59%, 30.4%로 인력채용이 불투명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남권은 전문서비스업이 상대적

으로 높게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55.8%), 다음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등 통신장비 제조업 43.7%로 나타났다. 동북권의 경우 교육서비스업 40.9%, 사회복지서비스업 39.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업종에서 40%내외로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서남권은 교육서비스업 응답업체의 43.9%가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북권은 전문서비스업 44.4%,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1.6%가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28▐ 권역별·업종별 신규인력 채용 계획

단위: 개, %

구 분		전체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전 체		2500 (100.0)	928 (37.1)	819 (32.8)	753 (30.1)
도심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21	20	59
	출판업	100	42	26	32
	전문서비스업	95	42.1	40	17.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2	25.5	44.1	30.4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3	30.1	28.2	41.7
	소 계	500 (100.0)	160 (32.0)	182 (36.4)	158 (31.6)
동남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4	22.1	51.9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3	43.7	22.3	34
	전문서비스업	104	55.8	12.5	31.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99	25.3	24.2	50.5
	교육 서비스업	103	31.1	57.3	11.7
	소 계	513 (100.0)	183 (35.7)	157 (30.6)	173 (33.7)
동북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00	42	43	1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7	38.3	29	32.7
	교육 서비스업	88	40.9	29.5	29.5
	보건업	99	33.3	29.3	37.4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39.6	41.6	18.8
	소 계	495 (100.0)	192 (38.8)	132 (26.7)	171 (34.5)
서남권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00	44	8	4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2	28.4	62.7	8.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36	53	1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0	73	13	14
	교육 서비스업	98	43.9	25.5	30.6
	소 계	500 (100.0)	225 (45.0)	112 (22.4)	163 (32.6)

구 분		전체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서북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13	41.6	39.8	18.6
	출판업	112	35.7	33	31.3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01	36.6	24.8	38.6
	전문서비스업	36	44.4	25	30.6
	보건업	130	21.5	29.2	49.2
	소 계	492 (100.0)	168 (31.9)	170 (34.6)	154 (31.3)

나. 권역별·업종별 향후 신규채용 규모

채용계획이 있는 928개 업체의 총 채용규모는 5,830명으로 2009년 하반기 2,157명으로 37%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2,116명으로 36.3%, 2011년 1,557명으로 26.7%로 점차 채용계획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하반기나 2010년 계획에 비해 2011년의 계획에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포함하고 있어 예측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권역별로 도심권의 경우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향후 2~3년간 채용계획 규모가 1,393명으로 도심권 전체 채용계획 인원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채용계획에서 '있다'는 응답비율은 비교적 낮은데 채용규모면에서는 채용인원이 많아 업체당 채용인원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남권의 경우는 전문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동남권 전체 채용계획 인원의 각 43%, 24.8%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높은 채용계획 비율을 나타냈다. 동북권은 전체 채용 계획인원 1,260명의 74.6%인 940명의 채용예정 업종이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남권의 경우,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313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67명)의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채용예정 인원을 나타내고 있다. 서북권의 경우 보건업에서 채용예정인원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보건업의 채용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9▐ 권역·업종별 신규인력 채용계획인원 수

권역/업종		응답 업체수	총채용규모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전 체		928 (100.0)	5,830 (100.0)	2,157 (37.0)	2,116 (36.3)	1,557 (26.7)
도심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1	41	27	11	3
	출판업	42	166	100	39	27

권역/업종		응답 업체수	총채용규모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전문서비스업	40	325	112	184	29
	사업지원 서비스업	26	1,393	335	558	50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1	122	73	48	1
	소 계	160 (100.0)	2,047 (35.1)	647 (31.6)	840 (41.0)	560 (27.4)
동남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47	47	0	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5	20	15	4	1
	전문서비스업	58	203	84	60	5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5	84	37	30	17
	교육 서비스업	32	117	34	51	32
	소 계	183 (100.0)	471 (8.1)	217 (46.1)	145 (30.8)	109 (23.1)
동북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42	94	76	11	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1	940	237	356	347
	교육 서비스업	36	68	49	16	3
	보건업	33	74	61	10	3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84	27	41	16
	소 계	192 (100.0)	1,260 (21.6)	450 (35.7)	434 (34.4)	376 (29.9)
서남권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4	35	26	7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9	267	68	106	9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6	65	43	16	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313	120	140	53
	교육 서비스업	43	129	59	39	31
	소 계	225 (100.0)	809 (13.9)	316 (39.1)	308 (38.1)	185 (22.8)
서북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7	129	63	52	14
	출판업	40	36	26	8	2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7	33	19	10	4
	전문서비스업	16	45	25	12	8
	보건업	28	1,000	394	307	299
	소 계	168 (100.0)	1,243 (21.3)	527 (42.4)	389 (31.3)	327 (26.3)

업종을 다시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채용인원이 많은 직종은 안내 및 고객관련 서비스직으로 전체 채용인원의 1/5을 넘는 약21%(1,215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학원강사로 채용예정인원의 17.1%(990명), 자동차 운전 관련직

15.9%(924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종은 직업 교육훈련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일정한 정도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취업이 가능한 직종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5.8%(335명),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5.3%(310명), 직물, 모피, 가죽,의복 가공 관련직 4.4%(256명),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2.7%(157명),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 2.5%(144명),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1.9%(1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력채용 계획이 전체 사업체의 1/3 수준이며, 또한 향후 채용인력 규모의 불확실성을 감안한다면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표 Ⅲ-30▐ 직종별 채용예상 인력 현황

〈단위: 개, 명〉

해당직종	응답 사업체수	채용예상 인원	평균 인원
전 체	**1045**	**5801**	**7.56**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1	0	0
건설 · 생산 · 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1	1	1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관련 관리직	1	0	0
경영 · 회계 관련 전문직	10	6	2
경영 · 회계 관련 사무직	50	144	4.11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직	71	87	1.93
안내 및 고객관련 서비스직	10	1215	135
비서 및 사무보조원	15	21	2.1
금융 · 보험 관련 전문직	3	11	5.5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11	12	2
보험 관련 영업직	17	37	9.25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2	3	3
자연 ·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2	4	4
인문 · 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4	4	2
학교교사	19	35	2.19
학원강사	42	990	24.75
보조교사/학원보조강사	2	2	1
법률 전문직	1	0	0
법률 관련 사무직	1	0	0
간호사	36	38	2.38
치료사	3	3	1.5

해당직종	응답 사업체수	채용예상 인원	평균 인원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7	29	2.42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4	28	2
사회복지 전문직	3	3	1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76	157	2.28
작가 및 출판 관련직	53	93	2.07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	7	22	3.14
기자	16	45	3
창작 및 공연 관련직	7	24	3.43
디자인 관련직	56	89	2.62
영화 ·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26	56	4.67
영화 ·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21	46	3.07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 · 예술 관련직	3	2	1
자동차운전 관련직	17	924	61.6
운송관련 단순직	14	43	4.3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3	335	6.32
판매원	13	141	15.0
경비 관련직	4	34	11.33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10	106	13.2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2	7	3.5
이 · 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3	14	4.67
여행 · 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4	3	1.5
스포츠 · 레크리에이션 관련직	12	36	3
주방장 및 조리사	3	4	3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엔지니어)	48	113	3.65
건축완성 관련직	2	3	1.5
건설기계운전원	1	15	15
기계공학기술자[엔지니어]	2	0	0
기계장비설치 및 정비원	3	3	3
금형.공구제조및 공작기계 조작원	1	1	1
로봇제작 및 전기전자장비 관련 조작원	1	10	10
판금관련직	2	5	2.5
화학공학 기술자[엔지니어]	1	3	3

해당직종	응답 사업체수	채용예상 인원	평균 인원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2	5	5
섬유제조/가공 관련 조작원	4	5	3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78	256	4.27
전기· 전자공학기술자 [엔지니어]	11	54	9
전공	2	1	1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2	1	1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제조장치 조작원	5	10	3.33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조립 검사원	2	1	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10	32	4.57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98	310	4.31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3	11	3.67
환경공학기술자	2	1	1
비파괴·안전공학 관련직	1	0	0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상하수, 소각]	2	9	4.5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	4	4
가구·간판제작·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1	2	2
생산 관련 단순직	11	26	2.6
농업,원예,축산및 임업관리직	2	66	33

또한 업종별로 어떠한 채용직종이 포함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채용직종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였다.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직종으로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직,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판매원, 자동차 운전 관련직, 경비,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등을 제외하고 업종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직종을 권역별·업종별로 묶어서 살펴봄으로써 권역의 특성화 직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업은 도심권과 서북권의 조사업종으로 선정되었는데 여기에 포함된 직종으로 작가 및 출판 관련직,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 관리자, 기자, 디자인 관련직 등의 직종이 포함된다.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는 창작 및 공연 관련직, 영화나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직 등이 포함되고 있다. 동남권의 조사업종으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는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등 포함직종은 전공이나 학력, 사전 직업훈련 경험 등 전문성을 필

요로 하는 직종으로 보인다. 동북권의 조사업종으로 의복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에는 디자인 관련직,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이나 섬유가공 관련 조작업을 포함하고 있다. 서남권의 조사업종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포함된 직종은 컴퓨터 및 통신공학 기술직,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남권과 서북권의 조사업종으로 영상, 오디오제작 및 배급업에는 작가 및 출판 관련직, 창작 및 공연 관련직, 연극·영화 및 방송 관련직, 연예인 매니저 관련직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영상기술의 발달과 함께 대중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Ⅲ-31▐ 권역별·업종별 채용 예정 직종

단위: 개, %

구 분		채용직종
도심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직물, 모피, 가죽, 의복가공 관련직
	출판업	-작가 및 출판 관련직,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 관리, 기자, 디자인 관련직
	전문서비스업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사업지원 서비스업	-안내 및 고객관련 서비스직 -여행·운송 및 숙박관련 서비스직 -화학공학 기술자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가구·간판제작 공예원 등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및 공연 관련직 -여행·운송 및 숙박관련 서비스직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직,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등
동남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직물, 모피, 가죽, 의복가공 관련직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건설기계 운전원 -기계장비설치 및 정비원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 조작원 등
	전문서비스업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 등
	교육 서비스업	-학교교사, 학원강사,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구 분		채용직종
동북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디자인 관련직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등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직물, 모피, 가죽, 의복가공 관련직
	교육 서비스업	-학교교사, 학원강사,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보건업	-간호사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등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회복지 전문직
서남권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작가 및 출판 관련직 -창작 및 공연 관련직 -디자인 관련직 -연극·영화 및 방송관련 전문직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등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업원 및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금융·보험관련 사무직 및 영업직 등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 등
	교육 서비스업	-학교교사, 학원강사,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서북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자동차 운전 관련직 -운송 관련 단순직
	출판업	-작가 및 출판 관련직,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 관리, 기자, 디자인 관련직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작가 및 출판 관련직 -창작 및 공연 관련직 -디자인 관련직 -연극·영화 및 방송관련 전문직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등
	전문서비스업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보건업	-간호사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등

주: 업종별 채용직종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기준 훈련분류(예시)에 따른 것임

다. 신규인력 채용의 선호 요소

채용예정 인력의 자격조건으로 다양한 인적 특성요소에 대한 선호요인 여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로는 전체 응답업체 1,045개 중 여성 선호가 30.5%, 남성 선호가 14.9%로 여성을 선호한다는 응답비율이 남성에 비해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사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이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등 전통적으로 여성친화업종이 다수 포함된 이유로 판단된다. 학력별로는 전체 응답업체 수 1,045개 중 대졸이상 65.5%, 고졸 24.9%, 학력무관 23.5%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학력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응답자의 56.8%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다음이 30대로 48.4%로 나타나 2, 30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으며, 연령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2.6%에 불과하다. 혼인상태별로 무관하다는 응답이 84.3%로 혼인 여부는 큰 인력채용 변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자격증 보유여부와 관련하여 필요 25.3%, 우대 29.9%, 불필요 44.9%로 나타나고 있어 경력사원보다는 신입사원 채용 계획임을 알 수 있다.

▌표 Ⅲ-32▐ 채용인력의 특성별 선호요인

구 분		응답 수	비율	비고(해당 직종_5순위 이내)
성별	여성	319	30.5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직, 간호사, 직물,모피,가죽,의복가공 관련직, 학원강사 및 교사 등
	남성	156	14.9	건축가, 도시계획,토목 및 측량 관련기술자, 자동차운전·운송 관련직 등
	성별무관	570	54.5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작가 및 출판관련직, 디자인 관련직 등
	소 계	1,045	100.0	
학력	대졸이상	684	65.5	컴퓨터및 정보시스템관련직,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직, 디자인관련직,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 등
	고졸	260	24.9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직,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경영· 회계 관련 사무직 등
	중졸	8	0.8	직물,모피,가죽, 의복가공 관련직,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직, 운송관련 단순직 등
	학력무관	246	23.5	직물·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자동차운전관련직,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등
	소 계	1,198	114.7	
연령대	20대	594	56.8	컴퓨터및정보시스템관련직,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회계및 경리관련사무직,건축가·도시계획·토목 및 측량관련 기술

구 분		응답 수	비율	비고(해당 직종_5순위 이내)
	30대	506	48.4	컴퓨터및정보시스템 관련직,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직,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작가 및 출판 관련직 등
	40대	119	11.4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직물,모피,가죽,의복 가공관련직, 간호사, 작가 및 출판 관련직 등
	50대 이상	21	2.0	직물·모피· 가죽·의복 가공 관련직,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건축가·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등
	연령무관	236	22.6	직물·모피·가죽·의복 가공 관련직, 디자인관련직, 컴퓨터및정보시스템 관련직 등
	소 계	1,476	141.2	
자격증	필요	264	25.3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간호사, 건축가·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학교교사,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있으면 우대	312	29.9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직, 건축가·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경영· 회계 관련 사무직 등
	불필요	469	44.9	
	소 계	1,045	100.0	
혼인 상태	미혼	140	13.4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직, 학원강사, 학교교사, 디자인 관련직 등
	기혼	24	2.3	학원강사,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직,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간호사 등
	혼인무관	881	84.3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직물·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작가 및 출판 관련직 등
	소 계	1,045	100.0	

*중복응답 허용

라. 향후 채용예정 인원의 교육훈련 수요분석

1) 향후 채용예정 인원의 교육훈련 수요

향후 3년 이내 채용 계획이 있는 1,042개 업체에 대해 채용전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6%(163개)에 불과한데 비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4.3%(882개)로 나타났다. 교육훈련이 필요한 전체 인원은 679명이며, 채용 직종당 교육훈련이 필요한 평균 인력은 5.1명으로 분석되었다. 교육훈련의 수준은 초급이 응답 업체의 33.7%(55개), 중급이 46%(75개), 고급 20.2%(33개)로 나타났으나, 교육훈련기간 평균을 분석해 보면 평균 교육훈련 필요기간이 3.7개월로 초급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33▐ 채용 전 교육훈련 필요인원 및 훈련수준

구 분	전체	필요		불필요
교육훈련 수요	1,042개 (100.0%)	163개 (15.6%)		879개 (84.4%)
구 분	응답업체 수	전체 인원		직종별 평균 훈련인원
필요인원	163개	679명		5.1명
구 분	응답업체 수	초급	중급	고급
교육훈련 수준	163개	33.7%	46.1%	20.2%

2) 직종별 채용 전 필요인원 및 평균 교육훈련 기간

전체 163개 사업체의 평균 교육훈련 필요인원은 5.1명이며, 평균 교육훈련기간은 3.7개월로 분석되었다.

직종별 교육훈련기간 및 필요인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장 평균 교육훈련 기간이 긴 직종은 전공 직종으로 평균 교육훈련기간이 9개월로 나타났고, 평균 필요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 다음이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직으로 평균 교육훈련기간은 8.7개월이며, 3개 사업체의 평균 필요인원은 4.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료사와 환경장치 조작원은 각 평균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로 조사되어 어느 정도 훈련기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34▐ 채용 전 교육훈련 수요

채용전 교육훈련(업종별)	사례수	필요 인원 (평균:명)	교육 훈련 기간 (평균: 개월)	채용전 교육훈련(업종별)	사례수	필요인원 (평균:명)	교육 훈련 기간 (평균: 개월)
전 체	(163)	5.11	3.71	전 체	(163)	5.11	3.71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	(6)	1.25	2.75	자동차운전 관련직	(3)	60.00	1.00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직	(14)	1.14	2.86	운송관련 단순직	(1)	1.00	3.00
안내 및 고객관련 서비스직	(2)	1.00	3.00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	1.67	3.17
보험 관련 영업직	(3)	10.00	2.00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2)	8.00	1.50
학교교사	(3)	5.50	1.67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	1.00	3.00
학원강사	(9)	18.56	2.81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1)	2.00	3.00
간호사	(7)	2.25	2.29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엔지니어)	(6)	2.33	3.83

채용전 교육훈련(업종별)	사례수	필요 인원 (평균:명)	교육 훈련 기간 (평균: 개월)	채용전 교육훈련(업종별)	사례수	필요인원 (평균:명)	교육 훈련 기간 (평균: 개월)
치료사	(1)	2.00	6.00	기계공학기술자 [엔지니어]	(1)	.	1.00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4)	1.33	4.50	기계장비설치 및 정비원	(1)	.	2.00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5)	1.40	5.40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4)	4.75	4.75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17)	2.06	3.38	전기·전자공학기술자 [엔지니어]	(2)	11.50	4.50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4)	1.62	4.71	전공	(2)	1.00	9.00
기자	(5)	4.00	5.00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	.	2.00
창작 및 공연 관련직	(2)	5.50	3.50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 [엔지니어]	(2)	2.50	1.00
디자인 관련직	(9)	1.86	5.11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20)	3.83	4.25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3)	4.33	8.67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1)	1.00	6.00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4)	2.75	2.75	생산 관련 단순직	(1)	1.00	0.25

보건의료 관련직 5.4개월, 디자인 관련직 5.1개월, 기자 5개월로 조사되었다.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의 훈련기간이 필요한 직종은 직물·모피·가죽·의복 가공 관련직 4.75개월, 작가 및 출판 관련직 4.7개월, 전기·전자공학기술자 4.5개월,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4.25개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3개월 미만의 단기 교육이 필요한 직종으로는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자동차운전 관련직,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사나 강사, 간호사 등의 직종도 3개월 미만의 단기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는 자격증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된다.

채용예정 직종의 구체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에 요구되는 교육훈련 과목으로는 OA회계, 화물검사, 전산경리회계, 생산직 사원 관리법, 기획관련, 감리가 제시되었다.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의 교육훈련 과목으로 제시된 과목은 그 외 전산 경리, 영업 및 마케팅, 대인관계 교육으로 나타났다. 안내 및 고객관련 서비스직에는 병원 코디네이터와 병원서비스 메니저 교육이, 보험 관련 영업직에는 인성

교육 및 영업 실무, 마케팅 전략이 제시되었다. 학교교사직은 직업의식 함양이, 학원강사 역시 교사의식 및 직업의식 함양, 유아교육 등의 교육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5▐ 향후 채용예정 인원의 직종별 교육훈련수요

단위 : %

업 종	사례수	향후 채용예정 인원의 직종별 교육훈련수요(중복응답)		
경영 · 회계 관련 사무직	(6)	OA회계(16.67%)	화물검사(16.67%)	전산경리회계(16.67%)
		생산직사원관리법(16.67)	기획관련(16.67%)	감리(16.67%)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직	(14)	OA회계(28.57%)	IT기본(7.14%)	회계기초(7.14%)
		친절,서비스교육(7.14%)	전산경리회계(7.14%)	영업, 마케팅전략(7.14%)
		여성교양 강좌(7.14%)	엑셀(Excel)(7.14%)	대인관계교육(7.14%)
		세무회계,전산(21.43%)		
안내 및 고객관련 서비스직	(2)	병원코디네이터(100%)	병원서비스매니저(50%)	
보험 관련 영업직	(3)	인성교육,인성함양교육(33.33%)	영업,영업실무,마케팅 전략(66.67%)	
학교교사	(2)	직업의식 함양교육(66.7%)	교생실습(33.3%)	교사의식 함양교육(33.3%)
학원강사	(9)	교사의식 함양교육(22.22%)	직업의식 함양교육(11.11%)	인성교육,인성 함양교육(11.11%)
		유아교육(11.11%)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	재교육(11.11%)
		외국어 교육(11.11%)	속독(11.11%)	교생실습(11.11%)
		독서논술교육	독서지도(11.11%)	교재교육(11.11%)
		보육교사 재교육,직무연수(11.11%)		
간호사	(7)	친절교육,서비스교육(57.14%)	간호사(업무)(57.14%)	환자상담(28.57%)
		간병인(14.29%)	간병인(14.29%)	간병인(14.29%)
치료사	(1)	재활치료(100%)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4)	환자상담(25%)	간호조무에 필요한 현장실무교육(25%)	치과치료,간호(25%)
		치위생사실무전문과정(25%)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5)	친절교육,서비스교육(40%)	인성교육,인성 함양교육(20%)	요양보호사(20%)
		간호조무에 필요한 현장실무 교육(20%)	간호조무사(40%)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인성교육,인성 함양교육(5.88%)	모름(5.88%)	보육교사(23.53%)

업 종	사례수	향후 채용예정 인원의 직종별 교육훈련수요(중복응답)		
		병원코디네이터(5.88%)	유아교육(5.88%)	교생실습(5.88%)
		보육교사재교육,직무연수(5.88%)	기본 예절 교육,직장 예절 교육(5.88%)	보육교사보조(5.88%)
		아이돌봄이,보육사(5.88%)	유아 음악 실기, 보조교사(5.88%)	현장실무 전문 교육(5.88%)
		보육교사승급교육(5.88%)	유아미술실기(5.88%)	유아 관계(5.88%)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4)	편집디자인(42.86%)	출판편집교정(14.29%)	출판디자인(7.14%)
		시각디자인(7.14%)	방송실무(7.14%)	디지털편집디자인(7.14%)
기자	(5)	취재능력(60%)	편집능력 향상전문성 교육(20%)	모름(20%)
창작 및 공연 관련직	(2)	애니메이션 제작(50%)	문화기획(50%)	

마. 근로형태의 유연화 활용현황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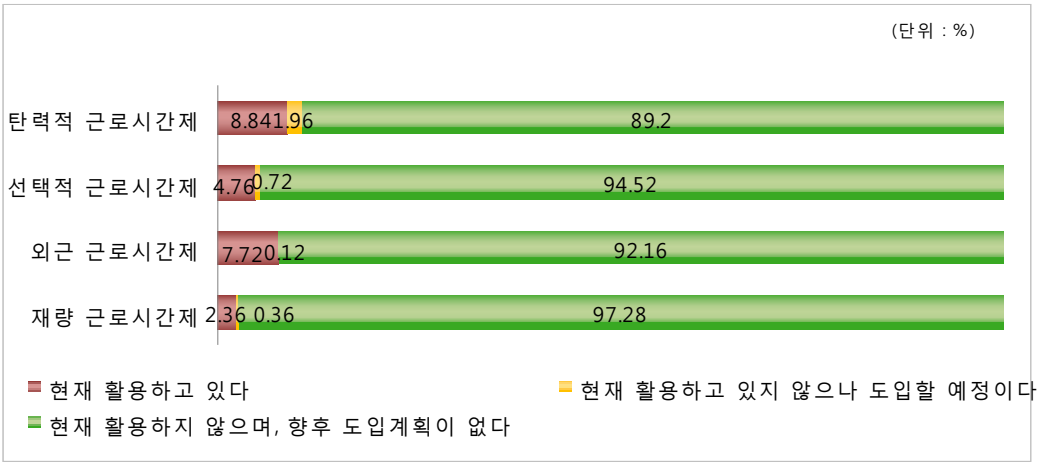
1) 근로형태의 유연화 활용 현황

사업체 근로형태의 유연화를 질문하였다. 다양한 근로형태 유연화 제도의 활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2500개 사업체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8.8%로 상대적으로 활용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외근 근로시간제 7.7%, 선택적 근로시간제 4.8%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재량 근로시간제는 불과 2.4%만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활용하지 않지만 향후 계획까지를 포함하더라도 각 형태별 제도의 활용은 10%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36▐ 다양한 근로형태 유연화 제도의 활용현황

단위: 개, %

구 분	전체	현재 활용	활용예정	계획 없음
1)탄력적 근로시간제	2,500(100.0)	8.8	2.0	89.2
2)선택적 근로시간제	2,500(100.0)	4.8	0.7	94.5
3)외근 근로시간제	2,500(100.0)	7.7	0.1	92.2
4)재량 근로시간제	2,500(100.0)	2.4	0.4	97.3



▌그림 Ⅲ-9▐ 근로형태의 유연화 활용 현황

근로형태의 유연화가 권역별, 업종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권역별로 근로형태의 유연화가 보다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는 곳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사업체를 포함하는 서남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이 응답업체의 약 22%로 나타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10.6%, 외근 근로시간제가 9.8%, 재량 근로시간제 5.6%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이 동북권으로 전체 응답업체의 약 31%, 154개 업체가 근로형태 유연화 활용(예정포함)하고 응답하고 있다. 동북권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거나 예정인 업체가 154개 응답업체의 약 20%로 나타났으나 이외에 선택적, 외근, 재량 근로시간제의 활용비율은 5%내외로 낮다(동북권의 조사업종은 섬유제품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었다). 권역별로 유연화 활용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권역은 동남권(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포함)으로 응답업체의 20%에 못 미치는 19.4%로 분석되었다.

한편, 업종별로 근로형태 유연화의 활용비율이 높은 것은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으로 조사업체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어 근로형태 유연화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 응답업체의 절반이상인 54%가 근로형태의 유연화 관련 제도를 활용하거나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여성친화적 업종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 약 43%, 교육서비스업 36.8%, 보건업 35.5%도 비교적 근로형태의 유연화 활용(또는 예정)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10%미

만으로 활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37▐ 권역별·업종별·기업규모별 근로형태 유연화 활용 현황

단위: 개, %

구 분		응답 사업체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 시간제	외근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전 체		**671 (26.8)**	**270 (10.8)**	**137 (5.5)**	**196 (7.8)**	**68 (2.8)**
도심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9	2	–	7	–
	출판업	32	10	4	12	6
	전문서비스업	8	–	1	4	3
	사업지원 서비스업	27	7	2	17	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	3	1	4	3
	소 계	87	22	8	44	13
동남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1	7	4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1	7	4	17	3
	전문서비스업	7	1	1	–	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1	–	15	–
	교육 서비스업	34	17	14	3	–
	소 계	99	33	23	35	8
동북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6	7	1	7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	2	3	–	–
	교육 서비스업	45	25	15	3	2
	보건업	46	35	6	3	2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31	7	2	3
	소 계	155	100	32	15	8
서남권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82	28	32	9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4	7	7	36	4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8	2	–	2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9	1	2	2	4
	교육 서비스업	36	21	12	–	3
	소 계	189	59	53	49	28
서북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2	–	1	11	1
	출판업	41	12	2	23	4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6	8	5	7	6

구 분		응답 사업체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 시간제	외근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전문서비스업	19	6	5	6	2
	보건업	25	18	7	–	–
	소 계	123	44	20	47	13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예정인 사업체 270개 응답업체에 대해 대상예정자의 인구학적 선호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령별로 20대 활용(활용예정)이 응답업체의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15.9%, 40대 19.6%, 연령무관 20%, 50대 이상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력별로 요구되는 대상층은 대졸이상이 61.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23.3%, 학력 무관 23.7%로 대졸 이상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성별로 여성의 선호가 47%로 남성 선호 8.5%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성별무관 44.4%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형태에 대한 수요는 '여성'이 보다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활용되거나 활용예정 대상의 임금수준은 120만원 이상이 응답업체의 2/3인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90~119만원(22.6%)로 80% 이상이 9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8▐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및 활용예정 인력의 인적 특성
(응답사업체수: 270개)

단위: 개, %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①여성	127	47.0
	②남성	23	8.5
	③성별무관	120	44.4
	소 계	270	100.0
연령	①20대	125	34.1
	②30대	122	33.2
	③40대	53	14.4
	④50대	13	3.5
	⑤연령무관	54	14.7
	소 계	367	100.0

구 분		빈도	비율
학력	①대졸이상	165	56.5
	②고졸	63	21.6
	③중졸	–	–
	④학력무관	64	21.9
	소 계	292	100.0
임금수준	①50만원미만	6	2.2
	②50~69만원	8	2.9
	③70~89만원	19	6.9
	④90~119만원	61	22.3
	⑤120만원이상	180	65.7
	소 계	274	100.0

※예정직종 항목별 중복응답 허용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예정 직종으로 조사된 직종으로는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이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원강사 10.7%, 간호사 8.52%, 작가 및 출판 관련직 8.2%, 영화·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직 6.3%,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5.9%,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5.6%,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39▐ 근로형태의 유연화 활용 예정 직종 – 탄력적 근로시간제

구 분	해당직종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례수 :270개 업체)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20.37%)	학원강사(10.74%)	간호사(8.52%)
	작가 및 출판 관련직(8.15%)	영화 ·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6.3%)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5.93%)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5.56%)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4.81%)	영화 ·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3.7%)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3.33%)	학교교사(2.59%)	주방장 및 조리사(2.59%)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2.59%)	경영 · 회계 관련 사무직(2.22%)	디자인 관련직(2.22%)
	창작 및 공연 관련직(1.85%)	자동차운전 관련직(1.48%)	치료사(1.11%)
	판매원(1.11%)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1.11%)	스포츠 · 레크리에이션 관련직(1.1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1.11%)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0.74%)	안내 및 고객관련 서비스직(0.74%)
	의사(0.74%)	사회복지 전문직(0.74%)	종교관련직(0.74%)

구 분	해당직종		
	기자(0.74%)	판매 관련 단순직(0.74%)	전공(0.74%)
	생산 관련 단순직(0.74%)	경영 · 회계 · 사무 관련직 (0.37%)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직 (0.37%)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37%)	보험 관련 영업직(0.37%)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 (0.37%)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 · 예술 관련직(0.37%)	경비 관련직(0.37%)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0.37%)
	이 · 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0.37%)	여행 · 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0.37%)	판금관련직(0.37%)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0.37%)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 [엔지니어](0.37%)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0.37%)

3)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예정인 사업체 137개 응답업체에 대해 대상예정자의 인구학적 선호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로 여성이 40.1%로 남성 선호 8.0%에 비해 약 5배 높게 나타났고, 성별무관 51.84%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로형태에 대한 수요는 '여성'이 보다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연령별로 30대 활용(활용예정)이 응답 업체의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27.7%, 40대 22.3%, 연령무관 약10%, 50대 이상 5.8%의 순으로 나타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있어서는 30대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학력별로 요구되는 대상층은 대졸이상이 54.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25.3%, 학력 무관 19.8%로 대졸 이상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활용되거나 활용예정 대상의 임금수준은 120만원 이상이 응답 업체의 약6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90~119만원(22.4%)로 80% 이상이 90만원 이상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40▐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및 활용예정 인력의 인적 특성

(응답 사업체수: 137)

단위: 개, %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①여성	55	40.1
	②남성	11	8.0
	③성별무관	71	51.8
	소 계	137	100.0

구 분		빈도	비율
연령	①20대	62	27.7
	②30대	77	34.4
	③40대	50	22.3
	④50대	13	5.8
	⑤연령무관	22	9.8
	소 계	224	100.0
학력	①대졸이상	89	54.9
	②고졸	41	25.3
	③중졸	–	–
	④학력무관	32	19.8
	소 계	162	100.0
임금수준	①50만원미만	4	2.8
	②50~69만원	5	3.5
	③70~89만원	12	8.3
	④90~119만원	38	26.4
	⑤120만원이상	85	59.0
	소 계	144	100.0

※예정직종 항목별 중복응답 허용함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및 예정 직종으로 조사된 직종으로는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이 역시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14.6%, 작가 및 출판관련직 13.9%, 학원강사 13.1%,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7.3%,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5.1%, 간호사, 창작 및 공연 관련직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1▐ 근로형태의 유연화 활용 예정 직종 - 선택적 근로시간제

구 분	해당직종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례수 : 137개 업체)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18.98%)	영화 ·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14.6%)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3.87%)
	학원강사(13.14%)	영화 ·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7.3%)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5.11%)
	간호사(4.38%)	창작 및 공연 관련직(4.38%)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직(2.92%)
	학교교사(2.19%)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2.19%)	디자인 관련직(2.19%)
	직물, 모피, 가죽, 의복가공 관련직(2.19%)	경영 · 회계 관련 사무직(1.46%)	치료사(1.46%)

구 분	해당직종		
	기자(1.46%)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1.46%)	주방장 및 조리사(1.46%)
	전공(1.46%)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 [엔지니어](1.46%)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1.46%)
	생산 관련 단순직(1.46%)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0.73%)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0.73%)
	안내 및 고객관련 서비스직 (0.73%)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0.73%)	의사(0.73%)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 · 예술 관련직(0.73%)	자동차운전 관련직(0.73%)	운송관련 단순직(0.73%)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0.73%)	판매원(0.73%)	판매 관련 단순직(0.7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0.73%)	여행 · 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0.73%)	건축완성 관련직(0.73%)

4) 외근 근로시간제

외근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예정인 사업체 196개 응답업체에 대해 대상자의 활용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로 여성은 7.7%에 불과한 반면, 남성은 45.4%로 나타나 남성이 외근 근로시간제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무관 46.9%로 외근 활용인력의 절반은 여성이 차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령별로 30대 활용(활용예정)이 응답 업체의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21.8%, 20대 21.2%, 연령무관 11.7%의 순으로 나타나 외근 근로시간제 역시 30대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대 활용 인력이 다른 형태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셋째, 학력별로 요구되는 대상층은 대졸이상이 61.2%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이 18.3%로 80%이상은 고졸 학력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외근 근로시간제에 활용되거나 활용예정 대상의 임금수준은 120만원 이상이 응답 업체의 약87.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90~119만원 6%로 90% 이상이 90만원 이상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42▐ 외근 근로시간제 활용 및 활용예정 인력의 인적 특성(응답 사업체수: 196)

단위: 개, %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①여성	15	7.7
	②남성	89	45.4
	③성별무관	92	46.9
	소 계	196	100.0

구 분		빈도	비율
연령	①20대	69	21.2
	②30대	123	37.8
	③40대	71	21.8
	④50대	24	7.4
	⑤연령무관	38	11.7
	소 계	325	100.0
학력	①대졸이상	137	61.2
	②고졸	41	18.3
	③중졸	1	0.4
	④학력무관	45	20.1
	소 계	224	100.0
임금수준	①50만원미만	1	0.5
	②50~69만원	5	2.5
	③70~89만원	7	3.5
	④90~119만원	12	6.0
	⑤120만원이상	176	87.6
	소 계	201	100.0

※ 예정직종 항목별 중복응답 허용함

외근 근로시간제의 활용 및 예정 직종으로 조사된 직종으로는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이 33.2%로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15.3%, 기자 9.2%, 건축가, 도시계획자,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7.7%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직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Ⅲ-43▐ 근로형태의 유연화 활용 예정 직종 - 외근 근로시간제

구 분	해당직종		
외근 근로시간제 (사례수 : 196개 업체)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33.16%)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15.31%)	기자(9.18%)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엔지니어)(7.65%)
	경영 · 회계 관련 사무직 (4.08%)	창작 및 공연 관련직(4.08%)	작가 및 출판 관련직(3.57%)
	영화 ·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3.57%)	운송관련 단순직(3.06%)	학원강사(2.04%)

구 분	해당직종		
외근 근로시간제 (사례수 : 196개 업체)	자동차운전 관련직(2.04%)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직 (1.53%)	보험 관련 영업직(1.53%)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1.53%)	영화 ·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1.53%)	스포츠 · 레크리에이션 관련직(1.02%)
	건축완성 관련직(1.02%)	전공(1.02%)	생산 관련 단순직(1.02%)
	경영 · 회계관련 전문직(0.51%)	안내 및 고객관련 서비스직 (0.51%)	비서 및 사무보조원(0.51%)
	자연 · 명과학 관련 시험원 (0.51%)	학교교사(0.51%)	법률 관련 사무직(0.51%)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0.51%)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0.51%)	전통건물 건축원(0.51%)
	판금관련직(0.51%)	직물,모피,가죽,의복 가공 관련직(0.51%)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0.51%)

5) 재량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예정인 사업체 68개 응답업체에 대해 대상자의 활용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로 여성은 22.1%, 남성 14.7%인 반면, 성별무관 63.2%로 재량 근로시간제에 성별 요인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별로 30대 활용(활용예정)이 응답 업체의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25%로 3, 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연령 무관 17.3%를 합하면 3, 40대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학력별로 요구되는 대상층은 대졸 이상이 55.3%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이 13.2%로 나타난 반면, 중졸이 28.9%로 다른 근로형태의 유연화 형태에 비해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력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재량 근로시간제에 활용되거나 활용예정 대상의 임금수준은 120만원 이상이 응답 업체의 약84.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Ⅲ-44▐ 재량 근로시간제 활용 및 활용예정 인력의 인적 특성(응답 사업체수: 68)

단위: 개, %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①여성	15	22.1
	②남성	10	14.7
	③성별무관	43	63.2
	소 계	68	100.0

구 분		빈도	비율
연령	①20대	17	16.3
	②30대	35	33.7
	③40대	26	25.0
	④50대	8	7.7
	⑤연령무관	18	17.3
	소 계	104	100.0
학력	①대졸이상	42	55.3
	②고졸	10	13.2
	③중졸	22	28.9
	④학력무관	2	2.6
	소 계	76	100.0
임금수준	①50만원미만	2	2.9
	②50~69만원	2	2.9
	③70~89만원	4	5.8
	④90~119만원	3	4.3
	⑤120만원이상	59	84.3
	소 계	70	100.0

※ 예정직종 항목별 중복응답 허용함

재량 근로시간제의 활용 및 예정 직종으로 조사된 직종으로는 작가 및 출판 관련직이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13.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10.3%,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5.9%,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5.9%,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5.9% 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직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Ⅲ-45▐ 근로형태의 유연화 활용 예정 직종 - 재량 근로시간제

구 분	해당직종		
재량 근로시간제 (사례수 : 68개 업체)	작가 및 출판 관련직 (20.59%)	영화 ·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13.24%)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10.29%)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5.88%)	영화 ·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5.88%)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5.88%)
	보험 관련 영업직(4.41%)	학원강사(4.41%)	기자(4.41%)
	창작 및 공연 관련직(4.41%)	디자인 관련직(4.41%)	경영 · 회계 관련 사무직(2.94%)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 [엔지니어](2.94%)	생산 관련 단순직(2.94%)	경영 · 회계 관련 전문직 (1.47%)

구 분	해당직종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직 (1.47%)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1.47%)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1.4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1.47%)	사회복지 전문직(1.47%)	자동차운전 관련직(1.47%)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1.47%)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1.47%)	주방장 및 조리사(1.47%)
	전기 · 전자공학기술자 [엔지니어](1.47%)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1.47%)	

4. 권역별·업종별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인력 활용

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인력 활용 의향

조사대상 사업체의 경력단절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서울시 인적자원의 특성 중 하나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서울시,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할 때, 귀사에서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활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사업체 2,500개 가운데 약 33%인 820개 업체는 고학력 경령단절 여성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약 2/3에 해당하는 67%는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권역별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의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서남권으로 38.6%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이 동북권 33.9%, 동남권 31.0%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활용의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권역은 서북권으로 30%에 조금 못 미치고 있다.

도심권에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인력의 활용의향이 비교적 높은 업종은 판업으로 응답업체의 절반가량인 46%가 (활용의향) ‘있다’로 나타났고, 다음이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4.7%, 전문서비스업 30.1% 순으로 나타났다. 역시 전문성 수준이 낮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고학력 여성의 활용의향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남권에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인력의 활용의향이 비교적 높은 업종은 역시 교육서비스업으로 응답업체의 절반이상인 약60%가 (활용의향) ‘있다’로 나타났고, 다음이 전문서비스업 31.1%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성 수준이 낮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에서 고학력 여성의 활용의향은 29%로 도심권(16.0%), 동북권(12.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보여진다.

동북권에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인력의 활용의향이 비교적 높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53.3%, 사회복지서비스업 40.6%, 보건업 39.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 업종은 여성친화적 업종이다.

서남권에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인력의 활용의향이 비교적 높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약 60%이며, 다음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 응답업체의 4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도 응답업체의 약 40%가 활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북권에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인력의 활용의향이 비교적 높은 업종은 출판업과 보건업으로 각각 응답업체의 41.6%가 활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으로 응답업체의 약 36%가 의향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반면,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서는 단지 9%만이 (활용의향) '있다'고 응답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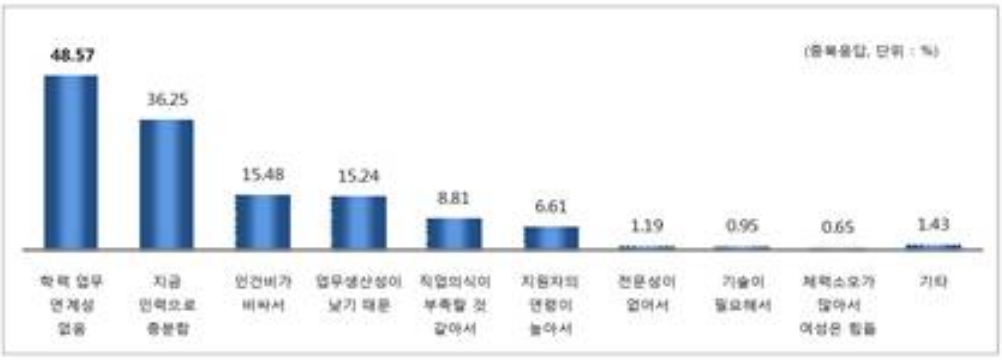
▌표 Ⅲ-46▐ 권역별·업종별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인력 활용의향

단위: 개, %

구 분		전체 응답업체수	(활용의향) 있다	(활용의향) 없다
전 체		**2500 (100.0)**	**820 (32.8)**	**1,680 (67.2)**
도심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16.0	84.0
	출판업	100	46.0	54.0
	전문서비스업	103	30.1	69.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2	26.5	73.5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34.7	65.3
	소 계	500	30.6	69.4
동남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4	28.8	7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4	16.3	83.7
	전문서비스업	103	31.1	68.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99	18.2	81.8
	교육 서비스업	103	60.2	39.8
	소 계	513	31.0	69.0
동북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21.6	78.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12.0	88.0
	교육 서비스업	107	53.3	46.7
	보건업	99	39.4	60.6

구 분		전체 응답업체수	(활용의향) 있다	(활용의향) 없다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40.6	59.4
	소 계	495	33.9	66.1
서남권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98	20.4	79.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45.0	55.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39.0	61.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0	28.0	72.0
	교육 서비스업	102	59.8	40.2
	소 계	500	38.6	61.4
서북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9.2	90.8
	출판업	113	41.6	58.4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6	36.1	63.9
	전문서비스업	112	29.5	70.5
	보건업	101	41.6	58.4
	소 계	492	29.9	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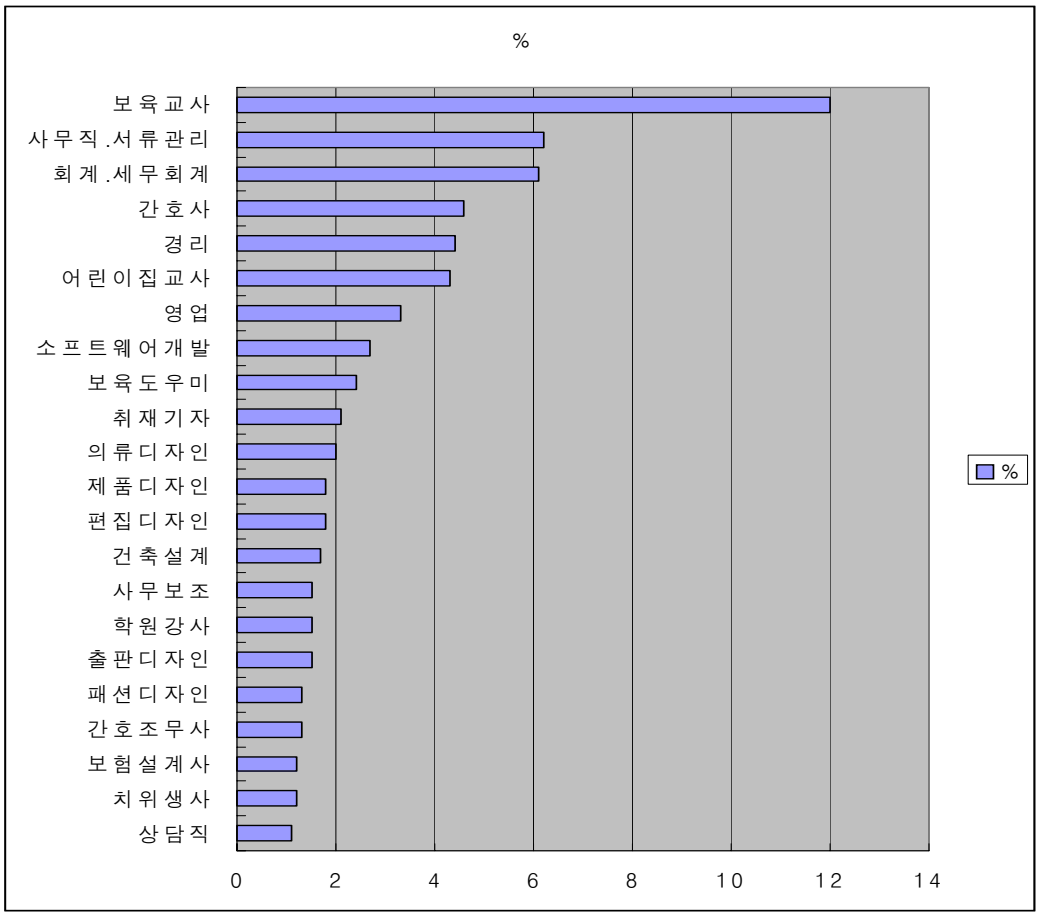
한편,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활용할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활용의향이 없는 1680개 사업체에 대해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학력과 업무와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금인력으로 충분하다가 36.3%, 인건비가 비싸서 15.5%등의 이유를 들었다. 반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는데, 업무생산성이 낮아서 15.2%, 직업의식이 부족할 것 같아서 8.8%, 전문성 부족 11.9%이라고 응답되었다.



▌그림 Ⅲ-10▐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활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

나.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인력의 주요 활용업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을 위해 어떠한 직무분야가 적절한지를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업체 가운데 820(32.8%)개 업체가 응답하였고, 이 가운데 보육교사(12.0%)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다음이 사무직/서류관리(6.2%), 회계/세무회계(6.1%), 간호사(4.6%), 경리(4.4%), 어린이집교사(4.3%), 영업(3.3%), 소프트웨어개발(2.7%) 보육도우미(2.4%), 취재기자(2.1%), 의류디자이너(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1▐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인력 활용 직무

권역별, 업종별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도심권

도심권의 조사업종으로 출판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서비업의 500개 업체 중 126개 (25.2%)업체가 응답하였다. 각 응답업체는 활용업무를 1개 이상 적고 있는데,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 업무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이 응답하였다.

출판업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업무로써 편집 및 출판디자인이 41.2%로 가장 많았고, 세무회계·회계 등 사무관리 26%, 판매, 영업 등 17.3%, 취재기자 또는 기자 15.3%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출판업무의 하나로 편집 및 교정, 웹디자인 관련 10.9%, 출판 및 공연기획, 홍보 등의 업무가 제시되었다.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활용업무는 비교적 단순한데 사무직 관련 업무가 50.1%로 가장 많고, 이외에 제품생산 31.47%, 의상 및 의류디자인 25%, 영업 및 마케팅 18.9%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이 업종은 비교적 단순 숙련직으로 되어 있어 사무직 관련 업무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주요 활용업무로 제시된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관련하여는 홍보·마케팅이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연 및 문화기획 15.1%, 건강·코치 12.2%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외에 큐레이터, 기록 및 사서, 문화가이드, 청소년 사업 운영 등의 업무가 제시되고 있다.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사무직 22.2%를 제외하고 영업 및 판매업무 14.8%, 총무 14.8%, 기획·홍보 11.1% 등이 업무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 외에 상담 및 상담관리 11.1%, 토목·측량기술·화물조사 11.1%, 보석감정사 7.4%가 제시되었다. 편집디자인, 통역사, 장의도우미, 정수기코디, 웨딩도우미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이 진입하기 좋은 업무로 제시되고 있다.

전문서비스업 역시 회계·세무회계, 서류관리 등 사무직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58.2%) 나타나고 있으며, 시각·제품·편집 등 디자인 관련 업무 22.6%, 광고제작 및 영업 9.6%, 면접원 및 제품모니터링과 번역이 6.4%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Ⅲ-47▐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업무 - 도심권

업종	사례수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업무 (중복응답)		
계	126	-		
출판업	46 (130.3)	편집·출판디자인(41.2%)	사무직-회계,서무등(26%)	판매영업/TM영업(17.3%)
		취재기자/기자(15.3%)	편집 및 교정(13%)	웹디자인-디지털편집, 포토샵 그래픽(10.9%)
		출판 및 공연기획(4.4%)	총보(2.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16 (125.4)	사무직-회계,세무,경리(50.1%)	재품생산-봉재, 재봉(31.4%)	의상·의류디자인(25.0%)
		영업 및 마케팅(18.9%)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3 (100.0)	홍보·마케팅(24.1%)	건강코치(12.2%)	공연 및 문화 기획(15.1%)
		웹·출판·기획(9%)	큐레이터(6.1%)	취재기자·기자(6.1%)
		기록, 사서(6.1%)	문화가이드(6.1%)	사무직(6.1%)
		청소년사업운영(3%)		
사업지원 서비스업	27 (125.8)	사무직-회계,세무회계(22.2%)	영업 및 판매(14.8%)	총무(14.8%)
		기획·홍보(11.1%)	상담·상담관리(11.1%)	토목,측량기술,화물조사(11.1%)
		보석감정사(7.4%)	편집디자인(7.4%)	통역사(3.7%)
		장의도우미(3.7)	정수기코디(3.7%)	웨딩도우미(3.7%)
		농수산물 성분분석(3.7)	출판,리서치 등(11.1%)	
전문 서비스업	31 (109.6)	사무직-회계,세무,서류관리(58.2%)	디자인-제품,시각,편집등(22.6%)	광고제작,영업(9.6%)
		면접원,제품모니터링(6.4%)	번역(6.4%)	건축설계(3.2%)
		화물조사/검사(3.2)		

② 동남권

동남권의 조사업종으로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응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513개 업체 중 159개(31%)업체가 응답하였다. 각 응답 업체는 활용업무를 1개 이상 적어 중복응답하고 있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 업무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이 응답하였다.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에서 고학력 여성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로 의상 및 의류 디자인(33.3%), 패션디자인 30.0%, 제품디자인 23.3% 등 디자인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영업 및 판매, 무역업무 등도 제시되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는 IT 소프트웨어 등 제품개발 29.5%, 사무직으로 회계 및 세무회계 23.6%, 반도체 등 제품판매와 영업 23.6%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나타냈고, 무역 및 회화 17.8%, 제품생산 및 관리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반도체 연구 및 설계 등이 각각 11.8%씩 응답하고 있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는 건축설계 44.4%외에 전기, 조경, 토목, 구조 등 각종 설계에 22.4%, 광고영업 및 홍보 마케팅 22.4%로 고학력 여성이 담당하기 적합한 업무로 제시되었다.

전문서비스업에서는 컴퓨터그래픽, 실내 인테리어, 시각 및 의상 등 디자이너 관련업무에 24.9%가 응답하였고, 금융컨설팅 15.6%, 영업 및 판매 9.3%, 금융관련 사무직 6.2% 등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서비스에 있어서는 보육교사가 53.2%로 나타났고, 어린이집 교사 32.3%, 보육보우미 6.4%, 학원강사 3.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8▐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업무 - 동남권

업종	사례수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업무 (중복응답)		
전체	159	-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0 (113.3)	의상디자이너, 의류디자인(33.3%)	패션디자이너, 패션디자인(30%)	제품디자인,디자이너(23.3%)
		영업 및 판매(13.3%)	무역사무(6.7%)	총무,사무직(6.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7 (153.5)	IT·소프트웨어 등 제품개발(29.5%)	사무직, 회계·세무회계(23.6%)	반도체 등 제품판매,영업(23.6%)
		무역 및 회화(17.8%)	제품생산/관리 (11.8%)	컴퓨터·그래픽디자인(11.8%)
		전기·전자(11.8%)	반도체연구 및 설계(11.8%)	기타-환경전문인력,모니터링(11.8%)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8 (128.2)	건축설계(44.4%)	각종설계-전기·조경·토목·구조등(22.4%)	광고영업·홍보·마케팅(22.4%)
		회계,세무회계(11.1%)	도시계획엔지니어(5.6%)	측량(5.6%)
		기계장치설비검사(5.6%)	기타-기사작성,웹지다인(11.1%)	
전문 서비스업	32 (100.0)	디자인-컴퓨터그래픽,실내인테리어,시각,의상등(24.9%)	금융컨설팅(15.6%)	경리(12.5%)
		광고제작 및 홍보(9.3%)	영업 및 판매(9.3%)	금융 전문 관련 사무직(6.2%)
		건축캐드(3.1%)	노무사(3.1%)	산업프리랜서(3.1%)
		취재기자(3.1%)	번역(3.1%)	기타(6.2%)
교육 서비스업	62 (100.0)	보육교사(53.2%)	어린이집교사(32.3%)	보육도우미(6.4%)
		학원강사(3.2%)	강사-중국어,무용(3.2%)	기타-행정,주방도우미(3.2%)

③ 동북권

동북권의 조사업종으로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의 495개 업체 중 168개(33.9%)업체가 응답하였다. 각 응답 업체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업무를 1개 이상 적어 중복응답하고 있다. 조사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Ⅲ-49▐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업무 - 동북권

업종	사례수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업무 (중복응답)		
전체	168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2 (100.0)	재봉기술사(25%)	경리(16.7%)	패션디자이너,디자인(16.7%)
		의상디자이너,디자인(16.7%)	사무직,서류관리(8.3%)	영업(8.3%)
		제품디자인,디자이너(8.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9 (100.0)	사무직,서류관리(31.6%)	해외영업(21.1%)	디자인-침구, 자수, 실내인테리어등(15.8%)
		재정관리 및 경리(15.8%)	전산사무(5.3%)	의류제조 및 검수(10.5%)
교육서비스업	57 (114.5)	학원강사-수학,영어,미술 등 (36.9%)	교육상담 및 컨설팅(24.6%)	어린이집교사(14%)
		보육교사(12.3%)	행정, 사무(12.4%)	수업보조(10.8%)
		기타-마케팅,편집디자인 등 (3.6%)		
보건업	39 (125.9)	간호사(41%)	간호조무사(28.2%)	치위생사(17.9%)
		환자상담/병원코디네이터 (10.3%)	물리치료사(7.7%)	행정/회계,세무회계(5.2%)
		간병(5.2%)	치과진료보조(2.6%)	피부관리사(2.6%)
		사무직,사무보조(5.2%)		
사회복지서비스업	41 (111.9)	보육교사(46.3%)	보육도우미(24.4%)	보육보조교사(14.6%)
		회계,세무회계/행정(9.7%)	어린이상담(4.9%)	탄력적인인력지원(2.4%)
		보육프로그램개발(4.8%)	학부모모니터링(2.4%)	요양보호사(2.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에서 고학력 여성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로는 역시 각종 디자인 관련 업무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패션디자인 16.7%, 의상디자인 16.7%, 제품디자인 8.3%로 응답하였고, 단순 숙련업무로서 재봉기술사도 25.0%나 응답하고 있다.

섬유제품 제조업은 서류관리 등 사무직이 31.6%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으며, 무역 등의 해외영업 21.1%, 침구나 자수, 실내 인테리어 등 디자인 관련 업무가 15.8%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업에서 고학력 여성의 활용업무는 수학, 영어, 미술 등 학원강사가 36.9%로 나타났으며, 교육상담 및 컨설팅 24.6%, 어린이집 교사 14%, 보육교사 12.3% 등이 제시되었다.

보건업에서는 간호사 41%, 간호조무사 28.2%, 치위생사 17.9%, 환자상담/병원코디네이터 10.3%, 물리치료사 7.7%로 보건 관련하여 자격증 혹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간병이나 피부관리사, 치과진료보조 등 단기간 교육훈련을 통해 가능한 직무도 제시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보육교사가 46.3%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보육도우미 24.4%, 보육보조교사 14.6%, 어린이 상담 4.9% 등 주로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 관련 업무로 나타났다.

④ 서남권

서남권의 조사업종으로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의 500개 업체 중 193개(38.6%)업체가 응답하였다. 각 응답 업체는 활용업무를 1개 이상 적어 중복응답하고 있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 업무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이 응답하였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서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영업이 33.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고, 서류관리 등 사무직 20.5%, 예금업무·은행창구업무 12.8%, 금융전문 관련사무직 10.3%, 서무회계, 회계, 경리 10.3%, 금융영업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역시 보육교사가 65.6%로 전체 응답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보육도우미 9.8%, 어린이집 교사 등 유아 및 아동의 보육 관련 업무가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학원강사 4.8%, 급식 및 영양사 3.2%, 교육상담 4.8% 등이 제시되었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는 사무직, 전산회계 외에 프로그램 개발자, 컴퓨터프로그램 전문가 10.7%, 제품디자인 및 디자이너, 환경전문인력 등이 각 7.1%로 응답되었고, 번역, 의상 및 의류 디자인, 투자교육상담사가 각 각 3.6% 응답되었다. 이외에도 번역, 임상실험 연구원, 설계사, 초고속 정보통신망개발 연구업무, 도로 및 플랜트 설계, 엔지니어, 전기설계 업무 등이 제시되었다.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4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프로그램 개발 및 컴퓨터 프로그램 11.1%, ERP/컨설팅 연구 8.8%, IT시스템 구축, 컴퓨터 관련 전문가 등이 제시되었다.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서는 사무보조 외에 번역 15%, 방송제작이나 비

디오 제작물 관리직, 편집디자인 업무 등이 제시되었다. 응답 비율은 다소 낮지만,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업무로 편집기획, 방송작가, 통역사, 코디네이터 등도 적합한 업무로 제시되었다.

▌표 Ⅲ-50▐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업무 - 서남권

업종	사례수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업무 (중복응답)		
전체	193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39 (100.0)	보험설계사,보험영업(33.3%)	사무직,서류관리(20.5%)	예금업무,은행창구업무(12.8%)
		금융전문,금융관련사무직(10.3%)	회계,세무회계/경리(10.3%)	금융영업(7.8%)
		기타(5.2%)		
교육 서비스업	61 (117.4)	보육교사(65.6%)	보육도우미(9.8%)	어린이집교사(8.2%)
		교사업무보조(8.1%)	학원강사(4.9%)	교재판매(1.6%)
		급식 및 영양사(3.2%)	교육상담(4.8%)	행정/사무,서류관리(3.2%)
		보육보조교사(1.6%)	교육프로그램연구(1.6%)	기타-차량,방문학습등(4.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8 (107.4)	사무직,서류관리(17.9%)	전산회계(10.7%)	프로그램개발자,컴퓨터프로그램전문가(10.7%)
		제품디자인,디자이너(7.1%)	경리(7.1%)	환경전문인력(7.1%)
		번역(3.6%)	의상디자이너,의류디자인(3.6%)	투자교육상담사(3.6%)
		임상실험연구원(3.6%)	설계사(3.6%)	초고속정보통신망개발연구원(3.6%)
		도로설계(3.6%)	플랜트설비설계(3.6%)	CAD사용자(3.6%)
		엔지니어(3.6%)	전기설계(3.6%)	비즈니스컨설팅(3.6%)
		CCTV판매영업(3.6%)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5 (122.0)	소프트웨어개발(42.2%)	경리(11.1%)	프로그램개발자,컴퓨터프로그램(11.1%)
		회계,세무회계(11.1%)	사무직,서류관리(8.9%)	영업, 마케팅(8.8%)
		ERP/컨설팅연구(8.8%)	IT시스템구축(4.4%)	컴퓨터관련전문가(8.8%)
		웹개발(2.2%)	경영정보관리(2.2%)	하드웨어개발(2.2%)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0 (130.0)	사무보조(15%)	번역(15%)	영상제작(10%)
		비디오영상물관리직(10%)	편집디자인(10%)	방송기술(5%)
		편집기획(5%)	방송연출(5%)	섭외(5%)방송작가(5%)
		동영상강의(5%)	영상편집모니터링(5%)	코디네이터(5%)
		통역사(5%)	기획(5%)	해외영업(5%)
		전산사무(5%)	영업부마케팅(5%)	

⑤ 서북권

서북권의 조사업종으로 출판업, 보건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전문서비스업의 492개 업체 중 147개(29.9%)업체가 응답하였다. 각 응답 업체는 활용 업무를 1개 이상 적어 중복응답하고 있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 업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Ⅲ-51▐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업무 - 서북권

업종	사례수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업무 (중복응답)		
전체	147	-		
출판업	47 (118.9)	편집디자인(27.6%)	취재기자,기자(19.1%)	출판편집(17%)
		교정(10.6%)	편집디자인(8.5%)	출판디자인(6.4%)
		경리(4.3%)	사무직,서류관리(4.3%)	디지털편집디자인(6.4%)
		영업(2.1%)	회계,세무회계(2.1%)	컨텐츠개발(2.1%)
		편집기획(2.1%)	출판기획(4.2%)	제품디자인,디자이너(2.1%)
보건업	42 (105.0)	간호사(52.4%)	치과기공기술자(14.3%)	치위생사(7.1%)
		사회복지서비스업무(4.8%)	치과간호사(4.8%)	임상병리사(4.8%)
		보육보조교사(4.8%)	물리치료사(2.4%)	안내요원(2.4%)
		보육도우미(2.4%)	어린이집교사(2.4%)	웹개발(2.4%)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3 (115.5)	방송기술(23.1%)	경리(15.4%)	멀티미디어디자인(7.7%)
		작가(7.7%)	편성(7.7%)	PD(7.7%)
		네트워크편집(7.7%)	CS(7.7%)	프로그램개발자, 컴퓨터프로그램(7.7%)
		방송연출(7.7%)	사무직,서류관리(7.7%)	회계,세무회계(7.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2 (100.0)	경리(33.3%)	사무직,서류관리(16.7%)	회계,세무회계(16.7%)
		상담직(8.3%)	운전직(8.3%)	사무보조(8.3%)
		영업(8.3%)		
전문 서비스업	(33 (100.0)	회계,세무회계(42.4%)	건축설계(12.1%)	광고디자인(9.1%)
		전산회계(9.1%)	경리(6.1%)	건축구조전공(3%)
		법무사사무직(3%)	경영기획(3%)	광고영업,광고홍보(3%)
		설계사(3%)	소프트웨어개발(3%)	상담직(3%)

출판업에서는 편집디자인 27.6%, 취재기자 19.1%, 출판편집 17% 등이 비교적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교정 10.6%, 편집디자인 8.5%, 출판디자인 6.4%

등이 제시되었다. 응답비율은 낮으나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업무로 편집이나 출판기획, 컨텐츠 개발 업무 등도 제시되었다.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서는 방송기술이 23.1%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멀티미디어 디자인, 작가, 편성, PD, 네트워크 편집, 고객만족, 프로그램 개발, 방송연출 등의 업무가 제시되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주로 숙련직종으로 고학력 여성의 활용업무가 주로 사무직종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리 33.3%, 서류관리 등 사무직 16.7%, 회계 및 서무 회계 16.7%, 상담직 8.3%의 순으로 응답되고 있다.

전문서비스업 역시 사무직종에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회계 및 세무회계 와 전산회계를 합하면 51.5%로 회계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건축설계 12.1%, 광고디자인 9.1% 등이 제시되었고, 그 외에도 광고영업이나 홍보, 설계사, 상담 등의 업무가 제시되었다.

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업무에 활용할 경우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무엇이 있는가를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인건비지원이 거의 모든 업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74.3%), 다음이 세제감면(16.7%), 여성친화기업인증(1.5%) 순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을 위한 지원 방안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인건비 지원이나 세제 감면, 세제 지원을 제외하고 출판업은 여성친화기업 인증, 교육훈련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는 육아수당이나 산후 휴직비 지원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고, 교육서비스업은 응답업체의 90%이상 인건비 지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저임금보장, 강사기본 근로비 지원, 무료 홍보 지원, 취업알선 등이 포함된다.

보건업에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 지원 방안으로 교육훈련 지원, 휴직급여 및 출산장려 지원, 직업의식 교육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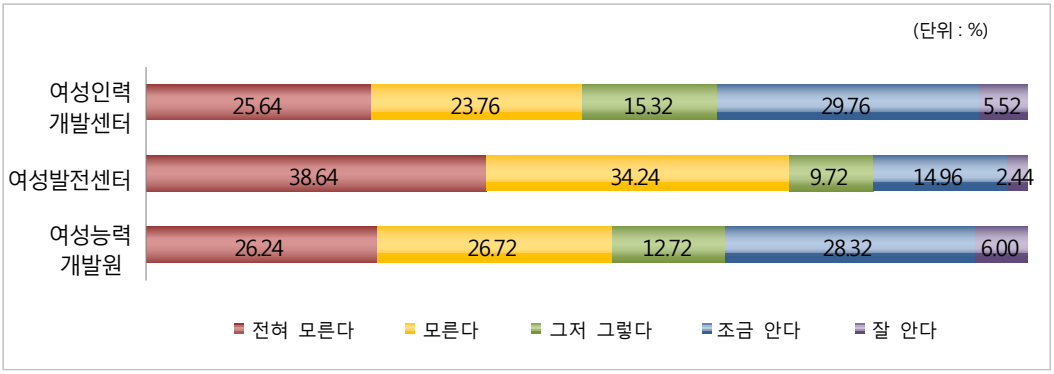
▌표 Ⅲ-52▌ 업종별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 지원방안

단위 : %

업종	사례수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활용 지원방안 (중복응답)
전체	820	-
출판업	(93)	**인건비 지원(75.3%)** / 세제 감면,세제지원(19.4%) / 여성친화기업 인증(3.2%) / 훈련교육지원(1.1%) / 유아 교육비 지원(1.1%) / 보육비 지원(1.1%) / 없음(7.5%) / 모름,무응답(1.1%)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58)	**인건비 지원(50%)** / 세제 감면,세제지원(27.6%) / 없음(13.8%) / 모름,무응답(10.3%)
창작 ·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3)	**인건비 지원(78.8%)** / 세제 감면,세제지원(12.1%) / 여성친화기업 인증(3%) / 없음(6.1%)
사업지원 서비스업	(27)	**인건비 지원(59.3%)** / 세제 감면,세제지원(40.7%) / 육아 수당 (3.7%) / 산후휴직비(3.7%)
전문서비스업	(96)	**인건비 지원(67.7%)** / 세제 감면,세제지원(20.8%) / 여성우대혜택 (1%) / 복지 지원,여성 복지(1%) / 훈련교육지원(1%) / 여성친화기업인증(1%) / 없음(14.6%)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7)	**인건비 지원(64.7%)** / 세제 감면,세제지원(29.4%) / 없음(5.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46)	**인건비 지원(82.6%)** / 세제 감면,세제지원(21.7%) / 없음(2.2%)
교육서비스업	(180)	**인건비 지원(91.7%)** / 세제 감면,세제지원(2.8%) / 여성친화기업인증(1.1%) / 최저임금보장(0.6%) / 무료홍보(0.6%) / 교육부 취업알선(0.6%) / 강사기본 근로비 지원(0.6%) / (방문,학습지교사) 회원 지원요망(0.6%) / 훈련교육지원(0.6%) / 없음(1.1%) / 모름,무응답 (0.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9)	**인건비 지원(68.4%)** / 세제 감면,세제지원(26.3%) / 여성친화기업 인증(5.3%)
보건업	(81)	**인건비 지원(66.7%)** / 세제 감면,세제지원(18.5%) / 훈련교육지원(2.5%) / 휴직급여 지원(1.2%) / 출산장려지원(1.2%) / 직업의식 교육(1.2%) / 여성친화기업인증(1.2%) / 없음(13.6%)
사회복지 서비스업	(41)	**인건비 지원(100%)** / 세제 감면,세제지원(2.4%)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9)	**인건비 지원(41%)** / 세제 감면,세제지원(25.6%) / 여성친화기업인증(5.1%) / 환경개선 지원(2.6%) / 유아 교육비 지원(2.6%) / 복지 지원,여성 복지(2.6%) / 없음(23.1%)
컴퓨터프로그램,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45)	**인건비 지원(71.1%)** / 세제 감면, 세제지원(15.6%) / 보육비 지원(4.4%) / 탁아비 지원 (2.2%) / 여성친화기업인증(2.2%) / 없음(6.7%)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33)	**인건비 지원(78.8%)** / 세제 감면,세제지원(27.3%) / 없음(6.1%) / 모름,무응답(3%)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2)	**인건비 지원(58.3%)** / 훈련교육지원(8.3%) / 세제 감면,세제지원(8.3%) / 없음(25%) / 모름,무응답(8.3%)

5.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인지도

서울시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 질문으로 “귀하는 다음과 같은 서울시 여성교육훈련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의 서울시 여성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았다. 여성인력개발기관 중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5.3%로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였으며, 다음이 여성능력개발원(동부여성플라자)은 34.3%, 여성발전센터 17.4%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Ⅲ-12▐ 서울시 여성교육훈련기관 인지도

가.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인지도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권역별·업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도심권의 5개 업종에 대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어느정도 알고 있느냐는 물음을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능력개발원 2.52점, 여성인력개발센터 2.5점, 발전센터 1.86점으로 발전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능력개발원이나 인력개발센터도 인지도가 높지는 않다.

동남권의 5개 업종에 대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어느정도 알고 있느냐는 물음을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능력개발원 2.67점, 여성인력개발센터 2.62점, 발전센터 1.91점으로 발전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능력개발원이나 인력개발센터도 인지도가 높지는 않다.

동북권의 5개 업종에 대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어느정도 알고 있느냐는 물음을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능력개발원과 인력개발센터가 각 2.95점으로 나타났으며, 발전

센터는 2.5점으로 나타났다.

서남권의 5개 업종에 대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어느정도 알고 있느냐는 물음을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여성인력개발센터 2.78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능력개발원 2.5점, 발전센터 2.1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북권의 5개 업종에 대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어느정도 알고 있느냐는 물음을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능력개발원 2.42점, 여성인력개발센터 2.44점, 발전센터 2.02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53▐ 서울시 소재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권역별·업종별 인지도(5점척도)

권역/업종		전체 응답업체수	능력개발원	발전센터	인력개발센터
전 체		**2500 (100.0)**	**2.61**	**2.08**	**2.66**
도심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2.57	1.90	2.46
	출판업	100	2.86	2.20	2.80
	전문서비스업	103	2.65	1.80	2.45
	사업지원 서비스업	102	2.75	1.69	2.7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1.72	1.69	2.04
	소 계	500	2.52	1.86	2.50
동남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4	3.06	2.02	2.3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4	2.75	2.14	2.71
	전문서비스업	103	3.24	2.20	3.23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99	1.77	1.27	1.95
	교육 서비스업	103	2.48	1.86	2.80
	소 계	513	2.67	1.91	2.62
동북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2.95	2.13	2.4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2.64	2.17	2.87
	교육 서비스업	107	2.97	2.52	3.14
	보건업	99	2.64	2.46	2.78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3.50	3.13	3.48
	소 계	495	2.95	2.49	2.95
서남권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98	2.20	2.01	2.6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2.08	1.97	2.58

권역/업종		전체 응답업체수	능력개발원	발전센터	인력개발센터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2.77	2.20	2.4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0	2.61	2.09	2.83
	교육 서비스업	102	2.84	2.45	3.38
	소 계	500	2.50	2.15	2.78
서북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1.65	1.46	1.59
	출판업	113	1.99	1.94	2.47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6	2.36	1.89	2.39
	전문서비스업	112	3.10	2.47	2.90
	보건업	101	3.15	2.39	3.00
	소 계	492	2.42	2.02	2.44

전체 업종에서 여성인적자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여성교육훈련기관이 수행하였으면 하는 교육훈련으로는 인성교육, 직업의식함양교육, 컴퓨터 활용능력 순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업종별 교육훈련 수요는 다음 〈표 Ⅲ-54〉와 같다.

▌표 Ⅲ-54▐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력 필요성 인식정도

단위: 개, %

권역/업종		전체 응답업체수	필요없음	그저그러함	필요함	평균
전 체		**2500 (100.0)**	**43.1**	**24.8**	**32.1**	**2.87**
도심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43.0	24.0	33.0	2.78
	출판업	100	40.0	15.0	45.0	3.03
	전문서비스업	103	51.5	22.3	26.2	2.75
	사업지원 서비스업	102	69.6	14.7	15.7	2.25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48.4	26.3	25.3	2.55
	소 계	500	50.6	20.4	29.0	2.67
동남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4	64.4	15.4	20.2	2.5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4	52.9	31.7	15.4	2.55
	전문서비스업	103	45.6	23.3	31.1	2.7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99	71.7	22.2	6.1	2.23
	교육 서비스업	103	22.3	26.2	51.6	3.54

권역/업종		전체 응답업체수	필요없음	그저그러함	필요함	평균
	소 계	513	51.3	23.8	25.0	2.74
동북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50.0	27.3	22.7	2.6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39.0	15.0	46.0	3.08
	교육 서비스업	107	21.5	30.8	47.7	3.32
	보건업	99	18.2	31.3	50.5	3.48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14.9	19.8	65.3	3.77
	소 계	495	28.1	24.8	47.1	3.28
서남권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98	32.7	33.7	33.7	3.0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29.0	40.0	31.0	3.04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62.0	23.0	15.0	2.43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0	57.0	27.0	16.0	2.47
	교육 서비스업	102	16.7	19.6	63.7	3.75
	소 계	500	39.4	28.6	32.0	2.94
서북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70.8	13.1	16.2	2.12
	출판업	113	26.5	37.2	36.3	3.13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6	19.4	50.0	30.6	3.22
	전문서비스업	112	35.7	34.8	29.5	2.92
	보건업	101	35.7	34.8	29.5	2.92
	소 계	492	45.9	26.2	27.8	2.73

나. 권역별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수요

1) 도심권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수행했으면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약 75% 이상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알고 있는 업체에서는 희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출판업종에서는 출판직종에 포함된 전 분야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편집, 취재, 웹 영상, 그래픽 디자인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 외에도 직업의식 함양, 기본 예절 교육, 직장예절 교육 등을 희망하고 있다.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과 관련하여 봉제, 미싱숙련, 의복제작, 의류제작과 리폼외에도 영업실무나 마케팅 전략, 창작공예 전문교육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응답사업체의 90%이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희망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 외에 전산사무나 전산 경리 회계, 행정 사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희망하였다.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컴퓨터 활용능력, OA 회계, 병원코디네이터, 친절교육 등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보석감정 및 감별 교육도 제시하고 있다. 전문서비스업은 주로 행정사무, 세무회계 관련 교육훈련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55▐ 도심권 여성교육훈련기관 수행 희망 교육

단위 :%

업종	사례수	수행 희망교육		
출판업	(100)	편집디자인(9%)	취재능력(5%)	출판편집교정(4%)
		인성교육,인성함양교육(3%)	컴퓨터활용능력(2%)	OA회계(2%)
		기본 예절 교육, 직장 예절 교육(2%)	시각디자인(2%)	디지털편집디자인(2%)
		웹및영상(1%)	현장실무 전문 교육(2%)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재교육(1%)
		대인관계 교육,고객 마케팅(1%)	행정,사무, 업무(1%)	외국어 교육(1%)
		디지털그래픽편집디자인(2%)	친절교육,서비스교육(1%)	전문텔레마케터(1%)
		직업의식함양교육(1%)	인쇄관련조작(1%)	없음(42%)
		모름(2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100)	봉제(13%)	미싱숙련(3%)	의복제작(2%)
		영업영업실무,마케팅전략(2%)	인성교육,인성함양교육(1%)	컴퓨터활용능력(1%)
		전산경리회계(1%)	웹및영상(1%)	비즈공예전문교육(1%)
		창작공예 전문교육(1%)	의류제작과 리폼(1%)	홈패션(1%)
		육아위탁전문교육(1%)	없음(74%)	모름(1%)
창작 ·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5)	인성교육,인성함양교육 (1.05%)	전산경리회계(1.05%)	영업,영업실무,마케팅전략 (1.05%)
		전산사무인력양성(1.05%)	행정,사무,업무(1.05%)	재무관리사(1.05%)
		홍보마케팅(1.05%)	미술전시관련업무(1.05%)	헬스트레이너과정(1.05%)
		요가(1.05%)	없음(91.58%)	없음(91.58%)
사업지원 서비스업	(102)	컴퓨터활용능력(3.92%)	OA회계(1.96%)	병원코디네이터(0.98%)
		친절교육,서비스교육 (0.98%)	여성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0.98%)	(토파스,아바코스) 예약 발권프로그램(0.98%)
		컴퓨터응용설계(0.98%)	보석감정.감별(0.98%)	없음(88.24%)
		모름(0.98%)		
전문서비스업	(103)	인성교육,인성함양교육 (2.91%)	컴퓨터활용능력(2.91%)	영어회화,영어(2.91%)
		전산경리회계(2.91%)	컴퓨터정보시스템(1.94%)	제도사(캐드윈)(0.97%)

업종	사례수	수행 희망교육		
		기장세무회계,세무전산(0.97%)	엑셀(Excel)(0.97%)	사무자동화& 전산경리(0.97%)
		전산사무인력양성(0.97%)	OA회계(0.97%)	행정,사무,업무(0.97%)
		외국어교육(0.97%)	컴퓨터PT(0.97%)	없음(81.55%)

2) 동남권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응답업체의 81%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봉제, 미싱견습, 패션디자인외에 인성교육이나 판매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관련해서 없다는 응답이 71.2%로 나타난 반면 제도사(캐드윈), 영어회화, 컴퓨터 활용능력,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컴퓨터 관련 기초 교육훈련을 희망하였고, 이 외에도 인성교육, 성희롱 대처방법, 대인관계나 고객 마케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90%이상 없다고 응답하고 있고, 그 외에는 컴퓨터 관련 교육, 컴퓨터 마스터, 정보통신, 웹 및 영상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다. 전문서비스업은 응답업체의 93%는 없다고 응답한 반면, 인성교육이나 직업의식 함양교육, 매장전문가 과정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업은 없다는 응답이 58%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희망 프로그램으로 특이한 것은 국악교육, 조형활동, 손유희특기교육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56▐ 동남권 여성교육훈련기관 수행 희망 교육

업종	사례수	수행 희망교육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104)	봉제(4.81%)	미싱견습(4.81%)	패션디자인(3.85%)
		인성교육,인성함양교육 (1.92%)	전산사무인력양성(0.96%)	판매원(0.96%)
		없음(80.77%)	모름(3.85%)	모름(3.8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04)	제도사(캐드윈)(8.65%)	영어회화,영어(2.88%)	엑셀(Excel)(2.88%)
		컴퓨터활용능력(2.88%)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1.92%)	현장실무 전문 교육(1.92%)
		OA회계(1.92%)	IT기본(0.96%)	중국어 회화(0.96%)
		전자회로설계 · 시험 (0.96%)	대인관계 교육,고객 마케팅 (0.96%)	컴퓨터 홈페이지 관리 (0.96%)
		영어강사교육(0.96%)	맥스(0.96%)	컴퓨터 그래픽(0.96%)
		인성교육,인성함양교육 (0.96%)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0.96%)	성희롱 대처방법(0.96%)

업종	사례수	수행 희망교육		
		전산사무인력양성(0.96%)	웹및영상(0.96%)	없음(71.15%)모름(1.92%)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99)	컴퓨터활용능력(2.02%)	직업의식함양교육(1.01%)	OA회계(1.01%)
		정보통신(1.01%)	웹및영상(1.01%)	컴퓨터응용설계(1.01%)
		컴퓨터정보시스템(1.01%)	포토샵, 일러스트(1.01%)	컴퓨터마스터(1.01%)
		부동산 개론(1.01%)	영업,영업실무,마케팅전략(1.01%)	네트워크시스템 분석 관리(1.01%)
		없음(91.92%)		
전문서비스업	(103)	인성교육, 인성함양교육(0.97%)	직업의식 함양교육(0.97%)	컴퓨터활용능력(0.97%)
		OA회계(0.97%)	그래픽디자인(0.97%)	매장전문가 과정(0.97%)
		없음(93.2%)	모름(1.94%)	모름(1.94%)
교육서비스업	(103)	인성교육,인성함양교육(17.48%)	직업의식 함양교육(9.71%)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재교육(2.91%)
		컴퓨터활용능력(1.94%)	특기활동 교육(1.94%)	학부모 상담 교육(1.94%)
		안전 교육,아동안전 교육(0.97%)	교사의식 함양교육(0.97%)	대인관계 교육,고객 마케팅(0.97%)
		직업상담사(0.97%)	보육교사보조(0.97%)	한국무용지도방법(0.97%)
		유아교육(0.97%)	컴퓨터 그래픽(0.97%)	유아 심리(0.97%)
		적성프로그램(0.97%)	구연동화(0.97%)	종이접기(0.97%)
		제 3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제외)(0.97%)	여성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0.97%)	보육교사재교육,직무연수(0.97%)
		국악교육(0.97%)	남녀 역차별 관련 정확한 인식교육(0.97%)	풍선아트(0.97%)
		조형활동(0.97%)	보육교사(0.97%)	손유희특기교육(0.97%)
		없음(58.25%)		

3) 동북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응답 업체의 67%는 없다고 응답한 반면, 의류 관련 일본어 전문용어 교육이나 패션디자인 등 패션의 국제화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제품 제조업은 없다는 응답이 약88%인 반면, 일어회화나 해외영업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없음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약 60%에 이르고 있는 반면, 특이한 희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유아교재교구 관련교육, 공공기관 업무 감시 모니터 요원, 운영자나 대표를 위한 스피치 교육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업에서도 약 60%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물리

치료사, 치위생교육, 치위생사 실무교육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약 61%가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외에 유아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57▌ 동북권 여성교육훈련기관 수행 희망 교육

단위 :%

업종	사례수	수행 희망교육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미싱숙련(12%)	미싱견습(10%)	직업의식 함양교육(4%)
		인성교육,인성 함양교육(3%)	봉제(3%)	컴퓨터활용능력(1%)
		패션디자인(1%)	젊은 (인력) 기술자(재봉)(1%)	의류관련 일본어 전문용어 교육(1%)
		직업교육(1%)	없음(67%)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인성교육,인성함양교육 (3.41%)	패션디자인(2.27%)	직업의식함양교육(1.14%)
		미싱숙련(1.14%)	제 3외국어(영어,일어, 중국어 제외)(1.14%)	현장실무 전문 교육 (1.14%)
		일어회화(1.14%)	전산사무인력양성(1.14%)	자수디자인(1.14%)
		해외영업(1.14%)	없음(87.5%)	모름(1.14%)
교육서비스업	(107)	직업의식 함양교육(9.35%)	컴퓨터활용능력(8.41%)	보육교사(3.74%)
		인성교육,인성함양교육 (3.74%)	안전 교육,아동안전교육 (1.87%)	응급 대처 교육,응급처치 (1.87%)
		리더쉽(1.87%)	영어회화,영어(1.87%)	직업교육(1.87%)
		유아교육 전문성강화연수, 재교육(0.93%)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0.93%)	고객상담(0.93%)
		특기활동교육(0.93%)	교사의식함양교육(0.93%)	직업상담사(0.93%)
		중국어회화(0.93%)	한자(자격증)(0.93%)	홍보마케팅(0.93%)
		아동상담교육(0.93%)	아동취미활동교육(0.93%)	종이접기(0.93%)
		영어전문교사(0.93%)	수학전문교사(0.93%)	OA회계(0.93%)
		유아교재교구관련교육 (0.93%)	간호임상경험을 충분히 교육(0.93%)	운영자,대표를 위한 Speech(0.93%)
		양장(0.93%)	전산기기수리(0.93%)	자원봉사자교육(0.93%)
		아이돌봄이,보육사 (0.93%)	공공기관 업무 감시 모니터 요원(0.93%)	없음(59.81%), 모름(0.93%)
보건업	(99)	친절교육,서비스교육 (16.16%)	직업의식 함양교육 (9.09%)	인성교육,인성 함양교육 (5.05%)
		병원코디네이터(4.04%)	간호조무사(4.04%)	고객상담(4.04%)
		기본 예절 교육(3.03%)	영어회화,영어(2.02%)	모름(1.01%)

업종	사례수	수행 희망교육		
		조리전문가양성과정 (1.01%)	현장실무 전문 교육 (1.01%)	대인관계 교육,고객 마케팅 (1.01%)
		창업관련교육(1.01%)	직업교육1.01%)	대화법(1.01%)
		중국어회화(1.01%)	컴퓨터활용능력(1.01%)	일어회화(1.01%)
		병원서비스매니저(1.01%)	간병인(1.01%)	물리치료사(1.01%)
		(인터넷 등) 재택근무가능교육(1.01%)	간조무에 필요한 현장실무 교육(1.01%)	치위생교육(1.01%)
		악기교육(1.01%)	전문피부관리사(1.01%)	치위생사실무전문(1.01%)
		끈기 인내심 교육(1.01%)	없음(59.6%)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보육교사(14.85%)	직업의식함양교육(4.95%)	보조교사(2.97)
		컴퓨터활용능력(2.97%)	보육교사보조(0.99%)	영어회화,영어(0.99%)
		유아교육 전문성강화연수,재교육(0.99%)	안전교육,아동안전 교육 (0.99%)	인성교육,인성함양교육 (0.99%)
		유아 음악실기,음악보조교사(0.99%)	조리전문가양성과정 (0.99%)	사회복지사,사회복지 (0.99%)
		유아미술실기(0.99%)	유아 심리(0.99%)	유아관계(0.99%)
		영어 보조 교사(0.99%)	육아교육보조교사(0.99%)	요양보호사(0.99%)
		현명한 엄마되기(0.99%)	교육과 보육을 겸할 수 있는 교육(0.99%)	실질적인 자격업무교육 (0.99%)
		없음(61.39%)	모름(0.99%)	

4) 서남권

금융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응답 업체의 88%는 없다고 응답했으며, 재무관리사, 금융자산관리, 주식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응답업체의 71%는 없다고 응답한 반면, 영어회화, 영상편집 특수효과, 컴퓨터 활용능력, 웹 및 영상, 애니메이션 제작 및 촬영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8▐ 서남권 여성교육훈련기관 수행 희망 교육

단위 :%

업종	사례수	수행 희망교육		
금융및보험관련 서비스업	(100)	인성교육,인성 함양교육(2%)	영업,영업실무,마케팅전략(2%)	직업의식 함양교육(1%)
		컴퓨터활용능력(1%)	친절교육,서비스교육(1%)	OA회계(1%)
		엑셀(Excel)(1%)	재무관리사(1%)	전문텔레마케터(1%)

업종	사례수	수행 희망교육		
		IT기본(1%)	금융자산관리(1%)	주식관련교육(1%)
		없음(88%)		
교육서비스업	(102)	인성교육,인성 함양교육(6.86%)	직업의식 함양교육(3.92%)	보육교사(2.94%)
		모름(1.96%)	특기활동 교육(1.96%)	교사의식함양교육(1.96%)
		컴퓨터활용능력(1.96%)	OA회계(1.96)	엑셀(Excel)(0.98%)
		영업,영업실무,마케팅전략(0.98%)	기본예절 교육,직장 예절 교육(0.98%)	아이돌봄이,보육사(0.98%)
		안전 교육,아동안전 교육(0.98%)	유아 음악 실기,음악보조 교사(0.98%)	유아 미술실기(0.98)
		보육교사 재교육,직무연수(0.98%)	유아교육(0.98%)	아동상담교육(0.98%)
		아동취미활동교육(0.98%)	적성프로그램(0.98%)	독서논술교육,독서지도(1.96%)
		구연동화(0.98%)	사무보조(0.98%)	없음(65.6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100)	OA회계(1%)	전산경리회계(1%)	제도사(캐드윈)(1%)
		시각디자인(1%)	세무실무(1%)	워드프로세스(1%)
		멀티미디어디자인(1%)	없음(95%)	
컴퓨터프로그램,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인성교육,인성함양교육(3%)	전산경리회계(3%)	직업의식 함양교육(2%)
		전산사무인력양성(2%)	경영정보관리(2%)	컴퓨터응용설계(2%)
		OA회계(2%)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2%)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2%)
		컴퓨터활용능력(1%)	제도사(캐드윈)(1%)	영업, 영업실무, 마케팅전략(1%)
		사무자동화&전산경리(1%)	직업상담사(1%)	컴퓨터마스터(1%)
		컴퓨터활용& 웹실무(1%)	베이비시터(1%)	조리종합(1%)
		컴퓨터전문가(1%)	툴의 기초지식(1%)	JAVA(1%)
		OPACLE(1%)	없음(74%)	
영상, 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98)	영어회화,영어(3.06%)	영상편집특수효과(3.06%)	컴퓨터활용능력(2.04%)
		웹 및 영상(2.04%)	애니메이션 제작(2.04%)	애니메이션 촬영(2.04%)
		인성교육,인성 함양교육(2.04%)	엑셀(Excel)(2.04%)	기본 예절 교육,직장 예절 교육(1.02%)
		직업의식함양교육(1.02)	창업관련교육(1.02)	파워포인트(1.02%)
		포토샵, 일러스트(1.02%)	광고기획(1.02%)	방송연출(1.02%)
		여성교양 강좌(1.02%)	방과후아동지도사(1.02%)	애니메이션칼라링(1.02%)
		방송실무(1.02%)	방송영상이론교육(1.02%)	제도사(캐드윈)(1.02%)
		편집능력향상전문성 교육(1.02%)	에이전시능력향상전문성교육(1.02)	미용(1.02%)
		면접기술(1.02%)	없음(71.43%)	모름(5.1%)

5) 서북권

출판업, 보건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전문서비스업의 희망교육은 이전의 다른 권역 희망교육프로그램과 유사하며,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응답업체의 92%는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에 관련교육과목으로 운전실무나 현장실무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Ⅲ-59▐ 서북권 여성교육훈련기관 수행 희망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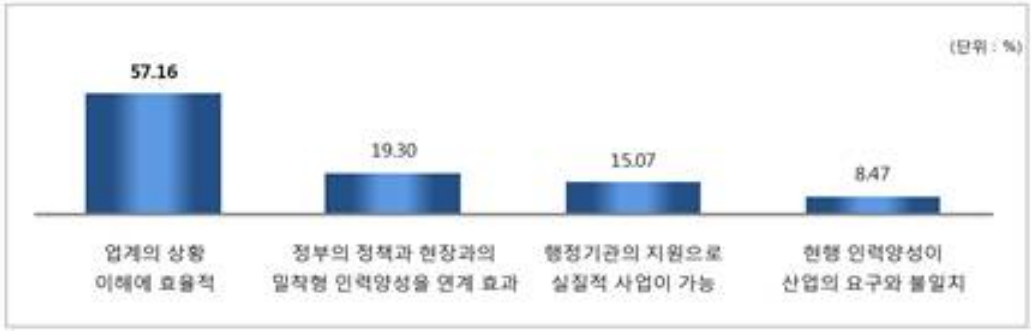
단위: %

업종	사례수	수행 희망교육		
출판업	(113)	출판편집교정(5.31%)	편집디자인(4.42%)	디지털편집디자인(2.65%)
		사무자동화 & 전산경리(2.65%)	인성교육,인성 함양교육(2.65%)	출판기획(2.65%)
		직업의식함양교육(1.77%)	컴퓨터활용능력(1.77%)	OA회계(1.77%)
		전산경리회계(1.77%)	엑셀(Excel)(1.77%)	전산사무인력양성(1.77%)
		웹및영상(1.77%)	파워포인트(0.88%)	여성교양 강좌(0.88%)
		플래쉬애니메이션(0.88%)	디자인프로그래밍(0.88%)	인문학적 소양(0.88%)
		일과중 언어학습(0.88%)	없음(70.8%)	모름(0.88%)
보건업	(101)	간호조무사(2.97%)	인성교육,인성함양교육(1.98%)	친절교육,서비스교육(1.98%)
		간호사 (업무)(1.98%)	치기공기술(1.98%)	보육교사(1.98%)
		컴퓨터활용능력(1.98%)	외국어교육(0.99%)	병원코디네이터(0.99%)
		창업관련교육(0.99%)	기본 예절 교육,직장 예절 교육(0.99%)	사회복지사,사회복지(0.99)
		치과간호조무사(0.99%)	한식조리(0.99%)	재단(0.99%)
		없음(78.22%)	모름(0.99%)	모름(0.99%)
영상, 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36)	친절교육,서비스교육(5.56%)	영상편집특수효과(5.56%)	방송카메라,방송촬영(2.78%)
		엑셀(Excel)(2.78%)	방송연출(2.78%)	영어회화,영어(2.78%)
		방송컴퓨터(2.78%)	없음(80.56%)	모름(2.78%)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컴퓨터활용능력(4.62%)	전산경리회계(0.77%)	현장실무 전문교육(0.77%)
		운전실무교육(0.77%)	없음(92.31%)	모름(0.77%)
전문서비스업	(112)	기장세무회계,세무전산(10.71%)	전산경리회계(3.57%)	인성교육,인성 함양교육(2.68%)
		직업의식 함양교육(1.79%)	영어회화,영어(1.79%)	제도사(캐드윈)(1.79%)
		전산사무인력양성(0.89%)	영업,영업실무,마케팅전략(0.89%)	컴퓨터활용능력(0.89%)
		기본 예절 교육,직장 예절 교육(0.89%)	현장실무 전문 교육(0.89%)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0.89%)
		창업관련교육(0.89%)	세무실무(0.89%)	광고기획(0.89%)
		광고홍보(0.89%)	없음(72.32%)	모름(1.79%)

다. 맞춤형 인력양성필요성 인식여부

산-관-학의 맞춤형 인력양성 필요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귀사는 업종차원의 인력양성을 위해서 서울시, 조합이나 협회,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양성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필요 없다’(전혀+필요없다)는 응답이 43.1%로 ‘필요하다’(매우필요+필요)는 응답(32.1%) 보다 11%p 높게 나타났고, 5점 척도 일 때 2.87점으로 3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맞춤형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업종별 인력양성을 하는 것이 업계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여겨진다’는 응답이 응답업체의 57.2%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의 정책과 현장과의 밀착형 인력양성을 연계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해서’가 19.3%, ‘업계가 영세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지원으로 실질적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 15.1%, ‘현행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등의 인력양성이 산업의 요구와 불일치하기 때문’이 8.5%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3▐ 필요한 이유

권역별·업종별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먼저 도심권의 경우, 맞춤형 인력양성의 필요성은 응답업체의 약30%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약51%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출판업이 비교적 맞춤형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응답업체의 4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역시 맞춤형 인력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징적인 것은 교육서비스업에서는 맞춤형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응답업체의 절반이상인 약 5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필요성은 10%에도 못 미치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업종은 기술수준

이나 요구되는 지식이 일반적이고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전문성의 다양한 범주를 포괄하는 업종인 이유로 해석된다.

동북권은 맞춤형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응답업체의 47%가 응답하여 다른 권역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응답업체의 65.3%, 보건업 50.5%, 교육서비스업47.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남권의 맞춤형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응답업체의 32%만이 응답하였고, 업종별로 교육서비스업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3.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북권의 맞춤형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약28%에 그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업종별로 출판업이 36.3%로 가장 높고, 다음이 영상·오디오 제작 및 배급업 30.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60▐ 맞춤형 인력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권역별·업종별 인식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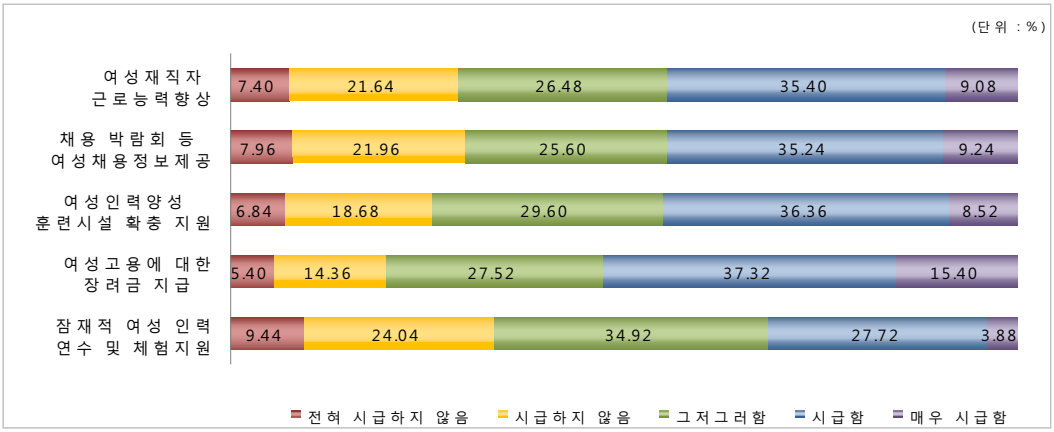
구 분		전체 응답업체수	필요없음	그저그러함	필요함	평균
전 체		**2500 (100.0)**	**43.1**	**24.8**	**32.1**	**2.87**
도심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43.0	24.0	33.0	2.78
	출판업	100	40.0	15.0	45.0	3.03
	전문서비스업	103	51.5	22.3	26.2	2.75
	사업지원 서비스업	102	69.6	14.7	15.7	2.25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48.4	26.3	25.3	2.55
	소 계	500	50.6	20.4	29.0	2.67
동남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4	64.4	15.4	20.2	2.5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4	52.9	31.7	15.4	2.55
	전문서비스업	103	45.6	23.3	31.1	2.7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99	71.7	22.2	6.1	2.23
	교육 서비스업	103	22.3	26.2	51.6	3.54
	소 계	513	51.3	23.8	25.0	2.74
동북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50.0	27.3	22.7	2.6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39.0	15.0	46.0	3.08

구 분		전체 응답업체수	필요없음	그저그러함	필요함	평균
	교육 서비스업	107	21.5	30.8	47.7	3.32
	보건업	99	18.2	31.3	50.5	3.48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14.9	19.8	65.3	3.77
	소 계	495	28.1	24.8	47.1	3.28
서남권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98	32.7	33.7	33.7	3.0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29.0	40.0	31.0	3.04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62.0	23.0	15.0	2.43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0	57.0	27.0	16.0	2.47
	교육 서비스업	102	16.7	19.6	63.7	3.75
	소 계	500	39.4	28.6	32.0	2.94
서북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70.8	13.1	16.2	2.12
	출판업	113	26.5	37.2	36.3	3.13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6	19.4	50.0	30.6	3.22
	전문서비스업	112	35.7	34.8	29.5	2.92
	보건업	101	35.7	34.8	29.5	2.92
	소 계	492	45.9	26.2	27.8	2.73

6. 서울시 여성인력개발 지원정책의 방향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귀사가 소재한 해당권역의 권역기업 성장 및 고용활성화, 특히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을 통한 권역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의 시급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다.

서울시 정책지원의 시급성 정도는 '여성고용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대해 52.7%로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성인력양성을 위한 훈련시설의 확충 및 지원(44.9%), 여성재직자 근로능력향상(44.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4▐ 서울시 정책적 지원과 관련한 시급성

가. 잠재적 여성인력에 대한 연수 및 체험 지원

잠재적 여성인력에 대한 연수 및 체험지원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31.6%가 시급(매우시급+시급)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권역별로 도심권은 시급하다는 응답이 응답업체의 약39%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시급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업종은 출판업으로 응답업체의 66%로 나타났고 다음이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남권은 시급하다는 응답은 응답업체의 29%로 나타났고 업종별로 전문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각 응답업체의 43.7%, 41.7%가 잠재적 여성인력에 대한 연수 및 체협지원이 시급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동북권은 잠재적 여성인력에 연수 및 체험지원이 시급하다고 한 응답이 응답업체의 37.4%로 권역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업종별로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응답업체의 45%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남권은 잠재적 여성인력에 대한 연수 및 체험지원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약32%로 나타났고 업종별로 교육서비스업이 48%로 가장 높고, 다음이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북권은 잠재적 여성인력에 대한 연수 및 체험지원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응답업체의 '2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전문서비스업과 보건업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이 응답업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1▐ 권역별·업종별 잠재적 여성인력에 대한 연수 및 체험 지원의 시급성

단위: 개, %

권역/업종		전체 응답업체수	시급하지 않음	그저그러함	시급함	평균
전 체		**2500 (100.0)**	**33.5**	**34.9**	**31.6**	**2.93**
도심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37.0	30.0	33.0	2.84
	출판업	100	23.0	11.0	66.0	3.43
	전문서비스업	103	55.3	25.2	19.4	2.53
	사업지원 서비스업	102	32.4	40.2	27.5	2.9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53.7	23.2	23.2	2.33
	소 계	500	40.2	26.0	33.8	2.81
동남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4	21.2	42.3	36.5	3.1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4	39.4	50.0	10.6	2.64
	전문서비스업	103	26.2	30.1	43.7	3.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99	48.5	41.4	10.1	2.55
	교육 서비스업	103	13.6	44.7	41.7	3.33
	소 계	513	29.6	41.7	28.7	2.97
동북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43.2	39.8	17.0	2.5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52.0	22.0	26.0	2.65
	교육 서비스업	107	14.0	37.4	48.6	3.36
	보건업	99	7.1	48.5	44.4	3.40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12.9	39.6	47.5	3.39
	소 계	495	25.3	37.4	37.4	3.09
서남권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98	31.6	40.8	27.6	2.9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14.0	55.0	31.0	3.12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33.0	34.0	33.0	3.0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0	49.0	33.0	18.0	2.55
	교육 서비스업	102	12.7	39.2	48.0	3.46
	소 계	500	28.0	40.4	31.6	3.02
서북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67.7	17.7	14.6	2.29
	출판업	113	34.5	42.5	23.0	2.8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6	16.7	55.6	27.8	3.11
	전문서비스업	112	38.4	25.0	36.6	2.93
	보건업	101	38.4	25.0	36.6	2.93
	소 계	492	44.5	28.9	26.6	2.73

나. 여성고용에 대한 장려금 지급

여성고용에 대한 장려금 지급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52.7%가 시급(매우시급+시급)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시급하지 않다'는 19.8%에 불과하여 시급성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권역별로 도심권은 '시급함'이 54.8%, '시급하지 않음'이 24.2%'로 시급하다고 한 응답이 배를 넘고 있어 시급성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출판업에서 시급하다는 응답비율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사업지원서비스업 약60%, 전문서비스업 5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은 여성고용에 대한 장려금 지급의 시급성에서 '시급함'이 약 45%로 나타난 반면, '시급하지 않음'은 19.5%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장려금 지급의 시급성은 교육서비스업이 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전문서비스업 5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북권은 여성고용에 대한 장려금 지급의 시급성에서 '시급함'이 65.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은 타 권역과 비교해 볼 때도 높은 비율이다. 업종별로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여성친화적 업종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장려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남권은 여성고용에 대한 장려금 지급의 시급성에서 '시급함'이 약 52%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 72.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4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나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 그동안 여성진출이 활성화되지 않은 업종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를 찾을 수 있다.

서북권은 여성고용에 대한 장려금 지급의 시급성에서 '시급함'이 약 47%로 나타나고 있고, 업종별로 전문서비스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5.6%, 보건업 52.5%, 출판업 50.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62▐ 권역·업종별 여성고용에 대한 장려금 지급의 시급성

단위: 개, %, 점

구 분		전체 응답업체수	시급하지 않음	그저그러함	시급함	평균
전 체		**2500 (100.0)**	**19.8**	**27.5**	**52.7**	**3.43**
도심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26.0	28.0	46.0	3.13
	출판업	100	11.0	18.0	71.0	4.01

구 분		전체 응답업체수	시급하지 않음	그저그러함	시급함	평균
	전문서비스업	103	31.1	17.5	51.5	3.22
	사업지원 서비스업	102	14.7	25.5	59.8	3.56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38.9	15.8	45.3	3.07
	소 계	500	24.2	21.0	54.8	3.40
동남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4	19.2	37.5	43.3	3.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4	30.8	42.3	26.9	2.93
	전문서비스업	103	16.5	33.0	50.5	3.4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99	28.3	41.4	30.3	3.00
	교육 서비스업	103	2.9	24.3	72.8	4.10
	소 계	513	19.5	35.7	44.8	3.34
동북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35.2	28.4	36.4	2.9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23.0	15.0	62.0	3.54
	교육 서비스업	107	4.7	21.5	73.8	3.83
	보건업	99	6.1	16.2	77.8	4.07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6.9	18.8	74.3	3.87
	소 계	495	14.5	19.8	65.7	3.67
서남권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98	25.5	42.9	31.6	3.0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10.0	28.0	62.0	3.6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26.0	25.0	49.0	3.2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0	22.0	35.0	43.0	3.19
	교육 서비스업	102	2.0	25.5	72.5	4.06
	소 계	500	17.0	31.2	51.8	3.45
서북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44.6	29.2	26.2	2.69
	출판업	113	21.2	28.3	50.4	3.40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6	2.8	41.7	55.6	3.75
	전문서비스업	112	15.2	25.9	58.9	3.53
	보건업	101	15.8	31.7	52.5	3.50
	소 계	492	23.6	29.7	46.7	3.29

다.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훈련시설의 확충 및 지원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훈련시설의 확충 및 지원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45%만가 시급(매우시급+시급)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권역별로 도심권 응답자의 48%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반면,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은 약 30%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출판업에서 응답업체의 60%가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훈련시설의 확충 및 지원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남권은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훈련시설의 확충 및 지원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나 타 권역의 응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시급성의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동남권에 속한 여성인력개발기관은 타 권역에 비해 적으며 사업체 및 종사자 수에 비하여도 월등하게 적은 편이다. 아마도 각종 사업체가 집중됨에 따라 공공기관 외에 교육훈련 기관이 많은 이유로 해석된다.

동북권은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훈련시설의 확충 및 지원이 시급하다는 응답비율이 55.6%로 시급성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이 모두 응답업체의 60%이상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남권은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훈련시설의 확충 및 지원이 시급하다는 응답비율이 41.4%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교육서비스업에서 시급함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 46%로 나타났다.

서북권은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훈련시설의 확충 및 지원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39.6%로 타 권역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6%, 전문서비스업 5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63▐ 권역·업종별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훈련시설의 확충 및 지원의 시급성

단위: 개, %, 점

구 분		전체 응답업체수	시급하지 않음	그저그러함	시급함	평균
전 체		**2500 (100.0)**	**25.5**	**29.6**	**44.9**	**3.21**
도심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29.0	21.0	50.0	3.12
	출판업	100	17.0	23.0	60.0	3.46
	전문서비스업	103	35.0	23.3	41.7	3.04
	사업지원 서비스업	102	21.6	30.4	48.0	3.37

구 분		전체 응답업체수	시급하지 않음	그저그러함	시급함	평균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46.3	13.7	40.0	2.76
	소 계	500	29.6	22.4	48.0	3.15
동남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4	18.3	39.4	42.3	3.2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4	23.1	47.1	29.8	3.06
	전문서비스업	103	22.3	30.1	47.6	3.2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99	52.5	32.3	15.2	2.58
	교육 서비스업	103	5.8	30.1	64.1	3.82
	소 계	513	24.2	35.6	40.0	3.20
동북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39.8	26.1	34.1	2.9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42.0	13.0	45.0	3.02
	교육 서비스업	107	9.3	29.0	61.7	3.59
	보건업	99	4.0	27.3	68.7	3.80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5.9	28.7	65.3	3.79
	소 계	495	19.6	24.8	55.6	3.44
서남권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98	25.5	38.8	35.7	3.0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24.0	30.0	46.0	3.21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25.0	40.0	35.0	3.0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0	44.0	28.0	28.0	2.71
	교육 서비스업	102	8.8	29.4	61.8	3.80
	소 계	500	25.4	33.2	41.4	3.18
서북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42.3	30.0	27.7	2.70
	출판업	113	30.1	31.9	38.1	3.03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6	11.1	33.3	55.6	3.50
	전문서비스업	112	21.4	27.7	50.9	3.30
	보건업	101	24.8	36.6	38.6	3.20
	소 계	492	28.9	31.5	39.6	3.07

라. 채용박람회 등 여성채용정보제공의 활성화

채용박람회 등 여성채용정보 제공의 활성화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44.5% 시급(매우시급+시급)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권역별로 도심권은 시급하다는 응답이 약 49%인데 반해 시급하지 않다는 32.6%로 시급하다는 응답비율이 높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

업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출판업이 5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남권은 채용박람회 등 여성채용정보제공의 활성화에 대한 시급성 정도에 대해 응답업체의 약 41%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업종별로 교육서비스업이 응답업체의 65%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이 전문서비스업 49.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북권은 채용박람회 등 여성채용정보제공의 활성화에 대한 시급성 정도에 대해 응답업체의 절반가량인 50%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업종별로 시급하다는 응답은 사회복지서비스업 60.4%, 교육서비스업 59.8%,보건업 58.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남권은 채용박람회 등 여성채용정보제공의 활성화에 대한 시급성 정도에 대해 응답업체의 38.2%만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여 타 권역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시급하다는 응답은 교육서비스업 65.7%로 가장 높다.

서북권은 채용박람회 등 여성채용정보제공의 활성화에 대한 시급성 정도에 대해 응답업체의 44.3%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업종별로 시급하다는 응답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이 72.2%로 나타나 가장 높은 시급성 정도를 보이고 있다.

▌표 Ⅲ-64▐ 권역·업종별 채용박람회 등 여성채용정보제공 활성화의 시급성

단위: 개, %, 점

구 분		전체 응답업체수	시급하지 않음	그저그러함	시급함	평균
전 체		**2500 (100.0)**	**29.9**	**25.6**	**44.5**	**3.16**
도심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39.0	16.0	45.0	2.97
	출판업	100	24.0	20.0	56.0	3.38
	전문서비스업	103	38.8	22.3	38.8	2.93
	사업지원 서비스업	102	12.7	20.6	66.7	3.8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49.5	11.6	38.9	2.69
	소 계	500	32.6	18.2	49.2	3.16
동남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4	19.2	37.5	43.3	3.2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4	40.4	30.8	28.8	2.91
	전문서비스업	103	34.0	16.5	49.5	3.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99	54.5	29.3	16.2	2.53
	교육 서비스업	103	7.8	27.2	65.0	3.78
	소 계	513	31.0	28.3	40.7	3.13
동북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50.0	22.7	27.3	2.7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49.0	10.0	41.0	2.86

구 분		전체 응답업체수	시급하지 않음	그저그러함	시급함	평균
	교육 서비스업	107	10.3	29.9	59.8	3.54
	보건업	99	6.1	35.4	58.6	3.66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9.9	29.7	60.4	3.65
	소 계	495	24.2	25.7	50.1	3.30
서남권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98	27.6	37.8	34.7	3.0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29.0	44.0	27.0	2.9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32.0	31.0	37.0	3.0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0	51.0	23.0	26.0	2.60
	교육 서비스업	102	8.8	25.5	65.7	3.80
	소 계	500	29.6	32.2	38.2	3.08
서북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40.8	17.7	41.5	2.97
	출판업	113	31.0	29.2	39.8	3.06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6	11.1	16.7	72.2	3.81
	전문서비스업	112	30.4	24.1	45.5	3.14
	보건업	101	31.7	26.7	41.6	3.08
	소 계	492	32.1	23.6	44.3	3.11

마. 여성재직자의 근로능력향상(재직자 훈련 활성화)

여성재직자 근로능력향상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44.5% 시급(매우시급+시급)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권역별로 도심권은 시급하다는 응답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은 36%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출판업에서 시급하다는 응답은 응답업체의 56%가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남권은 여성재직자의 근로능력향상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41.5%로 나타났고, 업종별로 교육서비스업에서 응답업체의 약 72%가 재직자 훈련 활성화가 시급함을 나타냈고, 다음이 전문서비스업 51.5%로 나타났다.

동북권은 여성재직자의 근로능력향상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52.7%로 타 권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여성친화적 업종을 세 개나 포함하고 있는 이유로 해석된다.

서남권은 여성재직자의 근로능력향상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42.8%로 나타났고, 업종별로 교육서비스업에서 응답업체의 약 67.6%가 재직자 훈련 활성화가 시급함을 나타냈고, 그

외의 업종에서는 모두 응답업체의 약 35% 내외가 시급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북권은 여성재직자의 근로능력향상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40.2%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72.3%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여 높은 시급성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이 교육서비스업은 응답업체의 68.3%가 시급하여 비교적 높은 시급성 정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은 시급하다는 응답이 21%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65▐ 권역·업종별 여성재직자 근로능력향상의 시급성

단위: 개, %, 점

구 분		전체 응답업체수	시급하지 않음	그저그러함	시급함	평균
전 체		**2500 (100.0)**	**29.0**	**26.5**	**44.5**	**3.17**
도심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46.0	17.0	37.0	2.74
	출판업	100	30.0	14.0	56.0	3.32
	전문서비스업	103	35.0	15.5	49.5	3.10
	사업지원 서비스업	102	21.6	29.4	49.0	3.44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48.4	17.9	33.7	2.65
	소 계	500	36.0	18.8	45.2	3.06
동남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4	19.2	34.6	46.2	3.3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4	32.7	41.3	26.0	3.00
	전문서비스업	103	23.3	25.2	51.5	3.2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99	54.5	34.3	11.1	2.42
	교육 서비스업	103	1.9	26.2	71.8	3.98
	소 계	513	26.1	32.4	41.5	3.20
동북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38.6	39.8	21.6	2.7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51.0	13.0	36.0	2.79
	교육 서비스업	107	7.5	27.1	65.4	3.68
	보건업	99	4.0	32.3	63.6	3.80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7.9	19.8	72.3	3.80
	소 계	495	21.2	26.1	52.7	3.38
서남권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98	23.5	38.8	37.8	3.1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27.0	37.0	36.0	3.09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41.0	25.0	34.0	2.93

구 분		전체 응답업체수	시급하지 않음	그저그러함	시급함	평균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0	38.0	24.0	38.0	2.85
	교육 서비스업	102	2.9	29.4	67.6	3.96
	소 계	500	26.4	30.8	42.8	3.20
서북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56.9	22.3	20.8	2.53
	출판업	113	27.4	29.2	43.4	3.12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6	19.4	33.3	47.2	3.33
	전문서비스업	112	26.8	19.6	53.6	3.27
	보건업	101	32.7	22.8	44.6	3.16
	소 계	492	35.6	24.2	40.2	3.02

Ⅳ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안

Ⅳ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안

1.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향

1) 지역 특성과 산업과의 연계

오늘날 정보사회 혹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서울시 산업구조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산업사회 시대의 제조업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제3차 산업 중심의 서비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더라도 서울시를 권역별로 좀 더 세분화해보면 다른 특징을 보인다.

그것은 각 지역의 전통적인 발전산업과 서울시의 산업정책 및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각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은 이와 같은 고용시장의 환경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력개발을 특성화하기 위해 권역의 업종별 산업체 분포를 분석하였고, 이들 업종의 사업체 여성종사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여성친화업종 뿐 아니라, 여성의 진출가능성이 높은(여성종사자 비율이 30~50%) 업종 등을 고려하여 권역의 특성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사업체의 구인수요 및 특성 반영

사업체의 인력수요는 성별로 명확하게 분리되거나 구분되지 않으며, 업종이나 직종에 따라 선호되는 성별은 있어도 성별을 구별하여 채용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번 사업체 인력수요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 선호가 30.5%인 반면, 남성 선호는 약 15%로 나타났고, 성별 무관하다가 약 55%로 85%이상이 여성인력의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을 선호하는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이나 사회서비스업 등 전통적으로 여성친화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며, 반대로 남성 선호는 운송업이나 건축업 등 신체적·물리적으로 남성친화적 업종에서 성별 조건을 필요로 하고 그 밖에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는 과학기술 및 컴퓨터 관련 업종 등에서 성별 무관으로 응답하고 있어 이와 같은 업종에서도 여성인력개발의 방향을 확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3) 권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관련 물적 기반과 연계

각 권역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관으로는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한 취·창업 연계 기관 등이 있다.

능력개발기관으로는 직업훈련기관으로 노동부나 여성가족부와 연계된 직업훈련기관, 각 시·도의 여성인력개발기관, 시·군·구의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 여성회관이 있다. 중앙부처와 연계된 여성능력개발기관은 각 권역의 인력개발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 4개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가 있으며, 여성을 위한 능력개발기관으로 서울여성능력개발원, 4개 발전센터, 15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다. 이외에 자치구별로 여성교양교실이나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관들이 여성의 직업교육 및 능력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마친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기관이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관으로 여기에는 취·창업과 관련한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각종 기관을 포함한다. 취·창업 연계기관은 크게 주체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며, 직업상담이나 정보제공 방식에 따라 인터넷 포털 싸이트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온라인 방식과 방문을 통한 상담 및 조사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력개발의 주요대상을 경력단절여성으로 하여 능력개발의 수준이 고도의 전문지식이 아닌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취·창업으로 연계하는 범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각 권역별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의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요소 도출

가. 도심권

1) 도심권역의 인적·물적·산업체 특성

① 여성인적자원의 특성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가 속해 있는 도심권은 전체 서울 인구분포의 10.0%를 차지하며 권역별로는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도심권의 여성 인구 분포는 50.4%로 남성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서울 여성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2008 서울 통계연보) 전체 여성 중 거주인구 비중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심권 여성인적자원의 특징으로 학력 정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초졸이하(21.2%), 중졸(13.2%) 등의 저학력층 분포가 서울시 전체 평균(초졸이하 19.4%, 중졸 11.2%)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대학이상의 학력비율은 서울시 평균보다 1.5%p 낮은 34.6%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Ⅳ-1▐ 도심권 여성인적자원의 학력분포

(단위: 명, %)

구 분	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이상
전 체	4,660,085	19.4	11.2	32.3	36.1
종로구	74,198	20.9	12.7	29.0	37.3
중 구	60,181	22.4	14.2	32.5	31.0
용산구	103,080	19.8	12.0	30.2	38.1
성북구	209,826	21.7	13.9	32.4	32.0
소 계	444,285	21.2	13.2	31.0	34.6

자료: 통계청(2005), 인구주택 총조사

② 도심권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도심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은 〈표 Ⅳ-2〉와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관련 시설수는 8개, 대학교는 11개, 공공직업훈련기관은 3개로 나타났다. 여성관련시설수는 전체 권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학교 수는 서울 전 권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 도심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단위: 개

구분	총계	물적 기반 현황	비고
여성관련 시설	8	봉제여성지원센터, 동부여성문화센터,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중구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성북여성회관, 성북여성교실	– 이용대상이 주로 여성으로 전업주부로 경력단절 여성이 이용대상층임
대학	16	성균관대학교, 상명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배화여자대학, 동국대학교, 숭의여자대학, 경화예술대학, 숙명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성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서경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동방대학원대학교, 동덕여자대학	– 정규교육과정으로 이론적, 전문적 수준이 높음
공공직업 훈련기관	4	(재)서울직업 전문학교, 우성예술직업 전문학교, 예원미용학원, 노동부지정대양 직업전문학교	– 이용대상은 서울시민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함
취창업 알선기관	7	용산구청 내 ‘취업정보은행,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장위종합 사회복지관, 월곡종합 사회복지관	– 직업훈련 이수후 인력의 활용을 위한 취창업 알선기관

해당자치구에 포함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도심권에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2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체계적인 인력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타 기관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업훈련 교육과 함께 생활문화 및 교양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교육훈련의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다.

▌표 Ⅳ-3▐ 도심권 자치구별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 현황

해당자치구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기 타
계(개소)	-	2	6
종로구	-	- 종로센터	- 봉제여성지원센터 - 동부여성문화센터
중 구	-	-	- 중구여성회관
용산구	-	- 용산센터	- 용산문화회관
성북구	-	-	- 성북여성회관 - 성북여성교실

요약하면, 도심권 거주여성의 비중은 낮지만, 인적자원의 환경은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다. 도심지역은 수 개의 대학교가 밀집해있고, 각종 공공훈련기관과 알선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인력개발과 관련해서 거주인구가 적어 이 권역에는 2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있으나 그 외 자치구 차원에서 여성회관 및 여성교실과 다른 공공직업훈련 기관이 있어 다양한 훈련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2) 도심권의 산업정책 방향 및 사업체 분포 특성

도심권에는 전체 712,848개 사업체 가운데 20%인 142,915개 사업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서울시 전체 종사자의 19.9%인 787,733명이 있다. 도심권에 거주하는 인구분포가 서울 전체의 약 10%를 웃돌고 있으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율을 보면 서울시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도심권에 거주권역 보다는 사업체의 집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기타 제품 제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분포비율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와 같은 업종에 필요한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권역특성에 기초하여 기존의 문헌에서는 도심권의 특성화 산업으로 패션·문화, 특수인쇄나 출판, 홍보물 제작,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산업정책의 성장 전략방향은 사업체의 발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서울시는 최근 산업뉴타운 계획에 따라 도심권역을 귀금속(종로구), 금융(중구), IT 및

R&D(성북구), 국제업무(용산구)로 발전시킬 전략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정책의 전략방향은 시계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전문 기술 수준에 있어서 전 범위를 망라하고 있어서 전문성 수준과 고난이도의 기술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서 서울시 여성인적자원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산업에서 파생할 수 있는 비교적 전문기술 수준이 낮은 차원에서 특성화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Ⅳ-4▐ 도심권의 산업체 특성에 따른 특성화 업종선정 결과

산업체 및 종사자 수	집중산업 및 기존 특화 산업	서울시 산업정책	기존문헌	최종 선정 업종
– 사업체수: 142,915(20.0%) – 종사자 수: 787,733(19.9)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기타제품제조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1차 산업뉴타운 – 종로구: 종로 귀금속 육성계획 – 중구: 국내주요 은행 본점 등 267개 금융 관련업이 밀집, 금융 중심권역으로 발전 ○ 2차 산업뉴타운 – 성북구: IT – 용산구:국제업무 – 성북구:R&D	– 특수인쇄, 출판, 홍보물 제작 – 금융 및 보험업 등	①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② 출판업 ③ 전문서비스업 ④ 사업지원서비스업 ⑤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도심권 여성인력개발의 특성화 방향

① 출판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인력수요의 증가 경향

도심권의 조사업종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출판업,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2009년을 기준으로 전후3년간의 채용인원 및 예정인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특징적인 것은 2009년 상반기 까지 채용인원에 비해 향후 채용계획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인력수요가 경제상황이나 경기 변화 등 거시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인력수요는 단지 해당 업종의 인력수요를 예측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출판업,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이전3년간의 채용인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점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증가 추이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나 전문서비스업의 인력채용 규모는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Ⅳ-5▐ 도심권 조사업종별 인력채용 규모 및 추이

(단위: 개, 명)

구 분	사업체수	2007	2008	2009 상반기	2009 하반기	2010	2011
전 체	500	1,902	2,785	5,223	647	840	560
출판업	100	208	295	264	100	39	2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133	136	302	27	11	3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501	781	1,036	73	48	1
사업지원 서비스업	102	1,023	1,439	3,182	335	558	500
전문서비스업	103	37	134	439	112	184	29

② 조사업종별 필요 채용직종의 파악

사업체가 생산하는 고유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른 업종분류와 필요 인력을 채용하는데 따른 업무를 구분하는 직종은 차이가 있다.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직종에 따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채용 직종을 조사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채용예정인원을 조사하였으나, 채용 규모가 매우 작으므로 여기서는 새로이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직종을 도출하는데 필요 채용 직종을 참고하고자 한다). 다만, 업종별로 필요 채용 직종에는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직종이 있다. 예를 들면,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 등은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훈련 과목으로 인성교육이나 직업의식 함양, 컴퓨터 활용 능력은 여성의 직업과정 참여를 위한 기초 교육으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직업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Ⅳ-6▐ 업종별 예상 채용직종 및 교육훈련 과목

업종	필요 채용 직종	교육훈련 과목
출판업	– 작가 및 출판 관련직 –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 관리 – 기자 – 디자인 관련직 – 영업원 및 판매원	편집디자인, 취재능력, 출판편집교정, 시각디자인, 디지털 편집디자인, 웹 및 영상,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직물·모파가죽·의복 가공 관련직 – 생산 관련 단순직	봉재, 미싱숙련, 의복제작, 영업실무 및 마케팅전략, 비즈공예, 홈패션, 의류제작 및 리폼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 관리 – 창작 및 공연 관련직 –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직	영업 실무 및 마케팅 전략, 홍보마케팅, 미술전시 관련 업무, 헬스트레이너 과정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 안내 및 고객관련 서비스직 – 비서 및 사무보조원 – 작가 및 출판 관련직 –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친절교육, 서비스 교육, 병원코디네이터, OA 회계, 컴퓨터 응용설계, (토파스,아바코스) 예약 발권 프로그램, 보석감정 및 감별 등
전문서비스업	– 비서 및 사무보조원 –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 작가 및 출판 관련직, 기자 – 디자인 관련직	영어회화, 제도사(캐드윈), 컴퓨터정보시스템, 멀티미디어 디자인, 출판디자인, 제품디자인, 광고디자인, 포토샵·일러스트

③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 분야

조사업종에 대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활용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500개 업체 가운데 약 30.5%가 활용하고 있거나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업종별 주요 활용업무는 다음 표와 같다.

출판업에서는 총 100개 업체 가운데 46개 사업체에서 응답하였고, 편집 및 출판디자인이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이 담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무로 꼽았고, 다음이 회계 및 서무 등 사무직, 판매영업, 취재기자와 편집 및 교정업무 등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활용업무의 범위가 좁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는 총 95개 업체 가운데 33개 업체가 응답하였고, 홍보 및 마케팅 업무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이 하기에 적합한 업무로 꼽았으며, 그 외에 건강코치, 공연 및 문화기획, 웹·출판·기획, 큐레이터, 기자, 기록·사서, 문화 가이드 등을 활용업무로 꼽았다. 사업지원서비스업은 102개 조사업체 가운데 27개 업체만이 활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징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4순위와 5순위에 나타난 기획·홍보, 상담관리, 토목·측량 기술 등과 보석감정이나 편집디자인 등은 다소 전문적이어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이 일정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된다. 전문서비스업은 회계 및 세무 등 사무직을 제외

하고 제품·시각·편집 등디자인, 광고제작 및 영업, 면접원이나 제품모니터링, 번역 등의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표 Ⅳ-7▐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주요 활용업무-업종별 순위

단위: 개

구분	출판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조사업체수	100	100	95	102	103
응답업체수	46	16	33	27	31
1순위	편잡·출판디자인	회계·세무 및 경리 등 사무직	홍보 및 마케팅	회계 및 세무회계	회계, 세무 등사무직
2순위	회계·서무등 사무직	제품생산, 재봉	건강코치	영업 및 판매	제품·시각·편집 등 디자인
3순위	판매영업/TM영업	의상·의류디자인	공연 및 문화기획	총무	광고제작 및 영업
4순위	취재기자, 기자	영업 및 마케팅	웹출판·기획	기획·홍보, 상담관리, 토목·측량기술 등	면접원, 제품모니터링, 번역
5순위	편집 및 교정	-	큐레이터, 기자, 기록·사서, 문화가이드 등	보석감정, 편집디자인	건축설계, 화물조사 및 검사
기타	- 웹디자인, 디지털 편집, 포토샵 그래픽 - 출판 및 공연기획 등	-	-	- 통역사, 장의·웨딩 도우미 등 - 출판 및 리서치	-

4) 도심권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의 방향

도심권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의 방향을 업종별로 5순위까지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출판업은 편집디자인, 취재능력, 출판편집교정, 인성교육 및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이 제시되었다.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봉제, 미싱숙련, 의복제작 등 기능적인 교육훈련 내용이 제시되었으며, 그 외 영업실무, 마케팅 전략, 인성교육이 제시되었다.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관련하여는 '인성교육'이 가장 우선순위로 나타났으며, 전산 경리 회계, 영업, 영업실무, 마케팅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컴퓨터활용능력, OA회계, 병원코디네이터, 친절 및 서비스교육, 보석감정 및 감별 교육이 제시되었다. 전문서비스업 역시 '인성교육'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고, 이외 컴퓨터 활용능력, 영어회화, 전산경리 회계 등의 과목이 제시되었다.

▌표 Ⅳ-8▐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요

구분	출판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1순위	편집디자인	봉제	인성교육	컴퓨터활용능력	인성교육
2순위	취재능력	미싱숙련	전산경리회계	OA회계	컴퓨터 활용능력
3순위	출판편집교정	의복제작	영업, 영업실무, 마케팅	병원코디네이터	영어회화, 영어
4순위	인성교육	영업실무,마케팅전략	전산사무	친절 및 서비스 교육	전산경리회계
5순위	컴퓨터활용능력	인성교육	홍보마케팅,미술전시관련업무,헬스트레이너, 요가 등	보석감정, 감별	컴퓨터정보시스템
기타	-직업의식함양 -인쇄관련조작 -디지털그래픽 편집디자인 등	-창작공예 -의류제작 및 리폼	-	-	제도사,세무전산,엑셀, 등

나. 동남권

1) 동남권역의 인적·물적·산업체 특성

① 여성인적자원의 특성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가 속해 있는 도심권은 전체 서울 인구분포의 23.2%를 차지하며 권역별로는 동북권(24.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동남권의 여성 인구 분포는 50.8%로 남성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서울 여성의 2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8 서울 통계연보). 다음, 동남권 여성인적자원의 특징으로 거주인구의 학력 정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초졸이하 16.2%, 중졸 10.1% 나타나 저학력층 분포가 서울시 전체 평균(초졸이하 19.4%, 중졸 11.2%)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고졸 29.1%로 서울시 전체 평균 32.3%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대학이상 학력층은 44.7%로 서울시 전체 평균 36.1%보다 8.6%p 높게 나타나 동남권 권역 여성인적자원의 고학력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고학력특성은 여성인력개발의 특성화 방안수립에도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Ⅳ-9▐ 서울시 여성인구의 권역별 교육정도별 분포

구 분		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이상
전 체		4,660,085	19.4	11.2	32.3	36.1
동남권	서초구	181,095	12.4	7.3	22.8	57.5
	강남구	253,035	12.1	7.3	24.5	56.1
	송파구	277,755	16.4	10.1	31.1	42.5
	강동구	210,484	18.3	12.4	35.3	33.9
	성동구	152,684	21.6	13.4	31.7	33.3
	소 계	1,075,053	16.2	10.1	29.1	44.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② 동남권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기반

한편, 동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은 〈표 Ⅳ-10〉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관련 시설수는 12개로 권역별로 비교해 볼 때 서남권(15개)과 서북권(14개)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역 대학은 전 권역 중 유일하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은 3개, 취창업알선기관은 6개로 나타났다.

▌표 Ⅳ-10▐ 동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단위: 개

구분	총계	물적 기반 현황	비고
여성관련 시설	12	서초여성회관, 서초문화센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송파여성문화회관, 여성교실,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구민회관,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성동종합사회복지관	- 이용대상이 주로 여성으로 전업주부로 경력단절여성이 이용대상층임
대학	-	-	- 정규교육과정으로 이론적, 전문적 수준이 높음
공공직업 훈련기관	3	정우직업전문학교, 국제비즈니스교육원, 서울시립종합직업전문학교	- 이용대상은 서울시민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함
취창업 알선기관	6	송파 행복 나눔 일자리센터, 성동구청 사회복지과 취업정보은행, 성동구청 권역경제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직업훈련 이수후 인력의 활용을 위한 취·창업 알선기관

또한 해당자치구에 포함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동남권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인력개발기관은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와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로 2곳이며,

전체 여성 인구비중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다. 동남권의 사업체 및 근로자 분포를 고려할 때, 많은 수요가 발생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여성인력개발기관의 한계는 자치구 차원에서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데 서초구가 여성회관과 문화센터, 강남구의 여성능력개발센터, 송파구의 문화회관과 여성교실, 여성능력개발센터, 강동구 구민회관, 성동구의 구민회관, 청소년수련관, 2개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여성능력개발 교육수요를 담당함으로써 타 권역보다 자치구 차원의 교육훈련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볼 수 있다.

▌표 Ⅳ-11▐ 동남권 자치구별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 현황

해당구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기 타
계(개소)	-	2	11
서초구	-	- 서초센터	- 여성회관 - 문화센터
강남구	-	-	- 여성능력개발센터
송파구	-	-송파센터	- 문화회관 - 여성교실 - 여성능력개발센터
강동구	-	-	- 구민회관
성동구	-	-	- 구민회관 - 청소년수련관 - 옥수종합사회복지관 -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요약하면, 동남권은 비교적 많은 여성인구에 비해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교육수요자인 여성들의 욕구가 다양한 교육훈련기관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인구의 특성에서도 나타났듯이 고학력 여성비율이 높아 인력개발의 방향도 이러한 인력특성을 반영하여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2) 동남권 산업정책의 방향 및 사업체 분포 특성

동남권에는 전체 712,848개 사업체 가운데 24.9%인 177,346개 사업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서울시 종사자의 33.4%인 1,322,239명이 있어서 사업체 및 종사자가 전체 비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남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서울시의 약 23%로 1/5을 넘고 있고 사업체 및 종사자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체

및 종사자의 활발한 활동을 추측할 수 있다.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 등 공통적으로 비율이 높은 업종을 제외하고 종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출판업, 금융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다른 권역에 비해 사업체 및 종사자 분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이 다수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종에 필요한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문헌에서 동남권역이 사업서비스업, 게임과 디지털 컨텐츠를 전략산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산업정책의 전략적 방향으로 동남권역에 포함된 자치구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면, 1차 산업뉴타운 권역으로 성동구의 성수 IT산업, 서초구의 양재 R&D가 있으며, 기존 예정산업 클러스터로써 성동구의 패션, 강동구 지식정보, 송파구의 IT 및 바이오, 강남구의 R&D가 제시되어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 여성인적자원개발 현장전문가와 권역의 전문가의 정성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Ⅳ-12▐ 도심권의 산업체 특성에 따른 특성화 업종

산업체 및 종사자 수	집중산업 및 기존 특화 산업	서울시 산업정책	기존문헌	최종 선정 업종
- 사업체수: 177,346(24.9%) - 종사자 수: 1,322,239(33.4%)	- 종합건설업 - 전문직별 공사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출판업 - 금융업 -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등	○1차 산업뉴타운 - 성동구: 성수IT - 서초구: 양재 R&D ○2차 산업뉴타운 - 성동구: 패션 - 강동구: 지식정보 - 송파구: IT,바이오 - 강남구: R&D	- 사업서비스업 - 게임과 디지털 콘텐츠	①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②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③ 전문서비스업 ④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

3) 동남권 여성인력개발의 특성화 방향

① 의류 및 패션,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및 통신장비 제조, 전문서비스업에서 인력수요 증가

총513개 사업체의 인력채용 추이는 다음 표와 같이 2009년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 동안 채용규모는 비교적 많은 편이나 2010년과 2011년의 채용예정 인원은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104개 조사 대상업체에서 '07년부터 '09년까지 총 1,680명을 채용하고 있어 인력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09년

이후는 인력수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나 이전의 3년간의 추세에 따르면 매해 일정한 규모의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이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채용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전3년 기간동안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문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07년이후 '09년까지 채용인력의 규모가 배가 되고 있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분야에서도 꾸준한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요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표 Ⅳ-13▐ 동남권 조사업종별 인력채용 규모 및 추이

단위: 개, 명

구 분	사업체수	2007	2008	2009 상반기	2009 하반기	2010	2011
전 체	513	1,262	2,442	2,159	217	145	109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4	349	849	482	47	0	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4	354	699	388	15	4	1
전문서비스업	103	252	452	854	84	60	5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99	135	207	122	37	30	17
교육 서비스업	103	172	235	313	34	51	32

② 조사업종별 필요 채용직종

동남권의 조사업종으로는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이다.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에 포함된 직종은 직물이나 모피, 가죽, 의복가공 관련직, 디자인 관련직과 영업원 및 상품 중개인 등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교육과목으로는 미싱견습, 패션디자인, 봉제 등으로 주로 제조업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필요한 직종으로는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건설기계 운전원, 전기·전자 공학기술자,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제조 장치 조작원, 컴퓨터 및 정보관련 시스템 관련직이다. 이로써 공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며, 이외에 제도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전자회로 설계 시험, 맥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의 고난도 교육을 필요로 한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포함된 채용직종으로는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직,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직, 전기·전자공학 기술

직으로 정보통신,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분석 관리 등을 교육 훈련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남권의 교육서비스업은 주로 유아 교육 관련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직업상담이나 유아심리, 학부모 상담, 보육교사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4▐ 업종별 예상 채용직종 및 교육훈련 과목

업 종	필요 채용 직종	교육훈련 과목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직물, 모피, 가죽, 의복가공 관련직 - 디자인 관련직 - 영업원 및 상품 중개인	미싱견습, 패션디자인, 봉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 건설기계 운전원 - 전가전자공학 기술자 - 전가전자부품 및 제품제조 장치 조작원 -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제도사(캐드윈),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IT기본, 전자회로 설계·시험, 컴퓨터 홈페이지 관리, 컴퓨터 그래픽, 맥스, 시스템 소프트 웨어 개발자, 웹 및 영상, 전자부품 설계, 전기공사설계 및 견적, 전자회로 활용 전문가 과정 등
전문서비스업	- 인문· 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디자인 관련직	영어회화, 제도사(캐드윈), 컴퓨터정보시스템, 멀티미디어 디자인, 출판디자인, 제품디자인, 광고디자인, 포토샵·일러스트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 -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 전가전자공학 기술자(엔지니어)	정보통신, 컴퓨터 정보시스템, 포토샵, 일러스트, 컴퓨터 마스터, 네트워크 시스템 분석 관리 등
교육 서비스업	- 학교교사 - 학원강사 -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 아동/안전교육, 직업상담, 보육교사,유아심리, 학부모 상담, 유아심리, 종이접기, 구연동화, 보육교사 재교육

③ 동남권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분야

조사업종에 대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활용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513개 업체 가운데 약 35.7%가 활용하고 있거나 예정이라고 응답하였고 이는 타 권역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난 것이다. 동남권에 포함된 업종별 주요 활용업무는 다음 표와 같다.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에서는 총 104개 업체 가운데 30개 사업체에서 응답하였고, 의상 및 의류디자인이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이 담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무로 꼽았다. 2, 3순위 모두 패션 및 제품 디자인 관련 업무로 고학력 여성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영업 및 판매, 무역사무, 총무·사무직 등을 꼽고 있다.

다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는 총 103개 업체 가운데 17개(16.5%)만이 응답하고 있어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업종에서 고학력 경력

단절여성에 대한 활용업무 분야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활용가능한 업무가 제시되었는데, IT 및 소프트웨어 등 제품개발, 사무직으로 세무 및 회계, 무역 및 회화, 제품 생산 및 관리,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등의 업무가 제시되었다.

전문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104개 업체가운데 32개 업체가 응답하여 30.1%의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활용업무로 1순위는 컴퓨터 그래픽, 실내인테리어 디자인을 꼽았고, 다음이 금융컨설팅, 세무·경리업무를 꼽고 있다. 이 외에도 광고제작이나 홍보, 영업 및 판매, 금융 전문 사무직도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이 담당하였으면 하는 업무로 제시되었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은 99개 조사업체 가운데 18(18.2%)개 업체만이 활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활용업무로는 건축설계나 전기, 조경, 토목, 구조 등과 관련한 각종 설계업무를 꼽고 있다. 이 외에 광고영업이나 홍보마케팅, 도시계획 엔지니어, 측량, 기계장치 설비검사 등이 제시되었다.

교육서비스업은 총 103개 조사업체 가운데 62개 업체가 응답하여 60%가 넘는 응답률을 보여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활용범위가 비교적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가 1순위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교사, 보육도우미, 학원강사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Ⅳ-15▐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주요 활용업무-업종별 순위

단위: 개

구분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조사업체수	104	103	104	99	103
응답업체수	30	17	32	18	62
1순위	의상 및 의류디자인	IT, 소프트웨어 등 제품개발	컴퓨터그래픽, 실내인테리어 등 디자인	건축설계	보육교사
2순위	패션디자인	- 사무직, 회계세무회계 - 반도체 등 제품판매	금융컨설팅	각종설계(전기, 조경, 토목, 구조등)	어린이집교사
3순위	제품디자인	무역 및 회화	세무, 경리	광고영업, 홍보·마케팅	보육도우미
4순위	영업 및 판매	제품 생산 및 관리	- 광고제작,홍보 - 영업 및 판매	회계, 세무회계	학원강사
5순위	무역사무	컴퓨터, 그래픽디자인	금융전문 관련 사무직	- 도시계획엔지니어 - 측량,기계장치설비검사	-
기타	총무, 사무직	- 반도체 연구 및 설계 - 환경전문인력, 모니터링 등	- 건축캐드 - 노무사 - 산업프리랜서 등	기사작성, 웹디자인 등	-

3) 동남권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의 방향

동남권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의 방향을 업종별로 5순위까지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은 봉제, 미싱견습, 패션디자인, 인성교육, 전산사무인력양성, 판매원을 위한 교육훈련을 내용으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종에서는 제도사, 영어회화, 엑셀 및 컴퓨터 활용능력,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IT 관련 교육으로 주로 컴퓨터 및 소프트 웨어 관련 교육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전문서비스업에서는 인성 및 직업의식 교육을 1순위 교육내용으로 제시하였고, 이외에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그래픽 디자인, 매장 전문가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서비스업은 컴퓨터활용능력이 1순위로 나타났고, 직업의식 함양교육과 정보통신, 웹 및 영상, 컴퓨터 응용설계 과정이 제시되었다. 교육서비스업과 관련해서 인성교육 및 직업의식 교육을 1, 2순위로 꼽았고, 이외에 유아전문교육, 컴퓨터 활용능력, 특기활동교육, 학부모 상담과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Ⅳ-16▐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요

구분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조사업체수	104	104	103	99	103
응답업체수	9	29	6	8	43
1순위	봉제,미싱견습	제도사(캐드윈)	인성교육,직업의식 교육	컴퓨터활용능력	인성교육
2순위	패션디자인	영어회화	– 컴퓨터활용능력 – 그래픽디자인	– 직업의식함양교육 – 정보통신,웹 및영상,컴퓨터응용설계 등	직업의식 함양
3순위	인성교육	엑셀 및 컴퓨터활용능력	매장전문가과정	–	유아교육전문성교육
4순위	전산사무인력 양성	응용소프트웨어개발	–	–	컴퓨터활용능력,특기활동교육,학부모상담등
5순위	판매원	IT관련	–	–	교사의식함양,직업상담,유아교육 등
기타	–	– 인성교육 – 웹 및 영상	–	–	–

다. 동북권

1) 동북권역의 인적·물적·산업체 특성

① 동북권 여성인적자원의 특성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가 속해 있는 동북권은 전체 서울 인구분포의 24.5%를 차지하며 서울시 권역별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동북권의 여성 인구 분포는 50.4%로 남성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서울 여성의 2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8 서울 통계연보).

다음, 동북권 여성인적자원의 특징으로 거주인구의 학력 정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초졸이하 21.4%, 중졸 14.8% 나타나 저학력층 분포가 서울시 전체 평균(초졸이하 19.4%, 중졸 11.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고졸 34.7%로 서울시 전체 평균 32.3%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대학이상 고학력층은 30.1% 서울시 전체 평균 36.1%보다 6.1%p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층이 두터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Ⅳ-17▐ 동북권 여성인구의 권역별 교육정도별 분포

구 분	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이상
전 체	4,660,085	19.4	11.2	32.3	36.1
강북구	162,746	23.9	21.5	36.2	24.6
광진구	174,513	18.2	12.2	33.4	36.2
노원구	287,770	21.2	12.2	32.3	34.3
도봉구	175,686	20.4	13.1	35.3	31.2
동대문구	175,756	22.4	14.2	33.2	30.2
중랑구	197,039	22.4	15.7	37.6	24.2
소 계	1,173,510	21.4	14.8	34.7	30.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② 동북권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기반

동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은 〈표 Ⅳ-18〉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관련 시설수는 12개, 대학교는 도봉구에 덕성여대 1 개, 공공직업훈련기관은 4개, 취창업알선기관은 4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권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취업알선기관 분포는 도봉구에 직업소개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8▐ 동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단위: 개

구분	총계	물적 기반 현황
여성관련 시설	12	강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문화예술회관, 광진문화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원구민회관, 노원문화예술회관, 도봉여성센터, 여성복지관,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일하기센터
대학	3	덕성여자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공공직업 훈련기관	4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동서울제과제빵직업전문학교, 한국소아마비협회,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취창업 알선기관	41	강북구청, 광진구 취업정보센터, 새마을 직업소개소외 37개, 중랑구청

또한 해당자치구에 포함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동북권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북부발전센터의 2개 발전센터가 있으며, 강북·노원·동대문·중랑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 비교적 교육훈련의 기회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운영하는 기관으로 광진구에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으며, 노원구에는 구민회관 및 문화예술회관이, 도봉구에는 여성센터, 동대문구에 여성복지관이 있어 여성의 능력개발 및 교양교육이 이들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Ⅳ-19▐ 동북권 자치구별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 현황

해당구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기 타
계(개소)	2	4	7
강북구	–	– 강북센터	–
광진구	여성능력개발원	–	– 문화예술회관 – 문화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원구	북부발전센터	– 노원센터	– 구민회관 – 문화예술회관
도봉구	–	–	– 여성센터
동대문구	–	– 동대문센터	– 여성복지관
중랑구	–	– 중랑센터	–

요약하면, 동북권은 거주지역의 비중이 높아 여성인구 분포도 비교적 높은편이다. 여성인적자원의 특징은 고학력층보다는 중간 학력층의 비중이 높으므로 전문성 수준이 높지 않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양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분포해 있으므로 센터별 전문분야 개발이 필요하다.

2) 동북권의 산업정책 방향 및 사업체 분포 특성

동북권에는 전체 712,848개 사업체 가운데 19.3%인 137,842개 사업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서울시 종사자의 13.1%인 520,833명이 있어서 사업체 수는 평균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종사자 비율은 낮은 편에 속한다. 동북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서울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동북권역이 주로 거주권역의 비율이 높은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 등 공통적으로 비율이 높은 업종을 제외하고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종에 필요한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문헌에서 나타나는 전략산업으로 의류 및 패션에 제한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산업정책의 전략적 방향으로 동북권역에 포함된 자치구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면, 1차 산업뉴타운 권역에 포함된 자치구는 없으며, 2차 뉴타운 권역으로 강북구가 봉제 및 섬유, 중랑구가 의류·패션, 도봉구가 섬유, 식·음료 산업으로 발전할 계획에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 여성인적자원개발 현장전문가와 권역의 전문가의 정성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종은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표 Ⅳ-20▐ 동북권의 산업체 특성에 따른 특성화 업종

산업체 및 종사자 수	집중산업 및 기존 특화 산업	서울시 산업정책	기존문헌	최종 선정 업종
- 사업체수: 137,842(19.3%) - 종사자수: 520,833(13.1%)	- 식료품 제조업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1차 산업 뉴타원 - 미지정 ○ 2차 뉴타운산업 - 강북구: 봉제·섬유 - 중랑구:의류·패션 - 도봉구: 섬유, 식음료	-의류·패션	①섬유제품 제조업 ②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③교육서비스업 ④보건업 ⑤사회복지서비스업

3) 동북권 여성인력개발의 특성화 방향

① 교육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인력수요 증가 예상

동북권의 조사업종은 의복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5개 업종이다. 섬유제품 제조업의 인력채용 규모는 '09년 이전까지도 업체당 한 해 평균 1~2명 정도로 인력수요가 거의 없

음을 알 수 있으며, '09년 하반기 이후는 거의 인력채용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력수요의 측면에서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인력수요는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09년도 하반기 이후 2010년, 2011년의 인력채용 예정규모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는 동북권에서 이와 같은 의복 및 패션과 관련하여 향후 활성화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종 모두 이전의 3년동안 인력수요의 꾸준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2009년 하반기 이후의 채용규모는 적다. 이는 불안정한 경제적 환경에 따른 것으로 이전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이 세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동북권역이 주로 주거권역으로 되어 있어 교육, 사회복지, 보건 관련 사업의 근거지는 이와 같은 주거권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Ⅳ-21▌ 동북권 조사업종별 인력채용 규모 및 추이

(단위: 개, 명)

구 분	사업체수	2007	2008	2009 상반기	2009 하반기	2010	2011
전 체	495	837	1,249	1,183	450	434	37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66	102	107	76	11	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0	66	119	180	237	356	347
교육 서비스업	107	338	513	427	49	16	3
보건업	99	172	330	235	61	10	3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195	185	234	27	41	16

② 조사 업종별 필요 채용직종의 파악

섬유제품 제조업과 관련하여 조사된 채용직종으로는 제품 등 디자인 관련직, 섬유제조 및 가공 관련 조작원, 직물·모피·가죽·의복가공 관련직이며, 이를 위한 교육과목으로는 패션이나 자수 등 디자인 관련 교육, 미싱숙련, 해외영업, 현장실무 전문교육 등이 제시되었다.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에서 필요직종으로는 디자인 관련, 영업원 및 상품 중개인, 직물·모피·가죽·의복 가공 관련직과 생산관련 단순직이 필요 채용직종으로 제시되었다. 교육서비스업은 학교교사, 강사, 보조교사 관련 직종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 강화교육, 고객상담 및 직업교육, 아동상담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훈련 과목이 제시되었다. 보건업에서는 안내 및 고객관련 서비스직, 치료사·간호사,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등 전문기술직이 필요한 직종으로 제시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주로 사회복지

분야로서 방과후 아동 돌봄을 위한 교사나 보육사 생활지도직 등이 채용 필요직종으로 제시되었다.

▌표 Ⅳ-22▐ 업종별 예상 채용직종 및 교육훈련 과목

업 종	필요 채용 직종	교육훈련 과목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디자인 관련직 –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직물, 모피, 가죽, 의복가공 관련직	패션디자인, 미싱숙련, 일어회화, 자수디자인, 해외영업, 현장실무 전문교육 등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디자인 관련직 –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 생산 관련 단순직	미싱숙련, 미싱견습, 봉제, 패션디자인, 의류관련 일본어 활용능력 등
교육 서비스업	– 학교교사 – 학원강사 – 보조교사	보육교사, 유아교육, 전문성강화교육, 고객상담 및 직업교육, 아동상담교육, 아동취미활동교육 등
보건업	– 안내 및 고객관련 서비스직 – 간호사 – 치료사 –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 보건의료 관련직 –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친절교육, 서비스교육, 병원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 고객상담, 병원서비스매니저,간병인, 물리치료사,치위생교육,전문피부관리사, 치위생사실무 등
사회복지 서비스업	– 학원강사 – 사회복지 전문직 –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 중방장 및 조리사 – 보조교사/학원보조강사	유아미술실기, 유아심리, 유아관계,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보조교사, 조리전문가 양성과정,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등

③ 동북권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분야

조사업종에 대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활용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495개 업체 가운데 약 33.9%가 활용하고 있거나 예정이라고 응답하였고 이는 타 권역과 비교하여 약간 높게 나타났다. 동북권에 포함된 업종별 주요 활용업무는 다음 표와 같다.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에서는 총 100개 업체 가운데 12개 사업체에서 응답하여 고학력 여성인력에 대한 활용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조사된 업무에는 재봉기술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꼽혔고, 다음이 패션·의상디자인과 서류 관리 등 사무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섬유제품제조업에서는 총 88개 업체 가운데 19개만이 응답하고 있어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업종에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활용업무 분야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활용가능한 업무로는 서류관리 등 사무직, 해외영업, 침구·자수·실내 인테리어 등 디자인, 재정관리 등이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업무로 제시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은 총 107개 조사업체 가운데 57개 업체가 응답하여 50%가 넘는 응답률을 보여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활용범위가 비교적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동남권과 다르게 국어, 영어, 미술 등 학원강사가 1순위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상담 및 컨설팅, 어린이집교사, 보육교사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보건업과 관련해서 99개 업체가운데 39개 업체가 응답하여 약 38%의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활용업무로 1순위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환자상담, 병원코디네이터, 물리치료사 등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이 제시되었다. 이외에 행정이나 회계, 간병, 피부관리사 등을 꼽았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01개 조사업체 가운데 41(41.0%)개 업체가 활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활용업무로는 보육교사, 보육도우미, 보육보조교사 등으로 주로 보육과 관련한 직종이고 이외에 회계,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업무 등이 제시되었다.

▌표 Ⅳ-23▐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주요 활용업무-업종별 순위

단위: 개

구분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조사업체수	100	88	107	99	101
응답업체수	12	19	57	39	41
1순위	재봉기술사	사무직, 서류관리	학원강사(국어, 영어,미술등)	간호사	보육교사
2순위	- 패션·의상 디자인 - 경리	해외영업	교육상담 및 컨설팅	간호조무사	보육도우미
3순위	- 사무직, 서류관리 - 영업 - 제품디자인	- 침구,자수, 실내 인테리어 등 디자인 - 재정관리	어린이집 교사	치위생사	보육보조교사
4순위	-	전산사무	보육교사	환자상담,병원코디네이터	회계, 세무회계
5순위	-	- 의류제조 및 검수	행정사무	물리치료사	어린이상담
기타	-	-	- 수업보조 - 마케팅, 편집디자인 등	- 행정,회계 - 간병 - 치과치료보조,피부관리사	보육프로그램 개발

4) 동북권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의 방향

동북권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의 방향을 업종별로 5순위까지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은 봉제, 미싱견습, 숙련, 직업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의류 관련 일본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있었다. 섬유제품제조업 패션디자

인, 인성교육, 전산사무인력양성, 판매원을 위한 교육훈련을 내용으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직업의식 함양, 컴퓨터 활용능력, 인성함양교육 등 주로 직업의식 및 인성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가 많았다. 이외에 아동안전과 관련하여 응급대처 요령에 관한 교육, 보육에 관한 교육내용의 강화 등이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업 역시 친절 및 서비스 관련 교육, 직업의식 함양, 인성함양 교육이 1, 2, 3위로 우선순위에 있다. 관련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에 이와 같은 교육수요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병원코디네이터 직무교육, 간호조무, 고객상담 관련 교육수요가 제시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업도 유사한 교육수요를 담고 있다.

▌표 Ⅳ-24▌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요

구분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조사업체수	100	88	107	99	101
응답업체수	43	11	42	40	38
1순위	미싱숙련	인성함양교육	직업의식 함양	친절 및 서비스 관련 교육	보육교사
2순위	미싱견습	패션디자인	컴퓨터 활용능력	직업의식함양	직업의식함양
3순위	직업의식 함양	직업의식 함양	– 보육교사 – 인성함양교육	인성함양교육	– 보조교사 – 컴퓨터활용능력
4순위	– 인성교육 – 봉제	– 제3외국어(영,일어,중국어제외) – 현장실무 전문교육	– 아동안전교육 – 응급대처교육 – 리더십 – 직업교육	– 병원코디네이터 – 간호조무사 – 고객상담	– 보육교사 보조 – 영어회화 –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 등
5순위	– 컴퓨터활용 – 패션디자인	– 해외영업 – 자수디자인 – 일어회화	–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고객상담	– 기본예절교육	–
기타	– 의류관련 일본어 교육	–	– 보육관련교육	– 영어회화	–

라. 서남권

1) 서남권역의 인적·물적·산업체 특성

① 여성인적자원의 특성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가 속해 있는 서남권은 전체 서울 인구분포의 20.3%를 차지하며 , 서남권의 여성 인구 분포는 49.55%로 권역 중 유일하게 남성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서울 여성의 1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 서울 통계연보).

다음, 서남권 여성인적자원의 특징으로 거주인구의 학력 정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초졸이하 19.9%, 중졸 13.0% 나타나 저학력층 분포가 서울시 전체 평균(초졸이하 19.4%, 중졸 11.2%)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고졸 32.9%로 서울시 전체 평균 32.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데 불과하다. 대학이상 고학력층은 34.1%로 서울시 전체 평균 36.1%보다 2.0%p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은 서울시 평균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25▐ 서남권 여성인구의 권역별 교육정도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이상
전 체	4,660,085	19.4	11.2	32.3	36.1
구로구	187,178	20.6	13.6	34.4	31.3
금천구	116,532	22.2	15.7	38.3	23.8
영등포구	184,077	19.4	12.3	31.2	37.0
동작구	193,470	18.3	11.2	29.9	40.5
관악구	244,646	19.0	12.0	30.9	38.0
소 계	925,903	19.9	13.0	32.9	34.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② 서남권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기반

서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은 〈표 Ⅳ-26〉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관련 시설수는 총 15개 로 서울시 전 권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시설의 경우 3개가 있었으며, 공공직업훈련기관은 32개로 여성관련 시설 수와 같이 서울시 전 권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21개는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었고, 금천구와 영등포구에는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권역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취창업알선기관은 11개가 분포하고 있다.

▌표 Ⅳ-26▐ 서남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단위: 개

구분	총계	물적 기반 현황
여성관련 시설	12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구로문화원, 금천구 여성교실, 금천문화원, 살구여성회,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영등포문화원, 취업정보센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상담소, 여성교실
대학	7	동양공업전문대학, 성공회대, 한영신학대, 중앙대, 중앙대, 총신대, 서울대
공공직업 훈련기관	32	경영기술개발원, 제이에듀테인먼트, 서울호산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고려아카데미컨설팅, 국제정보교육학원, 한국기업가치혁신학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경영기술개발원, 서울디지털디자인학교, 요업개발원창업지원센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직업전문학원, 한국인력개발원, 숭실전자계산학원 등
취창업 알선기관	11	구로구청, 구로여성인력개발원, 구로여성고용지원센터, 서울관악고용지원센터, 구로고령자취업알선센터,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 취업정보은행, 금천 창업지원정보센터, 취업개발센터

또한 해당자치구에 포함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서남권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발전센터 1개(남부여성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 4개(구로, 금천, 동작,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 여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운영하는 기관으로 구로구에 구로문화원, 금천구에 금천문화원, 여성교실, 살구여성회가 있으며, 영등포구에는 영등포문화원이, 관악구에는 관악·신림여성교실이 있다.

▌표 Ⅳ-27▐ 서남권 자치구별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 현황

해당구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기 타
계	1	4	7
구로구	-	-구로센터	-구로문화원
금천구	남부발전센터	-금천센터	-금천문화원 -여성교실 -살구여성회
영등포구	-	-	-영등포문화원
동작구	-	-동작센터	-
관악구	-	-관악센터	-관악여성교실 -신림여성교실

요약하면, 서남권 지역은 거주여성의 능력개발기회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의 수준은 전문성 수준이 높지 않으나 일정기간 교육훈련으로 취·창업과 연계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2) 서남권의 산업정책 방향 및 사업체 분포 특성

서남권에는 전체 712,848개 사업체 가운데 18.7%인 133,433개 사업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서울시 종사자의 19.3%인 763,484명이 있어서 사업체 수와 종사자 비율이 평균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 등 공통적으로 비율이 높은 업종을 제외하고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종에 필요한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업체 분포의 특성은 성루시 산업정책의 방향과도 어느 정도 일치되고 있다.

서울시 산업정책의 전략적 방향으로 서남권역에 포함된 자치구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면, 1차 산업뉴타운 권역에 영등포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곳은 여의도 금융 육성계획에 따라 금융 관련 동부아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2차 뉴타운 산업권역으로는 구로구가 IT 및 첨단 제조업 분야로 성장할 계획에 있으며, 이외에 기존 예정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동대문구는 패션·디자인, 관악구는 바이오 관련 산업의 발전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문헌에서 서남권은 전자 및 정보기기의 특화권역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 여성인적자원개발 현장전문가와 권역의 전문가의 정성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종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금융·보험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이다.

▌표 Ⅳ-28▐ 서남권의 산업체 특성에 따른 특성화 업종

산업체 및 종사자 수	집중산업 및 기존 특화 산업	서울시 산업정책	기존문헌	최종 선정 업종
– 사업체수: 133,433(18.7%) – 종사자 수: 763,484(19.3%)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 1차 산업뉴타운 – 영등포구:여의도 금융 육성계획,금융관련 동북아 거점도시 ○ 2차 산업뉴타운 – 구로구:IT,첨단제조 *기존 예정산업클러스터 – 동대문구:디자인,패션 – 관악구:바이오	–전자, 정보기기	①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②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③ 금융·보험관련 서비스업 ④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

3) 서남권 여성인력개발 특성화의 방향

①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에서의 인력수요 증가

서남권 사업체의 특성화 업종으로 선정된 것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5개 업종이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의 인력수요는 2009년 이전까지 꾸준한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인력수요 예측이 거의 되지 않고 있으나 이전 3년동안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경우, '07년과 '08년 꾸준한 채용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권역의 특성상 특화산업으로 인력수요의 점증이 예측되고 있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인력수요의 폭은 크지 않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향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영향에 따른 것이며, 경기회복에 따라 인력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체당 평균 2~3명의 신규채용이 있어 왔으며, '09년 하반기 이후에도 꾸준한 인력수요를 보이고 있다.

▌표 Ⅳ-29▐ 서남권 조사업종별 인력채용 규모 및 추이

단위: 개, 명

구 분	사업체 수	2007	2008	2009 상반기	2009 하반기	2010	2011
전 체	500	1,282	1,835	1,670	316	308	185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98	255	324	564	26	7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551	658	346	68	106	9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189	392	361	43	16	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0	119	232	123	120	140	53
교육 서비스업	102	168	229	276	59	39	31

② 업종별 필요 채용직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과 관련한 채용직종으로는 창작 및 공연관련직,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과 기술직, 연예인 매니저 및 문화 예술 관련직, 작가 및 출판 관련직으로 조사되었으며, '09년까지의 인력 채용 추이를 볼 때, 향후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직종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방송 관련 전문교육이 요구되는데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수행했으면 하는 교육과목으로 영상 편집 특수효과,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촬영, 방송 관련 실무나 연출, 방송영상이론 교육 등이 제시되었다.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포함된 채용직종으로는 디자인 관련직,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 컴퓨터 정보시스템 관련직이며 이를 위한 직업교육으로는 경영정보관리(MIS), 컴퓨터 응용설계, 컴퓨터시스템 설계 분석가, 응용소프트 웨어 개발자, JAVA나 OPACLE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마스터 과정 등이 제시되었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는 금융이나 보험 관련 사무직과 전문직, 영업직 등으로 금융 영업실무와 금융자산 관리, 재무관리사, 주식 관련 교육, 전문텔레마케터 교육 등이 요청되고 있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는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전기·전자공학 엔지니어,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환경공학 기술자, 환경 관련 장치조작원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제도사,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교육 등이 제시되고 있다.

▌표 Ⅳ-30▐ 업종별 예상 채용직종 및 교육훈련 과목

업 종	필요 채용 직종	교육훈련 과목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창작 및 공연 관련직 -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 예술 관련직 - 작가 및 출판 관련직 등	영상편집특수효과, 애니메이션제작, 애니메이션촬영, 포토샵, 일러스트, 광고기획, 방송연출, 방송실무, 방송영상이론교육, 편집능력향상 전문교육, 에이전시능력향상 전문교육, 면접기술 등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디자인 관련직 -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 -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경영정보관리, 컴퓨터 응용설계, 컴퓨터시스템 설계 분석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JAVA, 컴퓨터 마스터, OPACLE, 컴퓨터 활용 및 웹실무 등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금융· 보험 관련 전문직 -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 보험 관련 영업직	영업· 영업실무, 마케팅 전략, 금융자산관리, 재무관리사, 주식관련 교육, 전문텔레마케터 등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 전기· 전자공학 엔지니어 -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 환경공학 기술자 - 환경 관련 장치 조작원	제도사(캐드윈),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등
교육 서비스업	- 학교교사 - 학원강사 -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등	보육교사, 유아교육, 전문성강화교육, 고객상담 및 직업교육, 아동상담교육, 아동취미활동교육 등

③ 서남권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분야

조사업종에 대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활용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500개 업체 가운데 약 38.6%가 활용하고 있거나 예정이라고 응답하였고 이는 타 권역과 비교하여 높

게 나타나 고학력 여성에 대한 활용범위가 비교적 넓은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서남권에 포함된 업종별 주요 활용업무는 다음 표와 같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총 98개 업체 가운데 20개 사업체에서 응답하여 고학력 여성인력에 대한 활용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응답한 사업체에서 번역이나 사무보조에 대한 인력수요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이 영상제작, 비디오 영상물 관리직, 편집디자인 분야, 3순위에 방송기술, 편집기획, 연출, 섭외 및 방송작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총 100개 업체 가운데 45개 사업체가 응답하여 비교적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순위로 응답된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이고, 다음이 프로그램 개발, 회계 및 세무 경리, 이어서 서류관리 등 사무직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영업 및 마케팅, ERP/컨설팅, 컴퓨터 관련 업무, IT시스템 구축, 경영정보 관리 등의 업무도 제시되고 있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총 100개 조사업체 가운데 39개 업체가 응답하여 39%에 이르고 있다. 주요 활용분야는 보험설계사와 보험영업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서류관리 등 사무직, 예금업무나 은행창구 업무가 2, 3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4순위에는 금융전문 관련 사무직과 금융영업 등이 제시되고 있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과 관련해서 100개 업체가운데 28개 업체가 응답하여 28%의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활용업무로 1순위는 서류관리 등 사무직이, 이어서 전산회계,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제품디자인, 환경 전문인력 순으로 제시되었다.

교육서비스업은 102개 조사업체 가운데 61(61.4%)개 업체가 활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활용업무로는 보육교사, 보육도우미, 보육보조교사 등으로 주로 보육과 관련한 직종이고 이외에 상담, 급식 및 영양사 업무 등이 제시되었다.

▌표 Ⅳ-31▐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주요 활용업무-업종별 순위

단위: 개

구분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조사업체수	98	100	100	100	102
응답업체수	20	45	39	28	61
1순위	- 번역 - 사무보조	소프트웨어개발	보험설계사, 보험영업	사무직, 서류관리	보육교사
2순위	- 영상제작 - 비디오영상물관리직 - 편집디자인	- 프로그램 개발 - 회계, 세무회계 경리	사무직, 서류관리	- 전산회계 -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보육도우미
3순위	- 방송기술 - 편집기획 - 방송연술 - 섭외,방송작가 - 동영상강의,영상편집 등	- 서류관리 등 사무직	예금업무, 은행창구업무	제품디자인	어린이집 교사
4순위	- 영업부 마케팅 - 해외영업	- 영업 및 마케팅 - ERP/컨설팅 - 컴퓨터 관련 전문가	- 금융전문, 관련 사무직 - 회계,세무회계	환경전문인력	교사업무 보조
5순위	-	IT시스템 구축	- 금융영업 등	- 번역 - 의상디자인 - 투자교육상담사 등	학원강사
기타	-	- 웹개발 - 경영정보 관리 - 하드웨어개발	-	-	- 교육상담 - 급식 및 영양사 등

4) 서남권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의 방향

서남권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의 방향을 업종별로 5순위까지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 수요는 영어회화, 영어, 영상편집 및 특수효과 처리 관련 교육, 컴퓨터 활용능력, 애니메이션 제작 등과 관련한 교육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 직업의식 함양, 창업관련 교육, 방송 연출도 요구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서는 인성함양교육이나 직업의식 함양을 높은 우선 순위로 제시하였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서도 역시 인성함양 교육이 1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외에 영업실무, 마케팅 전략의 실무교육과 직업의식, 친절교육 등이 제시되었다.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인성함양교육 및 직업의식함양, 컴퓨터 활용능력

등에 대한 교육수요가 많았다. 이외에 아동안전과 관련하여 응급대처 요령에 관한 교육, 보육에 관한 교육내용의 강화 등이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5%에 불과한 응답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 업종에 대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홍보가 요청된다.

▌표 Ⅳ-32▐ 서남권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요

구분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조사업체수	98	100	100	100	102
응답업체수	24	26	12	5	35
1순위	영어회화, 영어	– 인성함양교육 – 전산경리 회계	인성함양교육	– OA회계 – 전산경리회계 – 제도사 – 시각디자인 – 멀티미디어디자인	인성함양교육
2순위	영상편집 특수효과	직업의식 함양	영업실무, 마케팅 전략	–	직업의식 함양
3순위	– 컴퓨터 활용능력 – 웹 및 영상 – 애니메이션 제작 등	– 경영정보관리 – 컴퓨터 응용설계 – 컴퓨터시스템 분석가	– 직업의식 함양 – 친절교육 – 컴퓨터활용능력 등	–	보육교사
4순위	– 직업의식 함양 – 창업관련교육 – 방송연출 등	– 컴퓨터 활용능력 – 제도사 – 영업실무, 마케팅 등	–	–	– 특기활동 – 교사의식함양
5순위	–	–	–	–	– 영업실무, 마케팅 – 아이돌보미, 보육사

마. 서북권

1) 서북권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특성

① 여성인적자원의 특성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가 속해 있는 서북권은 전체 서울 인구분포의 2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북권의 여성 인구 분포는 50.6%로 남성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서울 여성의 2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8 서울 통계연보).

다음, 서북권 여성인적자원의 특징으로 거주인구의 학력 정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초졸이하 20.1%, 중졸 12.1% 나타나 저학력층 분포가 서울시 전체 평균(초졸이하 19.4%, 중졸 11.2%)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고졸 33.2%로 서울시 전체 평균 32.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데 불과하다. 대학이상 고학력층은 34.8%로 서울시 전체 평균 36.1%보다 1.3%p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은 서울시 평균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33▐ 서울시 여성인구의 권역별 교육정도별 분포

구 분	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 이상
전 체	4,660,085	19.4	11.2	32.3	36.1
은평구	213,381	21.1	12.9	36.6	29.4
서대문구	165,016	20.7	11.9	31.3	36.0
마포구	179,631	19.2	11.1	30.2	39.5
강서구	256,371	19.2	12.2	36.2	32.8
양천구	223,935	19.6	12.3	31.7	36.4
소 계	1,038,334	20.1	12.1	33.2	34.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② 서북권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서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은 〈표 Ⅳ-34〉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관련 시설수는 11개로 나타났다. 권역에 분포하는 대학은 총 11개, 공공직업훈련기관은 6개로 서울 전 권역 중 도심권(15개) 다음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창업알선기관은 6개가 위치해 있었다.

▌표 Ⅳ-34▐ 서북권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 현황

단위: 개

구분	총계	물적 기반 현황
여성관련 시설	11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대문여성복지센터,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신촌인력개발센터, 마포여성자원금고, 마포고용지원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등
대학	11	서울기독대,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대, 명지전문대, 추계예대, 경기대, 서울여자간호대, 감리교신학대 서강대, 홍익대
공공직업 훈련기관	6	중부여성발전센터,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 동향제과직업훈련원, 한성직업전문학교,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취창업 알선기관	6	은평구청,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서대문구청 취업정보은행, 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마포구취업정보은행, 강서구청사회복지과 취업상담센터

또한 해당자치구에 포함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서북권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발전센터 2개(중부 및 서부 여성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 3개(은평, 마포/신촌, 강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 여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자치구에 여성교실이나 복지관, 문화회관의 운영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Ⅳ-35▐ 서북권 자치구별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 현황

해당구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기 타
계	2	3	3
은평구	-	-은평센터	-
서대문구	-	-	-여성복지센터
마포구	중부발전센터	-마포/신촌센터	-여성자원금고
강서구	-	-강서센터	-여성교실
양천구	서부발전센터	-	-

요약하면, 서북권 역시 주거지역이 발달되어 있어,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능력개발의 수준에 있어서 일정기간 교육훈련으로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생활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기관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전문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서북권 산업정책의 방향 및 사업체 분포 특성

서북권에는 전체 712,848개 사업체 가운데 17.0%인 121,312개 사업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서울시 종사자의 14.3%인 566,257명으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서울시 전체 평균 비율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종사자 분포가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서북권역 역시 산업 보다는 주거 권역 비중이 좀 더 높은 이유로 해석된다.

사업체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비율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의 특성화도 기대할 수 있으나, 여성인력개발과 관련하여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외에 교육서비스업, 수리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사업체 비중이 높으나 업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규모이면서 전문적 수준이 높지 않은 업종 중심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종에 필요한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업체 분포의 특성은 서울시 산업정책의 방향과도 어느 정도 일치되고 있다.

서울시 산업정책의 전략적 방향으로 서남권역에 포함된 자치구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

면, 1차 산업뉴타운 권역에 마포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곳은 마포디자인 권역으로 특성화할 계획에 있다. 특히 주변의 전문적인 대학기관과 연계하여 출판·문화 예술인프라를 접목하려는 계획이다. 2차 뉴타운 산업권역으로는 은평구는 식품재료, 강서구는 IT 분야로 발전시킬 전망이다. 이외에 기존 예정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마포구는 이미 DMC가 구성되었고, 서대문구는 영화, 양천구는 방송, 강서구는 R&D로 전문화하고 있다. 기존 문헌에 나타난 서남권역의 특성화 사업으로 교육서비스가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 여성인적자원개발 현장전문가와 권역의 전문가의 정성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이다.

▌표 Ⅳ-36▐ 서북권의 산업체 특성에 따른 특성화 업종선정 결과

산업체 및 종사자 수	집중산업 및 기존 특화 산업	서울시 산업정책	기존문헌	최종 선정 업종
- 사업체수: 121,312(17.0%) - 종사자 수: 566,257(14.3%)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음식점 및 주점업 - 교육서비스업 - 수리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1차 산업뉴타운 - 마포구:마포디자인, 주변 출판·문화 예술 인프라 접목 시각디자인 배양 ○ 2차 산업뉴타운 - 은평구:식품재료 - 강서구:IT *기존/예정산업클러스터 - 마포구:DMC - 서대문구:영화 - 양천구: 방송 - 강서구: R&D	-교육서비스	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② 출판업 ③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④ 전문서비스업 ⑤ 보건업

3) 서북권 여성인력개발 특성화의 방향

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출판업, 보건업 중심의 인력수요

서북권의 조사업종은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의 5개 업종이다.

인력수요로 보면,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가장 많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데 '09년까지 업체당 한 해 평균 약 10명 내외의 신규채용 실적이 있으며 최근3년간 실적도 3,000명을 넘고 있어 인력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력수급의 입·퇴직 융통성이 큰 것도 이유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09년 하반기 이후의 채용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인력채용의 불안정한 변수가 작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출판업이나 보건업의 경우 이전의 3년 인력수급 실적을 보면 채용규모가 크지 않지만 점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이후의 인력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사업체 수도 표본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수요에 있어서도 미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7▐ 서북권 조사업종별 인력채용 규모 및 추이

단위: 개, 명

구 분	사업체 수	2007	2008	2009 상반기	2009 하반기	2010	2011
전 체	492	1,899	2,262	1,955	527	389	32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1117	1,303	1,075	63	52	14
출판업	113	240	357	276	26	8	2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6	69	82	80	19	10	4
전문서비스업	112	77	135	165	25	12	8
보건업	101	396	385	359	394	307	299

② 조사 업종별 필요 채용직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포함된 채용직종으로는 주로 자동차 운전이나 운송관련직으로 요구되는 교육과목은 운전실무교육과 컴퓨터 활용능력으로 교육과목이 매우 간단한 편이다. 출판업에 포함된 채용직종으로는 작가 및 출판 관련직, 기자,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과 컴퓨터 정보시스템 관련직이며 요구되는 교육과목으로는 출판편집 교정, 편집디자인, 디지털 편집, 출판기획, 플래쉬 애니메이션, 디자인프로그래밍 등이 제시되었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 포함된 채용직종으로는 창작 및 공연관련직, 디자인관련직,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과 기술직으로 영상편집 특수효과, 방송카메라, 방송촬영과 연출 등 기법에 대한 교육과목이 제시되고 있다.

▌표 Ⅳ-38▐ 업종별 예상 채용직종 및 교육훈련 과목

업 종	필요 채용 직종	교육훈련 과목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자동차 운전 관련직 - 운송관련 단순직 -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운전실무교육, 컴퓨터 활용능력, 현장실무 전문교육 등
출판업	- 작가 및 출판관련직 - 기자 -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출판편집교정, 편집디자인, 디지털 편집디자인, 출판기획, 플래쉬애니메이션, 디자인프로그래밍 등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창작 및 공연관련직 - 디자인 관련직 -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영상편집 특수효과, 방송카메라, 방송촬영, 방송연출, 방송컴퓨터 등
전문서비스업	-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엔지니어) - 건축완성 관련직 -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 전공	기장세무회계 및 세무전산, 창업관련교육, 광고기획, 광고홍보, 영업 및 영업실무, 마케팅 전략, 제도사(캐드윈) 등
보건업	- 간호사 -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 사회복지 전문직	간호조무사, 간호사, 치기공기술, 보육교사, 병원코디네이터, 치과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③ 서북권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분야

조사업종에 대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활용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492개 업체 가운데 약 29.9%가 활용하고 있거나 예정이라고 응답하였고 이는 타 권역과 비교하여 낮은 편으로 고학력 여성에 대한 활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서북권에 포함된 업종별 주요 활용업무는 다음 표와 같다.

다른 업종에 비해 인력수요가 많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특히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활용이 제한된다. 130개 업체 가운데 12개 업체만이 응답하고 있고, 활용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서류관리, 회계 및 세무, 경리 등의 비교적 단순한 업무이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총 36개 업체 가운데 13개 사업체에서 응답하여 고학력 여성인력에 대한 활용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응답한 사업체에서 방송기술, 경리, 멀티미디어디자인, 작가, 편성, PD, 네트워크 편집 등 다양한 활용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 전문서비스업은 총 112개 업체 가운데 33개 사업체가 응답하여 비교적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순위로 응답된 것은 회계 및 세무회계이고, 다음이 건축설계, 3순위로 광고디자인과 전산회계를 제시하고 있다.

보건업은 101개 조사업체 가운데 42개 업체가 응답하여 42%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주요 활용분야는 간호사, 치과기공기술자, 치위생사가 1, 2, 3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교육훈련은 전문기술로 전문직업훈련 기관에서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39▐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주요 활용업무-업종별 순위

단위: 개

구분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조사업체수	130	113	36	112	101
응답업체수	12	47	13	33	42
1순위	경리	편집디자인	방송기술	회계, 세무회계	간호사
2순위	- 서류관리 등 사무직 - 회계,세무회계	취재기자, 가자	경리	건축설계	치과기공기술자
3순위	- 상담직 - 운전직 - 사무보조 - 영업	출판편집	- 멀티미디어디자인 - 작가 - 편성, PD - 네트워크 편집 등	광고디자인 전산회계	치위생사
4순위	-	교정	-	- 건축구조전공 - 법무사사무직 - 경영기획 등	- 사회복지서비스업무 - 치과간호사 - 임상병리사 - 보육보조교사
5순위	-	편집디자인	-	-	- 물리치료사 - 안내요원 등
기타	-	- 출판디자인 - 디지털편집 디자인 - 컨텐츠 개발 - 편집, 출판기획 등	-	-	-

4) 서북권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의 방향

서북권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의 방향을 업종별로 5순위까지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 수요는 컴퓨터 활용능력, 전산경리 회계외에 현장이나 운전실무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출판업과 관련하여 출판편집교정,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 등과 인성함양 및 직업의식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6개 사업체 밖에 응답하지 않았는

데 주로 친절, 서비스 교육이나 영상편집 특수 효과 등 관련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0▐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요

구분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조사업체수	130	113	36	112	101
응답업체수	9	32	6	29	18
1순위	컴퓨터 활용능력	출판편집교정	– 친절, 서비스교육 – 영상편집특수효과	전산세무회계	간호조무사
2순위	– 전산경리회계 – 현장실무 전문 교육 – 운전실무교육	편집디자인	– 방송카메라, 방송 촬영 – 엑셀 – 방송연출 – 영어회화 – 방송컴퓨터	인성함양교육	인성함양교육 친절, 서비스교육 – 간호사 – 치기공기술 등
3순위	–	– 디지털 편집디자인 – 사무자동화&전산 경리 – 인성함양교육 – 출판기획	–	– 직업의식함양 – 영어회화 – 제도사	– 외국어교육 – 병원코디네이터 – 사회복지사 등
4순위	–	– 직업의식함양 – 컴퓨터활용능력 등	–	– 전산사무인력양성 – 영업실무, 마케팅 전략 등	–
5순위	–		–	–	–
기타	–	– 플래쉬애니메이션 – 디자인프로그래밍 – 인문학적 소양 등	–	–	–

3. 소 결



1) 권역별 여성인력개발기관 교육훈련의 특성화 방안

가. 도심권

출판이나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인력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서울시의 산업 정책의 전략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과목의 개발과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연계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여성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출판, 창작 및 예술 관련 여가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분야와 연계된 협회와 연계하면 효율적인 교육훈련 및 취·창업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업종은 창의적 지식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산업의 색깔을 연두색으로 하여 도심권의 특성화를 '엘로그린존'(가칭)으로 명명하여 특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도심권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 종로, 용산 여성인력개발센터 두 개가 있고, 그 외에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 혹은 문화센터 등에서 여성직업훈련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직업훈련의 방향을 특성화한다면 여성인력개발의 특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로구에는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는 기존에 전문화하고 있는 직업훈련 과목 이외에 출판업 관련 교육과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연계한 직업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 출판업과 연계한 직업훈련과목으로는 편집·출판디자인, 시각디자인, 취재 능력 교육이 포함되고 있으며,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연계한 교육훈련과목으로는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큐레이터 관련 교육이 있다. 종로구에 소재하는 봉제여성지원센터에서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와 관련한 봉제, 미싱숙련, 의복제작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업종의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구에는 별도의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없으므로 인근 권역의 종로 및 용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한 사업지원 서비스업 지원하는 교육훈련 과목이 필요하다. 용산구에는 국제금융도시라는 서울시 산업특화 전략에 따라 전문서비스업 관련 교육으로 고급수준의 영어회화, 컴퓨터 정보시스템, 멀티미디어 디자인 교육 등으로 특화할 수 있다.

▌표 Ⅳ-41▐ 도심권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교육기관의 훈련

구 분	특화 직업훈련 과목	교육훈련기관
종로구	– 출판 관련 교육: 편집 및 출판 디자인, 시각디자인, 취재 능력 등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기획, 홍보 마케팅, 큐레이터 교육 등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봉제, 미싱숙련, 의복제작 등	– 종로센터 – 용산센터 – 봉제여성지원센터
중 구	– 사업지원서비스업 관련 교육: 친절교육, 서비스 교육 등	
용산구	– 전문서비스업 관련 교육: 영어회화, 컴퓨터 정보시스템, 멀티미디어 디자인 등	
성북구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봉제, 미싱숙련, 의복제작 등	

나. 동남권

동남권은 서울시 산업정책의 방향에 따라 1, 2차 산업뉴타운 계획에 패션, IT, 지식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업종의 사업체 인력수요 조사에서도 전자부품·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 제조, 전문서비스업 분야의 인력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업종은 과학·기술 등의 첨단산업과 관련한 업종으로 산업의 색깔을 오렌지색으로 하여 동남권의 특성화를 '오렌지존'(가칭)으로 명명하여 특성화를 할 수 있다.

동남권 여성인력개발기관에는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와 2009년 5월 개소한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으며,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 문화센터, 구민회관 등이 있으나 여성전문직업 훈련기관 수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42▐ 동남권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교육기관의 훈련의 특성화 방안

구 분	특화 직업훈련 과목	교육훈련기관
서초구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컴퓨터 정보시스템, 포토샵, 네트워크 시스템 분석관리 – 전문서비스업: 영어회화, 제도사, 컴퓨터 정보시스템, 멀티미디어·출판 디자인 등	–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능력개발센터(강남)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 문화회관, 여성교실, 여성능력개발센터 – 옥수, 성동 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 교육서비스업: 유아교육, 아동안전교육, 학부모상담, 유아심리, 보육교사 재교육 등	
송파구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제도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등	
강동구	– 교육서비스업: 유아교육, 아동안전교육, 학부모상담, 유아심리, 보육교사 재교육 등	
성동구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봉제, 미싱숙련, 의복제작 등	

다. 동북권

동북권은 주거권역의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사업체 및 종사자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권역 특성은 사업체의 특성에서도 도출되고 있다. 교육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 등 주거권역과 연계된 업종이 발달하고 활성화되는데, 인력수요도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인력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업종은 케어(보호)와 배려와 관련한 업종으로 산업의 색깔을 그린색으로 하여 동북권의 특성화를 '그린존'(가칭)으로 명명하여 특성화를 할 수 있다.

동북권 여성인력개발기관에는 여성능력개발원, 북부발전센터, 노원·동대문·중랑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다른 권역에 비해 비교적 풍부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포함하고 있어서 교육훈련 과목에 따른 전문화·특성화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43▐ 동북권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교육기관의 훈련

구 분	특화 직업훈련 과목	교육훈련기관
강북구	– 보건업: 친절 및 서비스교육, 병원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 고객상담, 병원서비스매니저 등	–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능력개발원 – 북부발전센터 –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 도봉여성센터 –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광진구	– 보건업: 친절 및 서비스교육, 병원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 고객상담, 병원서비스매니저 등	
노원구	– 교육서비스업: 보육교사, 유아교육, 고객상담 및 직업교육 등 – 사회복지서비스업: 유아미술실기, 유아심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도봉구	– 교육서비스업: 보육교사, 유아교육, 고객상담 및 직업교육 등	
동대문구	– 섬유제품 제조업: 패션디자인, 해외영업, 현장실무, 전문교육 등 –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디자인 관련 교육	
중랑구	– 사회복지서비스업: 유아미술실기, 유아심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라. 서남권

서남권은 IT, 첨단제조업, 금융 중심권역으로 성장할 계획을 갖는 권역으로 여성인력개발의 방향도 이와 같은 산업전략 정책의 방향을 반영하여 파생되는 업종 및 직종에서 인력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업종가운데 인력수요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과 관련한 직종개발과 이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업종은 금융과 첨단 지식산업 등이 혼합된 산업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의 색깔을 블루색으로 하여 서남권의 특성화를 '블루존'(가칭)으로 명명하여 특성화를 할 수 있다.

서남권 여성인력개발기관에는 발전센터 1개, 여성인력개발센터 4개 등 다른 권역에 비해 비교적 풍부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포함하고 있어서 교육훈련 과목에 따른 전문화·특성화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44▐ 서남권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교육기관의 훈련

구 분	특화 직업훈련 과목	교육훈련 기관
구로구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영업·영업실무, 마케팅 전략, 금융자산관리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경영정보관리, 컴퓨터 응용설계 등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남부여성발전센터 – 남부여성인력개발센터 –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금천구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제도사, 시각 및 멀티미디어 디자인 등	
영등포구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영업·영업실무, 마케팅 전략, 금융자산관리	
동작구	– 교육서비스업: 고객상담 및 직업교육, 아동상담교육, 아동취미활동 교육 등	
관악구	– 교육서비스업: 고객상담 및 직업교육, 아동상담교육, 아동취미활동 교육 등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경영정보관리, 컴퓨터 응용설계 등	

마. 서북권

서북권 역시 주거권역 중심의 산업이 발달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병·의원이 집중되어 있어 보건업 관련한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관련 직종에 대한 개발과 교육훈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업종은 지식산업 및 케어서비스업 등의 산업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여 서북권의 특성화를 '옐로우존'(가칭)으로 명명하여 특성화를 할 수 있다.

서북권 여성인력개발기관에는 발전센터 2개,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 등 교육훈련 과목에 따른 전문화·특성화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45▐ 서북권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교육기관의 훈련

구 분	특화 직업훈련 과목	교육훈련기관
은평구	- 보건업: 보육교사, 병원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관련 교육 등	-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 중부여성발전센터 -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 서부여성발전센터
서대문구	- 출판업: 출판편집교정, 편집 및 디지털 디자인, 출판기획,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	
마포구	- 전문서비스업: 직업의식함양, 세무회계, 세무전산, 영업 및 마케팅 전략 등	
강서구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운전실무교육, 운송 관련 전문교육	
양천구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상편집, 방송카메라, 방송촬영, 연출 및 방송컴퓨터 교육 등	

2)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가. 교육서비스 및 디자인 분야의 집중 육성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직종은 역시 교육서비스 분야이다. 본 연구를 위한 사업체 조사에서도 교육서비스 업종의 교사직이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강조되고 실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자녀양육을 위한 보육교사에 대한 수요가 집중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교사, 보육도우미 등의 직종은 어느 정도 일의 전문성이 있으며, 일의 보람을 찾고 자유롭게 시간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서비스 외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진출 및 활용가능성이 높은 직종 분야는 디자인 분야를 꼽을 수 있다. 디자인 직종의 업무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의류 및 섬유 디자인 뿐 아니라, 각종 상품에 대한 제품디자인, 출판이나 인쇄 등 출판디자인, 패션디자인 등 다양하다. 이와 같은 직종은 전문성과 함께 일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의 성취감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가능하여서 고학력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진출 직종은 기존에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으로 간호사, 치위생사 등이나 IT 및 컴퓨터 관련 전문가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건축설계사 등이다.

나. 근로형태의 유연화 활용 직종의 적극 활용

그동안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욕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전문직 선호경향은 시간제 근로나 자유직업 활동과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황수경외, 2006). 또한 무조건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직업을 갖겠다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교육적 접근성과 능력검증, 장기적 경력개발이 가능한 전문자격증 과정의 탐색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김영경, 2007).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한 고학력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근로형태의 유연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업종과 업무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의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설명되었듯이 전체 2,500개 사업체 가운데 약 10%이내의 사업체에서 근로형태의 유연화제도의 활용 및 활용예정에 있다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근로형태의 유연화 제도를 실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예정에 있는 직종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시간활용이 자유로워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며, 근무시간 대비 보수수준도 약 120만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서 너무 낮지도 않기 때문이다.

도심권의 5개 업종에 대해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주요 활용업무로 도출된 업무분야에 근로형태 유연화 활용직종을 매트릭스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작가 및 출판관련직, 디자인관련직, 창작 및 공연관련직, 기자나 영업원 및 상품중개업 등이 도출되었다.

동남권의 5개 업종에 대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주요 활용업무로는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교사,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등을 꼽을 수 있다.

동북권의 5개 업종에 대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주요 활용업무로는 패션 및 의상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디자인 관련직, 치료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서남권의 5개 업종에 대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주요 활용업무로는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보험관련 영업직 등을 꼽을 수 있다.

서북권은 작가 및 출판관련직, 치료사, 디자인 관련직, 기자 등을 꼽을 수 있다.

▌표 Ⅳ-46▐ 권역별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형태 유연화 활용 직종

구 분	전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외근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도심권	편집·출판디자인, 의상·의류디자인, 홍보 및 마케팅, 회계 및 세무회계, 제품·시각·편집디자인 등	작가 및 출판 관련직, 디자인 관련직 등	작가 및 출판관련직, 창작 및 공연 관련직, 직물모파가죽의복관련직 등	기자,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창작 및 공연 관련직, 작가 등	작가 및 출판관련직,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및 기술직 등
동남권	의상 및 의류디자인, IT·소프트웨어등 제품개발, 컴퓨터그래픽, 실내인테리어 등 디자인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학교교사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동북권	패션 및 의상디자인, 제품디자인, 해외영업, 교육상담 및 컨설팅, 간호사·치위생사, 보육교사	디자인 관련직	치료사	-	디자인 관련직
서남권	번역가, 편집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 보험설계 및 영업, 보육교사 등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보험관련 영업직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서북권	기자, 취재기자, 출판편집, 교정, 출판 및 인쇄관련 디자인, 건축설계, 전산회계, 치위생사 등	작가 및 출판 관련직, 치료사	치료사, 디자인 관련직	기자	작가 및 출판관련직

V

결 론

V 결 론

1. 요약과 논의

본 연구는 최근 노동시장의 분권화·특성화에 따라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훈련 및 고용을 연계하려는 노력으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의 방향을 권역별 산업의 특성에 따른 인력수요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개의 연구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는 서울시 권역별 산업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권역의 특성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노동시장의 특성은 해당 시장이 존재하는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지여의 특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와 같은 특성에 기초하여 요구되는 권역 노동시장의 전략업종을 도출하고 이들 업종에 대한 여성인력수요, 특히 필요한 직종과 교육훈련 수요 등을 조사·분석하여 권역별 여성인력 개발의 특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서울시 여성의 인적특성을 반영하여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적극적 활용을 위해 사업체에서 이들 여성에 대한 인력수요가 있는지를 조사·분석하고, 이들을 참여를 인력수요자의 측면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행한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시의 권역별 산업의 특성은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집중 산업 및 기존의 특화 산업, 서울시 산업발전계획 상 전략산업 등을 통해서 파악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도심권은 주요 사업체가 집중된 곳으로 집중된 사업체 업종으로는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서울시는 산업 뉴타운정책에 따라 종로구의 귀금속과 주변권역으로 인사동·청계천, 종묘 공원 등 도심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클러스터 육성계획을 갖고 있어 도심권역이면서 관광·문화 자원을 통한 권역활성화 전략의 특성을 갖는다. 동남권은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이 타 권역에 비해 높아 산업중심지로써의 특성이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특성의 면모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주요 특성화 업종에 있어서도 출판, IT,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북권은 사업체는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나, 종사자는 약 13%로 나타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함을 알 수 있고, 주요 특성화 업종에 있어서도 봉제, 의류 및 섬유제품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서남권은 영등포구의 금융 중심권역으로의 육성

계획, 구로구의 IT, 첨단제조업 등으로 육성하려는 서울시의 산업정책 전략에 따라 주요 특성화 업종으로 금융 및 바이오, 제조업 등의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북권 역시 사업체 비중은 전체의 17%를 차지하는 반면, 종사자는 전체의 약 14%로 사업체 규모가 영세함을 알 수 있다. 주요 특성화 업종으로는 교육서비스업, 영상 및 문화예술, 사회서비스업 등이 활성화된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이와 같은 권역특성에 따라 전문가 및 관계자 회의를 통해 권역별로 선정된 5개 업종의 사업체를 표본 추출하여 각 사업체의 여성인력수요 및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 업무 방안,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2,500개 사업체, 15개 업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년간 권역별 ·업종별 사업체의 인력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규채용 경험이 '있다'가 86.2%, '없다'가 13.8%로 나타났으며, 주요 채용업종은 사회복지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4%, 교육서비스 93.3%로 서비스 분야 및 컴퓨터 관련 분야의 신규채용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섬유제품 제조업(조사업체의 78.4%) 등 제조업 분야의 신규채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시 전체 산업체의 생산량 증감현상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즉, 서울시 산업은 전체적으로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권역별로 신규채용이 가장 많은 곳은 도심권으로 조사업체의 33.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동남권으로 19.6%, 서남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북과 동북은 각 14.4%, 11%로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성별로 주로 여성친화적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교육 및 사회복지서비스나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여성비율은 80%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업종에서 여성은 20%미만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IT분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2.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여성채용 비율은 40% 내외로 향후 이와 같은 업종에서 여성의 진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향후 인력수급 계획에 대한 조사에서는 다소 비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채용계획이 '있다'는 37%, '없다'는 30%, '모르겠다'는 약 33%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답변은 최근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기불황에 따른 것으로 실제 그렇다기 보다는 불확실성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권역별로 도심권에서 5개의 조사업종 가운데 출판업과 전문서비스업의 채용계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동남권에서는 전문서비스업(55.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43.7%)이, 동북권은 교육서비

스업(40.9%), 사회복지서비스업(39.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40%) 등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채용계획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동북권은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가 5개 권역 중 작은데 이는 주거권역의 비중이 높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서남권은 교육서비스가 44%, 서북권은 전문서비스 44%,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41.6%로 채용계획이 있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예정인원의 교육훈련 수요는 전체 조사업체의 약 20% 이내로 높지 않다. 3개월 미만의 단기교육 수요는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직, 자동차 운전 관련직,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과 학교교사나 간호사 등 전문직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격증 소지를 전제로 한 훈련수요로 판단된다.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의 교육훈련 수요를 갖는 직종은 직물·모피·가죽 등 의복 가공 관련직이 4.8개월, 전기·전자 공학,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도 4.3개월 정도 요구되었다. 교육훈련 기간이 비교적 긴 직종으로는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치료사, 환경장치 조작원, 보건의료, 디자인, 기자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의 특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심권의 권역특성을 나타내는 색깔은 연두색으로 옐로그린존(Yellow-green Zone)으로 정의하고 여성인력개발의 육성방향을 출판·인쇄의 편집이나 출판디자인,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등의 디자인 관련 직종에 둘 수 있다. 동남권의 권역특성을 나타내는 색깔은 주황색인 오렌지존(Orange Zone)으로 정의하고 여성인력개발의 육성방향을 정보통신·컴퓨터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분석관리 등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유아교육, 아동·안전교육, 학부모 상담의 교육서비스업 등 관련 직종의 교육훈련을 제시했다. 동북권은 주거권역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사업체 및 종사자 비율이 낮은 권역으로 권역특성을 나타내는 색깔은 '보호'(care)와 배려로 이와 관련한 녹색인 그린존(Green Zone)으로 하였다. 따라서 여성인력개발의 방향을 친절 및 서비스교육, 병원코디네이터, 고객상담 등 보건업 관련 직종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보육교사, 유아교육, 고객상담 및 직업교육 등의 교육서비스업 관련 직종 등을 제안하였다. 서남권은 IT, 첨단제조업, 금융 중심권역으로의 성장계획을 갖는 권역으로 여성인력개발의 방향도 이와 같은 산업전략 정책의 방향을 반영한다. 따라서 금융과 첨단 지식산업 등이 혼합된 특성을 반영하여 파란색인 블루존(Blue Zone)으로 정의하였다. 서북권 역시 주거중심의 산업이 발달하여 사회복지 및 교육서비스업 분야에 인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한 여성인력개발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권역특성의 색깔을 노란색인 옐로우존(Yellow Zone)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유연화가

요구된다. 선정된 업종의 사업체에 대한 근로형태 유연화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10% 내외의 사업체에서 활용 혹은 활용계획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특히 유연화된 근로형태의 활용이 높은 업종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 이들 업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전통적으로 여성친화적 업종에서 근로형태 유연화의 활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의향에 대해 조사업체의 약 1/3인 33%는 활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2/3는 활용의향이 없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권역별로 활용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서남권, 동북권이며, 낮은 곳은 도심권과 서북권이다. 업종별로는 역시 교육서비스업이나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여성친화적 업종은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출판업 43.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5%, 창작·예술, 여가 관련 서비스업 34.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활용업무에는 보육교사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서류관리 등 사무직, 회계 및 세무회계, 간호사, 어린이집 교사, 영업, 소프트웨어 개발, 보육도우미, 취재기자, 의류디자인 업무 등이 제시되어 이와 같은 직종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2.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를 위한 과제

본 연구는 서울시의 권역적 특성을 반영한 여성인력개발의 특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특성화가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고착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공공훈련기관의 훈련프로그램들은 고정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져 있어 빠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특성화와 동시에 유연화를 전제로 할 때 특성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의 특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제를 남기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여성 직업훈련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위한 통계적 인프라 구축 필요

현재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다. 2007년 센터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18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는 2,440개로 센터당 평균 135.5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연숙외, 2008). 그러나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비슷한 교육내용과 수준을 담고 있어도 다른 교육훈련 프

로그램명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가운데는 상당부분 중첩되고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명으로는 교육의 내용이나 전문성 수준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훈련과목을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직종코드와 훈련코드의 연계가 필요하다. 전 직종에 대한 훈련코드를 마련할 수 없지만, 교육서비스나 사회서비스, 보건업 등과 같이 여성친화적인 직종을 중심으로 직종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훈련코드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권역별 핵심 업종에 대한 교육훈련과 고용 연계 패키지 개발 및 적용

본 연구는 서울시의 산업특성을 5개 권역별로 나누어 구분하고, 권역특성을 반영하여 산업과 연계한 업종에 대한 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권역별로 특성화 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분야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면, 도심권의 특성화 업종으로 선정된 출판업과 관련해서는 편집 및 출판디자인, 시각디자인, 취재능력 관련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는데 과연 교육훈련을 마치고 난 후 고용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해당 업종의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창업 연계방안을 관련 기관과 함께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3) 권역별·업종에 따른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

권역별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은 업종별로 차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사업체 조사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청은 역시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업종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이나 출판업, 전문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등에서 정책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훈련된 여성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각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수 및 체험에 대한 지원에 대한 시급성 정도가 비교적 높은 업종은 출판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제조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장실습을 통한 교육훈련의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여성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업종에 대한 연수 및 체험지원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려급 지급의 시급성 정도가 높은 업종은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장려금 지급을 통한 고용활

성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다.

훈련시설 확충 및 지원, 여성채용정보 제공, 재직자 훈련 활성화의 정책지원에 대한 시급성 정도가 비교적 높은 업종은 중복되고 있는데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과 보건업 등으로 여성친화적 업종으로 알려진 업종이다. 사업체에서 이와 같은 훈련시설이나 채용정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되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표 Ⅴ-1▐ 권역별·업종별 정책지원 방안

연수 및 체험지원	장려금 지급	훈련시설 확충 및 지원	여성채용정보제공	재직자 훈련 활성화
출판업(3.43) 의복,액세서리제조업(3.18) 전문서비스업(3.15) 보건업(3.4) 사회복지서비스업(3.39) 교육서비스업(3.46)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3.1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3.11)	출판업(4.01) 교육서비스업(4.10) 보건업(4.07)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 및 배급업(3.75)	사업지원서비스업(3.37) 교육서비스업(3.82) 전문서비스업(3.25) 보건업(3.80)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3.50)	사업지원서비스업(3.37) 보건업(3.66) 사회복지서비스업(3.65) 교육서비스업(3.80)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3.81)	사업지원서비스업(3.44) 교육서비스업(3.98) 보건업(3.8) 사회복지서비스업(3.8) 교육서비스업(3.96) 전문서비스업(3.27)

*( )는 시급성의 정도(5점 척도일 때 점수)

4) 권역별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인지도 제고

5개 권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업종의 사업체에서 여성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교육훈련이후 고용과 연계가 어려운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은 취업실적이 낮은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사업체에 발전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권역별로 특성화되는 업종은 해당권역의 여성인력개발기관과 연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교육훈련 이후 취·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권역별로 교육훈련 및 고용과 연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추진체계의 정비

권역별 특성화의 체계적 접근을 위해서는 권역별 구심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기능과 역할의 협력적 분담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용의 수요처를 발굴하여 훈련된 인력과 연계를 위해서는 사업체 DB의 확충과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권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모으고 배분하는 역할의 담당자

가 있어야 하며, 기존의 여성인력개발 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다.

6)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DB 구축 및 활용 유인책의 마련

권역별·업종별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활용의향은 조사대상 사업체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업종에 교육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업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사업체의 고학력 여성인적자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여성들의 참여의지와 사회적·국가적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고학력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능력개발 및 취업욕구가 높은 여성을 중심으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DB를 구축하고 이들의 능력개발과 취·창업 연계 및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서울시의 다양한 권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을 연계하는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여성인력개발의 방안이 주로 여성친화적 업종인 교육이나 사회복지, 사업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에 치중하거나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권역의 산업 특성과 연계함에 있어서 비전통적인 업종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되고 있다. 또한 권역과 고용을 연계함으로써 여성의 취·창업 성향이 주거권역과 가까운 근거리에 두려는 경향을 반영하는 등의 여성 취·창업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인력개발의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교육훈련 이후 취·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연구내용의 방대함과 시간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보다 구체적인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여기서는 본 연구가 갖는 한계를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제시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 권역별로 제시된 여성인력개발의 특성화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 마련의 후속조치가 있을 때 권역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가 조사·분석한 사업체 단위는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인력수요 파악, 업종 내 필요인력에 대한 직종 도출이다. 여성인력개발의 방향은 이와 같은 직종과 연계되어야 하나 실제 교육훈련의 코드는 직종과 잘 연계되어 있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체에서 요구되는 인력수요를 통해서 필요직종, 교육훈련 코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직종과 훈련코드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권역별 특성화를 위해서는 인력개발의 측면에서 교육훈련 뿐 아니라, 인력개발과 활용의 연계라는 고용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나 여기에서는 인력개발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양한 인력수준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권역의 다양한 물적 기반을 조사에 포함하였으나 교육훈련의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는 기준의 부재와 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의 한계는 이와 같은 구체화 작업을 진행시키는데 한계를 갖는다. 여성인력개발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수준별, 단계별 구체화·전문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 측면에서 인력수요에 기반한 인력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의 공급자 측면의 수요파악이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여성인력개발의 당사자는 여성의 교육훈련 욕구 및 직업수요에 대한 욕구이나 여기서 그와 같은 노동의 공급자 욕구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이를 보완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욕구에 관한 기초연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혜원·윤형호·황규선·염돈민(2006), 직업능력개발 훈련수요조사-서울지방노동청-, 노동부

_____(2006),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권정숙(2004), 여성유망직업연구에 관한 분석, 교육연구논총 25(1).

김주섭·전명숙·임상훈·오민홍·전윤구(2008),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권역고용 거버넌스, 한국노동연구원.

_____·임상훈·박성재·고영우(2007),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한국노동연구원.

_____·이병희·임상훈·신현구(2003) 권역별 공공직업훈련체계 구축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김영경(2007),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경력개발 계획과 재취업교육 요구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양인숙·김한준(2002), 지식경제의 여성인력수요와 직종개발, 한국여성개발원.

김인순·백진주(2003), 여성의 IT직종 교육훈련후 취업현황 및 취업연계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양인숙(2002), 권역별 경기도 기업체 인력수요실태 및 전망과 여성의 취업욕구 파악,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나영선(1999), 여성을 위한 효율적 직업훈련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_____·이상준(2005), 중고령층 고용특성과 유망직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부(1999), 여성유망직종 70선, 노동부.

민무숙 외(2003), 여성인적자원개발협력망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여성부.

박성정·김종숙·이택면·김상아(2008), 여성직업교육훈련기관의 기능 합리화 방안 연구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여성부.

박재규·임경희·공선영·노성향·장예지(2008), 경기도 여성인력 고용실태조사 및 취업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여성HRD 연구센터, 여성인적자원개발백서.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2008), 서울시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구인수요실태조사,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e -서울 통계웹진 25호.

_____ (2008), 서울통계연보, 서울특별시.

신창호·정병순·조정래·이종용·변창흠·김진수(2004), 서울특별시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오민홍·남기성·홍현균·황기돈(2008),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차별성 연구.
오은진·박수미·이상돈(2006), 문화서비스산업의 여성유망직종 발굴 및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방안, 여성가족부.
윤형호(2005), 서울시 산업특성화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정표·권혁규(1999). 여성 유망직종 자격증 개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장창원·이상준(1999), 지식정보 산업화에 따른 직종 변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인수(2008), 지역노동시장연구(VI), 한국노동연구원.
_____·이규용·윤미례·이승우(2006), 지역 및 산업수요 밀착형 고용정책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혁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조연숙·정하나·정상기(2008),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연숙 외(2006),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재정립 및 운영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조영미·고선주·조연숙·김유나·김창연·이해리(2006), 2007-2010 서울시 여성정책 중기계획,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윤경 외(2007), 비전통적 여성진출분야 유망직종 발굴 및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
최영섭·민주홍·이상일(2007),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 지원시스템 구축: 산업별 협의체의 제도적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통계청(2007), 2007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2007), 중장기인력수급전망(2006-2016),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연구원, 지역 및 산업수요 밀착형 고용정책을 위하 고용안정사업 혁신 방안 연구,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2004), IT 전문인력 활용실태 조사, 정보통신부.
_____(2003), 권역별 공공직업훈련체계 구축방안,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1997), 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 : 21세기를 향한 여성정책, 한국여성개발원.
황수경(2003),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한국노동연구원.
_____·권혜자·김인선(2005),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연구, 교육인적자원부.
Farr, J. Michael & L, L. Ludden(1999), Best jobs for the 21st century, JIST Works Inc.

부 록

1. 기업체 여성인력수요 조사 질문지

2. 자치구 여성인력개발 관련 정책 현황 조사 질문지

ID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를 위한

기업체 여성인력수요 조사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으로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실현을 선도하는 여성가족종합전문기관'입니다.

본 재단에서는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권역별로 산업체 특성에 근거하여 사업체의 인력수요, 특히 여성인력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발굴,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여성의 취·창업과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사업체의 여성인력 고용현황 및 인력수요, 요구되는 직업훈련 내용과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모두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자료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 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진: 조연숙, 김지은

☐ 설문조사서 작성자 : 당해 기업의 임원급 이상 [대표자 및 관리자]
☐ 조사 관련 문의처
○ (주)메트릭스 : (02)6244-0760 / (02)6244-0757
☐ 설문조사서 제출 : (주)메트릭스 실사실 Fax : (02)

기업체명		전화번호	02 - -
fax	02 - -	e-mail	@
기업 소재지	서울시 구 동		
기업체 산업군	①출판업 ②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③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④사업지원서비스업 ⑤전문서비스업 ⑥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⑦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⑧교육서비스업 ⑨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⑩보건업 ⑪사회복지서비스업 ⑫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⑬컴퓨터프로그램,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⑭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⑮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응답자명		소속/부서	
		직위	

I. 다음은 사업체 기본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체 인력 현황을 고용형태(아래의 ※참고를 확인하여 기입) 및 연령대별 구성인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해 주십시오.(2009.6.1 현재기준)

구분	전체	남	여
1) 상용 근로자	명	명	명
2) 임시 근로자	명	명	명
3) 일용 근로자	명	명	명
4) 무급가족종사자	명	명	명
5) 기타(외주, 아웃소싱 근로자 등)	명	명	명
총 계	명	명	명

구분	인원수
1) 20대 미만	명
2) 20-29세	명
3) 30-39세	명
4) 40-49세	명
5) 50대 이상	명
총 계	명

※ 참고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임시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 · 일반적으로 업무가 한시적이거나, 통상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등 일시적으로 생긴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되는 근로형태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
무급가족종사자	·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돈을 받지 않고 가족(친적)의 일을 돕는 경우
기타	· 타사로부터 파견 나와 업무를 보는 근로 형태

1-1. 귀사의 직원가운데 해당 근로형태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몇 명인지 기입하여 주십시오.(2009.6.1 현재기준)

구분	전체	남	여
1) 전일제 근로자	명	명	명
2) 시간제 근로자(파트타임 근무)	명	명	명
3) 프리랜서	명	명	명
4) 기타	명	명	명
총 계	명	명	명

2. 귀사의 직원가운데 아래 해당 직위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몇 명인지 기입하여 주십시오.(2009.6.1 현재기준)

구분	전체	남	여
1) 과장급 이하(사원, 대리, 주임 등)	명	명	명
2) 과장 - 부장급(과장, 차장, 부장, 팀장, 실장)	명	명	명
3) 임원급 이상(이사, 전무, 상무, 부사장, 사장)	명	명	명
총 계	명	명	명

II. 다음은 사업체 인력관리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사는 최근 3년간(2007년~2009년5월) 신규인력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문항4번으로) ② 없다(☞문항5번으로)

4. 신규인력을 채용하셨다면, 연령대별로 몇 명이나 채용하셨는지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1) 20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 30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3) 40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4) 50대 이상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전 체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5. 귀사의 신규인력 채용 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3가지만 순서대로 그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보기 >

① 회사홈페이지 공지 ② 노동부, 서울시 등 공공인터넷 포털사이트 ③ 다음커리어등 민간인터넷포탈사이트
④ 신문, 라디오, 홍보모스터 등 매체 ⑤ 지인을 통해 ⑥ 학교나 학원에 요청
⑦ 헤드헌트사 ⑧ 채용박람회 ⑨ 공공직업훈련기관
⑩ 기타( )

6. 귀사의 신규인력 채용 시 다음 항목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요인은 향후 업무의 생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신규 채용 시 고려하는 정도					실제 업무 생산성에 기여정도				
	전혀고려하지않음	고려하지않음	보통	약간 고려함	매우 고려함	전혀 기여안함	기여 안함	보통	약간 기여함	매우 기여함
1) 성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연령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결혼여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학력정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전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특정기술의 보유여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자격증소지여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경력여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입사전 직업훈련 경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직업의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임금수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구체적으로) (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귀사는 신규인력 채용 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다음 항목가운데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복체크가능).

① 신규인력은 직업 의식이 부족함 ② 해당직종 전문인력 발굴의 어려움
③ 인성을 알 수 없음 ④ 임금수준이 맞지 않음(실무 능력보다 고임금을 원해서)
⑤ 장기근무 할 인력 부족(잦은 이직) ⑥ 필요 직종의 훈련된 인력을 찾기 어려움
⑦ 필요인력의 발굴 경로에 대한 정보부족
⑧ 기타(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_____)

Ⅳ. 다음은 향후 귀사의 인력수급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귀사는 향후 3년이내(2009년6월~2011년)이내에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다(☞문항9번으로)　② 없다(☞문항10번으로)　③ 잘 모르겠다(☞문항10번으로)

9.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다면, 향후 몇 명이나 채용할 예정인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채용인원	명(예정)	명(예정)	명(예정)

9-1. 채용계획이 있는 직종을 ※붙임의 자료(한국고용직업분류)를 참고하여 해당 코드번호를 모두 적어주시고 해당 직종의 자격조건으로 선호하는 학력, 연령대, 혼인상태, 성별, 채용시기, 자격증보유여부를 다음의 ※보기를 참조하여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기

1) 학력	2) 연령대	3) 혼인상태	4) 성별	5) 채용시기	6) 자격증보유여부
① 대졸이상 ② 고졸 ③ 중졸 ④ 학력무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⑤ 연령무관	① 미혼 ② 기혼 ③ 혼인상태무관	① 여성 ② 남성 ③ 성별무관	①올(2009하반기 ②내년(2010년) ③내후년(2011년)	① 필요 ② 있으면 우대 ③ 불필요(상관없음)

채용직종(※붙임_해당코드 번호 기입)	채용계획 (단위:명)	선호항목					
		1) 학력	2)연령대	3)혼인상태	4)성별	5)채용시기	6)자격증 보유여부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						
6)	명						
총 계	명	-	-	-	-	-	-

10. 다음은 귀사의 **근로형태의 유연화**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귀사는 다음 항목과 같이 다양한 근로형태의 유연화 제도의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 해당하는 곳에 V표해 주십시오.

(※ **근로형태의 유연화** :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조성을 위해 기준근로시간을 정한 규정의 예외로서 제시된 근로시간제)

구분	현재 활용하고 있다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활용하지 않으며, 향후 도입계획이 없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1]	①	②	③
2) 선택적 근로시간제[2]	①	②	③
3) 외근 근로시간제[3]	①	②	③
4) 재량 근로시간제[4]	①	②	③

주: 1)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

2)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출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3) **외근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

4) **재량 근로시간제**: 연구개발업무, 설계업무, 편집업무 등 창의성의 발휘가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업무인 경우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전문직종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10-1. (앞의 10번 문항에서 각 항목에 대해 ①, ②에 응답한 경우), 근로형태의 유연화에 활용되거나 활용할 예정에 있는 인력대상의 특성(연령, 학력, 성별, 임금수준)을 다음 보기에서 찾아 해당번호를 써 주시고, 활용예정인 직종을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코드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보기

1) 연령대	2) 학력	3) 성별	4) 임금수준
① 20대	① 대졸이상	① 여성	① 50만원 미만
② 30대	② 고졸	② 남성	② 50~69만원
③ 40대	③ 중졸	③ 성별무관	③ 70~89만원
④ 50대 이상	④ 학력무관		④ 90~119만원
⑤ 연령무관			⑤ 120만원 이상

구분	연령	학력	성별	임금수준	해당직종(※붙임자료_참조하여 코드번호기입)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외근 근로시간제					
4) 재량 근로시간제					

11. 서울시 인적자원의 특성 중 하나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서울시,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할 때, 귀사에서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활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활용할 의향이 있다(☞문항11-1번으로) ② 활용할 의향이 없다(☞문항11-2번으로)

11-1.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귀사의 업무에 활용할 경우, 주로 어떤 직무분야에서 활용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 차원의 지원방안이 무엇인지를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1) 활용업무: _____ (예시: 제품 모니터링, 수요조사, 영업 등)
2) 지원방안: _____ (예시: 인건비 지원, 세제 감면, 여성친화 기업인증 등)

11-2. 활용할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곳에 V표하여 주십시오(※중복체크가능)

① 지금 인력으로 충분하기 때문 ②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
③ 업무생산성이 낮기 때문 ④ 학력과 업무와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
⑤ 지원자의 연령(연령이 높기 때문) ⑥ 직업의식이 부족할 것 같아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Ⅳ. 다음은 귀사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 및 향후 인력수요 파악에 대한 질문입니다.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귀사의 향후 채용예정 인원의 교육훈련수요와 관련하여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직종(직업군) ※ 9-1번 문항의 채용직종 코드번호를 그대로 기입	채용 전 교육훈련		교육 훈련기간 (개월)	교육 훈련 수준			교육 훈련 프로그램 (※붙임자료_훈련과정 예시 참조)
	필요(인원)	불필요		초급	중급	고급	
1)	① 명	②	개월	①	②	③	
2)	① 명	②	개월	①	②	③	
3)	① 명	②	개월	①	②	③	
4)	① 명	②	개월	①	②	③	
5)	① 명	②	개월	①	②	③	
6)	① 명	②	개월	①	②	③	

Ⅴ. 다음은 서울시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V표해 주십시오.

1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서울시 여성교육훈련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구분	전혀모른다	모른다	그저그렇다	조금안다	잘 안다
여성능력개발원(동부여성플라자)	①	②	③	④	⑤
여성발전센터	①	②	③	④	⑤
여성인력개발센터	①	②	③	④	⑤

※ 서울시에는 현재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부·남부·북부·중부의 4개 여성발전센터와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19개소의 서울시 지원을 받는 여성직업교육 훈련기관이 있으며, 이 기관을 중심으로 여성의 능력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13-1. 귀사 여성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위의 여성교육훈련기관이 수행하였으면 하는 교육훈련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구체적인 교육내용: _____).

14. 귀사는 업종차원의 인력양성을 위해서 서울시, 조합이나 협회,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양성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불필요함 ② 별로 필요치 않음 ③ 그저 그러함
④ 다소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14-1. (위 문항에서 ④, ⑤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업종별 인력양성을 하는 것이어서 업계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여겨져서
② 현행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등의 인력양성이 산업의 요구와 불일치하여서
③ 정부의 정책과 현장과의 밀착형 인력양성을 연계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서
④ 업계가 영세하여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행정기관의 지원으로 실질적인 사업이 가능하므로
⑤ 기타(구체적으로_____)

15. 귀사가 소재한 해당권역의 권역기업 성장 및 고용활성화, 특히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을 통한 권역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의 시급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시급하지 않음	시급하지 않음	그저그러함	시급함	매우 시급함
1) 잠재적 여성 인력에 대한 연수 및 체험 지원 (예시 : 여성 인턴십 사업의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2) 여성고용에 대한 장려금 지급	①	②	③	④	⑤
3) 여성인력양성을 위한 훈련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채용 박람회 등 여성채용정보제공의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5) 여성재직자의 근로능력향상(재직자 훈련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기업 설립년도	년	자본금(2008년말 기준)	천원
매출액(2008년말 기준)	천원	인건비(2008년말 기준)	천원

면 접 원		면 접 일 시	

※ 붙임: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및 훈련 분류 예시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기준 훈련분류(예시)

010 관리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고위임원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14 건설·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01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직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020 경영 · 회계 · 사무 관련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021 경영·회계 관련 전문직	전시컨벤션디자인, 컨벤션전문가
022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	정보제공창업, 정보검색사,사회조사 및 마케팅, 인터넷유통종합실무, 재무관리사 등
023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직	전산경리회계, OA회계, 사무자동화&전산경리 등
024 안내 및 고객관련 서비스직	병원서비스매니저, 병원코디네이터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전산사무인력양성,컴퓨터활용&웹실무,컴퓨터활용능력, MS-Office

030 금융 · 보험관련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031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33 보험 관련 영업직	

040 교육 및 자격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리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042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3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044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5 학교교사	
046 학원강사	방과후아동지도사,방과후전문아동지도사,인터넷강사과정, IT강사교육과정, 컴퓨터교사 인력양성 등

050 법률 · 경찰 · 소방 · 교도 관련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051 법률 전문직	
052 법률 관련 사무직	
053 경찰·소방·교도 관련직	

060 보건 · 의료 관련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064 간호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간호조무사,간호조무사전문과정,간병인,요양보호사

070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071 사회복지 전문직	직업상담사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073 종교관련직	

080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관련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CTS, DTP전자출판, 디지털편집디자인, 전자출판 실무와 온라인 브로셔디자인, 디지털그래픽편집디자인, 출판디자인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디지털사진기능사, 디지털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디자인, 캐릭터애니메이션, 3D애니메이션, 플래쉬애니메이션
085 디자인 관련직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시각디자인, 웹및영상, 멀티미디어디자인, 제도사(캐드윈) 등
086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프로듀서, 게임프로듀서[게임디자인]
087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영상편집특수효과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직	

090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091 선박·항공기 조정 및 관제 관련직	
092 철도·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 운전 관련직	지게차 및 굴삭기운전,타워크레인 운전, 항만하역장비시스템, 지게차 운전, 적하장비현장실무
095 운송관련 단순직	

10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중개인	
103 판매원	매장전문가 과정, SOHO창업, 쇼핑몰운영,텔레마케팅관리사양성, 전문텔레마케터
104 판매 관련 단순직	

110 경비 및 청소 관련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111 경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120 미용 · 숙박 · 여행 · 오락 · 스포츠 관련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12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이용, 미용, 토탈미용, 뷰티케어, 전문피부관리사, 메이크업코디네이터, 뷰티디자인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웨딩플래너
123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항공여행관리,국내여행안내, 국외여행안내, 항공실무전문가과정, 호텔객실관리사, 호텔룸어텐던트, 호텔리어양성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25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직	골프캐디
126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130 음식 서비스 관련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131 주방장 및 조리사	외식창업, 조리 및 창업조리, 조리종합, 외식창업 및 취업조리, 코스요리, 퓌페음식, 외식요리전문, 호텔조리, 한식양식일식, 동서양조리전문, 출장요리사, 조리전문가양성과정, 외식산업 및 위탁급식산업, 반찬전문가, 한식조리, 폐백음식,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등
132 조주사	조주기능사과정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140 건설 관련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엔지니어)	건축시공, 토목, 측량설계, 측량
142 전통건물 건축원	전통가옥, 한옥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144 석공 및 조적원	
145 목공	
146 건축완성 관련직	
147 건설기계운전원	중장비실무,건설장비실무,토목용중장기운전실무,로우더운전,건설기계운전,굴삭기 운전 등

150 기계 관련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151 기계공학기술자[엔지니어]	
152 기계장비설치 및 정비원	성형기계정비, 기계설비배관, 승강기보수, 공조냉동기계, 열냉동설비, 공조냉동관리산업기사, 고압가스냉동기계, 고압가스냉동등, 보일러시공, 건설기계기관 정비 등
153 운송장비 정비원	항공기정비, 항공기기체정비,
154 자동자 정비원	자동차정비 및 관리, 차체정비, 자동차기관정비, 자동차 검사 등

160 재료(금속 · 유리 · 점토 · 시멘트) 관련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161 금속 및 재료공학기술자	
162 판금관련직	금속제조, 금속재료, 소성가공
163 단조원	

170 화학 관련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171 화학공학 기술자[엔지니어]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180 섬유 및 의복 관련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커텐봉제, 봉제-의류수선리폼, 봉제, 인견봉제, 의류제작과 리폼, 홈패션, 의복제작, 한복, 양장 등

190 전기 · 전자 관련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191 전기·전자공학 기술자[엔지니어]	전자부품설계, 전자회로설계·시험,전기공사설계·견적, 전기공사 감리
192 전공	전기(안전)기사, 전기소방설비, 전기설비관리자,
193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PC&가전AS, PC&디지털가전제품수리
194 발전장치 조작원	발전설비 시공·운용
195 전기설비 조작원	전기설비 시공·운용, 전기제어운용
196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제조장치 조작원	전기제품 제조,전자부품제조, 반도체부품제작·검사
197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조립 검사원	전자회로활용전문가

200 정보통신 관련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정보통신, 초고속정보통신, 정보통신(SI), 이동통신전문기술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경영정보관리, 컴퓨터정보시스템, 컴퓨터응용설계, 컴퓨터유지관리전문가, 정보기술전문가, 컴퓨터전문가, 컴퓨터마스터, 컴퓨터제어시스템,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데이터베이스관리, 네트워크시스템분석 및 관리, 컴퓨터 보안 전문가, 웹개발자
20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인터넷 방송기술 실무, 모바일&무선인터넷관리사

210 식품가공 관련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211 식품공학기술자	
212 식품가공 관련직	제과제빵,떡전문가과정, 병과(떡한과)

220 환경 ·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및 생산단순직

소분류 및 세분류 [직업명]	훈련과정(예시)
221 환경공학기술자	
222 비파괴·안전공학 관련직	비파괴시험기기, 소방설비, 시설관리사, 위험물관리, 고압가스, 가스안전관리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상하수, 소각]	환경관리, 대기환경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펄프·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간판제작·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피아노 조율, 악세사리공예, 귀금속가공과정, 귀금속공예, 귀금속세공, 보석감정.감별, 간판디자인, 렌즈가공
227 생산 관련 단순직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를 위한

자치구 인적자원개발 관련 조사지(여성정책)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으로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 실현을 선도하는 여성가족종합전문기관'입니다.

본 재단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자치구별 산업체 특성 및 자치구의 여성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 관련 시설 현황, 권역 여성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질문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모두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자료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감사의 표시로 답변하신 분에게 문화상품권(1만원권)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09. 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사관련 문의처>>
연구진: 조연숙, 김지은(810-5185, 5021)

※ 다음은 귀 자치구의 권역특성(산업체 구성, 종사자 수 등)과 연계한 인적자원 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V표 혹은 관련내용을 적어주십시오.

1. 귀 자치구는 최근 3년간 권역 산업정책 육성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방안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_____① 있음(☞문1-1로)　　_____② 없음(☞문2로)

1-1. 수립하고 계신 경우, 계획의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주십시오(계획의 목표, 기간, 소요예산, 추진대상 및 사업 등) ※'계획수립' 관련 자료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계획의 목표	
계획기간	
총 소요예산	
추진대상 및 사업	

2. 권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사업으로 권역인재의 발굴, 교육(직업훈련), 취·창업 연계를 위한 박람회 개최 등을 포함한다고 할 때, 귀 자치구에서는 이와 같은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비 및 시 지원, 자치구 자체사업 포함)

1) 권역인재의 발굴 사업(2008~2009)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대상 (여성,남성/아동,청소년 등)	사업예산(천원)	비고*

*비고란에는 국비 지원, 시비 지원, 자치구 자체사업 등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직업훈련 지원 사업(2008~2009)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대상 (여성,남성)	사업예산	비고*

*비고란에는 국비 지원, 시비 지원, 자치구 자체사업 등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인적자원 활용 관련 사업(취·창업 박람회 개최지원 등)(2008~2009)

사업명	사업기간	참가대상	사업예산	비고*

*비고란에는 국비 지원, 시비 지원, 자치구 자체사업 등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 자치구에 소재하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 현황을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적어 주십시오.

구 분	기관 수	기관명
총 계		
대학교		
사설학원		
공공직업훈련기관		
취업 및 고용정보제공 및 알선기관(공공기관)		

4. 권역의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의 지원과 협조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서울시 제안과제에 참조하여 반영예정)

_____

_____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를 위한

자치구 인적자원개발 관련 조사지(산업정책)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으로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 실현을 선도하는 여성가족종합전문기관'입니다.

본 재단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자치구별 산업체 특성 및 자치구의 여성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 관련 시설 현황, 권역 여성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질문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모두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자료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감사의 표시로 답변하신 분에게 문화상품권(1만원권)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09. 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사관련 문의처>>
연구진: 조연숙, 김지은(810-5185, 5021)

※ 다음은 귀 자치구의 권역특성(산업체 구성, 종사자 수 등)과 연계한 인적자원 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V표 혹은 관련내용을 적어주십시오.

1. 귀 자치구는 최근 3년간 권역 산업정책 육성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방안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_____① 있음(☞문1-1로)　　_____② 없음(☞문2로)

1-1. 수립하고 계신 경우, 계획의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주십시오(계획의 목표, 기간, 소요예산, 추진대상 및 사업 등) ※'계획수립' 관련 자료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계획의 목표	
계획기간	
총 소요예산	
추진대상 및 사업	

2. 권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사업으로 권역인재의 발굴, 교육(직업훈련), 취·창업 연계를 위한 박람회 개최 등을 포함한다고 할 때, 귀 자치구에서는 이와 같은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비 및 시 지원, 자치구 자체사업 포함)

1) 권역인재의 발굴 사업(2008~2009)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대상 (여성,남성/아동,청소년 등)	사업예산(천원)	비고*

*비고란에는 국비 지원, 시비 지원, 자치구 자체사업 등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직업훈련 지원 사업(2008~2009)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대상 (여성,남성)	사업예산	비고*

*비고란에는 국비 지원, 시비 지원, 자치구 자체사업 등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인적자원 활용 관련 사업(취·창업 박람회 개최지원 등)(2008~2009)

사업명	사업기간	참가대상	사업예산	비고*

*비고란에는 국비 지원, 시비 지원, 자치구 자체사업 등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 자치구에 소재하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 현황을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적어 주십시오.

구 분	기관 수	기관명
총 계		
대학교		
사설학원		
공공직업훈련기관		
취업 및 고용정보제공 및 알선기관(공공기관)		

4. 권역의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의 지원과 협조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서울시 제안과제에 참조하여 반영예정)

_____

_____

2009–정책개발–017

서울시 지역(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안 연구

발행인 박현경
연구자 조연숙 · 김주섭 · 이상돈 · 김지은
발행일 2009년 11월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전 화 02. 810. 5101(代)
www.seoulwomen.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인쇄처 : 경성문화사 02 786 2999